서울 방언의 음운론

유필재

月印

머리말

필자는 석사논문을 쓰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이론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어 커다란 문제를 이리 저리 끼워 맞추고 또 그것을 논문의 모양으로 만들어 내느라고 마음 고생이 심했다.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문제를 다루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엉성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래서 박사논문은 꼭 자료가 많이 있는 주제로 쓰고 싶었다. 안병희 선생님의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硏究≫(塔出版社, 1978)처럼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자료들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그것으로 저절로 체계가 드러나는, 그런 논문을 쓰고 싶었다.

운이 따라 주었다. 1997년에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했는데 마침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서울 토박이말을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리고 필자는 이 프로젝트에 조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97년 한 해 동안 열 분의 제보자를 조사하고 서울말의 대강을 짐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조사항목을 달리 해서 98년에도 이어졌다.

서울말을 자료로 학위논문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1999년에는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조사를 하였다. 2년 동안 제보자를 해 주셨던 분 중에서 세 분을 골라 집중적인 조사를 하였다. 세 분 중 특히 임귀동 할머님은 시간적 여유도 많으셨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데다가 필자를 손자처럼 귀여워해 주셔서 조사가 재미있었다.

99년 당시 필자는 학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때 조사 다니던 기억이 생생하다. 토요일 오전에 조교 근무를 마치면 할머님댁인 숭인동으로 1호선을 타고 갔다. 댁 근처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과자를 조금 사 들고 찾아 뵈면 저녁 먹기 전까지는 내내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로 남은 100여개의 테이프와 5권의 노트를 가지고 2001년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 박사학위논문을 다듬은 것이다. 우선 용어를 일부 바꾸었다. 간결성을 우선시 하여 사용한 생소한 용어들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 썼다. 학위논문을 제출한 후에 미처 읽지 못한 논저나 그 후에 새로 나온 논저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것을 결론 뒤에 '補註'로 추가하였다.

모습이 단행본으로 바뀌면서 논문의 앞에 있던 인준지가 없어졌다. 인준지에는 이 논문을 심사해 주신 김완진, 이병근, 최명옥, 이상억, 김성규 선생님, 이 다섯 분의 성함이 쓰여 있다. 다듬지 못한 거친 글을 읽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 지금도 죄송스럽다.

일일이 성함은 들어 말하지 못하지만 이 책의 곳곳에는 필자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88년에서 94년, 그리고 97년에서 98년 사이에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배어 있다. 특히 최명옥 선생님과 이현희 선생님은 필자가 1학년 때부터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부 때부터 지도교수이신 이병근 선생님은 언제나 필자를 격려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선배, 동학들의 앞선 연구를 보고 문제를 해결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 연구도 다른 연구자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상업성은 전혀 없는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월인의 박성복 사장님과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책을 만들어 주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6년 12월 1일
유 필 재 씀

목 차

머리말 · 3

Ⅰ. 서 론 ··· 13
1.1 연구 목적과 의의 ··· 13
1.2 연구 대상 ··· 16
1.3 연구사 ··· 19
1.4 서울방언의 위치 ··· 22
1.5 논의의 구성 ··· 28
1.6 자료의 표기 방법 ··· 28

Ⅱ. 음운체계와 음운배열 ··· 31
2.1 음운체계 ··· 31
2.1.1 자음 ··· 31
2.1.1.1 목록 ··· 31
2.1.1.2 체계 ··· 35
2.1.2 모음 ··· 37
2.1.2.1 목록 ··· 37
2.1.2.2 체계 ··· 47
2.1.3 운소 – 음장 ··· 49

2.2 음운배열 ···································· 50
2.2.1 어두 위치 ································ 53
2.2.1.1 CV- ································ 53
2.2.1.2 CSV- ······························· 57
2.2.2 비어두 위치 ······························ 61
2.2.2.1 -C1C2- ···························· 61
2.2.2.2 -V1V2- ···························· 63
2.2.2.3 -CV- 및 -VC- ···················· 66
2.3 한자어 및 외래어 ···························· 68
2.3.1 한자어 ··································· 68
2.3.2 외래어 ··································· 69

III. 교체의 유형과 기본형 설정 ··················· 71
3.1 기술 방법과 범위 ···························· 71
3.2 교체의 유형 ································· 76
3.3 체언 어간과 어미 ···························· 80
3.3.1 체언 어간 ································ 80
3.3.1.1 말음이 자음인 어간 ················· 80
3.3.1.2 말음이 모음인 어간 ················· 94
3.3.2 체언 어미(조사) ·························· 98
3.3.2.1 두음이 자음인 어미 ················· 98
3.3.2.2 두음이 모음인 어미 ················· 100
3.4 용언 어간과 어미 ···························· 105
3.4.1 용언 어간 ································ 107
3.4.1.1 말음이 자음인 어간 ················· 107
3.4.1.2 말음이 모음인 어간 ················· 158
3.4.2 용언 어미 ································ 201
3.4.2.1 두음이 자음인 어미 ················· 201
3.4.2.2 두음이 모음인 어미 ················· 203
3.4.2.3 두음이 매개모음인 어미 ·············· 209

IV. 음운과정 ········· 219
4.1 자음과 자음 사이의 음운과정 : -C1C2- ········· 220
4.1.1 평음화와 치조폐쇄음화 ········· 220
4.1.2 자음군단순화 ········· 222
4.1.3 경음화 ········· 227
4.1.4 비음화 ········· 247
4.1.5 유음화 ········· 250
4.1.6 격음화 ········· 252
4.1.7 후부변자음화 ········· 254
4.2 모음과 모음 사이의 음운과정 : -V1V2- ········· 255
4.2.1 모음 탈락 ········· 256
4.2.2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 ········· 261
4.3 자음과 모음 사이의 음운과정 : -CV-, -VC- ········· 271
4.3.1 'ㅎ' 탈락 ········· 271
4.3.2 w 탈락 ········· 272
4.3.3 구개음화 ········· 273
4.3.4 'ㄴ' 삽입 ········· 275
4.3.5 원순모음화 ········· 277
4.4 음운과정 사이의 관계 ········· 281

V. 결론 ········· 285

補註 ········· 290

참고문헌 ········· 295

〈부록〉
I. 체언 어미 목록 ········· 303
II. 용언 어미 목록 ········· 307

Abstract ········· 319

<사용기호 일람>

( )	1. 해당 예의 의미(의미는 한자, 표준어, 連語로 표시)
	예) 쓰다(苦)
	다님(대님)
	짜다(상투를~)
	2. 예문 중 생략된 부분 보충.
	예) 이렇게 앨: 써서 (농사를) 해 노면
	3. 공존형 중 열세형
	예) 라면(~나면)
/	조건교체 관계
~	자유교체 관계(공존형)
[ ]	음성 표시
/ /	음소 표시
// //	형태음소 표시
{ }	형태소 표시
≪自≫	자연스러운 日常에서 나타난 發話形
≪質≫	質問紙에 의한 應答形
≪文≫	文語形
≪優≫	優勢形(하나의 형태소에 두 가지 이상의 어형이 나타날 때 그 중)
≪劣≫	劣勢形(하나의 형태소에 두 가지 이상의 어형이 나타날 때 그 중)
小	작은말
	예) 오비다-小
大	큰말
	예) 우비다-大

!	불규칙용언
i	불완전용언
	예) 딛다i
___(밑줄)	1. 고정적 장음
	예) 얻:다
	2. 예문 중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형
	예) 당신이 내 발짜국이 다섯 발짜국 갈 똥안에
∅	제로
^	連語 관계에 있는 용언
	예) 편 ^(가르다)
vi	자동사
vt	타동사
a	형용사
≪≫	문헌 표시
	예) ≪한불ᄌᆞ뎐≫
:	어휘적 장음
::	표현적 장음
*(左肩)	재구형
	예) *다라 ᄒᆞ다
×(右肩)	부적격형
	예) 딛어×
I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예) I 먹구
II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예) II 먹어서
III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예) III 먹으믄

α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중 반모음화를 겪은 형태
β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중 반모음 삽입을 겪은 형태
ϒ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중 모음충돌을 유지한 형태
δ	그 외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A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어미 모음이 '아X'인 것
E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어미 모음이 '어X'인 것
$	음절 경계

Ⅰ. 서 론

1.1 연구 목적과 의의

본고는 현대 서울방언에 관한 음운론적, 형태음운론적 사실을 공시론적으로 정리·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이 연구는 표준어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을 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우리나라의 표준어가 이 방언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표준어의 근간이 된 서울방언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표준어가 올바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서울방언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간단한 예 하나를 들어 보기로 하자. 국어에서 복합명사를 만들 때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이른바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두번째 구성요소가 되는 명사의 어두 자음이 경음화되는 경우가 있다(빨랫돌 /빨랟똘/). 그런데 복합명사에서 사이시옷이 개재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는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주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텟실'과 같은 예가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텟실'이란 서려 놓아 한 묶음이 된 실을 말하는데 사전에 따라 표준으로 채택한 형태가 다르다. <금성>, <조선>, <민중>, <표준>[1] 등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테실'을 표준으로 내세우고 '텟실'은 방언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텟실'을 표준으로 제시한 사전은 <한글> 정도이다. 조사 결과 이 방언은 '텟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실이 표준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방언에 대한 연구는 국어사 연구와 연결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 근대 시기의 한글 문헌들에 담겨 있는 언어는 대부분 지금의 서울방언의 직접적인 선조가 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와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는 것은 표준어가 아니라 현대의 서울방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대의 서울방언에 대한 자료 정리와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어사 연구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방언 자료가 국어사 연구에 영향을 주는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자. {花}를 뜻하는 중세국어는 '곶(L)'이다.[2]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꽃'이기 때문에 흔히 '곶 > 꽃'과 같은 변화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이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꼿(꼿이라구 그러지, 꼿은)'이기 때문에 '곶'에 대한 변화의 최종 단계는 '꼿'으로 보아야 한다. 동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가 있다. 후기 중세국어의 {植}, {鎖}를 의미하는 동사는 불규칙용언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자음 앞에서는 '시므, ᄌᆞᄆᆞ', 모음 앞에서는 '싦, ᄌᆞᆱ'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

1) 본고에서 사용된 사전의 약호는 '참고문헌' 부분 참조.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서울방언과 달리 중세의 서울방언은 높낮이의 차이가 의미를 구별하는 데 이용되었고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일반적으로 '傍點'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인데 본고에서는 관례를 따라 平聲, 去聲, 上聲을 각각 L, H, R로 표시한다.

(1) a. 시므고, 심거, 시므니

b. ᄌᆞᄆᆞ고, ᄌᆞᆷ가

중세국어 당시에는 같은 부류에 속하던 이 두 동사가 표준어로는 각각 '심:다, 잠그다'가 되어 서로 다른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서울방언으로는 각각 '싱그다, 장그다'로 완전히 동일한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표준어인 '심:다, 잠그다'를 반사형으로 하면 국어의 변화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규칙적인 변화가 표준어에서 왜곡된 다른 예를 이른바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는 단어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기 중세국어에는 체언과 용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어간들이 존재한다.

	1	2	3	4
체언	낡/나모	놀ㅇ/노ᄅᆞ	ᄆᆞᆯㄹ/ᄆᆞᄅᆞ	아ᇫㅇ/아ᅀᆞ
용언	시ᇝ/시므-	달ㅇ/다ᄅᆞ-	몰ㄹ/모ᄅᆞ-	ᄇᆞᇫㅇ/ᄇᆞᅀᆞ-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어간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뉘는바 같은 부류에 속한 어간들은 문법 범주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체언과 용언 모두- 같은 교체 양상을 보였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이형태 중 전자는 모음 앞에 나타나는 형태이고 후자는 자음 앞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런데 현대의 표준어에서는 이 어간들이 다음과 같이 변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2	3	4
체언	나무	노루	마루	아우
용언	심-	달리/다르-	몰리/모르-	부수-

표준어만 보면 체언은 모두 어간의 단일화를 이루었음에 반하여 용언의 경우는 아직도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이 음운 현상에 있어 체언과 용언의 차이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로 제시되곤 하였다. 그러나 서울방언을 대상으로 하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1	2	3	4
체언	나무	노루	마루	아우
용언	싱그-	달르-	몰:르-	부시-

서울방언은 후기 중세국어에서 비자동적인 교체를 보이던 대부분의 예가 문법적 범주와 관계없이 단일한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음을 보여준다.[3]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던 어간들에 대해서는 어간의 단일화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의 차이 같은 것은 언급될 수 없는 것이다.

1.2 연구 대상

본고의 연구 대상은 서울 가운데에서도 특히 종로구, 중구에서 사용되던 토박이말이다.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필자가 1997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행한 직접 대면 조사를 통해서 얻은 음성 자료이다. 둘째 부류는 이미 간행되어 활자화된 서울방언 자료이다. 첫째 부류의 자료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둘째 부류의 자료를 보충해서 사용하였다.

3) 용언 어간 중 '부시-'만은 어간말 모음이 다른 예들과 다르다. '부시-'도 원래는 어간말 모음이 'ㅡ'였지만 근대국어에서 일어난 치찰음 'ㅅ, ㅈ, ㅊ'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ㅡ > ㅣ) 때문에 '부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부스- > 부시-).

첫째 부류에 속하는 음성 자료들을 채집한 제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귀동(여) : 1907년생. 종로구 사직동 출생·성장. 10대 후반에 다동으로 출가한 後 40대 초반부터 황학동에서 거주. 16대 이상 거주 추정. 배우자 다동 출신. 부친 대한제국 度支部 典圜局 근무.

[2] 안영선(남) : 1921년생. 종로구 삼청동 출생·성장, 현재까지 거주. 적어도 3대 이상 거주. 배우자 혜화동 출신. 부친 警務局 위생과에 근무.

[3] 이명숙(여) : 1926년생. 종로구 이화동 출생·성장. 체부동으로 출가한 후 현재까지 거주. 적어도 3대 이상 거주. 배우자 체부동 출신.

[4] 이영우(남) : 1917년생. 중구 삼각동 출생·성장. 600년 이상 거주.

제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우선 제보자의 연령은 1930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으로 한정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6·25 사변을 기점으로 각지로부터 이주한 다른 방언 화자들의 영향이 이 방언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음 'ㅔ'와 'ㅐ'의 구별이 점차 사라져 간다든지 음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 방언으로서는 현 단계가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방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교적 순수한 서울말을 구사할 수 있는 화자는 1950년 중반 이전에 이미 청소년 시기를 지낸 사람이어야 한다. 대략 193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조건에 맞는 제보자일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적어도 3대 이상 거주해 온 경우, 양친 모두 서울 출신인 경우, 배우자 역시 서울토박이인 경우만 제보자로 채택하였다.

상기 제보자 중 주제보자는 [1] 제보자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자료들

중 따로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이 제보자로부터 조사된 것을 제시한 것이다. [4] 제보자는 직접 대면 조사는 하지 못하였고 조사 자료가 녹음된 테이프만을 입수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제3장에 제시한 대명사 어간 자료는 대부분 이 제보자의 자료이다.4)

둘째 부류에 속하는 활자화된 서울방언 자료는 다음과 같다.

≪川邊風景≫(1947) 朴泰遠, 博文出版社. 이하 <천>으로 약함.

≪밥해 먹으믄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1991) 구술 한상숙·편집 목수현, 뿌리깊은나무. 이하 <한>으로 약함.

≪서울토박이말자료집(Ⅰ)≫(1997) 국립국어연구원. 이하 <서Ⅰ>로 약함.

≪서울토박이말자료집(Ⅱ)≫(1998) 국립국어연구원. 이하 <서Ⅱ>로 약함.

≪川邊風景≫은 박태원의 대표적 장편소설이다. 박태원은 1909년 서울의 종로구 수송동 출생으로 전형적인 서울토박이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 소설은 1930년대 청계천 부근에서 일어나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소설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언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대사에 나타나는 언어 사실은 필자가 실제로 조사한 서울방언과도 일치한다.

≪밥해 먹으믄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는 뿌리깊은나무社에서 간행한 민중자서전 시리즈의 하나로 서울토박이인 한상숙씨의 구술을 한글로 전사한 것이다. 구술자인 한상숙은 1918년생으로 서울 종로구 와룡동 출생이다.

≪서울토박이말자료집(Ⅰ)≫과 ≪서울토박이말자료집(Ⅱ)≫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한국방언조사질문지≫를 주된 질문지로 하여 직

4) [4] 제보자의 조사 테이프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신 이상억 선생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접 대면 조사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역시 종로구와 중구 출신이 대부분이다. 또 ≪서울토박이말자료집(Ⅰ)≫에는 많은 양의 일상의 발화 자료가 전사되어 있다.

위의 자료들 중 <천>과 <한>에 수록된 서울방언 자료에는 장음 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본고에서 인용할 때도 원문의 상태 그대로 인용한다.

1.3 연구사

서울방언은 표준어 제정같은 규범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이 되며 국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방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양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서울방언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는 崔鶴根(1963), 李基文(1972), 이병근(1991), 이상억(2000), 宋喆儀·兪弼在(2000)을 들 수 있다. 이병근(1991)은 서울토박이 화자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이상억(2000)은 서울토박이 작가인 한무숙의 소설 속 대화를 근거로 음운, 형태, 어휘의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다. 특히 이병근(1991)에서는 서울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이 거의 대부분 지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宋喆儀·兪弼在(2000)은 구술 자료가 아닌 실제 대면 조사에 의한 자료로 이 방언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이 방언에 대한 연구로는 모음론이 가장 많았다. 이는 표준어의 모음체계가 이 방언의 모음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이 방언의 모음체계가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선명하게 그 실체를 포착해 내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방언의 단순모음목록은 기본 모음 4개(Kim, Chin-W. 1968)를 주장한 연구부터 10개(李基文 1972)를 제시한 논저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ㅟ, ㅚ'를 이중모음으로 보아 8 모음체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김정수 1998) 9 모음체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梅田博之 1991, 1994). 토박이 화자들의 심리적 실재와 거리가 있는 4 모음설(Kim, Chin-W. 1968)을 논외로 하면 연구자에 따라 모음체계가 달리 파악되는 것은 'ㅓ, ㅟ, ㅚ'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이 그 주된 원인이다.

2장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 방언의 'ㅚ, ㅟ'는 선행 자음에 따라 변이음의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단순모음으로도, 이중모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ㅚ, ㅟ'를 이중모음 /we, wi/로 해석하고 8 모음체계를 주장한 논저들은 꽤 있지만 김정수(1998)를 제외하면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은 드물었다.

李炫馥(1971b:23f)에서 유사대립쌍인 '열:다 [jə:l-]'와 '열:(ㅓ) [jʌ:l]'을 근거로 두 개의 음소 /ə:/와 /ʌ:/가 설정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고 그 후 梅田博之(1991, 1994)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이어졌다. 梅田博之(1991, 1994)에서 'ㅚ, ㅟ'를 이중모음으로 처리하고도 9 모음체계를 주장하게 된 것은 문자 'ㅓ'에 해당하는 두 음 ɔ와 ə:를 변이음이 아닌 별개의 음소로 처리했기 때문이다.[5]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이 방언의 ɔ와 ə 이외의 모음은 모두 어두에서 장단의 대립이 있으나 단모음과 비교해 장모음이 중설모음화하는 예는 하나도 없다. 둘째 [tʃəi, jəls'we]와 같이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ə도 있고 반대로 [jɔ:l, k'ɔ:mɔn] 처럼 장모음으로 나타나는 ɔ의 예도 있다.[6]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된 'ㅓ'의 음가 차이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어 시기에 'ㅓ'는 음성적으로 중설모음인 [ə]였으

---

5) 사전 중에서도 이러한 처리를 한 것이 있다(남광우 · 이철수 · 유만근 1984).

6) 短母音인 'ㅓ'를 ɔ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ㅓ'를 ɔ로 표시한 논저로부터 인용할 때는 원문에 따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ㅓ'가 비원순모음인 점을 중시하여 ʌ로 표시하기로 한다.

나 'ㆍ'가 모음체계에서 사라짐에 따라 'ㅓ'는 후설 쪽으로 끌리게 되어 [ʌ] 가 되었다.[7] 장음인 'ㅓ:'가 후설 쪽으로 끌리지 않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시기(19세기)에 있었던 중모음의 고모음화(ə: → ɯ:) 때문일 것이다.[8] 이 중모음의 고모음화 때문에 短母音 ə가 후설로 옮겨 간 것과 달리 長母音 ə:는 중설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둘째 근거에 대해서는 '열쇠'와 '열'은 단순히 어느 한 쪽 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두 변이음 모두 나타나며[9] '꺼:먼'처럼 표현적 장음의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음가의 변화 없이 [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두 모음은 최소대립쌍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ʌ와 ə:를 별개의 음소로 처리한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 이 방언의 助詞 목록을 제시한 宋玄鎬(1996)와 용언 어간 중 말음이 자음인 것들에 대한 교체 양상을 제시한 유필재(2000a)도 이 방면의 연구로 들 수 있다. 白斗鉉(1991)에서 제시된 자료는 20세기 초반의 서울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다른 활자화된 자료인 <천>이나 <한>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학실히(확실히), 거무(거미), 푸리기(푸르기), 길거웁게(즐겁게)' 등의 예는 위의 두 자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음운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補註 1)

---

7) 李基文(1961:165) 참조. 특히 이전에 'ㆍ'를 가졌던 단어들 중 일부는 근대에 들어 'ㅓ'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金完鎭 1978=1996:91).

네리다(< ᄂᆡ리다), 데리다(< ᄃᆞ리다), 겉다(< ᄀᆞᆮᄒᆞ다), 허다(< ᄒᆞ다), 벌써(< ᄇᆞᆯ셔)
-더러(< ᄃᆞ려), -꺼정(~꺼장)(< ᄭᆞ장)

이것은 'ㅓ'가 이 시기에 모음체계 내에서 후설 쪽의 'ㆍ'로 상당히 이끌렸음을 말하는 증거인 것으로 생각된다.

8) 李秉根(1970=1979:155f) 참조.

9) 宋喆儀 · 兪弼在(2000:11) 참조.

1.4 서울방언의 위치

서울방언도 중부방언 특히 경기방언의 한 하위방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고로는 李秉根 · 박경래(1992) 등이 있다. 李秉根 · 박경래(1992)에서는 어휘들의 분포를 중심으로 경기방언을 북부(서울방언과 비슷함)와 남부(충청방언과 비슷함) 그리고 해안 도서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모음조화라는 음운현상으로 다시 경기방언을 세분하고 그에 따른 서울방언의 위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 매김은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음운현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10)]

우선 어간 말모음이 'ㅏ'인 경우를 보자. 아래 표에서 '●'는 어미 모음 '아' 계열을, 'O'는 어미 모음 '어' 계열을 가리키는데 '앉다'와 같은 예외적인 존재를 제외하면 어간 말모음이 'ㅏ'일 때 모음조화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방언은 '가평'과 '고양'을 경계로 남북으로 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11)]

10) 이하의 자료는 韓國方言資料集(Ⅰ) 京畿道篇(1995)에서 뽑은 것이다.

11) 표에서 '兩'이란 '아'형과 '어'형이 공존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한글로 표시된 부분은 어미가 '아'도 '어'도 아닌 경우 해당 부분을 그대로 쓴 것이다.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작다	-	-	-	-	●	-	○	-	-	-	-	-	-	-	-	●	-	-	-
잡다/았니/았다	●	兩	●	●	●	●	●	●	○	○	○	○	○	○	○	○	○	○	○
본받아라	●	●	●	●	●	●	●	○	○	○	○	-	-	-	-	○	○	○	○
맡아	●	●	●	●	●	●	●	●	●	○	○	○	○	○	○	○	○	○	○
깎다	●	●	●	●	●	●	●	●	○	○	○	○	○	○	○	○	○	●	○
닦아라	●	●	●	●	●	●	●	●	○	○	-	○	○	○	兩	○	○	○	○
감다(洗)	●	●	●	●	●	●	●	●	○	●	○	●	○	○	○	○	○	○	○
말았다	●	●	●	●	●	●	●	●	○	○	○	○	○	○	●	○	○	○	○
알아서/아야	●	兩	●	●	●	●	●	●	兩	○	○	○	兩	○	○	○	○	○	兩
살아서	●	●	●	●	●	●	●	●	●	●	○	○	○	○	○	○	○	●	○
맑아서	●	●	애	●	●	●	●	●	○	○	○	●	○	○	○	○	○	○	○
밝아진다	●	●	●	●	●	●	●	●	●	●	○	○	○	○	○	○	○	○	○
늙다	●	●	●	●	●	●	●	●	○	○	○	○	○	○	○	●	●	○	○
닮았다	●	●	●	●	●	●	●	●	○	○	○	○	○	○	○	○	○	○	○
삶다	●	●	●	●	●	●	●	●	○	○	○	○	○	○	○	○	○	兩	○
밟다	●	●	●	●	●	●	●	●	●	●	○	○	○	○	○	兩	兩	兩	○
짧아서	●	●	●	●	●	●	●	●	○	○	○	○	○	○	○	○	오	○	○
옳아서	●	●	●	●	●	●	●	●	●	○	○	○	○	○	○	○	○	○	○
핥다/핥아	●	●	●	●	●	兩	●	●	○	○	○	○	兩	○	○	○	○	○	○
많아도	●	○	●	●	●	●	●	●	○	○	애	○	○	●	○	○	○	●	○
까다(알~)	●:	애:	애:	●:	●:	-	●:	-	●:	애:	-	-	-	-	-	-	●	●:	-
같아서	●	●	애	●	●	애	애	애	애	애	애	○	애	애	애	○	애	애	애
빻아서	●:	●:	●:	●:	●:	●:	●:	●:	●:	-	●:	●:	-	●:	●:	●	●:	●:	●:
쌓다	●:	●:	●:	●:	●:	●:	●:	●:	●:	●:	●:	●:	●:	●:	●:	●	●	●:	●:
낫다(治)	●:	●:	●:	●:	●:	●:	●:	●:	●:	●:	●:	●:	●:	서	●:	●	●	●:	●:
아름다워서	●	●	●	●	●	●	●	●	○	○	○	○	●	○	○	○	○	○	○
앉아/아라	○	○	○	○	○	○	○	○	○	○	○	○	○	○	○	○	○	○	○

어간 말모음이 'ㅡ'인 경우 'ㅡ'는 이른바 '부분중립'으로[12] 'ㅡ'에 선행하는 음절의 어간 모음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 결과도 앞서 어간말 모음이 'ㅏ'인 경우와 같다.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다듬다	○	○	●	○	●	○	○	○	○	○	○	○	○	○	○	○	○	○	○
들다(擧)	○	○	○	○	○	○	○	○	○	○	○	○	○	○	○	○	○	○	○
거들다	○	○	○	○	○	○	○	○	○	○	○	○	○	○	○	○	○	○	○
드물다	○	○	○	○	○	○	-	○	○	○	○	○	○	○	○	-	○	○	○
늙어서	○	○	○	○	○	○	○	○	○	○	○	○	○	○	○	○	○	○	○
끄다	○	○	○	○	○	○	○	○	○	○	○	○	○	○	○	○	○	○	○
담그/당구다	●	●	●	●	●	○	●	○	○	○	○	○	○	○	○	-	○	○	○
따르/딸우다	兩	●	●	●	●	○	兩	○	○	○	●	○	○	○	○	○	○	○	○
잠그/장구다	●	●	●	○	●	○	●	○	○	○	○	○	○	○	○	○	○	○	○
모르다	●	●	●	●	●	●	●	●	●	○	○	●	●	○	○	○	●	○	○
자르다	●	●	●	●	●	●	●	●	○	○	○	○	○	○	○	○	○	○	○
마르다(몸이~)	●	●	●	●	●	●	●	●	○	○	○	○	○	○	○	○	○	○	○
마르다(裁)	●	●	●	●	●	●	●	●	○	○	○	○	○	○	○	○	○	○	○
마르다(乾)	●	●	●	●	●	●	●	●	●	○	○	○	○	○	○	○	○	○	○
다르다	●	●	●	●	●	●	-	●	●	○	○	○	○	○	○	-	○	○	○
흐르다	○	○	○	○	○	○	○	○	○	○	○	○	○	○	○	○	○	○	○

12) '부분중립'의 개념에 대해서는 李基文(1977:139) 참조.

어간 말모음이 'ㅐ'인 경우도 '맺다'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앞서의 결과와 같다.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뱉다(吐)	●	●	●	●	●	●	●	●	○	○	○	○	○	○	○	○	兩	○	○
깨다(割)	애:	애:	애:	애:	-	애:	애:	애:	애:	애:	애:	-	애:	애:	애:	애:	○	애:	애:
깨다(覺)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	애:	애:
새다(漏)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	애:	애:
꿰매어라	-	-	-	-	-	-	-	-	-	-	-	-	-	-	-	-	○	-	-
포개다	-	-	-	-	-	-	-	-	-	-	-	-	-	-	-	-	○	-	-
매워서	●	○	●	애:	●	●	●	●	●	○	○	○	○	○	○	○	○	○	○
맺다(實)	○	●	○	○	○	○	○	○	○	○	○	○	○	○	○	○	○	○	○

그런데 어간 말모음이 'ㅗ'인 경우는 이제까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 때 어간 말모음이 'ㅗ'라고 한 것은 어간 말음이 모음 'ㅗ'인 경우와 자음 'ㅎ'인 경우 등은 제외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때는 방언차 없이 전국적으로 어미 모음 '아'를 취한다.

(2) a. 오다, 와서, 오면

b. 좋:다, 조:아서, 조:으면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꽂아/아라	●	●	●	●	●	●	●	●	●	○	●	●	○	○	○	○	兩	○	○
쫓아야	●	●	●	●	●	●	●	●	●	●	●	○	-	○	○	○	○	○	兩
곪다	●	●	●	●	●	●	●	●	●	兩	●	●	○	○	○	○	○	○	○
옮았다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간 말모음이 'ㅗ'인 경우에도 모음조화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방언은 남북으로 나뉘지만 그 경계선은 '양

평'과 '광주'로,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어간말 모음은 모두 어미 '어'를 취하므로 차이가 없다. 해당 모음별로 몇 예만을 보인다.

① 어간말 모음이 'ㅚ'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되다(돠)	왜:	웨:	웨:	웨:	외:	왜:	왜:	왜:	웨:	왜:	왜:	왜:	외:	왜:	왜:	○	○	왜:	●
쇠다	왜:	웨:	웨:	웨:	외:	웨:	왜:	왜:	왜:	왜:	○	왜:	○	왜:	왜:	왜어	왜어	왜:	왜:

② 어간말 모음이 'ㅓ'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먹어서/어야	○	○	○	○	○	○	○	○	○	○	○	○	○	○	○	○	○	○	○
얻었다	○	○	○	○	○	○	○	○	○	○	○	○	○	○	○	○	○	○	○
넓다	○	○	○	○	○	○	○	○	○	○	-	○	○	○	○	○	○	○	○
무서워서	○	○	○	-	○	○	●	○	●	○	○	○	○	○	○	○	○	○	○
부럽다	兩	○	○	-	○	○	●	●	●	○	●	○	兩	○	○	兩	○	○	○
부끄럽다	●	○	○	-	○	○	兩	●	○	-	○	○	-	○	○	○	○	○	○

③ 어간말 모음이 'ㅜ'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묻어(埋)	○	○	○	○	○	○	○	○	○	○	○	○	○	○	○	○	○	○	○
물다(噛)	○	○	○	○	○	○	○	○	○	-	○	○	○	○	○	○	○	○	○
추다	○	○	○	○	○	○	○	○	○	○	○	○	○	○	○	○	○	○	○
재워라	○	애:	애:	애:	○	兩	○	○	애:	○	-	○	애:	애:	애:	○	○	○	○
묻다(問)	○	○	○	○	○	○	○	○	○	○	○	○	○	○	○	○	○	○	○
굽다	○	○	○	○	○	○	-	○	○	○	○	○	○	○	○	○	○	○	○

④ 어간말 모음이 ' ㅣ '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신어라	○	○	○	○	○	○	○	○	○	○	○	○	○	○	-	○	○	○	○
싫다	○	○	○	○	-	○	○	○	○	○	○	○	○	○	○	○	○	○	○
읽어	○	○	○	○	○	○	○	○	○	○	○	○	○	○	○	○	○	○	○
기다리다	○	○	○	○	○	○	○	○	○	○	○	○	○	○	○	○	○	○	○

⑤ 어간말 모음이 'ㅟ'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쉽다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간말 모음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	가평	고양	옹진	시흥	양평	광주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ㅏ	●	●	●	●	●	●	●	●	○	○	○	○	○	○	○	○	○	○	○
ㅗ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에 따르면 경기방언은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어간말 모음이 'ㅏ, ㅗ'일 때 모두 어미 '아'를 취하는 지역. 둘째 어간말 모음이 'ㅏ, ㅗ' 일 때 모두 어미 '어'를 취하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간말 모음이 'ㅏ'일 때는 어미 '어'를, 어간말 모음이 'ㅗ'일 때는 어미 '아'를 취하는 지역. 서울방언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므로 경기방언 중 '고양, 옹진, 시흥, 양평'과 같은 부류에 속함을 알 수 있다(지도 참조).

1.5 논의의 구성

본고의 목적은 이 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형태음운론적 사실을 공시론적으로 기술하는 것인데 음운론적 사실은 2장과 4장에서, 형태음운론적 사실은 3장에서 각각 다루어진다. 2장에서는 이 방언의 '음운목록, 음운체계, 음운배열' 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 중 음운배열은 4장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형태소 내부의 음운배열을, 4장에서는 형태소 경계 및 더 상위 단위의 음운배열을 제시한다. 3장과 4장도 서로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3장에서 제시된 교체는 어간 말음 혹은 어미 두음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었으나 이 가운데 음운과정에 의한 것은 4장에서 음운과정별로 다시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본형만을 제시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미의 구체적인 이형태들은 부록에서 예문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본고와 같은 논의는 기술 자체는 공시론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설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공시론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시론적인 원인을 찾아 보고 가능한 경우에는 통시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1.6 자료의 표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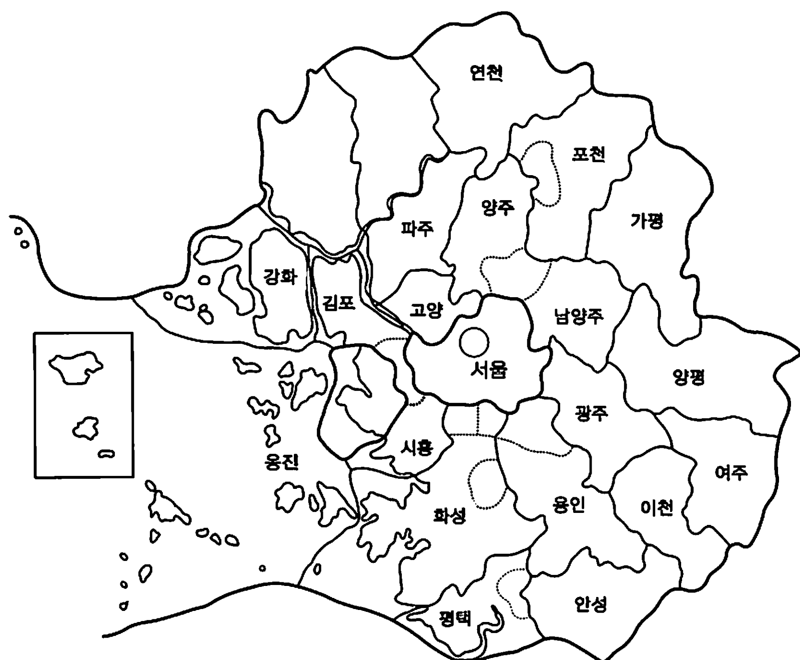
앞으로 본고에서 제시될 자료의 표기 방법을 미리 정해두도록 한다. 자료를 제시할 때는 독해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형태음소적인 표기에 가까운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평음화와 치조폐쇄음화,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 비음화, 連音(liasion) 등의 이른바 자동적 교체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3) a. 여자두 뽑는다구 해서 나를 끌:구 가서 핵교를 입학을 시켜준 거에요
b. 여자두 뽑는다구 해서 나를 끌:구 가서 핵교를 이파글 시켜준 거에요

따라서 (3a)처럼 표기하고 (3b)처럼 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기는 보조 자료인 <천>, <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해졌다. 다만 <천>, <한>에는 장음 표시(:)가 없는데 본고에서 인용할 때도 장음 표시 없는 상태 그대로 인용했다.

이 방언에서 모음 'ㅔ'와 'ㅐ'는 어두 위치에서만 구별되고 비어두위치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어두 위치에서 'ㅔ'로 표기된 것은 음소적으로는 'ㅐ'와 구별되지 않는 음소라고 약속해 두고 현행 철자법에 맞는 표기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중모음 'ㅖ'와 'ㅒ', 'ㅞ'와 'ㅙ'도 비어두위치에서는 구별되지 않지만 철자법에 맞는 표기를 그대로 쓴다.

경우에 따라서 음성적 표기나 음소적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음성적 표기는 '[ ]'로, 음소적 표기는 '/ /'로 구별해서 표시한다.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미리 해당 표기가 음소적, 음성적 표기임을 알려 주도록 한다.



<그림 1> 경기도 및 서울 지도

Ⅱ. 음운체계와 음운배열

2.1 음운체계

2.1.1 자음

2.1.1.1 목록

이 방언에서 사용되는 자음의 음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ㄱ, ㄲ, ㅋ; ㅁ, ㄴ, ㅇ; ㄹ, ㅎ(19개). 이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자음목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음소들은 치환법(commutation test)에 의해 생기는 다음과 같은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a. 발(足) - 팔(腕), 팔다(賣) - 빨다(洗濯)
   b. 다님(대님)[1] - 따님(媤), 뜰(庭) - 틀(機)
   c. 스다(立) - 쓰다(苦, 冠, 書)
   d. 재미(滋味) - 채미(참외), 차다(冷) - 짜다(상투를~)
   e. 기다(爬) - 키다(點火), 끄다(消) - 크다(大)
   f. 매(鞭) - 내('나'의 속격)

1) 일반적으로는 '대님'이 우세형이다.

g. 히다(白) - 피다(敷) - 시다(酸) - 지다(背) - 기다(爬)

(2) a. 글(書) - 금(金) - 근(斤)
b. 방(房) - 밤(夜) - 발(足)

(1)의 예들은 이상에서 제시한 자음 음소들이 어두에서 대립을 보이는 쌍들이다. 그런데 'ㄹ'과 'ㅇ'은 어두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두 위치에서 대립쌍을 찾을 수 없다. '라면(~나면),[2] 라지오(radio)'의 예들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외래어이므로 함께 다룰 수 없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자음목록'이라고 말했던 것은 엄밀하게는 '최대자음목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두에서는 'ㄹ, ㅇ'을 제외한 17개의 자음만이 나타난다(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ㄱ, ㄲ, ㅋ; ㅁ, ㄴ; ㅎ).

이와 같은 제약이 어두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비어두 위치 중 음절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의 수는 'ㅂ, ㄷ, ㄱ, ㅁ, ㄴ, ㅇ, ㄹ'의 7개로 줄어 든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어두 위치 음절말에서 자음이 제약됨을 보이기 위해 자음 앞에서와 모음 앞에서의 형태를 하나씩 보인다.

(3) a. 무릅이라구 - 무릅두, 숲이 - 숩처럼
b. 감:(柿)이 - 감:두
c. 받어 - 받구, 머리맡은 - 머리맏
c'. 빗(負債)이래두 - 빋, 낮이나 - 낟
d. 쥔:이(주인) - 쥔:두

2) 임의의 변항 'X, Y'에 대해 'X~Y'는 X와 Y가 자유교체 또는 공존형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양자가 빈도에 있어 우열 관계에 있을 때는 우세형을 밖으로 내고 열세형은 괄호 안에 묶는다. 그러나 우열을 따질 수 없을 경우에는 나란히 배열한다. '나면'은 '라면'과 공존하기는 하되 빈도에 있어서는 '라면'이 우세하다.

e. 흑이 - 흑보덤, 새벽녘이 - 새벽녁

f. 발빠당으루 - 발빠당

g. 벌:(蜂)을 - 벌:

비어두 위치 음절초에 가장 많은 자음이 온다. 어두에서 나타날 수 없었던 'ㄹ'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4) 시루 - 시누(시누이)

따라서 비어두 위치 음절초에서는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ㄱ, ㄲ, ㅋ; ㅁ, ㄴ; ㄹ, ㅎ' 모두 18개의 자음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ㅎ'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ㅎ'은 이 위치에서 나타나기는 하되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그 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행 음절의 자음이 유음이나 비음일 경우에 가장 자주 나타나고 (돌:학(돌확), 결혼식, 방향)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의 예와 같이 드물게 모음 사이에서도 '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5) 좋:은, 아:흔, 아홉 명, 유:히(遊戱), 도화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음 사이에서는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6) 조:으면, 열아웁(열아홉), 시어머니안테

'ㅎ'은 이와 같이 비어두에서는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산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어두 위치 음절초에서 'ㅎ'은 출현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 위치에서 출현할 수 있는 자음의

수는 'ㅎ'을 제외한 17개가 된다. 본고에서는 드물게나마 이 위치에서 출현하는 'ㅎ'의 존재를 인정하여 'ㅎ'도 자음목록에 넣었다.

변이음의 실현 양상 중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음절말에서 장애음은 일반적으로 미파음 [p˺, t˺, k˺]로 나타난다. 그런데 후행하는 음절의 두음이 /ㅆ/인 경우는 파열된 [p$^{<}$, k$^{<}$]가 관찰된다.[3] 이것은 조음음성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후행하는 마찰음(/ㅆ/)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혀가 조음점에서 떨어져 터지는 과정(파열)이 전제 조건인 것이다.

(7) a. 입살(脣) [ip$^{<}$s'al]
  b. 악수 [ak$^{<}$s'u]

'ㅅ'의 경우는 다소 특이한데 'ㅅ'은 전설모음 앞에서는 구개음인 [ʃ]

3) 특히 [p]의 경우에 쉽게 관찰된다. /ㄷ/의 경우는 정확한 음성 실현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ㅆ/ 앞에서 /ㄷ/의 음성 실현에 대해서는 몇 가지 異說이 있다.
만약 /ㄷ/도 'ㅂ, ㄱ'처럼 'ㅆ' 앞에서 외파된다면 [ts'](/ㄷㅆ/)과 같은 음 연쇄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발음은 잘 들을 수 없다.
이 음 연쇄가 /ss'/ 또는 /ss/처럼 실현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른바 마찰음화설이라 할 것이다. 허 웅(1965:211f, 244, 1985:240), Kim-Renaud(1975b:238f), 崔明玉(1982:147f), 郭忠求(1994a:213-5), 菅野裕臣 外(1991:988)([ss'])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ㄷㅆ/와 같은 자음 연쇄는 불가능하며 늘 /ㄷ/이 탈락한다는 주장도 있다. 탈락설이라 할 수 있다(배주채 1989:99, 1992). 탈락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ㄷ/는 /ㅆ/ 앞에서는 미파되지 못하므로 /ㄷㅆ/은 [ts']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치조파찰음이 된다. 그런데 국어에는 이런 치조파찰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t]가 탈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ts']와 [t$s']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 방언에서 '꽃신다(꽃 센다)'는 [kotʃ'inda] '/꼬찐다/*'로 발음되어야 할 것이다. 탈락설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형태소 내부에 존재하는 자음 연쇄 'C1C2'에서 C1이 'ㄷ'인 경우는 이 방언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음위치 동화 때문이다. 형태소 경계에서 필수적으로 탈락이 일어난다면 이 음운과정은 이와 같은 음운배열제약의 반영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낫다.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4)

(8) a. 힘이 ʃi:mjʌn(세면)

b. ʃewʌ(세워) 둬:라, ʃe:sup'inuru(세숫비누로) 감어, ʃe: mjʌŋ(세 명), 힘이 ʃe:sʌ(세서)

c. 자기 ʃɛŋgakk'wa(생각과) 아주 정:반대라구 · ʃɛŋgagɯl(생각을), 이:쁘게 ʃɛŋgjʌt'agu(생겼다고), ʃɛk'ibal(새끼발), ʃɛkt'ʌk(색떡), ʃɛ:ŋ(生薑)

d. ʃö:gogi(쇠고기)

e. ʃü:pt'a(쉽다), ʃü:(쉬) 깔긴다

2.1.1.2 체계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 속하는 언어 단위(linguistic unit)들은 단순히 목록(list)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대립관계(opposition)를 가진 구성체(construct)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현대 언어학의 한 가정이다. 이러한 구성체를 일반적으로 '체계(system)'라고 부르는데 본고에서도 이러한 가정을 따른다.

음운과 관련된 체계 다시 말해서 '음운체계(phonological system)'는 해당 음운들이 가지고 있는 음성적 속성(phonetic property)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운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성립시키는 음성적 속성을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별 언어의 음운체계에 대한 기술은 음운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성립시키는 변별적 자질들에 대한 기술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5)

---

4) 정확히는 구개치조음(palato-alvelor) [ʃ]이 아닌 치조구개음(alveo-palatal) [ɕ]이지만 관례를 따라 ʃ로 적는다.

5) 그러므로 음운체계에 대한 기술에는 반드시 변별적 자질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변별적 자질 전체에 대한 기술은 하지 못했다. 다

음운체계의 하위 체계인 자음체계는 N. S. Trubetzkoy(1939) 이래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두 축으로 하는 이차원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자음은 그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대립관계에 의해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시각적으로는 가장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이 방언의 자음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국어의 다른 방언들의 자음체계와 같다.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마찰음	평음		ㅅ			
		경음		ㅆ			
		격음					ㅎ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위에서는 조음위치를 다섯으로 구분하였으나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하나의 조음위치로 묶어 조음위치에 의한 구분은 넷만을 두는 경우도 있다.6) 원래 'ㅈ' 계열 자음들은 'ㄷ, ㅅ' 계열들과 조음방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음위치가 아니어도 구분된다. 자음체계를 이렇게 기술하면 음절말에서의 자음 제약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편해진다. 즉 음절말에서 장애음인 모든 자음은 동일 조음위치의 평음인 폐쇄음이 된다고

만 필요한 경우에 관여된 자질을 개별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된 자질은 다음과 같다. [모음성], [자음성], [고설성], [저설성], [유기성], [순음성], [비음성], [grave](=[coronal]).

6) 류응호(1956:108)를 비롯하여 최근의 김성근(1995:98)에 이르기까지 북한 학계에서는 이러한 처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허 웅(1965:205f, 1985:223f), 菅野裕臣(1981:34), 배주채(1992=1998:189, 1995:46) 등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ㅈ' 계열 자음과 'ㄷ' 계열 자음의 조음위치를 동일하게 잡으면 구개음화와 같은 음운과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 방언에서 구개음화란 비구개음인 'ㄷ' 계열 자음이 구개음인 'ㅈ' 계열 자음이 되는, 조음위치의 이동과 관련된 음운과정이기 때문이다. 5 조음위치설은 4 조음위치설에 비해 체계 자체는 덜 정연하지만 음운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조음위치를 다섯으로 잡는 일반적인 방식을 취한다.

2.1.2 모음

2.1.2.1 목록

2.1.2.1.1 단순모음목록

앞 절에서 자음의 음소목록이 어두와 비어두에서 달라짐을 보았다. 모음의 경우는 위치에 따른 음소목록의 차이가 자음의 경우보다 훨씬 심하므로 처음부터 두 위치를 구분하여 음소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① 어두 위치

어두 위치에서 사용되는 단순모음(monophthong)의 음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ㅣ, ㅔ, ㅐ, ㅟ, ㅚ, ㅡ, ㅓ, ㅏ, ㅜ, ㅗ'와 그에 대당하는 長母音으로 총 20개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최소대립쌍으로 확인할 수 있다.

(9) a. 기 ^(죽다)[7] - 귀(耳)
b. 제('저'의 속격) - 죄(罪)

7) 명사 뒤에 連語 관계에 있는 용언을 제시할 경우 '^'를 사용하기로 한다.

c. 띠(帶) - 떼(衆)

d. 떼(衆) - 때(垢), 네('너'의 속격) - 내('나'의 속격), 테(테두리) - 태(胎)

e. 뒤(後) - 되(斗)

f. 그립다!(慕) - 구립다!(臭)[8]

g. 볼 ^(받다) - 벌(罰)

h. 글(書) - 걸(윷놀이의)

i. 나(我) - 너(汝)

j. 꿀(蜜) - 꿀 ^(사:납다!)

이상의 모음 가운데 몇몇 모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론을 요한다. 어두에서 [1] 제보자는 모든 경우에 'ㅔ'와 'ㅐ'를 구별한다(베 - 배, (떡)메 - 매, 테 - 태, 떼 - 때, 제:(사) - 재).[9] [2] 제보자의 경우는 선행자음이 'ㅂ, ㅁ'인 경우는 각각 '삼베 /삼배/, 떡메 /떵매/'로 답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테 - 태'의 경우는 둘을 구분하지 못했다. [3] 제보자 역시 가능한 대립쌍 중 '재 - 제:사' 이외에는 'ㅔ'와 'ㅐ'를 구별하지 못했다.[10] <서 I >에 의하면 종로구 통인동 출신의 1924년생인 ghb[11] 제보자도 '메 - 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로구 팔판동 출신의 1923년생인 cyg 제보자의 경우는 이상의 최소대립쌍은 모두 구분하지 못하며 오직 유사최소대립쌍인 '셋 - 새'의 경우만 'ㅔ'와 'ㅐ'를 구별한다. 종로구 가회동 출신의 1935년생인 jgj 제보자는 '테 - 태, 떼 - 때'만을 구별한다. 한편 종로구 명륜동 출신의 1929년생인 jyw 제보자와 서대문구 아현동

---

8) ' ! '는 해당 용언이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을 보일 때 사용하기로 한다.

9) 초성이 'ㄱ'인 경우의 '게:(蟹) - 개:(犬)'는 이 방언에서 최소대립쌍이 되지 못한다. 표준어의 '게:'는 이 방언에서는 '궤:'이다.

10) 양순음의 경우는 역시 '삼베, 떡메'로 답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11) <서 I >에는 제보자의 성명이 알파벳 약자로 제시되어 있다. 제보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서울토박이말자료집(I)≫(1997)의 '일러두기'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출신의 1932년생인 jsg 제보자는 모든 경우에 'ㅔ - ㅐ'의 구별을 가지고 있다. 두 제보자 모두 대학원졸로 고학력자이다.12) 李基文(1961:181)에서도 당시 서울말에 있어서 'ㅔ - ㅐ'의 구별이 흐려져 가는 경향이 젊은 세대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모음 'ㅔ'와 'ㅐ'는 현재 하나의 음소로 합류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모음의 구분은 제보자의 교육 정도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두 모음을 구분하는 제보자의 연령은 낮아진다. jyw, jsg 제보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13)

전설원순모음인 'ㅚ, ㅟ'의 음성 실현 양상을 [1] 제보자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ㅚ'의 경우는 선행 자음이 'ㄷ, ㅌ, ㄹ, ㅅ, ㅆ, ㅈ'일 때에는(예: 되(升), 툇:마루, 아뢰다, 쇠, 쐬:다, 죄) 단순모음 [ö] 로, 'ㄱ'일 때와 선행자음이 없을 때는(예: 괴:다, 외롭다) 이중모음 [we] 로 발음된다. 'ㅟ'는 선행자음이 'ㄷ, ㅌ, ㄴ, ㅅ, ㅈ'일 때는 단순모음 [ü] 로(예: 뒤, 튀다, 뉘, 쉬, 쥐), 선행자음이 'ㄱ'이거나 선행자음이 없을 때는 이중모음 [wi] 로 발음되는 경향이 강하다(예: 귀, 위). 그런데 'ㅚ, ㅟ' 모두,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후행하는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모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귀'의 경우가 그러하다(예: kwi, küp'akʰwi).14) 선행자음의 종류가 'ㅚ, ㅟ'의 음성 실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이 기원적으로 'ㅚ, ㅟ'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들 중에 선행자음이 없는 것과 선행자음이 'ㄱ, ㅎ'인 것은 'ㅗ, 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15)

---

12) 본고에서는 정식 제보자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1] 제보자의 三男(1937년생)과 장녀의 경우 'ㅔ-ㅐ'의 구별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13) 梅田博之(1994:10f, 16)도 서울토박이 중 1930년대 출생자부터 어두에서 'ㅔ'와 'ㅐ'를 구별할 수 없는 화자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4) 李炫馥(1971b:23)에서는 'ㅟ'에 강세가 없을 때(큰귀가, 생쥐를) 단순모음으로 실현된다는 보고가 있다.

(10) 호색(灰色), 호차리(회초리)

(11) a. 우 · 우에다가~우이루(위)
우패(위패)
우태허다(위태하다)
더우(더위)
조바우(조바위)
북어가 우주지(위주) <한.74>
비우가 가라앉어(비위) <한.79>
가우(가위) <한.94>
따우(따위)
b. 구엽다!(귀엽다)
구찮다(귀찮다)
따:구(따귀)
바쿠~바퀴
쿠퀴(::)허다(퀴퀴하다)[16]
당나구

---

15) 기원적으로 'ㅚ'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 중에 'ㅣ'로 나타나는 예들도 있다.

무시(무쇠), 열:씨(~열쇠), 석시<한.169>~석쉬<한.82>~석쇠, 채미~챔위<한.85>

'부시' 같은 예는 이 변화를 겪은 개신형이 표준어로 채택된 경우이다.

火鎌 부싀 <譯語類解 下:18a>(1690)

이들은 선행 자음의 종류가 다를 뿐 아니라 모두 비어두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위의 'ㅚ > ㅗ', 'ㅟ > ㅜ' 변화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석쉬, 챔위' 같은 예로 보아 비어두 음절의 'ㅚ'가 'ㅟ'로 모음상승을 일으킨 후 비어두 음절에서의 'ㅟ > ㅣ'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석쇠 > 석쉬 > 석시). 근대에 비어두 음절에서 'ㅗ > ㅜ'의 모음상승이 있었고(도로 > 도루) 비어두 음절에서의 'ㅟ > ㅣ'는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불휘 > 뿌리).

16) ' :: '은 표현적 장음을 나타낸다.

잎사구 <한.94>

c. 후들르다(휘두르다) · 후둘러보다

(다리가) 후청거리다(휘청거리다)

후장(휘장)

본고에서는 'ㅚ, ㅟ'를 음소적으로 모두 단순모음으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7] 우선 'ㅟ'와 'ㅚ'는 이 방언에서 하나의 관련된 쌍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한 쪽은 단순모음으로 처리하고 다른 한 쪽은 이중모음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모음체계에서 중모음과 고모음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상의 관련성은 고모음화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데 중모음이 어두에서 장음으로 나타날 경우 고모음으로 모음상승을 보이는 것이다.

(12) a. 울:개미(올가미)

뭅:시

숨:(솜)

굴:묵쟁이

b. 읠:마나(얼마나)

그:지(거지)

c. 위:구(외고)

(풀을) 뒤:게 쑤믄

d. 피:기(閉氣=딸꾹질)

시:배(세배)

질:(제일)

기:수(季嫂)

17) 김정수(1998:283)은 서울방언에 단순모음 / ö, ü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고모음화에 의해 'ㅗ - ㅜ, ㅓ - ㅡ, ㅚ - ㅟ, ㅔ - ㅣ'는 체계적으로 관련된 쌍임이 확인된다. 이 때 'ㅗ - ㅜ, ㅚ - ㅟ'는 'ㅓ - ㅡ, ㅔ - ㅣ'에 비해 고모음화의 예가 적게 나타나는데 전자는 원순모음, 후자는 비원순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둘 사이의 차이에는 [순음성]이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ㅟ'에 대해서는 하나의 음소 분석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화자들의 의식에서 알 수 있다. 표기의 영향인지 몰라도 화자들은 절대로 '뒤'의 'ㅟ'와 '귀'의 'ㅟ'가 다른 모음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화자들은 '뒤'와 '귀'의 'ㅟ' 모음이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 둘이 변이음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ㅟ'는 단순모음이든 이중모음이든 어느 한 쪽으로만 해석되어야지 음성 실현에 따라 서로 다른 음소로 해석될 수는 없다. 'ㅟ'에 대해 단일한 음소 분석만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단순모음 /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두 자음에 따라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후행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단순모음인 변이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변이음의 분포로 보면 단순모음 [ü]가 이중모음 [wi]에 비해 훨씬 넓으므로 보다 우세한 변이음인 [ü]를 기본적인 변이음으로 생각하여 음소적으로는 단순모음 /ü/로 분석한다.

'ㅟ'를 단순모음으로 처리한다면 그 관련 쌍인 'ㅚ' 역시 단순모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ㅚ'의 경우에는 그 예는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유사)대립쌍도 존재한다.

(13) a. 뇌 /nö/ - 눼:(누에) /nwe:/

b. 되:쓰다 /tö:s'ɯ-/ - 뒈:쓰다(뒤어쓰다) /twe:s'ɯ-/[18)]

---

18) (이불을) 되쓰구 잔다

'ㅚ, ㅟ'는 단순모음으로 발음될 때도 원순성이 대단히 미약하여 입술이 거의 돌출되지 않는다. 같은 단순모음 'ㅚ, ㅟ'라도 서남방언의 'ㅚ, ㅟ'는 원순성이 매우 강하여 육안으로도 입술이 앞으로 돌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ㅓ'의 경우 변이음의 양상이 독특하다. 'ㅓ'는 短母音일 때에는 후설모음인 [ʌ]이지만 長母音이 되면 훨씬 더 앞쪽으로 나와 중설 위치에서 高母音化되어 발음된다. 음성기호로는 [ə:]에 가깝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서울말 화자들은 이 두 변이음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ㅓ:'이면서도 [ʌ]에 가까운 발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열:(十)'이 대표적인 경우이고[19] '열:쇠'도 '열:'처럼 [ə:]와 [ʌ:] 모두 나타난다. '어:리'처럼 늘 [ʌ:]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

(14) 병아리 길르는 어:리를 [ʌ:rirɯl]

② 비어두 위치

비어두 위치에서는 단순모음의 목록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이 위치에서 장모음이 단모음화하고[20] 'ㅔ'와 'ㅐ'의 구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비어두 위치에서의 단순모음의 목록을 제시하면 'ㅣ, ㅐ[E], ㅟ, ㅚ, ㅡ, ㅓ, ㅏ, ㅜ, ㅗ'로 총 9개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5) 채미, 노래, 사귀다, 굴:렁쇠, 풍금, 누름적, 질빵, 누깝(눈깝), 화토

어른내가 눈을 뒤:쓰구 헉: 헉 이러허구 앓:는 애가 있어

19) '열:'이 [jʌ:l]로 나타나는 이유를 李秉根(2000:340=1990a)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의 기본수를 셀 때 二音節語에 맞추어 單音節語를 길게 발음하여 리듬을 이루게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 국어의 다른 음장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방언에서도 표현적 장음을 제외하면 음장은 어두에서만 실현된다. 조사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콩댐:'은 항상 두 번째 음절이 장음으로 나타났다. 표현적 장음도 아닌 것 같다.

즉 비어두 위치에서는 음소 'ㅔ'와 'ㅐ'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다. 두 음소는 현재 합류(merge) 과정에 있다.

2.1.2.1.2 **반모음 및 이중모음목록**

① 어두 위치

이 방언에서 반모음으로는 j와 w 두 가지가 있다. 반모음 j와 w는 다음과 같은 최소대립쌍에 의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6) a. 어름 /ʌrim/ - 여름 /jʌrim/

b. 가:부(可否) /ka:pu/ - 과:부 /kwa:pu/

그런데 반모음들은 항상 다른 단순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diphthong)으로만 나타나므로 이중모음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편이 좋다. 이 방언에서 나타나는 이중모음은 모두 '반모음 + 단순모음'으로 이루어진 상향이중모음(rising diphthong)뿐이다.

이중모음의 목록도 j로 시작되는 것과 w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중모음의 경우 선행 자음과의 결합에 있어 극심한 제약이 존재한다.[21] 따라서 중성이 이중모음인 경우에 가능한 음절구조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 이중모음을 가진 최소대립쌍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중모음의 목록은 최소대립쌍이 아닌 그 예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이 방언에서 이중모음이란 곧 '반모음 + 단순모음'의 상향이중모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모음 'j, w'와 단순모음들의 음소목록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21) 이에 대해서는 '2.2 음운배열' 부분에서 후술함.

j로 시작되는 이중모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ㅖ, ㅒ, ㅕ, ㅑ, ㅠ, ㅛ'와 그에 대당하는 장모음으로 모두 12개이다. 그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17) a. 옌주창, 예:수쟁이
b. 얘:기[22]
c. 평풍(屛風), 염:집(여염집)
d. 깔죽(::)허다, 야:경 ^(돌다)
e. 육장(늘), 윤:달
f. 요슬(妖術), 묘:

w로 시작되는 이중모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ㅞ, ㅙ, ㅝ, ㅘ'와 그에 대당하는 장모음으로 모두 8개다.

(18) a. 웬, 훼:방
b. 왜간장, 괭:이(고양이)
c. 월급, 뷝:(부엌)
d. 화토, 콰:리

표기상으로 'ㅢ'에 해당하는 이중모음이 존재하는지는 결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이중모음은 질문지에 대한 응답형에서만 관찰할 수 있고 어두에서 선행 자음이 없을 때만 나타난다.[23] 비어두에서는 /ㅣ/로 실현되고(예: 논이 論議), 표기상으로 '의'로 쓰는 속격 조사

22) 短母音인 'ㅒ'의 예로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다. 그러나 장모음 'ㅒ:'는 단모음 'ㅒ'와 장음의 결합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목록에 집어 넣는다.
23) 위치와 관계없이 선행 자음이 있을 때는 'ㅢ'가 나타나지 않는다.

띠어쓰기(띄어쓰기), 히망(희망)
무니(무늬), 유히(유희)

는 'ㅔ/E/'로 실현된다(예: 나에(나의)). 게다가 선행자음이 없으면서 장음인 경우에는 흔히 이중모음 /ɯi/로 실현되지만(예: 의:형제, 의:리) 같은 환경이면서도 장음이 아닌 경우에는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기도 하고(예: 의복, 의심뻥, 의사, 의견) '으'로 실현되기도 한다(예: 으걸이(의걸이), 으자(의자), 으논(의논), 으치(의치)). 따라서 이중모음으로서의 'ㅢ'는 어두 음절 이외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자음이 'ㅎ'일 경우는 'ㅡ'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인다.

(19) 흔옷(< 흰옷)
흔떡(< 흰떡)
흔콩(< 흰콩)
흔저고리(< 흰저고리)
흔치마(< 흰 치마)
흐미허다(< 희미하다)

그런데 '흔옷'은 기원적으로 '희 + ㄴ'과 '옷'의 복합어로 보이는데 표준어의 '희다'는 이 방언에서 '히다'로 나타나므로 '흔옷'과는 양상이 다른 것이다. '흔떡' 등도 마찬가지이다. 단독형 '*희다'가 겪은 변화를 파생어의 구성 요소인 '*희-'는 겪지 못한 것이다. '흔옷, 흔떡' 등에서 나타나는 '흐-'는 역사적인 변화의 결과를 보존하고 있는 형태(이른바 화석)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② 비어두 위치

비어두 위치에서 단순모음의 목록이 'ㅣ, ㅐ[E], ㅟ, ㅚ, ㅡ, ㅓ, ㅏ, ㅜ, ㅗ'로 총 9개로 줄어 들므로 이중모음의 목록도 이에 따라 'ㅒ[jE], ㅕ, ㅑ, ㅠ, ㅛ, ㅙ[wE], ㅝ, ㅘ' 총 8개로 준다. 각각의 예를 아래에 제시한다.

(20) 대애[24]~대야, 거염(게염), 모냥(모양), 섹유, 핵교
가시왜떡(과자의 일종), 에워싸다, 개와~기와

2.1.2.2 체계

모음체계를 결정하는 모음의 음성적 속성은 N. S. Trubetzkoy(1939)에서 조음 부위(Lokalisierung)(혹은 음색(Eigenton)), 간극도(Öffnung)(혹은 공명도(Schallfülle)) 그리고 (비모음 · 구강모음의) 공명(Resonanz) 세 가지로 규정된 이래 조음위치(가로축)와 개구도(세로축)를 두 축으로 하는 이차원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었다. 이 때 N. S. Trubetzkoy (1939)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음위치에는 전 · 후설의 대립과 원순 · 비원순의 대립이 모두 포함된다.

이 방언의 모음체계를 단순모음체계와 반모음 및 이중모음체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장모음은 해당 모음과 장음의 결합으로 처리하고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또 반모음은 이 방언에서 늘 이중모음의 부음으로만 사용되므로 이중모음체계와 함께 다루도록 한다.

2.1.2.2.1 단순모음체계

이 방언의 단순모음체계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표준어의 단순모음체계와 같다.

---

24) 표준어의 경우 'ㅐ'로 끝나는 형태소는 없다.

	前舌		後舌	
	非圓脣	圓脣	非圓脣	圓脣
高舌	ㅣ	ㅟ	ㅡ	ㅜ
中舌	ㅔ	ㅚ	ㅓ	ㅗ
低舌	ㅐ		ㅏ	

2.1.2.2.2 반모음 및 이중모음체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모음은 늘 단순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의 일부로만 나타나므로 이중모음체계를 제시하면 반모음 사이의 대립관계도 드러날 것이다. 이 방언의 이중모음체계를 j로 시작되는 것과 w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j계 이중모음

	前舌		後舌	
	非圓脣	圓脣	非圓脣	圓脣
高舌				ㅠ
中舌	ㅖ		ㅕ	ㅛ
低舌	ㅒ		ㅑ	

② w계 이중모음

	前舌		後舌	
	非圓脣	圓脣	非圓脣	圓脣
高舌				
中舌	ㅞ		ㅝ	
低舌	ㅙ		ㅘ	

그런데 모음목록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ㅚ'와 'ㅟ'는 현재도 그

음소 해석이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중모음 we, wi로 발음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 모음 'ㅔ'와 'ㅐ'는 현재 합류(merge) 과정에 있으므로 이 방언의 단순모음체계는 위의 10 모음체계에서 8 모음체계, 또는 7 모음체계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前舌		後舌	
	非圓脣	圓脣	非圓脣	圓脣
高舌	ㅣ		ㅡ	ㅜ
中舌	ㅔ		ㅓ	ㅗ
低舌	ㅐ		ㅏ	

<8 모음체계>

	前舌		後舌	
	非圓脣	圓脣	非圓脣	圓脣
高舌	ㅣ		ㅡ	ㅜ
中舌	ㅐ		ㅓ	ㅗ
低舌			ㅏ	

<7 모음체계>

8 혹은 7 모음체계에서는 이중모음의 체계도 달라지게 된다.[25]

2.1.3 운소 - 음장

이 방언의 운소로는 음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경우는 음장 체계(length system)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방언에서 음장은 모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음장 체계는 장모음과 단모음의 대립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어두에 한정된다. 국어의 다른 방언과 마찬

25)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현재 젊은 세대에 있어 일반적인 7 모음체계는 모음체계의 일반 이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 준다. 후설 비원순모음은 '고설, 중설, 저설'의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고설성], [저설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비해 전설 비원순모음 계열에서는 '고설, 비고설'의 대립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술할 자질이 달라지게 된다. 즉 혀의 높이와 관련해서 'ㅡ'는 [+고설성, -저설성]으로 기술되지만 'ㅣ'는 [+고설성]만으로도 기술된다. 둘의 차이는 전설 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자질 기술은 모음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지로 이 방언에서도 비어두에서는 장모음이 실현되지 않는다.

(21) a. 일(一) - 일:(事), 비(雨) - 비:(箒)
b. 제기 ^(차다) - 제:기(祭器)[26]
c. 배(腹, 梨) - 배:(倍)[27]
d. (벳)뉘 - 뉘:(~누:)('누구'의 속격)
e. 되다(化) - 되:다(硬)
f. 그리다 - 그:리다(畵)[28]
g. 천(千) - 천:(옷감), 얼리다(使凍) - 얼:리다('어울리다'의 준말)
h. 반(학급) - 반:(半)
i. 눈(目) - 눈:(雪)
j. 손(手) - 손:(孫) ^(귀하다)

2.2 음운배열

앞에서 살펴 본 음운목록은 음들의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에 의해 추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위치에 따라 이들의 목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암시된 바와 같이 이 음운들의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전통적으로 음운배열론(phonotactics)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 온 분야가 바로 이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방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음운배열상의 제약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음운배열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음절(syllable)이라는 단위가

26) 'ㅔ - ㅔ:'의 최소대립쌍은 매우 드물다. 여기에 제시한 예 역시 사전에서 미리 단어를 찾아 제보자에게 확인한 것이다.
27) 보통은 '두: 배'처럼 비어두에서 短音化되어 나타난다.
28) 조사 과정에서는 'ㅡ'의 경우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예는 미리 준비한 예를 제보자에게 확인한 것이다.

자주 이용되었다. 음절은 순수히 음운론적인 단위일 뿐 아니라 국어의 경우 음절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음절을 이용하면 음운배열에 대한 간결한 기술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이 방언에 'ㅂ, ㅅ, ㄴ, ㅏ'는 모두 존재하는 음소이지만 '빤ˣ'과 같은 음운배열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가능한 음절구조를 미리 제시해 줌으로써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이다.

국어의 경우 음절 중 가장 복잡한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있는 CVC 와 같은 경우이다(예: 잠). 초성이 되는 자음이나 종성이 되는 자음은 없어도 음절이 성립된다. 중성인 모음이 없어서는 음절을 이룰 수 없지만 중성의 경우는 단순모음인 경우와 이중모음인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음절구조의 경우는 2 × 2 × 2로 모두 8가지 경우이다. 이 8가지 경우의 음절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9]

CVC 형 : CSVC, CVC
CV 형 : CSV, CV
VC 형 : SVC, VC
V 형 : SV, V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운목록은 위치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운배열을 기술할 때에도 위치에 따른 구분을 미리 해 주면 앞서의 음운목록에 대한 기술과 중복되지 않는다.

앞서의 음운목록에 대한 기술을 참고하여 음절의 구조와 관련된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성으로는 어두에서는 'ㄹ, ㅇ', 비어두에서는 'ㅇ'을 제외한 자음이 다 올 수 있다. 구체적인 목록은 '2.1.1.1

---

29) C는 자음(Consonant), V는 모음(Vowel), S는 반모음(Semivowel)을 가리킨다. '반모음'의 설정은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른 것이다.

(자음) 목록'에 나타나 있다. 중성으로는 단순모음이나 이중모음이 올 수 있다. 어두에서는 이 방언의 모음체계에 있는 단순모음과 이중모음 그리고 해당 장모음이 모두 올 수 있지만 비어두에서는 모음의 수도 줄고 장모음도 올 수 없다. 구체적인 목록은 '2.1.2.1 (모음) 목록'에 나타나 있다. 종성으로는 위치에 관계없이 'ㅂ, ㄷ, ㄱ, ㅁ, ㄴ, ㅇ, ㄹ'의 7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음운배열을 기술함에 있어 그 범위와 대상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우선 범위의 문제부터 논의해 보도록 하자. 음운배열이란 말 그대로 음운들 사이의 배열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계라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태소 경계를 고려하여 형태소 경계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를 동반한 경우를 구분해서 기술하는 편이 좋다. 경계와 관계없이 음운배열을 기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계의 유무에 따라 음운배열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경계와 관계없는 음운배열의 대표적인 예로는 비음과 비음의 배열을 들 수 있다. 두 자음이 연속해서 오고 두 번째 자음이 비음이면 첫 번째 자음 역시 비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것은 형태소 내부에서나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형태소 내부냐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었느냐에 따라 음운배열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간단한 예로 이 방언에서 '며'와 같은 음운배열은 형태소 내부에서는 위치를 막론하고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 음운배열은 형태소가 통합된 활용형에서만 나타난다(예: 디뎌). 파생의 경우도 종종 비슷한 경우를 살펴 볼 수 있다. 중세국어의 C1VC2 연쇄에서 C1이 양순음이고 V가 'ㆍ'이면 C2는 반드시 [-grave] 자질을 가진 자음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형태소 경계에서는 이러한 음운배열제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예: 프+개).[30] 따라서 본고에서 음운배열의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내

용은 형태소 내부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음운배열은 '4장 음운과정' 부분에서 형태소 내부의 음운배열과 관련시켜 따로 기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대상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음운배열의 기술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해당 언어이겠지만 국어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어의 어휘 형태소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는바 어디까지를 음운배열 제약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고유어는 물론 기술의 대상이다. 외래어는 제외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외래어의 경우는 고유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음운배열을 가진 경우가 있으므로(예: 뫼비우스) 고유어와 함께 다룰 수 없다. 한자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유어와 전혀 다른 음운배열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한자어 자체의 형태론적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면서 한자어도 음운배열에 대한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고유어에서 해당 음운배열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만 활용한다.

2.2.1 어두 위치

어두 위치에서 음운의 배열은 CV- 형 이외에는 없다. 자음들을 조음위치별로 분류하여 모음들과의 통합 양상을 알아보기로 한다.

2.2.1.1 CV-

아래의 표는 'CV-'와 같은 음절구조에서 C와 V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의 배열 관계를 보인 것이다. 어두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앞

30)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유필재(1998b) 참조.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 자음음소목록에서 ‘ㄹ, ㅇ’을 뺀 17개이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부분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배열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체계적 공백임을 나타낸다.[31]

		1	2	3	4	5	6	7	8	9	10
		ㅣ, ㅣ:	ㅔ, ㅔ:	ㅐ, ㅐ:	ㅟ, ㅟ:	ㅚ, ㅚ:	ㅡ, ㅡ:	ㅓ, ㅓ:	ㅏ, ㅏ:	ㅜ, ㅜ:	ㅗ, ㅗ:
1	ㅂ	비나, 비:단	베	백장, 배:지		뵙:다!		버리다, 벌:기짝	방칫돌, 방:구	북애, 부:추	복재기, 보:름
2	ㅃ	삐쭉ㅎ, 삐:다	뻬	빵소니, 빼:다				뻐꾹새, 뻘:겋다!	빤들ㅎ, 빵:다	뿌럭지, 뿌:옇다!	뽑다, 뽀:얗다!
3	ㅍ	핑구, 피:란		패, 패:다				퍼렁, 퍼:지다	팟, 파:랗다!	풀다, 품:무	포기, 포:식
4	ㅁ	민짜, 밈:	메물, 메:다	매무시, 매:미				머리, 멀:다	말다, 마:나님	문자, 무:등	모가지, 몬:지

세로축 1에서 4는 어두에 양순음이 오는 경우이다. 배열상의 제약이 보인다. 우선 ‘ㅡ’와의 결합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국어 시기(17세기말 경)에 양순음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되는 원순모음화에 의해 ‘양순음 + ㅡ’의 결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32] 이에 대해서는 더 상론할 여지가 없다.

(1) a. 브르다 > 부르다 > (불르다)
  b. 쁠 > 뿔 > (뿔)
  c. 플 > 풀
    베플다 > 베풀다
  d. 므겁다 > 무겁다!

31) 인쇄의 편의상 ‘X허다(삐죽허다)’는 ‘Xㅎ(삐죽ㅎ)’로 표기한다.

32) 李基文(1972:202) 참조.

다음으로 전설 원순모음 'ㅚ, ㅟ'와의 결합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뵙:다!'가 유일한 예외이다. 이것은 19세기말에 양순음 아래에서 'ㅚ > ㅔ', 'ㅟ > ㅣ'와 같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33] 이 당시의 'ㅚ, ㅟ'는 더 이상 하향이중모음일 수 없으므로 비원순모음화이거나 w 탈락에 의한 변화라고 해석된다.

(2) a. 뵈틀(HH, LH) > 베틀 <新訂尋常小學 1:18a>(1896)

b. 뫼도기(LHH) > 메독이 <한불ᄌᆞ뎐 230> > (메뚜기)

(3) a. 뷔틀다(RH) > 비틀다 <國漢會語 158>[34]

b. 퓌다(H)(火發) > 불피다 <國漢會語 155>

		1	2	3	4	5	6	7	8	9	10
		ㅣ, ㅣ:	ㅔ, ㅔ:	ㅐ, ㅐ:	ㅟ, ㅟ:	ㅚ, ㅚ:	ㅡ, ㅡ:	ㅓ, ㅓ:	ㅏ, ㅏ:	ㅜ, ㅜ:	ㅗ, ㅗ:
5	ㄷ	디디다, 디:다	데릴싸위, 데:다	대리, 대:청	뒤집다, 뒤:	되다爲, 되:다硬	들창, 들:판	더부살이 덤:	달구비, 단:내	두께비, 둘:째	동굿, 돌:학
6	ㄸ	띠, 띠:다	떼, 떼:다	때, 때:다	뛰박질	뙤약볕	뜬숫	떡닙, <u>떫:다</u>	따루, 딸:기	뚱뚱보	똥통꾼
7	ㅌ	티	텟실	태사신, 태:다	튀밥	퇴:마루	틀리 (틀니)	털, 털:다	타다, 타:작	투표	토란, 통:일
8	ㄴ	니, 니:(가)	네리다, 넷:	내, 냄:새	뉘, 뉘:	뇌	능금	널벅지, 널:다	나빽김치 난:장판	누구, 눈:다!	노느다, 노:새
9	ㅅ	싱금치, 심:부름	섹유, 셋:돈	생추, 생:	쉬웁다, 쉬:	쇵편, 쇠:고기	스다, 스스럽다!	서까래, 설:랄	상닐, 삿:대	수랏상, 숨:통	솔기, 송:굿
10	ㅆ	씻다				쐬:다	쓰렁쓰렁	썩다, <u>썰:다</u>	싼거리, 쌈:	쑥, 쑤:다	쏘시개, 쏠:다

---

33) 이 음운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필재(2006) 참조.

34) ≪國漢會語≫의 인용 면수는 太學社에서 간행된 영인본의 면수이다.

세로축 5에서 10은 어두에 치조음이 올 경우이다.35) 특별한 배열상의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36) 다만 표준어의 경우는 'ㄴ'과 'ㅣ'의 배열이 없다. 이 방언에도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또 'ㅆ'의 경우 모음 'ㅔ, ㅐ, ㅟ'와 결합한 경우을 찾기 어려운데 이는 우연한 공백으로 생각된다.

		1	2	3	4	5	6	7	8	9	10
		ㅣ, ㅣ:	ㅔ, ㅔ:	ㅐ, ㅐ:	ㅟ, ㅟ:	ㅚ, ㅚ:	ㅡ, ㅡ:	ㅓ, ㅓ:	ㅏ, ㅏ:	ㅜ, ㅜ:	ㅗ, ㅗ:
11	ㅈ	짐방꾼, 진:메	제웅, 제:사	재백이, 재:판소	쥐, 쥐:정	죙일, 죄:	즉시	젓뉴모, 전:당국	작년, 장:가처	주접, 준:치	조기, 종:기
12	ㅉ	찌께기, 찡:다		째, 째:다		쬐끔		쩔쩔매다	짠지	줄거리, 쭐:다	쫓다, 쪼그맣다i
13	ㅊ	침, 침:모	체머리	채렵나불, 채:	취하다, 취:나물	최:고		천석꿍이, 처:네	창고, 참:다	추렴	초가집, 촌:티
14	ㄱ	기렴, 기:거품	게을르다, 갤르다	갠천, 개:나리	귀얄, 귀:개	괴:다	그러께, 근:네	걸터질, 거:넌	갓, 가:마	구석, 굴:묵	고뻬, 곱:다i
15	ㄲ	끼우다, 끼:다		깨끗ㅎ, 깨:다	뀌:다	꾀	끄니, 끄:림	꺼풀, 까맣다i	깜정, 까:치	꾸레미, 꾸:다	꼬리, 꼬:다
16	ㅋ	키(箕)	케	캥기다, 캐:다			크다	컹컴ㅎ, 카:랗다i	칼		콩
17	ㅎ	히망	헤갈ㅎ, 해:지다	행길, 해:태	휘다	회현동, 회:	흔떡, 흔:다	헐헐중, 헐:다	하영, 함:	후장, 훈:장	홀에비, 호:랭이

35) 예들 중 'i'는 해당 어간이 불완전용언임을 나타내고(예: 쉬웁다i) 밑줄은 해당 어간이 고정적 장음을 가진 어간임을 표시한다(예: 썰:다).

36) 'ㄷ, ㄸ, ㅌ, ㄴ'과 'ㅣ'의 결합은 근대국어 시기(17세기말)에 일어난 구개음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음운배열이다. 그 후 이중모음 'ㅢ'가 'ㅣ'로 단순모음화를 겪고(a) 어두에서 장모음 'ㅔ:'가 'ㅣ:'로 고모음화를 겪으면서(b) 이러한 음운배열이 형태소 내부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a. 드듸다(LH) > 디디다, 띄(H) > 띠, 틔(H) > 티
b. 데:다 > 디:다, 떼:다 > 띠:다, 네:(가) > 니:(가)

세로축 11에서 17은 어두에 구개음과 연구개음 그리고 'ㅎ'이 올 경우이다. 경음인 경우와 격음인 경우에 더러 빈 칸이 나타나지만 이 역시 체계적 공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2.1.2 CSV-

다음으로 어두에서 자음과 이중모음과의 배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중모음은 선행 자음과의 결합에 제약이 많아 어두에서 자음과 이중모음의 배열은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빈 칸이 많을 수밖에 없다.

		1	2	3	4	5	6	7	8	9	10
		ㅖ, ㅖ:	ㅒ, ㅒ:	ㅕ, ㅕ:	ㅑ, ㅑ:	ㅠ, ㅠ:	ㅛ, ㅛ:	ㅞ, ㅞ:	ㅙ, ㅙ:	ㅝ, ㅝ:	ㅘ, ㅘ:
1	ㅂ			벽, 변:덕						붺:	
2	ㅃ			뼈	뺨		뾰족ㅎ				
3	ㅍ	폐:		평풍, 편:지			표				
4	ㅁ			명낭ㅎ, 면:접			묘:			뭐:	
14	ㄱ	계:시다	걔:	겨울, 겹:다!	갸름ㅎ		교잣상, 교:육	궤:장	괜찮다, 괭:이	궐리금	관청, 과:일
15	ㄲ			껴안다	깔축ㅎ			꿰이다, 꿰:지다	꽤		꽈배기, 꽈:리
16	ㅋ			켤레							
17	ㅎ	혜:화문		혀, 형:깃증			효:자	훼:방	횃대		화토, 화:루

이상은 어두에 양순음, 연구개음과 'ㅎ'이 올 경우이다. 이들 자음과 이중모음의 배열은 매우 제한된 양상을 보이는데 j계 이중모음이냐 w계 이중모음이냐에 따라 그 제약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

w계 이중모음일 때는 선행 자음이 양순음인 경우와 연구개음 및 'ㅎ'인 경우가 다르다. 양순음의 경우 w계 이중모음과 결합한 예는 '뷝:, 뭐:' 이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것들도 각각 '부엌, 무어'에서 모음충돌 회피를 통해 생긴 단어들로 원래 양순음 아래 w가 오는 예는 아니다. 양순음의 [순음성] 자질과 w의 [순음성] 자질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는 데서 오는 제약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개음과 'ㅎ'의 경우는 w계 이중모음과의 결합에는 그다지 제약이 없는 것 같다.

j계 이중모음일 경우에는 선행 자음에 관계없이 이중모음과의 연결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이중모음의 연결을 회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j를 탈락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과정을 통해서 이중모음을 직접 單母音化시키는 방법이다.

j 탈락에 의해서 이중모음 결합을 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실제 일상의 발화에서는 j가 탈락된 형태가 더 많이 쓰인다.

(4) a. 뺨~빰, 폐:~페:

b. 계:(契), 계약(契約), 기계충

음운과정을 통해 單母音化시키는 예도 매우 많다. 대부분은 'ㅕ > ㅔ'와 같은 單母音化이며 선행 자음이 양순음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ㅂ + ㅕ'에 해당하는 예로 '벼개, 별쎄, 변:소깐, 병:치레' 등이 있고 'ㅁ + ㅕ'의 예도 '명동, 명태, 명지(명주)' 등이 있지만 일상의 발화에서 많은 예들이 'ㅔ'로 나타난다.

(5) a. 베(벼), 베락, 베룩, 베슬, 벨루, 벳(볏), 벤빗중, 뻬~뼈, 메누리, 메루치 (멸치)

b. (한) 케~켜

그 예가 극히 산발적으로 나타나지만 구개음화 때문에 연구개음, 'ㅎ'과 j계 이중모음의 결합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이른바 'ㄱ 구개음화'와 'ㅎ 구개음화'의 예이다.

(6) a. 줄(귤)

b. 정치다 · 정치게 · 정치구~경치지(경치다)

c. 조군(轎軍)

(7) a. 숭 · 숭허다 · 숭업다 · 숭보다 · 숭물스럽다

b. 세가 꼬부라진다 · 셋바늘이 돋아요 · 셋바닥 · 세 끝에다가 <한.45>

c. 숭내(흉내)

d. 상금(::)허다(향긋하다)

e. 성(兄)(남편에 성인데) · 아들성제 · 내 성제간은 <한.25>[37]

f. 석대(혁대)

---

37) '兄, 革帶'는 구개음화를 겪은 예와 그렇지 않은 예가 모두 존재한다.

형제 · 삼형제, 형에 남편 · 우리 시어머니에 형님
혁대 ([3] 제보자)

		1	2	3	4	5	6	7	8	9	10
		ㅖ, ㅖ:	ㅒ, ㅒ:	ㅕ, ㅕ:	ㅑ, ㅑ:	ㅠ, ㅠ:	ㅛ, ㅛ:	ㅞ, ㅞ:	ㅙ, ㅙ:	ㅝ, ㅝ:	ㅘ, ㅘ:
5	ㄷ							뒈:쓰다	돼:지		
6	ㄸ								뙈:리		똬:리
7	ㅌ										
8	ㄴ							눼:고치			
9	ㅅ										
10	ㅆ								쐐:기		
11	ㅈ										좌:석
12	ㅉ										
13	ㅊ										촬:영

이상은 치조음, 구개음과 이중모음들의 결합 예이다. j계 이중모음과 이들 자음의 결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체계적 공백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대부분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난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생긴 공백이다.

우선 치조폐쇄음 'ㄷ, ㄸ, ㅌ'과 'ㅖ, ㅒ, ㅕ, ㅑ, ㅠ, ㅛ'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국어 시기(17세기말)에 일어난 구개음화 때문이다.[38]

(8) a. 둏다(R) > 죻다 > (좋:다)
b. ᄠᅵ다(蒸)(H) > ᄧᅵ다 > 씨다 > (찌다)
c. 텩툑(HH) > 텰둑 > 쳘둑 > (철쭉)

38) 李基文(1972:196-8) 참조.

'ㄴ'의 경우도 이 구개음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n]이 'ㅖ, ㅒ, ㅕ, ㅑ, ㅠ, ㅛ' 앞에서 구개음화를 겪으면서 구개음 [ɲ]으로 실현되고 난 후 약화의 과정을 거쳐 탈락된 것으로 생각된다.[39]

(9) a. 녯(R) > 옛 쁘들 <家禮諺解 1:序5b>(1632)
  b. 녀름(LH) > 여름 밤 <自省編 內:25a>(1746)

구개음 'ㅈ, ㅉ, ㅊ'의 경우는 음운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상의 예들과 다소 다르지만 넓게 보아 구개음화와 관련된 경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ㅈ, ㅉ, ㅊ'은 구개음이 아닌 치음 [ts]이었는데[40] 근대국어에 들어서 구개음으로 바뀌면서 이들 자음 아래에서 'ㅓ -ㅕ, ㅏ - ㅑ, ㅜ - ㅠ, ㅗ - ㅛ'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

2.2.2 비어두 위치

2.2.2.1 -C1C2-

어중 위치에서 자음과 자음의 배열이 있게 되면 앞자음은 선행 음절의 음절말 위치에 오게 되고 뒷자음은 후행 음절의 음절초 위치에 오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앞자음(C1)으로 가능한 자음은 'ㅂ, ㄷ, ㄱ, ㅁ, ㄴ, ㄹ, ㅇ' 7개의 자음이고, 뒷자음(C2)으로 가능한 자음은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ㄱ, ㄲ, ㅋ; ㅁ, ㄴ; ㄹ, ㅎ'의 18개의 자음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자음 배열은 7 × 18 = 126 가지이지만 실제로는 자음 배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자음 혹은 뒷자

39) 李基文(1972:198) 참조.
40) Lee, Ki-Moon(1964:64f), 허웅(1965:351-5) 참조.

음의 종류에 따라 상대 자음의 종류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약은 방언차가 거의 없고 기존에 많은 연구가 있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의 배열 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그친다.

우선 앞자음이 기준이 되는 배열 관계를 차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C1 = ㅂ, ㄷ, ㄱ ⇒ C2 = ~(ㅂ, ㄷ, ㅅ, ㅈ, ㄱ)[41]

앞자음이 'ㅂ, ㄷ, ㄱ'이면 뒷자음으로 평음인 장애음이 올 수 없다.

【2】 C1 = ㅂ, ㄷ, ㄱ ⇒ C2 = ~(ㅎ)

앞자음이 'ㅂ, ㄷ, ㄱ'이면 뒷자음으로 'ㅎ'이 올 수 없다.

【3】 C1 = ㅁ, ㄴ, ㅇ ⇒ C2 = ~(ㄹ, (ㅎ))

앞자음이 비음일 때는 뒷자음으로 'ㄹ'이 올 수 없다. 'ㅎ'도 잘 오지 않는다.

【4】 C1 = ㄹ ⇒ C2 = ~(ㄴ, (ㅎ))

앞자음이 'ㄹ'이면 뒷자음으로 'ㄴ'이 올 수 없다. 'ㅎ'도 잘 오지 않는다.

【5】 C1 = ㄹ ⇒ C2 = ~(ㄷ, ㅅ, ㅈ) (한자어)

한자어에서 앞자음이 'ㄹ'이면 뒷자음으로 'ㄷ, ㅅ, ㅈ'이 올 수 없다.

뒷자음이 기준이 되는 배열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6】 C2 = ㅂ, ㄷ, ㄱ ⇒ C1 = ~(ㅎ)

뒷자음이 'ㅂ, ㄷ, ㄱ'이면 앞자음으로 'ㅎ'이 올 수 없다.

【7】 C2 = ㅁ, ㄴ ⇒ C1 = ㅁ, ㄴ, ㅇ

뒷자음이 비음이면 앞자음은 비음이어야만 한다.

---

41) '~(X)'는 'X'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의미한다.

【8】 C2 = ㄹ ⇒ C1 = ㄹ

뒷자음이 'ㄹ'이면 앞자음은 'ㄹ'이어야만 한다.

【9】 C2 = ㄱ, ㄲ, ㅋ ⇒ C1 = ㄱ, ㅇ, ㄹ

뒷자음이 후부변자음인 연구개음이면 앞자음으로 연구개음이 나타난다.

이상의 자음배열 제약들은 형태소 경계에서도 모두 적용되며 형태소 경계에서는 이 제약들이 음운과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은 '경음화 1'로, 【7】은 '비음화'로 나타난다. 이들은 형태소 경계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9】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조음위치와 관련된 이 제약은 단어 내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예 10) 활용에서는 '조음위치 동화'와 같은 음운과정으로 수의적으로만 적용된다(예 11).[42)]

(10) a. 당그다(漬), 장그다(閉), 긍검스럽다!, 강:기(감기)

b. 부칭개, 부넹기(부넘기), 넹기다(使越), 갱기다(被卷), 챙기름, 녹그릇~노끄릇, 항가운치(한가운데), 앙캉아지, 박그릇(밥그릇)

c. 상가허다(諵), 챙견(참견), 황경두(함경도)

(11) 참:꾸 ~ 창:꾸(忍)

(심지를) 돋그지 마:라 ~ 독가서

2.2.2.2 -V1V2-

국어의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방언에서도 모음과 모음의 배열은

42) '영글다, 풍기다'와 같은 경우는 조음위치 동화를 입은 형태가 표준어로 채택된 예이다.

염글다(LH) > 영글다
품기다(LH) > 풍기다

매우 제약되어 있다. 다음은 이 방언에 존재하는 모음과 모음의 직접 결합 양상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대면조사에 의한 자료 수집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 모든 예를 찾아 낼 수는 없었다. 이 때는 표준어의 예도 참조하였다. 표준어의 예는 ≪금성판 국어대사전≫의 표제항을 이용했다.

표준어 자료는 엄격히 말해서 이 방언 자료로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표준어의 경우는 '< >'로 묶어서 이 방언 자료와 구별한다. 또 모음 연결이 유지된 형태와 모음 연결이 없어진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마음 ~ 맘:) 이런 예를 제시할 때에는 괄호로 묶어서 제시한다. 대상 자료는 고유어로 한정했다.

'2.1.2.1 (모음) 목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두에서는 10개, 비어두에서는 9개의 단순모음이 존재하므로 가능한 모음 연결의 경우는 10 × 9 = 90개이다.

우선 모음 연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V1		V2
ㅗ	-	ㅣ, (ㅡ)
ㅏ	-	ㅗ, ㅜ, ㅟ, ㅣ, (ㅡ)
ㅐ	-	<ㅗ>, ㅜ
ㅚ	-	(ㅗ), ㅏ, (ㅜ)
ㅜ	-	ㅏ, <ㅓ>, ㅟ, ㅣ
ㅓ	-	<ㅏ>, ㅜ, ㅟ, ㅣ, (ㅡ)
ㅔ	-	<ㅏ>, ㅜ, (ㅡ)
ㅟ	-	ㅜ, <ㅓ>
ㅣ	-	<ㅏ>, ㅜ, (ㅡ)

ㅡ - ㅏ, ㅣ

구체적으로 모음 연결이 가능한 경우를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에 나타난 모음 연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일 모음의 배열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준어에는 ‘ㅓ, ㅡ’일 때 동일 모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서어나무, 저어새, 그윽하다, 그으름). 그러나 이 방언에서는 ‘그으름’은 ‘끄:름’이고 ‘서어나무’는 한글학회 편인 ≪우리말큰사전≫에서와 같이 ‘서나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둘째로 뒷 모음이 ‘ㅡ’인 경우는 대부분 모음 연결이 유지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ㅓ-ㅏ, ㅜ-ㅟ’의 경우는 예가 하나밖에 없다(예: 어안, 추위).

다음과 같은 예들은 표준어에서는 모음 연결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방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표준어를 ‘< >’로 묶어 먼저 제시하고 이 방언형을 뒤에 놓는다.

ㅗ-ㅏ : <또아리> = 똬:리~뙈:리

ㅐ-ㅏ : <빼앗다> = 뺏:다, <배아지> = 배:지, <새알심> = 샐:심, <새앙> = 생:, <매암> = 맴:

ㅜ-ㅔ : <누에> = 눼:

ㅣ-ㅓ : <이엉> = 영:

ㅣ-ㅔ : <지에밥> = 제밥 <한.95>

		1	2	3	4	5	6	7	8	9
		ㅗ	ㅏ	ㅐ	ㅚ	ㅜ	ㅓ	ㅟ	ㅣ	ㅡ
1	ㅗ ㅗ:								고이, 오:이	(노을)
2	ㅏ ㅏ:	가오리				바우		아가위, 사:위	아이	(가을)
3	ㅐ ㅐ:	<해오라기>				새우				
4	ㅚ ㅚ:	(회오리)	괴암			(외우다)				
5	ㅜ ㅜ:		주악				<부엉이>	추위	우이루	
6	ㅓ ㅓ:		<어안>			더웁다	<저어새>	더위	저이	(처음)
7	ㅔ ㅔ:		<메아리>			제웅				(게을르다)
8	ㅟ ㅟ:					쉬웁다	<쥐엄나무>			
9	ㅣ ㅣ:		<씨앗>			기울다				(미음)
10	ㅡ ㅡ:		그악ㅎ						느이	

2.2.2.3 -CV- 및 -VC-

2.2.2.3.1 -CV-

앞서 음운목록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중에서는 어두에서 나타나지 않던 'ㄹ'이 올 수 있다. 다른 자음들과 모음과의 배열 양상은 어두의 경우와 차이가 없는 듯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두에는 없는 '-ㄹV-'의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ㅣ	ㅐ	ㅟ	ㅚ	ㅡ	ㅓ	ㅏ	ㅜ	ㅗ
이빨이	빨:래		아뢰다	심:부름	서:럽다!	오라버니	후뜨루 마뜨루	호롱뿔
ㅒ	ㅕ	ㅑ	ㅠ	ㅛ	ㅞ	ㅙ	ㅝ	ㅘ
	노력	가량	화류장	부:료				

'ㄹ'의 경우도 이중모음과의 배열이 다소 한정된 듯하다. '-ㄹㅒ-'는 표준어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어의 '차례, 비례, 실례' 등은 이 방언에서는 /차래, 비래, 실래/ 등으로 나타난다. 'ㄹ'과 w계 이중모음과의 결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2.2.2.3.2 -VC-

'-VC-'와 같은 음운배열이 있게 되면 모음과 자음 사이에 음절 경계가 오게 된다. 모음으로 선행 음절이 끝나고 자음으로 후행 음절이 시작되는 것은 언어보편적으로도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이므로 이러한 음운배열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다만 C가 'ㅇ'일 경우에는 'ㅇ'은 초성으로 올 수 없다는 음절구조상의 제약 때문에 'ㅇ' 뒤에 음절 경계가 오게 된다. 이 때 앞 모음과 어떤 제약이 존재하는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ㅣ	ㅔ	ㅐ	ㅟ	ㅚ	ㅡ	ㅓ	ㅏ	ㅜ	ㅗ
오징아	넹기다	생:쥐	주뎅이	쇵편	으능(杏)	성:냥	발빠닥	지붕	동세
ㅖ	ㅒ	ㅕ	ㅑ	ㅠ	ㅛ	ㅞ	ㅙ	ㅝ	ㅘ
		하영	비아냥	융자	용마름	<퀭하다>	쾡가리		왕

고유어로 '-ㅠㅇ'과 같은 배열을 가진 음절의 예는 '늉(시늉, 숭늉), 흉' 밖에 없다. 한자어로는 '륭/융'뿐이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ㅎ 구개음

화' 때문에 이러한 음절('-ㅠㅇ'을 가진 음절)이 '숭'으로 된 예가 많다.

(12) 숭·숭허다·숭업다·숭보다·숭물스럽다, 숭내(흉내)

'-ㅛㅇ'과 같은 배열을 가진 음절의 예는 '용'밖에 없다. '-ㅕㅇ'의 예는 표준어에도 '꿩:'밖에 없는데 이 방언으로는 '꽁:'이다.[43]

2.3 한자어 및 외래어

2.3.1 한자어

한자음 중 특이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한다. 우선 '爭'은 '장'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1) 경:장(競爭)
전:장(戰爭)

한자는 다르지만 '錚盤'이 '장반'으로 나타나는 것도 같은 부류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43) 이 방언에서 'ㄱ' 아래에서 이중모음 'ㅝ'가 'ㅗ'로 변화한 예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꼰:투~곤:투(권투), 골:련(궐련), 곤반~권반, 골롱동(권농동) <한.24>

표준어 '곤쟁이(鹵鰕)'는 선대형인 '권쟝이'가 이상의 'ㅝ > ㅗ'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형태이다.

鹵鰕 권쟝이 <譯語類解 補 31>

기원적으로 '魚'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들에서 '아'가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2) 붕아(鮒魚), 숭아, 오징아, 곰장아 · 뱀장아, 뱅아포

그러나 '민어'처럼 표준적인 '어' 역시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개별적인 한자음의 변화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자어이면서 원음과 멀어진 예들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3) 기렴식(記念式)
　　피:란(避難)
　　경염(經驗)
　　피:박(幣帛)
　　쥐:정(酒酊)
　　해:선긴(解産—)[44]

2.3.2 외래어

외래어는 일본어로부터 들어온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제보자들이 언어 습득 시기 대부분을 일제 치하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4) 스미또(水蜜桃), 우:동, 가이당(階段), 나면~라면, 벤또, 쓰리꾼, 간쓰메, 겨다(下駄), 다마, 사구라, 고:반소(交番), 다대미(다다미)

그 기원이 일본어가 아닌 외래어는 대부분 영어에서 들어온 것인데

44) '해산구완(解産救—)'에서 온 말인 듯하다.

이것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 영어이기는 하되 일본을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어화한 영어 기원 외래어들이 있다.

(5) 삐:루(beer), 호:테루(hotel), 네:루~네이루(rail), 고뿌(cup), 빠께쓰(bucket), 니꾸사꾸(rucksack), 테레비(television), 당꾸(tank), 구리무(cream), 오:도바이(auto bicycle), 다쓰(양말 한 다스, dozen), 스뎅(stainless), 비니루(vinyl), 도라꾸(truck), 쪼꼬레~쪼꼬레또(chocolate)

다른 한 부류는 아마도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어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다.

(6) 삔(pin), 퀴:즈(quiz), 짬:(jam), 껌:(gum), 네온 싸:잉(neon sign), 추럭(truck), 다이야(tire), 버턴(button), 아빠뜨(apartment), 터미날(terminal), 까:스(gas), 나이롱(nylon), 텐:또(tent), 뻐:쓰(bus), 삘딩(building), 쏘:세지(sausage), 햄:버거(hamburger), 탈:렌트(talent), 노:보트(robot)

'버턴(button)'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의 유성음이 어두에 오면 국어의 경음에 대응된다는 특징이 있다.

'추럭'과 '도라꾸'는 모두 영어의 'truck'에 해당하는 말인데 후자는 일본어화된 발음이다.

Ⅲ. 교체의 유형과 기본형 설정

3.1 기술 방법과 범위

앞 장에서 음운들의 계열관계에 근거하여 음운목록을 추출하고 또 이들의 통합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음운배열상에 존재하는 제약들을 알아보았다. 음운들은 이와 같은 음운배열상의 제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합하여 일정한 의미를 지닌 언어 단위(linguistic unit)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곧 형태소(morpheme)이다.

이와 같은 형태소 또는 단어들은 다시 다른 형태소 혹은 단어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더 큰 언어 단위인 구(phrase)나 문장(sentence)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 때에도 이들의 결합에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은 문법론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제약이 아니라 이들이 결합할 때의 음운변동에 있다.

이 방언에서 '맑다, 옆'과 같은 형태소는 그들의 어휘적 의미(lexical meaning)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을 보여 준다.

(1) a. /막따 · 막씀니다 · 막찌 안후 · 발꾸, 발거서, 말근 · 맑그면 · 발그니?/

b. /여피, 엽뚜, 엄만, 엽/

문법적 의미(grammatical meaning)를 표시하는 형태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보인다. 선행 요소에 따라 '-으루, -어야' 등은 '으루' 혹은 '루'로, '어야, 아야' 혹은 '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2) a. 간장으루, 줄루, 개와가루루
b. 먹어야, 좁아야, 사야

이들은 모두 음의 유사성과 의미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하나의 형태소로 파악되는 것이지만 통합관계에 있어서는 음운 형식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언어 단위가 통합관계에 따라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교체(alternation)'라고 하고 그 각각의, 모습이 다른 형태를 '교체형(alternant)'이라고 한다. 하나의 음운에 대한 교체형은 '변이음(allophone)', 형태소에 대한 교체형은 '변이형(allomorph)'이라고 부르게 된다.

언어 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 교체형의 존재는 특히 그것이 변이형인 경우에 큰 주목을 받아 왔다. 변이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동일성은 이들이 하나의 형태소에 속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 사실은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기술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 때 음상의 '차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변이형들은 그 형식에 있어 분명히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1]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떤 식으로 기술해서 '동일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기존의 음소와 비슷한 '원음소(archiphomene)'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동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변이형들 사이에 차이가 나

1) 변이형 '먹(먹어)'과 '멍(멍는다)'에서 '머' 부분. '이, 가'처럼 동일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는 부분은 원음소라는 공통점(공통 자질)만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 동일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음운론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어 '중화(neutralization)'라고 명명되었다.[2] 아예 형태소를 기술하는 층위(level)와 음운을 기술하는 층위 사이에 새로운 층위를 하나 더 넣어서 이러한 동일성은 이 층위에서 기술하자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 새로운 층위에서 기술되는 단위는 형태와 음소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형태음소(morphophoneme)'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기에 맞추어 새로운 층위의 이름은 '형태음소(혹은 형태음운) 층위'가 되고 '형태음소론(혹은 형태음운론)'이라는 독립된 연구 분야를 만들게 되었다. 형태음소는 서로 다른 음소들을 하나로 묶어 준다는 점에서 원음소와 비슷하지만 독립된 기술 층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원음소보다 명확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 뒤에 생성음운론은 형태음소와 음소를 통합한 '체계음소(systematic phomeme)'로 이러한 동일성을 포착하고 음상의 차이는 변이음의 차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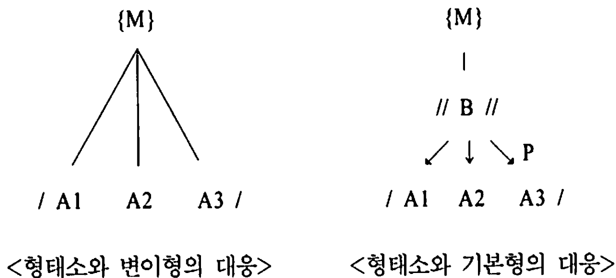
이러한 동일성의 추구는 '기본·도출식(Item and Process)' 기술 방법에 의해 완성된다.[3] 이 기술 방법은 변이형들이 원래는 하나의 음상을 가졌다가 (음운) 과정(process)에 의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음상을 가지는 원래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본형(basic form)'이라고 한다. 기본형이 생김으로써 형태소와 변이형 사이의 일대다 대응은 형태소와 기본형 사이의 일대일 대응으로 바뀌게

---

2) 이 경우 국어처럼 다양한 변이형을 갖는 언어의 경우 중화는 菅野裕臣(1993)에서처럼 그 범위가 대단히 넓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념 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중화를 변이음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수단만으로, 다시 말해서 변이음을 음소로 묶어 낼 때만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P. Hawkins 1984:112f, 배주채 1989, 1992 참조). 그러나 중화를 이렇게 좁은 범위로 한정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체계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이 개념을 창안한 프라그 학파의 의도와는 다른 개념이 된다.

3) 이에 대해서는 C. F. Hockett(1954) 참조.

되어 동일성을 완전히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음운과정은 음운규칙(phonological rule)으로 형식화된다. 기본형을 설정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형태소와 변이형(이형태)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형태소와 변이형의 대응> <형태소와 기본형의 대응>

또 다른 기술 방식인 '나열식(Item and Arrangement)' 기술 방법은 변이형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들이 나타나는 환경만을 부가해 준다.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그룹에 속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들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이 나열식 방식은 한동안 기본 · 도출식 방식에 밀려 전혀 언급조차 되지 못하다가 다소 모습이 바뀌어 자연생성음운론(Natural Generative Phonology) 등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실제 작업 과정에서는 나열식 기술이 완성되어야 기본 · 도출식 기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 · 도출식 기술에서 기본형으로부터 변이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반드시 음운과정이 아니면 안 된다. 형태소 차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형태과정(morphological process)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의미의 동일성을 가지지 못하는 형태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변이형

4) M은 형태소, B는 기본형, A는 변이형(이형태), P는 음운과정을 의미한다.

관계가 아니다.

또 이 음운과정은 반드시 공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통시적인 음운과정은 더 이상 공시적인 문법 체계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교체에 대한 기술이 시도되던 초기에는 이와 같은 점이 간과된 경우가 많았다. 모든 언어학적 기술은 기본 · 도출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전제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knife'와 'knives'에서 보이는 이형태 /naif/, /naiv/의 관계는 기본형 'naif'에서 'f → v'와 같은 음운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았다. 'f → v'가 공시적으로 영어에 존재하는 음운과정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의문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에 기본 · 도출식 기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 · 도출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형태 사이의 관계(다시 말해서 교체)는 나열식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5)

교체에 대한 본고의 기술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본 · 도출식과 나열식을 절충한 것이다. 공시적인 음운과정으로 설명 가능한 교체들은 기본형을 잡아서 나머지 변이형들은 이 음운과정으로 도출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경만을 제시해 주는 데 그치도록 한다. 또 공시적인 음운과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교체는 대부분 역사적인 변화의 산물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경우에는 역사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교체가 일어나는 통합관계는 통합 후의 결과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결합에 의해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결합에 의해 문법적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전자는 흔히 '조어(word-formation)'라고 하고, 후자는 굴절어의 경우 '굴절(inflection)'이

5) 일본에서 행해진 한국어에 대한 연구 중 일부는 일관되게 나열식 방식만을 취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菅野裕臣(1981) 참조.

라고 한다. 국어는 교착어이므로 체언, 용언 어간에 체언어미(조사)나 용언 어미가 교착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교체는 이러한 체언, 용언 어간과 체언 어미(조사), 용언 어미의 결합에 한정된다. 조어 과정에도 다양한 교체를 발견할 수 있지만 본고와 같은 대면 조사에 의한 연구는 조어와 관련된 교체를 기술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체언 어간, 용언 어간, 체언 어미(조사), 용언 어미가 본고에서 다루는 형태음운론적 기술의 주요 대상이 되는 셈이다.

본 장과 다음 장은 이 방언의 형태음운론에 대한 기술이 그 주된 내용이 된다. 형태음운론적 기술이란 다시 말해서 형태론적 구성에서의 음운 교체에 대한 기술이므로 우선 교체의 대분류를 제시하여 이후의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 형태음운론의 연구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이형들을 분석하여 일단 나열식 기술을 완성한 후 여기에서 다시 기본형과 음운과정을 추출하게 된다. 설정된 기본형과 음운과정이 타당한 것인지는 마지막으로 이 기본형과 음운과정으로 표면의 변이형들이 정확하게 도출되는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6)]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형태음운론적 기술의 주요 대상인 네 가지 부류(체언 어간, 용언 어간, 체언 어미, 용언 어미)의 기본형을 먼저 제시하고 4장에서 음운과정을 제시하기로 한다.

3.2 교체의 유형

실제 자료의 분석에 앞서 본고가 다루려고 하는 교체의 범위를 명시

6) '기본형, 음운과정, 변이형' 사이의 관계를 수학식으로 표현한다면 '기본형 + 음운과정 = 변이형'과 같이 될 것이다.

할 필요가 있다. 교체는 크게 '체계적 교체(systematic alternation)'와 '산발적 교체(sporadic alternation)'로 나눌 수 있다. 체계적 교체란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해당 언어 내부의 체계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교체이다. 용언 어간 '밟:-'이 '밟(어서), 밤:(는), 발:(꾸)'로 교체되는 것은 이 방언의 음운체계에 원인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의미 있는 교체이다. 이에 비해 산발적 교체란 그런 체계적인 이유도 없고 지속적으로 발견되지도 않는 것들이다. 대부분은 발화 실수에 기인한다. 이 방언의 어미 '-드키'는 일반적으로 '드키(끼드키), 뜨키(먹뜨키, 감:뜨키), 트키(이러트키)'로 교체되는데 단 한 번 '들키(단 꿀 빠들키)'와 같은 이형태가 조사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교체가 언어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의 기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교체는 '조건교체(conditional alternation)'와 '자유교체(free alternation)'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체형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해당 교체형이 나타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교체를 조건교체라고 한다. {食}을 의미하는 형태가 비음 앞에서는 '멍'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먹'으로 교체되는 것이 그 예이다. 자유교체는 이와 달리 동일한 환경에서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교체를 의미한다. {植}을 의미하는 형태는 같은 환경에서 '심'으로도(심으믄) '싱그'로도(싱그믄) 나타난다.[7] 이 두 교체는 모두 본고의 기술 대상이 된다.

조건교체에 대해서는 다시 몇 가지 하위 분류가 가능하다.[8] 우선 '음운조건'만을 가진 교체가 있을 수 있다. 교체가 일어나기 위한 음운환경만 주어지면 무조건 나타나는 교체이다. 이 방언에서 음운배열제약을 반영한 교체는 모두 이러한 교체들이다. 구강음의 비음으로의 대치가 대표

7) 그러나 실제 자료를 엄밀하게 검토해 보면 자유교체는 그다지 흔히 발견되는 경우는 아니다.

8) Davenport, M. and S. J. Hannahs(1998:115-9) 참조.

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자음이 비음이기만 하면 어간, 어미의 결합(낫만 /난만/, 뻡는다 /뻠는다/)이나 조어(앞니 /암니/)에서, 그리고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도(부뚜막 맨든다구 /부뚜망 맨든다구/) 교체가 일어난다.

두 번째 유형의 교체는 음운조건 외에 '형태조건'을 가진 교체이다. '형태조건'에는 형태소 경계 그리고 체언, 용언과 같은 형태 범주가 포함된다. 비음 어간 뒤의 경음화 혹은 반모음화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국어의 많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방언에서도 비음 뒤에서 평음인 장애음이 경음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안:구 /안:꾸/) 이러한 교체는 늘 '용언 어간'이라는 형태조건을 필요로 한다. 음운조건이 주어져도 이러한 형태조건이 없으면 이러한 교체는 실현되지 않는다(안(內)과, 만 사람).

세 번째 유형의 교체는 '어휘조건'이 필요한 교체이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음운조건과 형태조건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조건교체 중 가장 많은 조건이 필요한 교체라고 할 것이다. 이 방언에서는 長母音이 모음 앞에서 短母音으로 교체되는 예가 있는데 이 교체는 음운조건(모음 앞에서), 형태조건(용언 어간) 외에 어휘조건도 필요하다. '적:다, 끌:다, 좋:다, 엽ㅆ:다, 많:다' 등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단모음으로 교체되지 않는다. '살:다, 짧:다, 밟:다, 뚫:다' 등만이 이러한 교체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교체 관계를 보이는 두 이형태 사이에 음운상 전혀 공통점이 없어서 어원이 다른 형태가 이형태로 '보충'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교체가 있다. 국어의 조사 '이/가'의 교체가 이러한 예에 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체를 보충법(suppletive alternation, suppletion)이라고 한다.

이상의 네 가지 교체 중 우선 보충법은 기본·도출식으로는 절대로 기술할 수 없을 것이다. 보충법 관계에 있는 이형태 사이에는 어떤 음운

상의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둘 사이를 이어주는 음운과정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반대로 음운조건만을 가진 교체를 나열식으로 기술한다면 이러한 기술은 효율적인 기술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몇 가지의 음운과정만으로 다양한 환경의 이형태에 대한 기술이 제약 없이 가능하므로 기본 · 도출식이 효율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두 번째 유형(음운조건과 형태조건을 가진 경우)과 세 번째 유형(어휘조건까지 가진 경우)은 논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유형의 교체에 적용되는 음운과정은 생산적일 수 있다고 본다. 형태조건은 화자의 문법 지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어간 '당-'에 용언 어간이라는 정보만 주면 경음화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생산성의 증거가 된다(당따, 당꾸, 당아서).[9] 따라서 이러한 교체는 기본 · 도출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문제가 되는 교체 유형이다. 이러한 교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영어의 'naif/naiv'의 교체는 이 세 번째 유형에 들면서도 성격이 명확한 예에 속한다. 이러한 교체를 보여주는 어휘의 수가 그렇지 않은 어휘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다. 'chief, roof' 등 많은 예들이 'f → v'와 같은 음운과정과는 관계가 없다(chiefs, roofs). 그러므로 이러한 어휘조건을 가진 교체를 기본 · 도출식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고 어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서 이 부류에는 음운과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할 수 있다. 어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예들은 극소수일 때는 '소수 규칙(minor rule)' 또는 '예외'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교체는 어휘조건을 만족시키는 어휘의 양, 연구자의 기술 태도에 따라 기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방언에도 이러한 교체가

9) 이에 대해서는 4장의 '경음화 2' 부분 참조.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기술 방식을 미리 규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교체의 성격, 다른 교체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체가 언급되는 곳에서 신중하게 기술하기로 한다.[10)]

3.3 체언 어간과 어미

3.3.1 체언 어간

3.3.1.1 말음이 자음인 어간[11)]

3.3.1.1.1 단자음 어간

단자음 어간은 어간 말음을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어간 말음이 장애음인 것은 'ㅂ, ㅍ; ㅌ, ㅅ, ㅈ, ㅊ; ㄱ, ㄲ, ㅋ' 아

10) 물론 교체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 외에도 많이 있다. 본고는 다만 해당 교체를 기본·도출식으로 기술할 것인지 아니면 나열식으로 기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체의 유형 분류법을 취한 것뿐이다.
교체의 분류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이하의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우선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L. Bloomfield(1926, 1933:210f), Z. S. Harris(1951:208-10, 219-24), C. F. Hockett(1958:279-81), P. H. Matthews(1973:91-3), A. H. Sommerstein(1977:41-3). 국내 논저 중 본고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경아(1999), 宋喆儀(2000:292), 이혁화(2002a). 이러한 논저를 다룰 때(특히 국외 논저의 경우에) 주의할 점은 비록 이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automatic alternation'은 이상의 국외 논저에서 모두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C. F. Hockett(1958)와 그 밖의 다른 논저들 사이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11) 여기서는 말음이 자음인 어간을 줄여서 '자음 어간'이라고 부른다. '말음이 모음인 어간'은 '모음 어간'이 된다. 이와 같은 명칭은 J. Marouzeau(1951:227)에서 제시된 바 있다. 설명의 편의상 '자음 어간' 중 말음이 폐쇄음인 것들은 '폐쇄음 어간', 말음이 폐쇄음 'ㅂ'인 것은 'ㅂ 어간' 등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흡이다. 이 중 'ㅈ, ㄲ'은 그 예가 '낮, 밖' 외에는 없으므로 들은 어간 말음 체계에서 그 위치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또 어간 말음이 'ㅂ, ㅅ, ㄱ' 이외의 경우는 재구조화를 겪었거나 현재도 재구조화 과정에 있다. 양순음, 연구개음 계열은 해당 조음위치의 평음 'ㅂ, ㄱ'으로, 'ㅌ, ㅈ, ㅊ'은 'ㅅ'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재구조화의 양상이 동질적인 양순음, 연구개음을 묶어서 먼저 설명하고 그 후에 나머지 'ㅌ, ㅈ, ㅊ' 어간의 경우를 검토하도록 한다.

체언 어간의 경우는 교체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대표적인 어간 하나만 교체형의 예를 보이기로 한다.

① 양순음과 연구개음

어간 말음이 양순음인 것에는 'ㅂ, ㅍ', 연구개음인 것에는 'ㄱ, ㄲ, ㅋ'이 있다.

【1】 ㅂ - 무릅, 볏집(볏짚), 헝:겁, 염:집(여염집), 구덥 ^(치다),12) 사랍(서랍), 한 접(오이)

(1) 무릅 : 무릅이라구, 무릅은 · 무릅을, 무릅에

【2】 ㅍ - 앞, 숲, 옆, 섶

(2) 앞 : 앞이구, 앞은, 앞에 · 앞에서

【2-1】 ㅍ~ㅂ - 잎~입(葉)

(3) 배춧닢을 · 잎은 <한.89> ~ 떡닙을 · 솔립이(①제보자)

【3】 ㄱ - 닥(鷄), 손꾸락, 구녁~구녕(구멍), 혼역(홍역), 칙(칡), 흑(흙), 그륵~

12) 어간말의 'ㅂ'이 'ㄱ'으로 변화된 예도 보인다. 진구덕 <한.162>.

그릇, 한 죽(양말, 그릇, 옷), 한 축(오징어), 팔 짝[13](쌀), 한 말 턱 <한.103>
(4) 닥 : 닥이 · 수탉이 · 첫닥이, 닥은, 닥에

【4】 ㄲ - 밖
(5) 밖 : 밖이, 밖은, 밖에

【5】 ㅋ - 새벽녘
(6) 새벽녘 : 새벽녘이, 새벽녘은, 새벽녘에

【5-1】 ㅋ~ㄱ
(7) a. 구섴≪自≫[14]~구석 : 구섴을갖다 · 구섴에 · 구섴에다 ~ 구석이라구 두 · 구석은 · 구석에
b. 붴:(~부엌)~부억 : 붴:이야, 붴:에 · 부엌에다 ~ 부억이야 · 부억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간 말음이 양순음, 연구개음인 경우는 해당 조음위치의 평음으로 완성되었거나 진행 중인 예가 많다. '잎~입, 부엌~부억'은 현재 재구조화 과정에 있고 아래의 예들은 이미 재구조화가 완성된 경우이다.

(8) 무릅(< 무릎), 볏집(< 볏짚), 헝:겁(< 헝겊)

이러한 재구조화는 음절말 위치에서의 평음화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어간 말음이 '무릎'처럼 아직도 'ㅍ'이었던 시기에 평음화로 인해 자음 앞에서와 휴지 앞에서 '무릅'과 같은 이형태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

13) 기본형은 '작(勺)'이다.
14) '≪自≫'는 해당 어형이 질문지에 의한 응답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대화에서 나타난 발화형임을 나타낸다. 質問紙에 의한 응답형은 '≪質≫'로 표시한다.

체언 어간은 용언 어간과 달리 자립형태소이며 조사와의 결합에서도 해당 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휴지 앞에서의 이형태(단독형) '무릅'이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또 다른 이형태 '무릎'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패러다임이 이형태 '무릅'으로 통일되면서 '무릎 > 무릅'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이다. 용언 어간의 경우는 의존형태소이기 때문에 단독형으로 사용될 기회는 없으며 이것이 용언 어간에서는 같은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않은 원인일 것이다.[15)]

그런데 '앞, 옆, 숲, 섶, 밖'과 같은 어간들은 이러한 재구조화를 겪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재구조화가 단어에 따라 속도를 달리 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명사들은 처격조사 '-에'와의 결합이 빈번하다.[16)] 그런데 처격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생략이 잘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9) a. 밥이 많다 ~ 밥 많다, 영화를 본다 ~ 영화 본다
b. 방에 남아 있다 ~ 방 남아 있다*, 책에 써 있다 ~ 책 써 있다*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달리 처격조사 '-에'는 생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음화가 적용될 여지도 그만큼 줄게 된다.

(10) a. 무릎이 아프다 ~ 무릅 아프다, 무릎을 고친다 ~ 무릅 고친다
b. 무릎에 붙여라 ~ 무릅 붙여라*

---

15) 이러한 설명은 姜昶錫(1985), 배주채(1989:52)에서 행해진 바 있다.
16) 배주채(1989:52) 참조.

그러므로 처격조사 '-에'와 빈번히 결합하는 '장소 명사'의 특수성이 재구조화를 저지하고 있는 요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17]

② 치조음과 경구개음

어간 말음이 치조음인 것과 경구개음인 것에는 'ㅌ, ㅅ, ㅈ, ㅊ'이 있다.

【6】 ㅌ

(11) 곁 : 곁은, 곁에, 곶이[18]

【7】 ㅅ - 윷, 못, 버섯, 잣:, 젓(乳), 굿, 빗(櫛), 빗(負債), 새우젓 · 육젓 · 추젓, 옷(衣服), 무릇, 갓, 비웃, 옷(옻), 쥐돗, 돗(帆)

(12) 이웃[19] : 이웃이지, 이웃을 · 이웃은, 이웃에

【8】 ㅈ[20]

(13) 낮(晝) : 낮이나, 낮에두

---

17) 말음이 'ㅈ'인 체언 어간으로 '낮'이 유일한데 '낮'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로 처격조사 '-에'와 자주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다른 어간들도 처격조사 '-에' 앞에서는 재구조화되기 이전의 어간 말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8) 구개음화에 의한 발음이다.

19) [2] 제보자의 경우는 처격조사 '-에' 앞에서는 '이웆'을 쓴다.

이웃이, 이웆에 · 이웆에서

20) <한>에는 이 외에도 '맞, 갖'과 같은 예가 더 나타난다.

부엌 맞으루 문이 있구 <한.67>
그거 갖으루 다 사줬어 <한.118>

그런데 이 예들은 다른 조사와의 결합예가 없으므로 '맞으루, 갖으루' 자체가 하나의 부사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ㅈ' 어간으로는 '낮'이 유일예라고 할 수 있다.

【9】 ㅊ

(14) 몇 : 몇이셔? · 연세가 몇이세요?, 몇은

숯 : 머리숯이 많:다, 숯은

치조음과 경구개음에 속하는 자음을 어간 말음으로 가진 경우에는 어간말 자음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그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7-1】 ㅅ~ㅊ[21]

(15) 꼿~꽃 : 꼿이 · 꼿이라구, 꼿은 · 꼿으루, 꼿에 · 꼿에서 ~ 꽃이, 꽃으루, 꽃을, 꽃에

팟~팣(赤豆) : 팟이, 팟을 · 팟은 · 팟으루, 팟에 ~ 팣을

숫~숯 : 참숫이, 숫을 펴: 가주구 · 숫은, 숫에 ~ 숯이

햇빗~햇빛 : 햇빗이, 햇빗은, 햇빗에 ~ 햇빛이라 그러지 · 빛이, 햇빛을

낫~낯(顔面) : 낫이, 낫은 · 낫을, 낫에 · 낫에다 ~ 볼 낯이 업다, 낯을

【7-2】 ㅅ~ㅌ

(16) 끗~끝(末) : 끗이, 끗은 있어두, 요 끗에는 다. ~ 마루 끝이, 마루 끝에서

바깟~바깥 : 바깟에 ~ 바깥으루, 바깥에, 바깥이라구

볏(벳)~별(벨) : 뗑:볏이라구 ~ 벨에다가 · 햇별에, 벷이 나서

【7-3】 ㅅ~ㅌ~ㅊ

(17) 밋~밑~및 : 시루밋이라 그래, 밋은 ~ 밑이, 밑으루, 밑에다가 ~ 및을

밧~밭~밫 : 밧이라그래 · 밧이었어 · 밧은 ~ 밭에다 · 밭에서 ~ 밫을 · 밫은, 밫이

솟~솥~솣 : 솟이야 · 가마솟이 · 무시솟이, 한 솥을 · 가마솥을 · 가마솣

21) 대부분의 경우에 'ㅅ 어간'이 우세형이고 'ㅊ 어간'은 열세형이다.

은, 밥솟에서 · 가마솟에다 ~ 솥으루, 솥에다가 ~ 솣은, 솣이 · 솣이구

이 부류의 어간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ㅅ' 어간이면서 경우에 따라 'ㅊ' 어간으로 나타나는 경우(【7-1】), 'ㅅ' 어간이면서 'ㅌ' 어간으로 나타나는 경우(【7-2】) 그리고 'ㅅ' 어간이면서 'ㅌ' 어간으로도 'ㅊ' 어간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7-3】). 이들의 관계는 조건교체로 파악할 수 없다.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꼿이~꽃이). 이들은 현재 재구조화 과정에 있는 공존형(coexistant form)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치조음과 구개음 계열이면서도 평음에서는 이러한 재구조화의 기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재구조화는 평음 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둘째, 이상의 격음 어간들이 보여 주는 교체의 양상에는 규칙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일까? 이 두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부류의 자음들이 겪어 온 재구조화의 역사를 알아야 얻을 수 있다.[2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는 현재 이 방언에 없는 체언 'ㄷ' 어간이 존재하였다.[23] 기원적으로 'ㄷ' 어간이었던 것은 직접 'ㅅ' 어간으로 재구조화 한 것과[24] 일단 'ㅈ' 어간으로 재구조화한 후 'ㅅ' 어간으로

---

22) 이하의 내용은 대부분 郭忠求(1984)에 기댄 것이다. 다만 예를 조금 더 보충하고 내용을 본 논의에 맞도록 재정리했을 뿐이다.

23) 현재까지 이 방언에서 'ㄷ'을 어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은 발견된 바 없다. 다만 '것'이 최근까지 'ㄷ'을 어간 말음으로 가졌던 흔적을 보여 주는 듯한 예가 있다. '것'은 문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구어에서는 늘 '거/게'로 나타나지만 [1] 제보자는 유독 문장을 읽을 경우에 '이걷이, 이걷은, 이걷에'와 같은 형태를 보여 준다. 'ㅅ' 말음은 'ㅅㅅ'으로, 'ㄷ' 말음은 'ㅅ'으로 적던 표기법의 전통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옷'과 같은 다른 체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24) 편의상 'ㄷㅅ型'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다시 재구조화 된 것[25] 두 가지 종류가 있다.

'ㄷㅅ型'은 18세기에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8) 갇(H) > 갓 (笠)

a. 갇 爲笠 <訓民正音解例 26>

b. 네 갓ᄉᆞᆯ 當初에 엇지 더로 ᄒᆞ여 ᄆᆡᆫ드지 아니ᄒᆞᆫ다

<朴通事新釋諺解 2:32b>(1765)

내 이 갓세 딩ᄌᆞㅣ 門에 다질려 곳 반 편이 ᄯᅥ러지고

<朴通事新釋諺解 3:33b>

天靑 빗치 비단 갓과 雲南에셔 난 담 갓시니

<蒙語老乞大 7:20a>(1741)

(19) 몯(H) > 못 (釘)

a. 바갯던 모디 ᄲᅡ해 디고 <月印釋譜 23:86>

b. 錦布발을다가 窓 안ᄒᆡ 치고 못ᄉᆞ로 박고

<朴通事新釋諺解 2:41b>(1765)

머리 터럭 속에 불 틔운 쇠못시 이심과

<增修無冤錄諺解 1:25a>(1792)

이에 샹토ᄅᆞᆯ 헤치고 보와 쇠못ᄉᆞᆯ 어드니

<種德新編諺解 下:61a>(1758)

(20) 붇(H) > 붓 (筆)

a. 부디어나 손토보뢰어나 佛像ᄋᆞᆯ 그리ᅀᆞᆸ더니도 <釋譜詳節 13:52>

b. 齊筆 붓세 먹 뭇치다 <譯語類解 補 12a>(1775)

경히 말도 말고 붓ᄉᆞ로 쓰지 말며 <敬信錄諺釋 64b>(1796)

붓시 비록 죠치 아니ᄒᆞ여도 이 모양 아니 되리라

<捷解蒙語 1:17b>(1790)

---

25) 이것 역시 편의상 'ㄷㅈㅅ型'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1) 낟(H) > 낫 (鎌)

a. 낟 爲鎌 <訓民正音解例 25>

b. 낫스로 풀치다(芟茅草) <漢淸文鑑 296c>(17??)

이에 반해 'ㄷㅈㅅ型'은 이보다 1세기 늦은 19세기에 와서야 'ㅅ' 어간으로 재구조화된다.

(22) ᄠᅳᆮ(H) > ᄠᅳᆺ~ᄧᅳᆺ > ᄯᅳᆺ~ᄶᅳᆺ (義)

a. 慈悲ㅅ 힝뎌글 ᄒᆞ다 ᄒᆞᄂᆞᆫ ᄠᅳ디니 <釋譜詳節 6:2>

b. 부ᄎᆡ ᄧᅳ졔 원슈를 가프려 ᄒᆞ야 <十九史略諺解 1:72a>(1772)

웃사ᄅᆞᆷ의게 아쳠ᄒᆞ야 ᄠᅳᆺ즐 희망ᄒᆞ며 <敬信錄諺釋 2b>(1796)

ᄒᆞ려 ᄒᆞ시ᄂᆞᆫ ᄠᅳ즌 ᄀᆞ장 됴ᄉᆞ오니 <改修捷解新語 10:中7b>(1748)

c. 죠흔 ᄌᆞ녀을 보면 문득 악ᄒᆞᆫ ᄯᅳᆺ시 나고 <三聖訓經 24a>(1880)

츈츄 일근 쟝부의 ᄯᅳᆺ스로 <明聖經諺解 15b>(1883)

이제야 ᄯᅳᆺ슬 편지라 <죠군령적지 2b>(1881)

(23) 빋(L) > 빚 > 빗 (債)

a. 내 네 비들 가파 <楞嚴經諺解 4:31>

b. 무의ᄒᆞᆫ 사ᄅᆞᆷ을 무양ᄒᆞ며 빗즐 샤ᄒᆞ며 <敬信錄諺釋 80a>(1796)

c. 빗슬 져도 갑지 안니ᄒᆞ고 <三聖訓經 23b>(1880)

빗 PIT, -SI 債 <한불ᄌᆞ뎐 328>(1880)

(24) 곧(H) > 곶 > 곳 (處)

a. ᄒᆞᆫ 고대 나리니 <釋譜詳節 19:6>

b. 몸에 잘못ᄒᆞᆫ 곳즐 ᄉᆡᆼ각ᄒᆞ야 <三聖訓經 20b>(1880)

c. 심산궁곡이 비록 ᄌᆞ최를 감출 듯ᄒᆞᆫ 곳시나 <過化存神 13a>(1880)

그렇다면 원래부터 'ㅈ' 어간이었던 것은 언제 'ㅅ'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가? 앞서의 'ㄷㅈㅅ型'과는 달리 18세기부터 재구조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5) 졎(H) > 젓 (乳)

a. 五百 瓶ㄱ 져ᄌᆞ로 블 ᄡᅳᅀᆞᆸ고 <月印釋譜 10:14>

b. 祖母 唐氏 젓ᄉᆞ로ᄡᅥ 그 싀어미ᄅᆞᆯ 먹이더니 <女四書諺解 4:15a>(1736)

(26) 옷깇(LH) > 옷깃 (領)

a. 領은 옷기지오 <法華經諺解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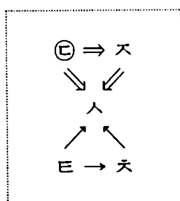
b. 小人의 옷깃슬 트러 잡고 <朴通事新釋諺解 3:52b>(1765)

이상에서 이 부류에 속하는 평음 어간들의 재구조화는 이미 전 시대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이 방언에서 이 부류에 속하는 평음 어간들에 재구조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또 평음 어간들의 재구조화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18세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ㄷ, ㅈ' 어간이 'ㅅ' 어간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ㄷ' 어간이 'ㅈ' 어간으로 변하였다가 결국에 'ㅅ' 어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격음 계열이 보여 주는 재구조화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즉 격음 어간들도 이상의 평음 어간들의 변화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ㅌ, ㅊ' 어간은 'ㅅ' 어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7-1, 7-2】). 이미 재구조화를 마친 단어도 있다(윷, 옷(옻), 쥐돗, 돗). 기원적으로 'ㅌ' 어간이었다가 'ㅊ'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다시 'ㅅ'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도 있다(【7-3】).

평음의 경우를 미루어 보아 이 【7-3】에 속하는 어간들의 재구조화가 가장 늦게 이루어지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격음이면서도 평음인 'ㅅ'으로 재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ㅅ' 계열에는 격음이 없기 때문이고, 평음 어간과 비교해 시차를 두고 재구조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郭忠求(198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의 [유기성] 자질 때문으로 생각된다.26)

이상의 논의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7)



단자음 어간 중 어간 말음이 공명음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장애음의 경우와 달리 어간 말음은 안정되어 있고 분포상의 제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10】 ㅁ - 쉬염, 텃대감(터줏대감), 댐:(다음)~담:, 시염~쉬염(수염), 한 땀(바느질), 한 두름(조기), 한 바람(새끼(繩))

26) 음운변화가 해당 음운의 계열에 따라 속도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예를 구개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주필(1994:73f)에 의하면 평음인 'ㄷ'이 격음인 'ㅌ'이나 경음인 'ㄸ'보다 먼저 구개음화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한다.

27) 'ⓔ'은 이 어간이 역사적으로만 존재함을 가리킨다. '⇒'는 이미 완성된 변화를, '→'는 공시적으로도 진행 중인 변화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중 'ㅌ > ㅅ'의 예는 실제로는 'ㅌ > ㅊ > ㅅ'의 변화 과정을 거쳤지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ㅌ > ㅅ'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11】 ㄴ - 귄:, 당신(2인칭 존칭 대명사), 한 넌 · 두: 연(모조지), 두: 권(백지 종이)

【12】 ㅇ - 발빠당, 고치장(고추장), 오랍동상(남동생) <한.132>, 한 동(나무), 한 통(배추)

【13】 ㄹ - 갈:~가을, 꺼풀, 굄새질, 올(今年), 누깔, 메물(메밀), 마눌, 바눌, 하눌, 한 길(깊이)

'기슬'을 예로 패러다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7) 기슬(기슭) : 산끼슬은, 기슬에 가 살어 (참조. 산끼슭[28])

어간 말음이 'ㅎ'인 체언 어간은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까지 'ㅎ' 어간이 존재했음을 알려 주는 예가 있다. 이 방언에 '하내' 혹은 '하나이'와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하나가'에 해당된다.

(28) a. 절라도 싸람 하내
우리 동네 살:든 동네 여자 하내
b. 하나이 육양복 옷잇을 물에 흔들며 생각난 듯이 한 마디 하려니까 <천.107>

이것은 표준어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비교적 최근까지 어간 말음 'ㅎ'을 가졌던 사실에 기인한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실이 표기에 나타나 있다.

---

28) 일상의 발화에서 '산끼슭이, 산끼슭에 · 기슭에다'와 같은 형태가 관찰된 바 있다.

(29) 도승 <u>하나히</u> 그 졀에셔 공부홀 때에 <대한매일신보 1907.11.16>
이 쳑 집안 식구라고 방구셕에는 <u>하나도</u> 못 잇고 <빈상설 35f>(1908)

모음 사이에 'ㅎ'이 탈락한 형태도 자주 나타난다.

(30) 후취 부인의 셩은 김씨니 소싱 쌀 <u>하나이</u> 잇는지라
<치악산 13>(1908)

따라서 위의 '하내'는 이 '하나이'의 후대형이며 '하나이'는 '하낳 + 이'에 'ㅎ 탈락'이 적용된 어형임을 알 수 있다.[29]

3.3.1.1.2 자음군 어간

자음군 어간은 자음군의 첫 번째 자음이 'ㄹ'로 시작하는 것('ㄹ'계)과 그렇지 않은 것(非'ㄹ'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① 'ㄹ'계

【1】 ㄼ~ㄹ
(31) 여덟~여덜 :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덜보덤, 여덜부터, 여덜두 (1제보자, <한.120>) ~ 여덜이(2, 3제보자)

【2】 ㄺ
(32) a. 까닭 : 까닭이래는 게 · 까닭이나?, 까닭은, 까닭에, 까닥두, 까닥보다,

29) '-씩' 앞에서는 '하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낙씩 (<한.78>에도 나타남)

까닥부터

가닭 : 세 가닭이 나와야

b. 겨욹[30] : 겨욹이니까, 겨욹에, 겨울두, 겨울보다, 겨울부터

【3】 ㄹㅆ~ㄹ

(33) 돌ㅆ~돌[31]

a. 돌ㅆ이 · 돌ㅆ이야, 돌ㅆ을 · 돐이 <한.60>, 돌ㅆ에, 돌 잡는다, 돌뚜, 돌 채려준다, 돌만, 돌보다, 돌부터 ~ 돌이, 돌을, 돌이구

b. (쌀을) 돌ㅆ:은 대: 먹겠지 새 쌀 날 때꺼정

② 非'ㄹ'계

【4】 ㅂㅆ~ㅂ

(34) 갑ㅆ~갑 : 갑ㅆ이 · 약갑ㅆ이, 약갑ㅆ은 · 갑ㅆ을, 갑ㅆ에 ~ 전:기갑이, 약갑을 내야지 · 전기갑은

【5】 ㄱㅆ~ㄱ

(35) 삭ㅆ~싹ㅆ~삭 : 삭ㅆ이지, 삭ㅆ을 · 삯으루 <한.62> ~ 싹ㅆ이 ~ 품싹이, 품싹은 · 뱃삭을

넉ㅆ~넉 : 넉ㅆ을 잃구 앉어서 한:참 애:기를 해 ~ 넉이

색ㅆ≪自≫~색 (色) : 색ㅆ은 · 색ㅆ을 맞춰서 해 ~ 색이

싹ㅆ≪自≫~싹 (芽) : 싹ㅆ이 나와가주구 · 싹ㅆ이 쪼:끔씩 나올 때 ~ 싹이 텄다

---

30) 개화기 자료인 <매일신문>에도 '겨욹'이 보인다(1898년 9월 9일자).

장년 겨울게 쳘파ᄒᆞ고 회샤집을 팔아 타급을 쳥쟝ᄒᆞ려 ᄒᆞ더니

31) '돌ㅆ'은 {第1回生日}이라는 뜻과(a) {1週期}라는 뜻(b)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로 '첫박ㅆ'이 더 있다.

(36) 이월에 담그는 사람이 제일 첫�으루 잘 담그는 거지 <한.99>

자음군 어간들도 단자음 어간과 마찬가지로 재구조화를 겪었거나 현재 재구조화 과정에 있다. 즉 자음군 중 두 번째 자음을 탈락시킴으로써 단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ㄺ' 어간의 경우는 현재 변화의 양상이 보이지 않지만 재구조화가 완료된 '닥(< 닭), 칙(< 칡), 흑(< 흙)'의 예가 있다.[32]

어간 말음이 단자음인 경우와 자음군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결국 이 방언의 체언 어간말 자음체계는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체언 어간말 자음을 음절말 자음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치조음과 구개음 계열에서는 음절말 자음인 'ㄷ'이 아니라 'ㅅ'으로 재구조화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33]

3.3.1.2 말음이 모음인 어간

이 방언에 존재하는 단순모음은 모두 체언 어간 말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1】 ㅣ - 이빨이,[34] 달구비, 동멩이(石), 아궁지, 천석꿍이, 짬자리, 느이

32) 'ㄱ 어간' 부분 참조.
33) 어간 말음이 치조음인 외국어 단어가 외래어로 받아들여질 때도 어간 말음은 '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internet - 인터넷, diskette - 디스켓, velvet - 벨벳, market - 마켓

34) 조사와의 결합 예는 다음과 같다.

ㅣ: - 이:(二)

【2】 ㅔ - 뻬

ㅔ: - 세:(貰)

【3】 ㅐ - 해:태, 처:내, 고랑때(골탕), 뜸네

ㅐ: - 배:(倍), 개:(犬)

【4】 ㅟ - 쥐, 바늘뀌

ㅟ: - 뉘:('누구'의 속격)

【5】 ㅚ - (양)회

ㅚ: - 외:(外)

【6】 ㅡ - 그≪文≫[35](유일예)

【7】 ㅓ - (빨래)터

【8】 ㅏ - 비나(비녀), 가름자(가리마), 오징아

ㅏ: - 다:

【9】 ㅜ - 핑구(팽이), 품:무, 갓무~갈무, 포두

ㅜ: - 무:

【10】 ㅗ - 화토

ㅗ: - 오:(五)

'ㅡ'를 어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은 문어인 대명사 '그'가 유일하다. 사전에는 '드므'도 등재되어 있으나 死語인 것으로 생각된다.

'ㅡ'와 'ㅓ'의 경우에는 장음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 어간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빨이가, 이빨일, 이빨이보다, 이빨이하구, 이빨이두

35) '≪文≫'은 해당 어형이 '文語形'임을 표시한다.

다음은 이중모음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예들이다.

① j 계[36]

【1】 ㅒ : 대얘, 걔:
【2】 ㅕ : 겨, 켜(~케)
【3】 ㅑ : 저:냐
【4】 ㅠ : 구유
【5】 ㅛ : 요

② w 계

【1】 ㅞ : 궤:
【2】 ㅙ : 홰, (북어 한) 쾌
【3】 ㅝ : 뭐
【4】 ㅘ : 개와, 사과

다음은 대명사 어간들의 예이다. 대부분 모음 어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아 다루도록 한다. 대명사 어간은 패러다임 자체가 대단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단일한 기본형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독형만을 대표형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패러다임 내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36) 체언 어간으로 'ㅖ'를 어간 말음으로 가진 예는 조사되지 않았다.

대표형	주격	속격	대격	여격	기타	복수형
나	내가	내 꺼, 나에 집≪文≫	나:를~날:	날:더러	날 모냥으루	
저	지:가	제 책	절	제게		
우리	우리들이	우리 아들두, 우리들에 집≪文≫	우리들을	우리더러		우리들, 우리네
저이 (~저히)	저이가					저히들
너	니:가	네 집이냐, 니 팔자대루	널:	네게	너는~넌	
집이	집이가				집이는 ~집인	
느이 ~너이	느이가	느이 집이냐	너이를	느이들헌테		
그이	그이가					
지	지:가	지 손을~제 손을~즈 어머니			지두	
자기	자기가	자기 남편이				
누구	누가	뉘: 집~누:집~ 누구에 집≪文≫	누구를	누구헌테	뉘:신 줄	
아무		아뭇 소리				
당신	당신이	당신에≪文≫	당신을	당신에게	당신은	당신들, 당신네들

'나'의 대격 '나:를, 날:'과 '저'의 주격형 '지:가'의 장음은 중세국어의 상성이 음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더러' 앞에서도 대격이 나타나는데(날:더러) 이는 중세국어 당시 '-더러'가 대격을 지배했던 사실과 관계가 있다(후술함). '지:가'는 '제:가'에서 'ㅔ: > ㅣ:'의 모음상승을 겪은 형태이다.

속격은 문어형으로는 'X에'처럼 나타나지만 일상의 발화에서는 각 대명사마다 다르다.

'당신'은 2인칭과 3인칭인 경우 두 가지가 있지만 패러다임은 동일하다.

이제 이 방언의 체언 어간말 자음체계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서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ㅂ	ㅅ(ㅈ)		ㄱ		(ㄼ,ㄹㅆ > ㄹ)
↑	↗ ↖		↑		(ㄺ > ㄱ)
ㅍ	ㅌ → ㅊ		ㅋ		(ㅂㅆ > ㅂ)
			(ㄲ)		(ㄱㅆ > ㄱ)
ㅁ	ㄴ		ㅇ		
	ㄹ				

<체언 어간말 자음체계>

ㅣ ㅣ:	ㅟ ㅟ:	ㅡ	ㅜ ㅜ:
ㅔ ㅔ:	ㅚ ㅚ:	ㅓ	ㅗ ㅗ:
ㅐ ㅐ:		ㅏ ㅏ:	

<체언 어간말 모음체계>

3.3.2 체언 어미(조사)

3.3.2.1 두음이 자음인 어미[37)]

자음 어미 중 두음이 공명음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만, -만큼, -마당(~마담~마닥)

두음이 장애음인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7) 말음이 자음인 어간을 '자음 어간'으로 줄여서 부른 것처럼 두음이 자음인 어미는 '자음 어미'로 부른다.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도 같은 의미이다(배주채 1993 참조).

【2】 -보덤~보담~보다, -버텀~부텀, -뻬에,
-두, -더러, -서건, -처럼,
-커녕,[38] -께, -께서, -꺼정(~꺼장),
-허구, -알라(← 할라), -한테(~헌테)

'-알라'는 <천>에서만 보인다.

(37) 약국 심부름하는 애들과 사귀어 본 것도 돌석이알라 셋이나 되지만 <천.40>

'알라'로 표기되어 있지만 충청, 전라방언의 '-할라'나 <민중>, <한글>의 '-할래'를 고려하면 기본형은 '-할라'인데 모음 사이에서 'ㅎ' 탈락이 일어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이 '-할라'이므로 자음 어미로 분류한다.

'-더러'는 체언 어간 말음이 장애음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교체형 없이 /더러/만이 쓰인다.

(38) 아범더러, 할머니더러, 아이들더러

즉 체언 어간에 붙어서 {與格}을 의미하는 조사인 것이다. 그런데 선행 체언이 대명사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39) 날:더러[39]

38) '-커녕'이 다른 체언 어미 '-은/는'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커녕'이 늘 선행한다.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 순서가 반대가 되었다.

뜯어먹기커녕은 밑천까지 까먹어 버리구 <천.17>

39) '나더러'도 존재한다.

이 때의 '날:더러'는 '날: + 더러'로 일차적으로 분석된다. 이 때 '날:'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위에서 살펴 본 '-더러'는 일반적으로 체언 어간에 직접 붙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날:'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더러'의 선대형인 '-ᄃᆞ려'는 중세국어에서는 대부분 대격조사를 지배(government) 하였다. 이는 '-ᄃᆞ려'가 기원적으로는 동사 'ᄃᆞ리다(率)'의 활용형이 문법화한 것이고 이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40) 날ᄃᆞ려 니ᄅᆞ샤ᄃᆡ　　<月印釋譜 序 11>

須達일ᄃᆞ려 닐오ᄃᆡ　　<釋譜詳節 6:19>

그 후에 '-ᄃᆞ려'의 이러한 대격조사 지배는 약화되었지만 1인칭 대명사에서만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3.3.2.2 두음이 모음인 어미

다음의 모음 어미들은 어미의 두음이 '에'와 '이'로 교체되는 것들이다.

【3】 -에/이, -에서1/이서, -에서2～서/이서

(41) a. 산꼭대기에 서서

a'. 아이가 한 집이 셋:만 있어두

b. 조선일보사에서 (사진을) 백여서 준 거예요

b'. 시집이서 출입을 아주 막아버리구

c. 그냥 바깥에서 ~ 미:국서 많:이 살다가

c'. 육이오때 우리집이서 … 전:쟁을 했어요

선행 체언이 '집'이거나 '집'을 포함한 합성어일 때만 '-이X'이고(a', b', c') 나머지 경우는 '-에X'이다. 유독 '집' 뒤에서만 이런 이형태를 가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설명된다. '-에서'의 '에'는 기원적으로는 처격의 '-에'와 동일한 것인데 중세국어 당시에 '집' 등의 일부 명사에는 처격으로 '-에' 대신 '-의'가 사용되었다. 후에 이 '-의(ɯi)'가 'ɯ' 탈락에 의한 單母音化 과정을 거쳐 '이'가 된다.40)

(42) 집의 > 집이 (ɯi > i)

따라서 처격조사 '-에'와 '-서(< 이셔)'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사 '-에서'도 '집' 뒤에서는 '-이서(< -의서)'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게 된다. 공시론적으로는 '집'이란 단어에 국한되는 어휘조건에 의한 교체로 볼 수 있다.

'-에서1'과 '-에서2'는 문법적 기능이 다를 뿐 아니라 '-에서2'는 '서'와 같은 자유변이형을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가 쓰이는 경우의 선행 체언은 '어디, 미:국, 보:문동, 포항, 효자동, 동네' 등 지명이나 공간 등 처소를 지시하는 체언인 경우가 많다. '에'와 '서' 모두 {處格}의 의미가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 생략되어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탈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미상의 異化에 의한 탈락을 보이는 셈이다.

선행 체언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는 또다른 모음 어미로는 '-에/으~이'가 있다. {屬格}을 표시하는 격조사이다.

【4】 -에/으~이

(43) 어려운 사람에 집은 초가루

---

40) 이에 대해서는 이병근(1991:17) 참조.

선행 체언이 '남(他人)'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으' 또는 '우'로 교체되지만 드물게 '이'나 혹은 '에'로 나타나기도 한다.[41)]

(44) a. 남으 집, 남으 말[42)]
b. 남우 예편네, 남우 것을 먹구
c. 남이 나라 싸람이 와서 주권을 잡아가주구
d. 남에 나라에 와서

다음의 모음 어미들은 두음이 '이'와 'Ø'로 교체되는 것들이다.

【5】 -이나/나1, -이나/나2, -이서/서

---

41) '집' 뒤에만 나타나는 '-이X'와 '남' 뒤에만 나타나는 '으~이'는 이전 시기의 어형이 일종의 화석처럼 남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방언의 어형 중에는 과거에 존재하던 체언 어미의 형태를 화석처럼 보존하고 있는 예가 있다. 이 방언에서 나무를 실어서 운반할 때 말이 끌 경우는 '마차루 (한 차) …'로 표현하지만 소가 끌 경우에는 '우마차루 … '가 아니라 '쇠:게'라고 한다.

쇠:게 실었다, 쇠:게 한 차라, 쇠:게 실은 거
쇠:게에 실었다, 쇠:게루 한 차 실었다, 쇠:게에 실은 차

이 때의 '쇠:게'는 다름아닌 중세국어의 '쇠게'에 해당되는 것이다. 표준어의 여격조사가 기원적으로 속격조사와 '-게(< 그에)'의 결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평칭인 '-에게'는 평칭의 속격조사 '-의/의'와 '-게'의, 존칭의 '-께'는 존칭의 속격조사 '-ㅅ'과 '-게'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쇼'와 같은 몇몇 체언의 경우는 속격조사로 'ㅣ'를 취하였는데 이에 따라 여격조사 역시 'ㅣ + 게'로 'ㅣ게'가 되어 결국 '쇠게'로 나타나곤 하였는바 이 결합형 자체가 현재까지 화석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믈게 불이며 <u>쇠게</u> 쁠여 가솜 빅 ᄒᆞ야 디며 <救急方諺解 下:29a>
벼 뷔여 <u>쇠게</u> 싯고 <歌曲原流 403>(1876)

42) '남으'는 개화기 자료에서도 발견된다.

<u>남으</u>나라 인민들은 밤낫스로 교휵ᄒᆞ네(빅지 학당 학도 최영구 익국 독립가 중)
<독립신문 1896.9.8>

이들은 모두 선행 체언이 자음 어간이면 '이X', 모음 어간이면 'X'형으로 교체된다.

(45) 대림질이나 있우?

어른네니까 뭐 붙들기나 허지 대릴 쭐 몰:르지 않아

이 중 '-이서/서'가 출현하는 환경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방언에서 '-이서/서'는 '人數'를 의미하는 일부 체언(혼자, 둘이, 셋이, 넷이, 다섯이, 여럿이, 몇이) 뒤에서 주로 나타나고 이 외에 이러한 체언과 관련되는 의존명사 '분'과 부사 '같이' 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6) a. 혼자서 반찬두 잘해 먹구

b. 둘:이서

c. 두 분이서 그냥 가시라구

d. 다: 같이서

'혼자, 둘:이' 등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46a, b)는 '혼자 + 서, 둘:이 + 서'로 형태 분석된다.

(47) 혼자 반찬두 잘해 먹구

'둘:이'는 高永根(1978=1989:113f)에서와 같이 수사 '둘:'에 '-이'라는 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때 (c)가 문제가 된다. '두 분이서'는 '두 분 + 이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두 분이 + 서'로 분석한다면 의존명사 뒤에 접미사가 결합한다고 해야 하므로 국어의 조어법에 어긋나는 기술이 될 것이다.[43] 高永根(1978=1989:118)에서는 '둘만

이서'와 같은 예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접미사가 조사 뒤에 결합되는 현상은 국어에서 달리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두 분이서'는 '두 분 + 이서'로 분석해야 하고 이 때의 '이서'는 '서'의 이형태로 해석된다. (補註 2)

다음의 체언 어미들은 대체로 자음 어간 뒤에서는 모음 어미로, 모음 어간 뒤에서는 자음 어미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들이다.

【6】 -이/가

【7】 -을/를~ㄹ, -은/는~ㄴ

'-이/가'는 교체형 '이'와 '가' 사이에 음운상 공통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보충법(suppletion)에 속하는 것이다.

【8】 -으루/루, -으루서/루서

【8】 만은 어간 말음이 'ㄹ'일 때 마치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것처럼(다시 말해서 모음 어간인 것처럼) 행동한다.

(48) a. 주소 성명을 다 일본이름으루 해서
b. 지하철루두
c. 개와가루루 닦는 거야

(49) 노인으루선

43) 高永根(1978=1989:118f)에서는 이를 "'이'에 앞서는 수량의 단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수표시어로 간주하려는 데서 오는 확대된 용법"으로 해석했다.

【8】에 속하는 체언 어미의 교체 양상은 이른바 '매개모음 어미'로 불리는 용언 어미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매개모음 어미'를 다루는 곳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3.4 용언 어간과 어미

체언 어간과 달리 용언 어간은 형식적으로 의존형태소(bound morpheme)이기 때문에 언제나 활용형으로만 확인된다. 따라서 용언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간과 이 방언에 존재하는 모든 어미와의 결합형(활용형)을 조사해서 어간과 어미의 이형태들을 모두 추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활용시 나타나는 어미가 한정되어 있는 굴절어와는 달리 교착어에 속하는 국어의 경우 어간에 교착되는 어미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어미들의 결합 양식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굴절어와 같은 간결한 활용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국어의 다양한 어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언 활용형에 나타나는 어미는 음운론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미들은 두음이 자음인 것(-고, -지, -는 등), 두음이 모음 'ㅏ, ㅓ'인 것(-아/어, -아서/-어서, -았/었- 등), 그리고 두음이 'ㅡ'이면서 어간 말음에 따라 'ㅡ'가 안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니, -(으)면, -(으)ㄹ 등)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자음 어미,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라고 부를 수 있다.

어미를 두음에 따라 이와 같이 셋으로 분류하면 국어의 용언 활용형도 이들 어미에 따라서 역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자음 어미가 활용에 참가하는 부류(먹고, 먹지, 먹는 등), 모음 어미가 활용에 참가하는 부류(먹어, 먹어서, 먹었다 등), 그리고 매개모음 어미가 활용에 참가하는 부

류(먹으니, 먹으면, 먹을 등).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각각 'Ⅰ (활용형), Ⅱ (활용형), Ⅲ (활용형)'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다.[44] '먹다'를 예로 각 활용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Ⅱ	Ⅲ
먹-	먹고, 먹지, 먹는 …	먹어, 먹어서, 먹었다 …	먹으니, 먹으면, 먹을 …

따라서 국어의 용언 활용형은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된다. 각 유형에 속하는 활용형 중 하나나 둘 정도만 조사하여 활용 패러다임을 만들어도 같은 부류에 속하는 활용형들은 대체로 같은 방식의 활용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해당 용언의 패러다임으로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45] 따라서 각 용언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은 이 세

44) 이와 같은 분류는 ≪한불ᄌᆞ뎐≫(1880)을 비롯하여 Gale의 ≪한영ᄌᆞ뎐≫(1887), 朝鮮總督府編인 ≪朝鮮語辭典≫(1920)과 같은 여러 대역사전들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불ᄌᆞ뎐≫은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역사전이었기 때문에 표제항이 된 용언에 대해 활용형을 제시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李秉根 1990b:557). 그런데 이 활용형의 제시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고도 간결하였다. 즉 해당 표제항이 된 용언에 어미 '-다, -아/어, -은'과 결합한 활용형만을 보여 준 것이다. 국어에 많은 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상으로는 위의 세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명시적인 언급은 발견할 수 없으나 ≪한불ᄌᆞ뎐≫의 이러한 처리 방식은 국어의 활용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미 '-다, -아/어, -은'과 결합한 활용형을 대표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활용 패러다임의 제시 방법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河野六郎(1955)에 이르러서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河野六郎(1955)에서 사용되는 '活用形'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국어학에서 사용되는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河野六郎(1955)에서의 '活用形'이란 어미의 頭音까지를 포함한 부분이다. 따라서 '먹다'를 예로 들면 각 활용형은 '먹, 먹으, 먹어'가 되고 순서대로 '第Ⅰ活用形, 第Ⅱ活用形, 第Ⅲ活用形'이라고 한다. 모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을 제시하는 순서도 이전의 대역사전들과는 다르다. 현재는 동일한 개념이 일본의 일부 한국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語基'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방식에 대한 연구사적 개관은 菅野裕臣(1997) 참조.
45) 다만 활용 패러다임이 다른 용언 어간들에 비해 복잡한 경우라면(자음군 어간, 'ㄹ' 어간, 이른바 불규칙용언 어간 등) 조금 더 확장된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

유형에 속하는 예들만을 차례대로 제시하되 쉼표(,)로 구분하기로 하고 같은 유형의 활용형에 속하는 예들은 가운데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3.4.1 용언 어간

3.4.1.1 말음이 자음인 어간

3.4.1.1.1 단자음 어간

단자음 어간은 어간 말음을 ①폐쇄음, ②마찰음과 파찰음, ③비음, ④ㄹ, ⑤ㅎ, ⑥기타 불규칙, 이 여섯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 중 처음 세 부류의 어간(어간 말음이 폐쇄음, 마찰음과 파찰음, 비음인 경우)은 교체의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대표적인 어간 하나만 교체형의 예를 보이기로 한다.

①폐쇄음

어간 말음이 폐쇄음인 것은 'ㅂ, ㅍ, ㄷ, ㅌ, ㄱ, ㄲ' 여섯이다. 해당 조음위치에서 평음은 반드시 존재하고(ㅂ, ㄷ, ㄱ) 비평음의 경우에는 격음(ㅍ, ㅌ)이나 경음(ㄲ) 중 하나만 존재한다.

【1】ㅂ

곱다(추워서 손이~), 굽다(曲), 뽑다(拔), 씹다(嚙), 업다(負), 입다(着), 좁다(狹), 집다(拾), 뒤집다(返), 수집다(수줍다), 졸:잡다(줄여 잡다)

(1) 수집다(수줍다) : 수집지, 수집어서, 수집으면

【2】 ㅍ

갚다(返)≪質≫(참조. 갚으다≪自≫),46) 깊다(深)≪質≫(참조. 깊으다≪自≫), 넢다(高)≪質≫(참조. 넢으다≪自≫, 높다),47) 덮다(覆), 엎다(伏), 짚다(지팡이를~)

(2) 넢다(高) : 넢다, 넢아서, 넢으니까

【3】 ㄷ

걷다(捲), 곧다(直), 굳다(固), 닫다(閉)(참조. 닫치다), 돋다(해가~), 딛다i(踏)(참조. 디디다),48) 뜯다(摘), 묻다(埋), 믿다(信), 받다(受), 받다(소가 뿔루~), 뻗다(伸), 쏟다(流), <u>얻:다</u>(得),49) 볼받다(버선~), 헛딛다i(발을~)(참조. 헛디디다)

(3) <u>얻:다</u>(得) : 얻:다, 얻:어서, 얻:으라 댕겨

【4】 ㅌ

겉다(同), 맡다(냄:새를~), <u>뱉:다</u>(吐)(참조. 뱉:으다≪自≫), 붙다(附)(참조. 붙으다), 얕다(淺)(참조. 얕으다≪自≫), 똑같다(同), 부릍다(腫)(참조. 부릍으다≪自≫), 생때겉다i(~은 자식)50)

(4) <u>뱉:다</u>(吐) : 뱉:지 · 뱉:는다, 뱉:어라 · 뱉:어 버리구, 뱉:으믄

---

46) 질문지에 의한 응답형과 일상의 발화에서 보이는 형태가 다른 경우에 각각 ≪質≫, ≪自≫로 표시해 두기로 한다.

47) ① 제보자에게서는 '넢다'로, ②, ③ 제보자에게서는 '높다'로 조사되었다.

48) 불완전용언(defective verb)의 경우는 어간 뒤에 ' i '라고 표시해 두도록 한다.

49) 어미에 관계없이 장음이 유지되는 이른바 '고정적 장음'은 밑줄을 쳐서 '유동적 장음'과 구분하도록 한다.

50) '생때겉다i'는 '생때겉은'과 같이 관형사형으로만 사용된다(생때겉은 자식, 생때겉은 느이 오빠).

【5】ㄱ

녹다(溶), 막다(遮), 먹다(食), 묵다(古), 박다(打), 삭다(결이~, 쇠가~), 속다(欺), 식다(冷),[51] 썩다(腐), 약다(賢), 익다(熟), 작:다(小), 적:다(少), 적다(記入), 죽다(死), 찍다(切), 곰:삭다(醱酵), 엇먹다(傾), 알겨먹다(喝取), 어리석다(愚), 열:적다(쑥스럽다)[52]

(5) 열:적다(쑥스럽다) : 열:적지, 열:적어서, 열:적으면

【6】ㄲ

겪다(經驗), 깎다(削)(참조 깎으다≪自≫), 꺾다(折), 닦다(拭)(참조 닦으다, 딲다), 볶다(煎), 섞다(混)(참조 섞으다≪自≫), 엮다(編)(참조 엮으다≪自≫), 엮다(編), 잡어낚다(잡아낚다)

(6) 닦다(拭) : 닦는다, 닦았다 · 닦어 오나라, 닦으믄

어간 말음이 폐쇄음이면서 비평음인 경우에 어간 말음 뒤에 '으'가 붙어서 어간이 확장된 공존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53] 어간이 확장된 형태는 일상의 발화에서 많이 관찰된다. 그러므로 어간 확대형이 발견되지 않은 다른 어간의 경우도(맡다 등) 실제로는 '으' 어간 확대형을 공존형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51) '식다'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더운 기가 없어지는 것으로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이 방언에서는 인공적으로 가한 찬 기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냉장고에서 꺼낸 주스를 권하며) 식기 전에 들어요

52) '열:적다'는 표준어로는 '열:없다'이다. 문화어에서는 '열:적다'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53) 경기방언과(李秉根 1975), 전남 고흥방언에서도(배주채 1998:87)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李秉根(1975=1979:83f)에서는 매개모음 어미에 유추되어서, 배주채(1998)에서는 어간의 형태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7) a. 갌다 - 갌으다, 깊다 - 깊으다, 넓다 - 넓으다

b. 밸:다 - 밸:으다, 붙다 - 붙으다, 얕다 - 얕으다, 부릍다 - 부릍으다

c. 깎다 - 깎으다, 닦다 - 닦으다, 섞다 - 섞으다, 엮다 - 엮으다

이와 같은 공존형의 존재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현재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릍다'를 예로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자. '부릍다'는 사전에서 흔히 '부르트다'의 준말로 기술되고 있다.[54]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부릍다'가 오히려 기원적인 형태이다. 후기 중세국어에는 '부릍다, 부룯다' 등으로 나타난다.

(8) a. 새배 ᄃᆞᆫ녀셔 바ᄅᆞᆯ 녯 부르튼 거ᅀᅳ로 ᄇᆞᆯ오니라 <杜詩諺解-初 24:33a>

거츤 뫼헤 바리 부릍고 ᄀᆞ장 시름ᄒᆞ야 <杜詩諺解-初 16:49a>

b. 趼 부루틀 견 <訓蒙字會 中:16b>

근대국어에 있어서도 어간에는 변화가 없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표기상으로 '부릇'으로 나타나지만 ≪한불ᄌᆞ뎐≫의 발음 표시를 보면 형태음운적으로는 '부릍-'임을 알 수 있다.

(9) 脚繭 발 부릇다 <譯語類解 補 22:a>

부릇다 POU-REUT-TA, -REUT-HTE, -REUT-HTEUN <한불ᄌᆞ뎐 344>

맛는 곳마다 푸르고 부릇트니 <太上感應篇圖說諺解 5:18a>

19세기말 ≪國漢會語≫에 'ㅡ'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형태가 나타난다.

(10) 부릇트다 潤繭 手足之繭 <國漢會語 151>

54) 대표적으로는 <한글>, <표준>이 그러하다. '부릍다'가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朝和>, <연세>).

'부릍으다'의 경우를 보면 모음 'ㅡ'에 의한 어간의 재구조화는 19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예 중 어간 뒤에 ' i '로 표시된 것은 해당 어간이 '불완전용언(defective verb)'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간들은 활용에 있어 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지지 못한다. '디디다'와 '딛다i'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11) a. 디디다 : 디딘다, 디더라, 디디믄
b. 딛다 : 딛지 말:구, 디더ˣ, 디드믄ˣ

파생어인 '헷디디다'와 '헷딛다i'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55] 뒤에서도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경우 재구조화된 어간은 불완전용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56]

이상의 예들 중 '넓다, 겉다'는 모음 어미가 결합될 때 이 방언의 일반적인 교체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12) 넓다, 넓아 cf) 덮다, 덮어
겉다, 겉애 cf) 붙다, 붙어

이에 대해서는 모음 어미를 다루는 '3.4.2.2 두음이 모음인 어미' 부분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이 어간들이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 양상이 불규칙적이라는 점만을 지적하도록 한다.

---

55) '디디다'의 준말로 설명되던 '딛다'가 불완전용언임을 지적한 것은 宋喆儀(1993:17)이다.

56) '덥:다!'의 공존형인 '더웁다i' 등.

a. 덥:다 : 덥:구, 더워서, 더우믄
b. 더웁다i : 더웁구 · 더웁지, ×, ×

② 마찰음과 파찰음

어간 말음이 마찰음인 것과 파찰음인 것은 'ㅅ, ㅆ ; ㅈ, ㅊ' 넷이다. 이 중 'ㅊ'의 예는 '쫓다'가 유일하고 '쫓이다'라는 공존형이 존재하므로 어간말 자음으로서 'ㅊ'의 존재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7】 ㅅ

벗다(脫), 빗다(櫛), 뺏:다(奪), 솟다(湧), 씻다(洗)(참조 씻으다), 웃:다(笑), 줏:다(拾)(참조 줏으다), 비웃다(嘲笑), 빨(::)가벗다(裸)[57]

(13) 뺏:다(奪) : 뺏:다, 뺏:어라, 뺏:으라구

【8】 ㅆ

있다(有, 在), 맛있다(珍味), 재밌다(興味)

(14) 있다(有, 在) : 있구, 있어서, 있으면

【9】 ㅈ

궂다(惡), 꽂다(揷), 낮다(低), 늦다(遲), 맞다(的中), 맺다(結), 잊다(忘), 잦다(頻繁), 젖다(濡), 짖다(吠), 찢다(破), 찾다(探), 짓:궂다(~게 굴다), 곰:살궂다(情), 궁상맞다(窮狀), 꾸짖다(叱), 넉살맞다(厚), 독살맞다(성격이~), 부딪다(衝), 징글맞다(징그럽다), 험:상궂다(險狀)

(15) 부딪다(衝) : 부딪지 · 부딪구, 부딪어서, 부딪이니까

57) '::'은 표현적 장음을 가리킨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예에만 표시했다. 또 어휘적 장음과 달리 반드시 장음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괄호로 묶어서 표시했다. 이 밖에도 표현적 장음은 '시퍼(::)렇다'처럼 비어두 위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적 장음과 다르다.

【10】 ㅊ

쫓다(追)(참조. 쫓이다)

(16) 쫓다(追) : 쫓구, 쫓아서, 쫓으면

앞에서 어간 말음이 비평음인 폐쇄음일 경우에는 어간 말음 뒤에 '으'가 붙어서 어간이 확장된 공존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깊다 - 깊으다). 그런데 어간 말음이 마찰음 'ㅅ'인 경우에도 이러한 예가 나타난다.

(17) 씻다 - 씻으다
　　줏:다 - 줏으다

'ㅊ' 어간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단일어간의 예는 '쫓다' 하나뿐이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후기중세국어 당시에는 'ㅊ' 어간이 꽤 여럿 있었으나 이들은 현대에 와서 모두 'ㅣ'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즉 'ᄆᆞᆾ다(L), 및다(L), 뉘읓다(LR), ᄉᆞᄆᆾ다(LL)' 등은 후대에 모음 삽입에 의해 각각 '마치다, 미치다, 뉘우치다, 사무치다'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것이다. 이 방언의 '쫓이다'도 같은 부류에 드는 형태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쫓다'는 이 재구조화의 흐름에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한 예가 된다. '쫓다'마저 '쫓이다'로 재구조화되면 이 방언에서 단일어간으로 말음이 'ㅊ'인 용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ㅆ' 어간으로 단일어간이 '있다' 하나뿐인 것도 역사적으로 설명된다. 이 어간은 원래 'ㅅ'을 어간 말음으로 가졌던 것으로(잇다) 현재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ㅆ'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어간말 자음이 장애음인 용언 어간들의 예이다. 이 어간들이 보여 주는 교체는 모두 2장의 '음운배열' 부분에서 제시된 음운배열제약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히 음운조건만을 가진 교체이다. 따라서 교체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음소와 관련된 교체 이외에 음장과 관련된 교체를 고려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음장과 관련된 교체는 어간말 자음이 장애음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어간의 예까지 모두 고려하면서 이곳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앞서의 장애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음장과 관련하여 이상의 장애음 어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① 장음 어간 - 얻:다, 뱉:다, 작:다, 적:다, 뺏:다, 웃:다[58]
② 단음 어간 - 뽑다, 짚다, 곧다, 붙다, 녹다, 겪다, 벗다, 낮다 등
③ 장·단 교체 어간 - 좇:다

③의 장·단 교체 어간은 모두 1음절 어간으로 자음 앞에서는 장음으로, 모음 앞에서는 단음으로 교체된다.

(18) 좇:는다, 좇어, 좇으라 댕겨

어간 말음을 장애음으로 한정한다면 ③장·단 교체 어간은 특이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의 수가 다른 부류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간 말음이 장애음

58) 유필재(2000a:43)에서 '웃:다'는 '③장·단 교체 어간'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장음 어간에 속하는 것으로 고치도록 한다. 宋喆儀·兪弼在(2000:49)도 장음 어간으로 처리했다.

이 아닐 경우에는 ③ 장 · 단 교체 어간에 속하는 어간들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① 장음 어간에 속하는 어간은 드물다.[59]

① 장음 어간 - 끌:다, 벌:다, 썰:다, 좋:다, 업ㅆ:다, 많:다, 떫:다, 엷:다, 굵:다

③ 장 · 단 교체 어간(모두 1음절 어간)

-해당 'ㅁ, ㄴ' 어간 전부('감:다, 안:다' 등),

위의 세 어간('끌:다, 벌:다, 썰:다')을 제외한 해당 'ㄹ' 어간 전부(알:다 등),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양상을 보이는 해당 어간 대부분('덥:다!, 걷:다!' 등)[60]

이상에서 ③ 장 · 단 교체 어간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간말 자음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은 말음이 공명음인 자음이거나 혹은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을 보여 주는 어간들이다.[61] 이 때 '줏:다'가 예외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어간은 이전 시기에는 공명음인 'ㅿ'을 어간 말음으로 가진 어간이었던 것이다(주ᇫ다 R![62]).[63]

59) 논의의 편의상 ② 단음 어간에 속하는 어간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60) '밉다!, 춥다!, 듣다!, 긋다!'는 장음인 이형태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61) 이것은 중세국어의 이른바 '유동적 상성'을 가진 어간의 특징이기도 하다.

62) 중세국어의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형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I	II	III
L	먹고 LH	먹어서 LHH	먹으니 LHH
L 불규칙	듣고 LH	들어서 LHH	들으면 LLH
H	크고 HH	커서 HH	크니 HH
H 불규칙	가고 LH	가서 HH	가니 LH
R	얻고 RH	얻어서 RLH(RHH)	얻으니 RLH(RHH)
R 불규칙	걷고(步) RH	걸어서 LHH	걸으니 LHH

'불규칙'에 속하는 어간들은 성조면에서 볼 때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을 보여 준다.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불규칙'은 ' ! '로 바꾸어 표시하도록 한

③ 장 · 단 교체 어간에 속하는 어간들이 보여주는 교체는 모음 앞이라는 음운조건을 가진다. 또 '용언 어간'이라는 형태조건도 가진다. 체언에는 이에 속하는 어간이 없다.

(19) 감:(柿)이, 감:을, 감:은, 감:에다가
　　 쥔:(主人)이, 쥔:을, 쥔:은

그리고 이러한 교체는 어휘조건까지 주어야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 'ㅁ, ㄴ' 혹은 불규칙 어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외('ㄹ' 혹은 자음군 어간 등)의 경우 ③ 장 · 단 교체 어간에 속하는 어간들을(알:다) ① 장음 어간에 속하는 어간들과(끌:다)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개별 어간마다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 또 어미 '-(으)우' 앞에서는 이러한 교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어미 '-(으)우'도 이 교체의 조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0) 살:우?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우?

이제 이러한 교체를 어떻게 기술해 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장음을 가진 이형태와 단음을 가진 이형태를 기본 · 도출식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이형태를 이어줄 음운과정이 필요하다. 장음을 가진 이형태를 기본형으로 보면 短母音化가, 단음을 가진 이형태를 기본형으로 하려면 長母音化가 설정된다. 둘 중에서 短母音化가 長母音化보다

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 'L 불규칙' 등은 'L!'로 쓰게 된다.

63) 그렇다면 중세국어 당시 'ㅿ'을 어간 말음으로 가진 '웃:다'(중세국어형은 '웃다 R!)' 역시 장 · 단 교체 어간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장음 어간이다. 예외적인 존재라 하겠다.

는 나을 것이다. 이 방언에서 短母音化는 비어두 위치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음운과정이기 때문이다.

短母音化를 설정한다면 그 환경은 모음 앞이 된다. 또 용언 어간이라는 형태조건도 필요하다. 이 교체는 어휘조건도 가진다.[64] 앞에서 제시한 어간들만이 短母音化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으)우'는 短母音化의 환경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교체는 기본·도출식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기본·도출식으로 기술해서 장음을 가진 이형태를 기본형으로 하고 短母音化를 설정해도 예외가 되는 어간(① 장음 어간에 속하는 어간)의 수가 적지 않다.[65] 어미 중에서도 '-(으)우' 같은 예외가 있다.

더구나 비교적 최근에 재구조화된 '뱉:다'가 ① 장음 어간인 것을 보면 短母音化 규칙의 공시적 생산성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66] '뱉:다'는 원래는 장모음 어간이 아니다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사이에 장모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는데 그 당시에 短母音化가 없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67] 당시 短母音化가 생산적인 규칙으로 존재했다면 새롭게 등장한 '뱉:다'를 예외로 둘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이른바 ③ 장·단 교체 어간들은(좇:다, 감:다, 알:다 등) 교체의 양상 그대로 나열식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즉 자음 앞

---

64) 장음 어간의 예가 장·단 교체 어간에 비하면 월등히 적기 때문에 예외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金完鎭(1972), 李秉根(1978), 崔明玉(1982) 등 참조.

65)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이 방언에서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은 모두 15개이다.

66) {吐}에 해당하는 중세국어형은 '밭다(L)'이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사이에 '배앗-'으로 재구조화되었다가 이 방언에서 일반적인 '-ㅐㅏ- > ㅐ:' 변화를 거쳐(새알심 > 샐:심) 장음 어간이 되었다.

a. 침 배앗다 噴涎 唾 <國漢會話 311>(1895)
   춤을 빅앗고 <대한매일신보 1908.7.9>
b. 침을 투투 뱃터 <목단화 337>(1911)

67) 제보자들이 모두 20세기초에 출생한 분들이라는 점만 보아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에서는 장음을 가진 이형태가, 모음 앞에서는 단음을 가진 이형태가 직접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한다.68) 이러한 교체는 형태음운론적으로 불규칙적인 것이다.69)

③ 비음

어간 말음이 비음인 것은 'ㅁ, ㄴ' 둘이다. 'ㅇ'은 어간 말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11】 ㅁ

감:다(눈을~), 감:다(洗髮), 감:다(卷), 검:다(黑), 남:다(殘), 넘:다(越), 담:다(入), 뿜:다(噴), 삼:다(사위로~), 삼:다(짚신을~), 숨:다(隱), 심:다(植)≪質≫(참조. 싱그다≪自≫), 참:다(忍), 품:다(抱), 다듬다(整, 다듬이질하다), 더듬다(探), 쓰다듬다(撫), 일:삼다(爲)

(21) 다듬다(整, 다듬이질하다) : 다듬꾸 · 다듬는다, 다듬어서, 다듬을께

【12】 ㄴ

신:다(履), 안:다(抱), 흔:다(破), 얼:싸안다(抱擁)

(22) 흔:다(破) : 흔:찌 마:라 · 흔는다, 흔어만 놓구 · 흔어다 해: 놨어 · 흔었지?, 흔으면 · 흔을 꺼지

---

68) 이러한 기술 방식은 金星奎(1988=1998:307-9)에서 행해진 바 있고 전남 고흥방언을 대상으로 한 배주채(1998:82-5)에서도 같은 방식이 보인다.

69) 그러므로 형태음운론적으로 불규칙적인 ③장 · 단 교체 어간류에 구별 표시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표기에 있어서는 독해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적인 ①장음 어간들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해 주기로 한다. 그러므로 '감: + 아서 → 감아서'는 短母音化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④ ㄹ

다음은 어간 말음이 'ㄹ'인 경우이다.70)

【13】 ㄹ

갈다(挽), 길:다(長), 길:다i(汲)(참조 긷:다!), 걸:다(掛), 깔다(敷), 끌:다(引), 널:다(빨래를~), 놀:다(遊), 늘다(增), 달:다i(受), 달다(甘), 달다(計量), 달다(懸), 덜:다(減), 들다(食尊), 들다(入), 들다(擧), 떨:다([illegible]), 말다(卷), 말다(밥을 국에~), 멀:다(遠), 몰:다(驅), 물다(돈을~), 물다(嚙), 밀:다(押), 벌:다(稼), 불:다(吹), 불:다(콩이~)(참조 붇:다!), 빌:다(祈), 빨다(洗濯), 빨다(젓을~), 살:다(生, 住), 설:다(낯이~), 슬다(녹이~, 곰팡이가~, 서캐가~), 슬다(봄눈이~, 열꽃이~), 썰:다(切)(참조 쓸:다), 쓸다(掃), 쏠:다(좀이~), 알:다(知), 얼:다(凍), 열:다(開), 울:다(泣), 일:다(거품이~), 잘다(小), 졸:다(居眠), 줄:다(減), 질다(길이~), 털:다(拂), 틀다(솜을~), 팔다(賣), 풀다(解), 헐:다(입안이~),

가늘다(細), 가물다(旱), 거:들다(助), 거칠다(粗), 겉돌다(空回), 굽널다(굼널다), 까:불다(輕薄), 까:불다(箕)(참조 까:불르다), 깨물다(嚙), 내:밀다(突), 다물다(입을~), 달겨들다(달려들다), 데:밀다(데밀다), 드물다(稀), 떠들다(騷), 매:달다(垂), 맨들다(作), 머물다i(留)(참조 머무르다!, 머물르다), 모:질다(非情), 부풀다(膨脹)(참조 부풀르다), 붙들다(소매를~), 비:틀다(曲), 시들다(枯), 아물다(癒), 엉클다(絡), 영글다(實), 오그라들다(縮), 저물다(暮), 찌들다(기름에~), 차질다(떡이~), 흔들다(搖), 힘들다(勞)

교체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ㄹ' 어간의 경우는 활용형별로 이형태를 검토하고 나중에 환경에 따라 다시 정리하는 편이 논의하기 편하다. 우선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경우 일반적인 교체형은 'Xㄹ'

70) 'ㄹ'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李秉根(1981)을 참조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다룬 자료 역시 중부방언의 것으로 본고의 자료와 차이가 없다.

이지만(살:구) 어미의 두음이 'ㄴ'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ㄹ'이 탈락된 'X'로 나타난다.

(23) a. -느냐 : 왜 조:느냐구

b. -는 : 가는 거(挽), 노:는(遊), 비:는 거지(祈)

c. -는데 : 어:는데(凍), (비누거품이) 이:는데

자음 어미 '-습니다/ㅂ니다, -는다/ㄴ다'와의 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음 어간과 결합하는 '습니다, 는다'가 아니라 모음 어간과 결합하는 'ㅂ니다, ㄴ다'와 결합하고 'X'로 나타난다.

(24) a. -ㅂ니다 : 압:니다(知)

b. -ㄴ다 : 가문다(旱), 까:분다(輕薄), 깨문다(嚙), 단다(懸)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나타나는 이형태는 모두 'Xㄹ'이다.

(25) 깔아서, 들어요, 설었다, 열어라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나타나는 이형태들의 양상은 다소 복잡하다.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형태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이 두 부류가 독립된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편이 좋다. 다시 말해서 'ㄹ' 어간의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유형의 활용형과 결합하여 공존하는 두 개의 패러다임을 만들게 된다. 둘 사이의 관계는 공존형으로 정의된다.

이 어간에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첫 번째 유형은 'ㄹ'이

다른 자음들과 같은 형태음운론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는 특별한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자음형'이라고 부르기로 하자.71)

(26) a. -은 : 갈은 거, 들은 거, 질은 거는, 맨들은, 찌들은 것이, 차질은 데다가, 팔은 게

b. -을 : 굽닐을 쑤가

c. -으믄(~면) : 널으믄, 달으면, 물으면, 얼으면, 틀으면, 엉클으면, 붙들으믄, 저뭍으믄

d. -으니까 : 시들으니까, 잘으니까, 털으니까, 떠들으니까, 힘들으니까

두 번째 유형은 'ㄹ'이 모음과 같은 형태음운론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때의 매개모음 어미들은 모음 어간에 결합하는 것과 같은 이형태의 어미들이다. 이를 '모음형'이라고 부르고 몇 예만을 들기로 한다.72)

(27) a. -은 : 선:(설은), 진 거는, 언: 빨래

b. -을 : 놀: 씨간, 내:밀 쑤두

c. -으면(~믄) : 깔면, 끌:먼, 벌:면, 빨면

d. -으니까・-으니 : 우:니, 느니깐, 머:니깐, 비:트니깐

e. -으니? : 우:니?(泣)

f. -으세요 : 우:세요

---

71) 앞에서 용언 어간 중 말음이 평음이 아닌 경우 어간 말음 뒤에 '으'가 첨가되어 어간이 확장된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갚으다). 그렇다면 '털으니까'와 같은 예도 '으'를 어간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형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는 이러한 예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털으구*) 이러한 분석 방법은 취하지 않았다.

72) '질은 거는'과 '진 거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음형과 모음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간에 대해 모두 가능한 활용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모든 어간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활용형이 조사된 것은 아니다.

g. -으시- : 우:십니까?

이 때도 'ㄹ'이 없는 이형태 'X'가 나타나는데 그 환경은 어미의 이형태의 두음이 'ㄴ, ㅅ'인 경우와(d, e, f, g) 어미 '-은, -을' 앞에서이다(a, b). '얼:다(凍)'를 예로 두 가지 유형의 'ㄹ'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73)]

(28) a. 자음형 - 얼:지 · 어:는 · 업:니다, 얼어, 얼으면 · 얼으니깐 · 얼을 · 얼은
b. 모음형 - 얼:지 · 어:는 · 업:니다, 얼어, 얼:면 · 어:니깐 · 얼: · 언:

이제까지 나타난 교체의 양상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소 차원에서만 보면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의 이형태는 어간 말음 'ㄹ'이

73) 역사적으로는 '모음형'보다 '자음형'이 개신형이다. 문헌 자료에서는 '모음형'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자음형'은 현대의 구어 자료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것은 [모음성]과 [자음성]을 모두 가진 유음 'ㄹ'이 역사적으로 [모음성]보다 [자음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李秉根(1981=1998:42, 60)에서 언급한 것처럼 '패러다임의 규칙화'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체언 어간말 'ㄹ'에서도 발견된다. 접속 조사 '-과/와'는 함경도 방언에서는 '-가('-과'에서 w가 탈락한 것)', 중세국어에서는 '-과/와', 현대 서울방언에서는 '-과/와'와 같은 교체형을 가진다.

함경방언 - 책가, 부모들가, 시어머니가 (황대화 1986:74)
중세국어 - 구룸과, ᄆᆞᆯ와, 쇼와
서울방언 - 구름과, 말과, 소와

이러한 교체의 양상은 내적 재구를 통해 기원적으로 접속 조사가 '*-과'와 같은 단일 형태였음을 말해준다. 중세국어 이전 어느 단계에서 일정한 환경 아래의 '*-과'의 두음 'ㄱ'이 탈락하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체의 환경에 있어서 'ㄹ'은 중세국어와 현대 서울방언에서 그 부류를 달리한다. 체언 'ㄹ' 어간은 중세국어에서는 모음형의, 현대 서울방언에서는 자음형의 접속 조사를 취하는데 이것은 용언 'ㄹ' 어간이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양상과 평행되는 것이다.

탈락된 'X'형과 어간 말음 'ㄹ'이 유지된 'Xㄹ'형 두 가지이다.

(29) X - 'ㄴ, ㅅ' 앞, ' -ㅂ니다, -ㄴ다, -은, -을' 앞
　　Xㄹ - 그 외

이형태 'X'가 나타나는 환경들을 검토해 보고 이를 'Xㄹ'에서 기본 · 도출식으로 기술해 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ㄴ' 앞에서 나타나는 이형태 'X'에 대해 알아보자. 'ㄴ' 앞에서의 'ㄹ' 탈락이 음운과정으로 성립할 수 있다면 이 환경에서의 'X'는 'Xㄹ'로부터 도출된 이형태로 보아 'Xㄹ'을 기본형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얼:다'를 예로 이와 같은 음운과정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얼:다'에 어미 '-는'이 첨가된 활용형은 '어:는'으로 나타나는데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상정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0) 얼:+는 → 어:는
　　　　ㄹ 탈락

그런데 'ㄹ'이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자음군 어간도 똑같은 단계를 거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

(31) 핥+는다 → (할는다) → 할른다

위의 도출 과정에는 자음군단순화와 유음화라는 음운과정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 둘이 이 순서로 적용된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을 수 있다.

(32) 삶:는다 → 삼:는다

위의 도출 과정이 '유음화 → 자음군단순화'와 같은 순서로 적용되어 '핥+는다 → 핥른다 → 할른다'와 같은 순서를 따른 것이라면 의당 '삶:+는다' 역시 '살:른다ˣ'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30)과 같은 음운과정은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74] 'ㄹ 탈락'이 음운과정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ㄴ' 앞에 나타난 이형태 'X'는 그 자체가 기본형이 된다.

'ㅅ'의 경우도 단어 경계에서는 'ㅅ'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일이 없고(잘 살아보자) 형태소 경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다(날수수). 그런데 유독 활용에서만 같은 환경에서 'ㄹ' 탈락이 일어난다는 것은 공시적인 음운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75] 그러므로 이 경우도 이형태 'X'가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직접 결합한다고 기술해야 한다.

어간 이형태 'X'가 확인되었으므로 어미 '-ㅂ니다, ㄴ다'와 결합하는 이형태 'X'도 이들 어미와 직접 결합한다고 기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미 '-은, -을'의 경우는 이형태 'Xㄹ'을 기본형으로 둘 수 있다. 'Xㄹ → X'로의 도출은 자음군단순화라는 음운과정에 의한 것이다.[76]

그러므로 'ㄹ'을 어간 말음으로 가진 용언 어간은 장・단 교체를 제외하면 두 개의 이형태 'Xㄹ'과 'X'를 가지고 후자는 'ㄴ, ㅅ'으로 시작하

---

74) 자음군 중 두 번째 자음이 [-grave]이거나(李丞宰 1980:60) 혹은 [+coronal]일 때만(郭忠求 1994a:217f) 유음화가 일어난다는 제약 조건을 주면 '삶:는다'는 해당 자음이 [+grave](혹은 [-coronal]) 자질을 가진 'ㅁ'이므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ㅀ'을 어간말 자음으로 가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도 '아들네, 딸네'처럼 개재자음 없이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宋喆儀 1990:31). 또 유음화는 2장에서 본 음운배열제약을 반영한 음운과정으로 생각되는데 'ㅌ, ㅎ'과 같은 저해음이 사이에 있어야만 적용된다는 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박창원 1987:319).

75) 李秉根(1981)에서는 'ㄴ, ㅅ' 앞에서의 'ㄹ' 탈락은 '동기관적인 이화'로 보았다.

76) 李秉根(1981) 참조.

는 어미와 'ㅂ니다, ㄴ다'와 직접 결합하고 나머지 환경에서는 'X ㄹ'이 결합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33) X - 'ㄴ, ㅅ' 앞, ' -ㅂ니다, -ㄴ다 앞
X ㄹ - 그 외

⑤ ㅎ

다음은 어간 말음이 'ㅎ'인 경우이다. 먼저 교체의 양상이 유사한 세 부류를 먼저 묶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77]

【14】 ㅎ
좋:다(好)[78]

(34) 좋:다 : 좋:다, 조:아서, 조:으면 · 조:흔

【15】 ㅎ 불규칙(A)
놓다(置), 누ㅎ:다(오줌을~)(참조. 누다), 찧:다(搗)(참조. 찌다), 포개놓다(疊)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미 '-ㄴ다, -ㅂ니다' 앞에서만 어간 말음 'ㅎ'이 탈락된 'X'를 이형태로 가지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X ㅎ'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35) 놓다 : 놓지 · 논다구, 노아라 · 놔:라, 노:면

77) 유필재(2000a)에서 어간 말음이 'ㅎ'인 것은 형태음운론적으로 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것과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것 두 가지로만 분류했다. 본고에서 이를 더 세분했고 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것은 '좋:다'로만 한정했다.
78) '좋:다'를 제외하면 'ㅎ'을 말음으로 가진 형용사 어간은 모두 '불규칙'에 속한다.

【16】 ㅎ 불규칙(B)

낳:다(産), 땋:다(編), 쌓:다(積), 놓:다(入), 빻:다(碾), 짷:다(상투를~, 의형제를~),[79] 치쌓다(~아 올리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미 '-ㄴ다, -ㅂ니다' 그리고 모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 'ㅎ'이 탈락된 'X'를 이형태로 가지고 나머지 환경에서는 'Xㅎ'을 이형태로 가진다.

(36) 빻:다 : 빻:구・빤:다, 빠:서, 빠:면

위에서 'ㅎ, ㅎ 불규칙(A), ㅎ 불규칙(B)'로 분류한 어간들은 교체의 양상이 같은 경우도 많으므로 우선 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은 후행 어미의 두음에 따라 여러 가지 이형태를 가진다.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경우를 우선 살펴보자. (i) 'ㄷ, ㅈ, ㄱ'을 두음으로 가지는 어미 앞에서는 각각 'ㅌ, ㅊ, ㅋ'으로 축약된다.

(37) /조:타/, /노치/, /빠:쿠/

(ii) 'ㄴ'을 두음으로 가지는 어미 앞에서는 'ㄴ'으로 교체된다.

(38) /빤:는/ (빻:는)

(iii) 'ㅅ'을 두음으로 가지는 어미와 결합하면 어미의 두음이 'ㅆ'이 된다.[80]

79) 표준어로는 '짜다'이다.

(39) 좋: + 습니다 → 조:씁니다

마지막으로 (iv) 이 방언에서 해라체 평서형 종결어미의 이형태에는 '는다'와 'ㄴ다'가 있는데 'ㅎ' 어간의 경우 'ㄴ다'와 결합하여 어간말의 'ㅎ'이 탈락한 이형태로 나타난다.[81]

(40) 난:다(낳는다), 는:다(넣는다), 짠:다(짷는다), 찐:다(찧는다), 논대(놓는대)

이제까지 살펴 본 활용형에서의 교체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2]

(41) i - Xㅎ, ii - Xㄴ
iv - X

(41)에 나타난 이형태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i)은 격음을 동일 조음위치의 평음과 'ㅎ'으로 재분석하여 얻은 이형태이다. 또 (ii)의 이형태 'Xㄴ'는 'ㅎ + ㄴ → ㄴㄴ'과 같은 음운과정을 설정하여 'Xㅎ'과 묶을 수 있을 것이다. 활용형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ㄴㄴ' 전에 'ㄷㄴ'과 같은 단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ii)의 이형태와 관련된 음운과정은 ① 치조폐쇄음화(ㅎ+ㄴ → ㄷㄴ), ② 비음화(ㄷㄴ → ㄴㄴ) 이다. 이 음운과정들은 모두 공시적인 것이므로 'Xㄴ'은

80) '-습니다'와 결합하는 경우는 '좋:다'와 'ㅎ'을 포함한 자음군을 어간말음으로 가진 몇 어간뿐이다. 이 방언에서 'ㅎ' 어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ㅂ니다'와 결합한다.

늡니다, 납:니다, 빱:니다, 늡:니다

또 표준어의 어미 '-소'는 이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다.

81) '좋:다'의 경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미 '-는다/ㄴ다'와 결합하는 경우가 없다.

82) 교체 (iii)에 나타나는 활용형을 형태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 음운과정'에서 다시 상론하도록 한다.

'Xㅎ'에서 도출된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ⅳ)에 나타나는 교체에 대해 살펴보자. 이 방언에서 해라체 평서형 종결어미는 '는다'와 'ㄴ다' 두 가지 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둘은 각각 자음 뒤, 모음 뒤에서 나타난다.

(42) 찾는다, (목을) 맨:다

'ㅎ'은 이 방언의 음운체계에서 자음에 속하므로 당연히 'ㅎ' 어간 뒤에는 '는다'가 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ㄴ다'와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난:다(낳는다)'는 '나: + ㄴ다'로 형태 분석된다. 이형태 '나:'를 일반적인 자음 어미 앞에서의 이형태 '낳:'에서부터 기본·도출식으로 도출된 이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까?

(43) 낳: + 는다 → 난:는다 → 난:다

이와 같은 도출 과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난:다'에서의 이형태 '나:'를 그 자체로 기본형으로 잡아 모음 뒤에 오는 어미 'ㄴ다'와 결합한다고 설명하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은 'ㅎ'을 어간 말음으로 가진 다른 예들에도 모두 적용되므로 우선 '좋:다'를 제외한 'ㅎ' 어간은 자음 앞에서는 'Xㅎ'을, 어미 'ㄴ다' 앞에서는 'X'를 기본형으로 가진다고 기술할 수 있다. 허십시오체 평서형 종결어미인 '습니다/ㅂ니다'의 경우도 '는다/ㄴ다'의 경우와 같다(놉니다). 이제 이형태 'X'는 'Xㅎ'으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그 자체가 기본형이 되어 어미 'ㄴ다, ㅂ니다'와 결합한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형태음소론적으로는 불규칙적인 교체가 된다.

이제 어간 이형태가 모두 '좋:'인 '좋:다'를 제외하고, 이상의 어간들이

보여주는 활용형의 교체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모두 자음 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다.

(44) X - 어미 'ㄴ다, ㅂ니다' 앞
X ㅎ - 그 외의 자음 어미 앞

그러므로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나타난 교체 양상으로는 '좋:다'와 그 외의 'ㅎ' 어간 용언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

다음으로 다른 활용형에서의 교체 양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의 교체형은 다음과 같다.

(45) a. 노아라~놔:라, 포개노아라~포개놔라, 찌어라~쪄:라, 조:아서
b. 따:서, 빠:서, 나:서, 치싸 놓구, 짜 올린다, 싸: 놓구, 느:서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의 교체형은 다음과 같다.

(46) a. 노:면, 조:흔 · 조:으면 · 존:데 · 존: 게
b. 따:면, 빠:면, 나:면, 느:면, 찌:믄

여기에서 나타나는 'ㅎ' 어간의 이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문 (45a, 46a)에 나타나는 이형태로부터는 'XC'가,[83] (45b, 46b)에 나타나는 이형태로부터는 'X'가 추출된다.

(47) a. XC
b. X

83)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자음'은 'C'으로 표기하였다.

이 때 (47a)를 표면에 보이지 않는 자음이 있는 'XC'로 형태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45a)의 경우는 표기 자체에 이미 나타나 있다. 2장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방언에서 'ㅗ-ㅏ, ㅣ-ㅓ'와 같은 음운배열은 존재하지 않고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음운배열은 'ㅘ:, ㅕ:'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84]

(48) 봐:서, 뼈:서 cf) 노아라, 찌어

(46a)의 경우는 간접적으로만 이와 같은 형태 분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예는 '노:면'뿐이다. '좋:다'의 경우는 '조:으면'과 관련된 '조:흔'이 있어 문제가 별로 없다. '노:면'의 기본형인 '놓다'의 활용 패러다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49) 놓지 · 놓구, 노아라 · 놔:라, 노:면

패러다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置}를 의미하는 용언 어간은 短母音인 '놓다'이다. 그런데 이 어간이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된 활용형은 장음인 '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노:면'이 단순히 어간에 어미 '면'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0) 놓 + 으면 → 노흐면 → 노으면 → 노:면

84) 'ㅗ' 어간일 때는 1음절 장음 어간인 경우에, 'ㅣ' 어간일 때는 1음절 어간인 경우에 수의적으로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때도 반모음화 대신 반모음 삽입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 음운과정(4.2.2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 참조.

다시 말해서 '노:면'은 활용형의 일부였던 모음 '으'의 탈락과 그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형태 'XC'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자음 C'는 'ㅎ'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보이지 않는 자음이 나타나는 환경이 모음 사이인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음간 환경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은 이 방언에서의 일반적인 음운배열의 양상이기 때문이다.

(51) 열아웁(열아홉), 느이~너이(너희)

이 'ㅎ 탈락'이라는 음운과정으로 (47a)에 제시된 이형태 'XC'는 'Xㅎ'이 된다.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설정된 이형태와 동일한 형태이다. 결국 '좋:다'를 제외하고 (45a, 46a)에 제시된 '놓다, 쩧:다, 포개놓다'는 어미 '-ㄴ다, -ㅂ니다' 앞에서만 어간 말음 'ㅎ'이 탈락된 'X'를 이형태로 가지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Xㅎ'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고 기술할 수 있다. 각각의 이형태는 독립적으로 후행 어미와 결합한다. '놓다'를 예로 이러한 결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2) 놓 - 그 외의 환경
노 - 어미 'ㄴ다, ㅂ니다' 앞

앞에서 제시한 'ㅎ 불규칙(A)'에 속하는 어간들이 모두 이러한 유형에 든다.

이제 남은 것은 (45b, 46b)에 속하는 이형태의 예들이다. 이들은 모두 위에서 'ㅎ 불규칙(B)'로 분류한 어간들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예들만 다시 가져와 보자.

(53) 따:서, 빠:서, 나:서, 치싸 놓구, 짜 올린다, 싸: 놓구, 느:서
따:면, 빠:면, 나:면, 느:면, 찌:믄

위에서 '노:면'을 '놓 + 으면 → 노흐면 → 노으면 → 노:면'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나:면' 역시 '낳: + 으면 → 나흐면 → 나으면 → 나:면' 혹은 '따:서'를 '땋: + 아서 → 따하서 → 따아서 → 따:서'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Xㅎ'을 기본형으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본 · 도출식 설명의 근거는 모음간 'ㅎ 탈락'이라는 음운과정인데 바로 앞에서 이 음운과정이 실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가능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활용형 그대로를 인정하여 'X'를 기본형으로 설정한다. (53)에서 'XC'와 같은 이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현지 조사에서 있기 쉬운 자료상의 공백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앞에서 'ㅎ 불규칙(A)'에 속하는 어간들의 경우 이형태 'X'가 독자적으로 어미 'ㄴ다, ㅂ니다'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ㅎ' 어간 용언은 기원적으로는 단일한 기본형 'Xㅎ-'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미 'ㄴ다, ㅂ니다' 앞에서 'ㅎ'이 탈락된 'X'와 같은 새로운 이형태가 보이는 것이다. 'ㅎ'은 'ㄴ' 앞에서는 탈락하지 않고 'ㄴ'으로 동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낳: + 는데 → 난:는데) 이 새로운 이형태 'X'는 이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생겨난 후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까지 침투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보이는 이형태 'X'가 생겨난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모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일 것이다.[85] 이러한 추정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85) 그렇다면 'ㅎ 불규칙(A)'에 속하는 어간들은 왜 어미 'ㄴ다'와 결합하느냐는 의문

우선 'ㅎ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우선 '늫:다'를 제외하면 모두 어간말 모음이 'ㅏ'이다. 그런데 '늫:다'는 이 방언의 중설모음의 고모음화에 의해 '*넣:다 > 늫:다'처럼 재구조화된 형태이므로 이들의 공통점은 '(기원적으로) 어간말 모음이 ㅏ 또는 ㅓ였던' 어간들이 된다.

둘째로 이들은 모두 기원적으로 상성 어간이 아니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방언의 장음은 후기 중세국어 당시 상성의 잔재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후기 중세국어 당시 상성이었던 어간은 현재의 이 방언에서도 長音으로, 상성이 아니었던 어간들은 短音으로 대응된다. 아래의 예는 'ㅎ' 어간 역시 이러한 음 대응의 법칙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 준다.

(54) 놓다 L! > 놓다
둏다 R > <u>좋:다</u>

그러나 'ㅎ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들은 후기 중세국어 당시 상성이었던 것이 하나도 없다.

(55) 닿다 L! > 땋:다
낳다 L! > 낳:다
쌓다 L! > 쌓:다
넣다 L! > 늫: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어간의 장음은 후기

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ㅎ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들로부터의 유추가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중세국어 이후 어느 시점에서 재구조화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간의 장모음화는 이들의 어간 말모음이 모음어미 '-아/어'와 같은 모음임에 비롯한다. 이것은 郭忠求(1994b)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쌓:다'를 예로 들어 본다.

	T1	T2	T3	T4	T5	T6
I	쌓고 LH	쌓고	쌓고	쌓고	쌓고	쌓:구
II	쌓아서 LHH	쌓아서	싸아서	싸:서	싸:서	싸:서
III	쌓ᄋ며 LLH	쌓으면	쌓으면	싸으면	싸:면	싸:면

위의 표는 시간축 T 를 따라 '쌓다'의 세 활용형이 변화한 양상을 가정해 본 것이다. 우선 T3 단계에서 모음 'ㅏ' 사이에서 'ㅎ' 탈락이 일어난다. T4 단계에서는 모음 'ㅏ'와 'ㅡ' 사이에서도 'ㅎ' 탈락이 일어나지만 이 때 혹은 그 다음 단계에서 '싸아 > 싸:'와 같은 동모음 축약과 그에 따른 장모음화가 일어난다. '싸으면 > 싸:면'은 'ㅡ' 모음 탈락과 그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의 결과이다. T5 단계에 이르면 {積}에 해당하는 어간은 /쌓/과 /싸:/라는 이형태를 가진다. 유추적 평준화(analogical leveling)는 일반적으로 개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개신형인 '싸:'로 패러다임은 규칙화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나타나는 이형태 '쌓'은 장음 어간 '쌓:'으로 재구조화하게 된다(T6). T6 단계에서 모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어간 이형태를 '쌓'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은 이미 없어졌다. '쌓고'가 '쌓:구'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활용형에 나타나는 어간의 이형태가 이미 '쌓으면'의 '쌓'이 아니라 장음을 가진 '싸:'임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 단계에 이르면 '쌓:'과 '싸:'는 독립적으로 어미들과 결합하게 된다. 현재 이 방언의 상태가 바로 이 단계이다.

위의 표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새롭게 출현한 '싸:'라는 이형태는 T6 시기에 다시 다른 활용형에 침투하여 '싼:다'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ㅎ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들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Xㅎ'을, 어미 'ㄴ다, ㅂ니다'와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고 이 이형태들이 해당 어미와 직접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하게 된다.

【17】 ㅎ 불규칙(C)

가(::)느다랗다(極細), 곱:다랗다(麗), 굵:다랗다(太), 기:다랗다(長)(참조 길:다랗다), 까:맣다(黑), 꺼:멓다(黑), 널(::)따랗다(廣)(참조 넓(::)다렇다), 노:랗다(黃), 누:렇다(黃), 동(::)그랗다(圓), 똥(::)그랗다(圓), 둥(::)그렇다(圓), 말:갛다(澄), 멀:겋다(無缺), 빨:갛다(赤), 뽀:얗다(바위가~), 뿌:옇다(구더기가~), 새(::)까멓다(黑), 새(::)빨겋다(赤), 새(::)파렇다(靑), 시꺼(::)멓다(黑), 시퍼(::)렇다(靑), 얇:따랗다(薄), 좁다렇다(狹), 조:그맣다(小), 커:닿다(大),[86] 파:랗다(靑), 하:얗다(白)

(56) 곱:다랗다(麗) : 곱:다랗게, 곱:다래서, 곱:다란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의 교체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나타나는 어간의 이형태는 다른 'ㅎ' 어간들과 같이 'Xㅎ'이다(곱:다랗). 다만 위의 어간들은 모두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미

86) '커:닿다!'는 사전(<표준>)에는 '커:다랗다!'의 준말이고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커:대'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무리 해도 '커:대^{x}'와 같은 어형은 조사할 수 없었다. 일단 불완전용언으로 기술해 둔다.

'-는다/ㄴ다'와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나타나는 어간의 이형태는 모두 'X'이다(곱:다라).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는 'X ㅐ'와 같은 이형태가 나타난다(곱:다래).

이 세 개의 이형태를 이어줄 수 있는 공시적인 음운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Xㅎ, X, X ㅐ'는 각각 독립적으로 어미와 결합한다.[87)]

그런데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보이는 어간의 이형태 'X ㅐ'은 용언 '허다'의 활용에서도 볼 수 있다.

(57) a. 누:렇구, 누:래서, 누:러면
b. 허구, 해:서, 허면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과 '허다'에서 공통적인 형태음운론적 양상이 보이는 것은 이 용언들이 기원적으로 '허다'의 선대형인 'ᄒᆞ다' 동사와의 합성어였던 데 기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어 ᄒᆞ다'라는 통사적 구성에서 기원한 합성어이고 다른 하나는 접미사 '-다랗-'에 기원한 합성어들이다. '-다랗-' 역시 기원적으로는 '*-다라 ᄒᆞ다'처럼 'ᄒᆞ다' 동사가 관여된 구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88)] '노:랗다, 누:렇다, 파:랗다, 하:얗다'는 각각 '노라ᄒᆞ다, 누러ᄒᆞ다, 파라ᄒᆞ다, 하야ᄒᆞ다/하애ᄒᆞ다'로부터 온 것이다. '곱:다랗다, 국:다랗다, 기:다랗다, 널따랗다' 등이 접미사 '-다랗-'에 의한 파생어의 예이다.

'기:다랗다'에 대해 같은 의미로 '길:다랗다'가 존재하는데 '기:다랗다'는 'ㄷ' 앞에서 'ㄹ'이 탈락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어형이다. 현재 이 방언에서는 'ㄷ' 앞에서는 'ㄹ'이 탈락하지 않는다(놀:드라). 이에 대해 '길:다랗다'는 근래에 만들어진 신형이다.

---

87) 이에 대해서는 崔明玉(1988) 참조.
88) 이에 대해서는 Kim-Renaud, Y. K.(1975a:51)에서 언급된 바 있다.

⑥ 기타 불규칙

【18】 ㅂ 불규칙(A)

겹:다(힘에~)(참조 겨웁다!), 곱:다(美), 굽:다(燒)≪質≫(참조 굿:다!≪自≫), 깁:다(헤진곳을~≪質≫)(참조 깃:다!≪自≫, 기우다), 눕:다(臥)≪質≫(참조 눗:다!≪自≫), 덥:다(暑)(참조 더웁다!), 돕:다(助), 맵:다(辛)(참조 매웁다!), 밉다(憎)(참조 미웁다!), 쉽:다(易)(참조 쉬웁다!), 춥다(寒),

가겹다(近)(참조 가깝다, 가꺼웁다!), 가렵다(등이~)(참조 가려웁다!), 간딴스럽다(簡便), 간지럽다(간지럽타다), 개볍다(輕)(참조 가볍다!, 개벼웁다!), 거:추장스럽다(煩), 거염스럽다(多慾), 고:맙다(感謝), 고깝다(不快), 고통스럽다(苦痛), 괘달머리스럽다(성격이 멋없고 거칠다), 괴롭다(苦), 괴망스럽다(怪妄), 구:경스럽다(구경할 만하다), 구접스럽다(汚), 귀엽다(可愛)(참조 구엽다!),[89] 그립다(懷), 극성스럽다(猛烈), 궁검스럽다(자손이 많아서~)(참조 궁검스러웁다!), 까:다롭다(難)(참조 까:다로웁다!), 꽁꼼스럽다(緻密), 날카롭다(銳), 달갑다(快)(참조 달겁다!), 더:럽다(汚)(참조 드:럽다!, 더러웁다!),[90] 두껍다(厚), 두렵다(恐)(참조 두려웁다!), 따겁다(痛)(참조 따거웁다!), 뜨겁다(熱), 마렵다(催), 매끼럽다(滑), 매섭다(嚴), 무겁다(重), 무더웁다!(蒸暑), 무섭다(怖)(참조 무서웁다!), 미끼럽다(滑), 밉살스럽다(憎), 방갑다(懷)(참조 방겁다), 복성스럽다(福星), 부끄럽다(恥), 부럽다(羨望), 사:납다(荒)(참조 사:넙다), 색스럽다(多色), 서:럽다(恨), 숭물스럽다(흉물스럽다), 숭업다(흉헙다), 스:스럽다(~워서),[91] 승겁다(淡)(참조 싱겁다!), 시끄럽다(騷), 아깝다(惜)(참

---

89) '구엽다!'는 '귀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하여간 좋이구 헝:겁이구 무척 구여와

90) '더:럽다!'는 형용사와 자동사 두 가지 용법이 있다.

더:러웁는다, 더:러우라구

91) '스:스럽다!'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死語에 가깝다. 대략 '사람을 대함에 있어 허물 없이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스스럼 없다'에 명사의 형태로만 남아 있다.

조. 아깝다!), 아름답다(美), 아쉽다(惜)(참조. 아쉬웁다i), 안달스럽다(焦), 안타깝다(哀), 어둡다(暗), 어렵다(難)(참조. 어려웁다i), 어지럽다(散), 엉큼스럽다(엉큼하다), 외롭다(孤)(참조. 외로웁다i), 우:습다(可笑), 의심스럽다(疑), 자유스럽다(自由), 주체스럽다(煩), 즐겁다(樂)(참조. 즐거웁다i), 지겹다(食傷), 지랄스럽다(지랄하다), 징그럽다(不快), 챙피스럽다(猖披), 행복스럽다(幸福), 헐겁다(緩), 호화스럽다(華), 시려웁다i(시리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의 교체 양상은 비교적 단순하다. 음소 차원만 고려하면 자음 앞에서는 'Xㅂ', 모음 앞에서는 'X우'와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58) 밉게 보이지, 미워서, 미우면

이 두 이형태는 崔明玉(1985), 한영균(1985) 등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각각이 독립적으로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음 앞에서는 'Xㅂ', 모음 앞에서는 'X우'처럼 환경만을 지정해 주고 나열식으로 기술한다.[92)]

이 중 모음 앞에서의 이형태를 중심으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예가 있다. {縫}을 의미하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깁:는다, 깃:는다' 외에 '기운다'가 흔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우 + ㄴ다'로 형태 분석될 것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을 볼 때 '기우'는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이형태이지 자음 어미와 결합하는 이형태는

92) '곱:다!, 돕:다!'에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고와, 도와)을 근거로 모음 앞에서의 이형태 'X우'를 의심할 수도 있다. '우'는 이른바 음성모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이른바 모음조화에서 독립된 부류를 형성하며 일반적으로는 '아'계 어미를 취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3.4.2.2 두음이 모음인 어미' 부분 참조).

아니다. '기운다'라는 활용형은 모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이형태 '기우'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규칙화가 일어나 새로운 어간 '기우-'가 생겼음을 알려 준다.

(59) a. 깁:는다, 기워, 기우면 ~ 깃:는다, 겨:, 기:믄
b. 기운다, 기워, 기우면

그런데 이상의 어간들 중 일부는 모음 앞에서 'X우'가 아니라 '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60) a. 간:딴스러?, 거:치장스러요, 괴망스러서, 의심스러서, 자유스러, 지랄스러, 호화스러, 미끼러, 시끄러 죽겠대, 어지러요, 징그러서, 더:러서
b. 거염스런 사람은, 고통스런, 극성스러면, 엉큼스런 짓을, 주체스러니까, 부럴 꺼(부러울 거) <천.144>

이들은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만 '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는가 하면(61a)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만 이런 이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61b).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X우' 이형태 역시 자유변이형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61c).

(61) a. 더:럽다, 더:러서, 더:러우면
b. 극성스럽다, 극성스러와서, 극성스러면
c. 미끼럽지, 미끼러 · 미끼러와, 미끼러우니까 · 미끼러니까

이러한 이형태를 보여 주는 어간들은 모두 접미사 '-스럽!-, -럽!-'

에 의한 파생어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93)]

이 부류의 어간들은 'Xp'에 대해서 'Xup'와 같은 공존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예들은 모두 형용사라는 공통점이 있다.[94)]

(62) 덥:다! - 더웁다i

'Xup'형은 기술적으로는 모두 불완전용언이다. '더웁다i'를 예로 들면 '더웁진 않구, 더웁구, …'처럼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만을 가질 뿐 '더우와서ˣ, 더우우면ˣ'과 같이 모음 어미나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없다. 또 위에서 일일이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Xp'형은 질문지에 의한 응답형으로 많이 나타나고, 'Xup'형은 일상의 발화에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조사만으로 'Xup'의 어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용언들도 실제로는 이러한 어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새로운 어간의 생성은 역사언어학에서 말하는 '유추적 평준화(analogical leveling)'에 의한 것이다. '덥:다!'를 예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1	T2	T3
I	덥고 RH	덥:고	덥:구~더웁구
II	덥어서 LHH	더워서	더와서
III	덥으니 LHH	더우니	더우니

93)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방언을 대상으로 한 Lee, Pyonggeun(1970:51)에서도 보고되어 있다.

94)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 중 동사들은 형용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동사들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불규칙 부류(ㄷ 불규칙B)로 재구조화되었다. 정인호(1997)에서도 서남방언의 'ㅂ 불규칙용언' 어간들을 대상으로 문법 범주에 따른 재구조화의 차이를 논의한 바 있다.

{署}에 해당하는 중세국어는 '덥다 R!'로 위의 T1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 패러다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어간의 이형태는 /덥(R), 덯(L)/ 둘이었고 음소론적으로만 보면 이 둘은 말자음이 'ㅂ'이냐 'ㅸ'이냐만 차이가 나는 대단히 유사한 형태였다. 그런데 'ㅸ'이 국어의 음소 체계에서 사라지고 반모음 'w'와 합류한 결과로 이미 중세국어부터 T2 와 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게 된다. 이제 이 어간은 /덥:, 더우/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전 시기에 비하면 두 이형태의 모습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ㅸ > w'와 같은 음운변화에 기인한 것인데 화자에게 이렇게 이형태의 모습이 완연히 다른 활용 패러다임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다. 중세국어 당시 음운체계 내에서 'ㅂ'과 'ㅸ'은 밀접하게 관련된 음소들이었으나 근대국어 당시의 음운체계 내에서는 'ㅂ'과 'w'의 관계는 쉽게 연결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형태의 단일화가 일어날 때는 개신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개신형인 '더우'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통일되는 단계를 거쳐 T3와 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게 된다. 이 때는 /덥:, 더우/ 외에 /더웁/과 같은 이형태를 가지게 되는데[95] 음소적으로도 유사해졌을 뿐 아니라 장단음의 교체도 短音으로 통일되어 패러다임이 단순해지게 되었다.[96]

이러한 재구조화는 용언 어간뿐 아니라 동일한 환경을 가진 접사에서도 일어난다. 접미사 '-답!-'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답!-'에 의한 파생어들도 위와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된다.

(63)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다웁게

95) 韓榮均(1985:390)에서는 '더웁-'을 '더우-'와 '덥:-'의 혼효형으로 보았다.

96) 이와 같은 해석은 이미 허웅(1991:361f)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郭忠求(1994b:559)의 논의도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여자가 여자다웁게

【19】 ㅂ 불규칙(B)

뵙:다(伺)≪優≫(참조. 뵈옵다!≪劣≫),[97] 여:쭙다(問)(참조. 여:쭛다!), 구립다(방귀냄새가~), 얄:밉다(憎), 졸:립다(眠)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의 교체 양상은 다음과 같다. 자음 앞에서는 'Xㅂ', 모음 앞에서는 '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모음 앞에서는 어간 말음 'ㅂ'이 완전히 사라진다. 모음 앞에서의 이형태가 'X우'가 아니라 'X'라는 점이 앞에서 다룬 'ㅂ 불규칙(A)'와 다른 점이다.[98]

(64) 여:쭙는다 · 여:쭙지 마:라, 여:쭈어서 · 여:쭤서, 여:쭈면 · 여:쭐 말씀이

이 어간들이 위와 같은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들 어간들이 재구조화 과정을 겪었던 데에 기인한다. '뵙:다!'를 예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뵙:다!'는 {謁}을 의미하는 '뵈다 R'에 선어말어미 '-숩-'이 결합한 활용형에서 기원한다. 어간의 의미상 늘 목적어는 존대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뵈숩다' 자체가 하나의 어간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의미상 늘 주어가 존대의 대상인 '주무시다'가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시-'를 어간의 일부로 포함하여 형성된 어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가능한 변화이다.

---

97) 하나의 형태소에 두 가지 이상의 어형이 나타날 때 빈도상으로 보아 그 중 우세인 형을 '≪優≫'로, 열세인 형을 '≪劣≫'로 표시한다.

98) 문어형이기는 하지만 어미 '-으옵-!'도 이러한 교체 양상을 보여 준다.

잡으옵고, 잡으와, 잡으오니

'뵈ᅀᆞᇦ다'는 'ㅿ'과 'ㅸ'의 음운변화 때문에 '뵈ᄋᆞᆸ다!'로 재구조화된다. '뵈ᄋᆞᆸ다!' 역시 어간말에 'ㅸ'을 가졌던 다른 용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ㅂ 불규칙용언'의 활용 패러다임을 보여 준다(본고의 'ㅂ 불규칙A').

(65) Ⅰ - 뵈ᄋᆞᆸ고 RHH <小學諺解 6:79a>
Ⅱ - 뵈ᄋᆞ와 RLL <小學諺解 6:70a>
Ⅲ - 뵈ᄋᆞ오며 RLHH <小學諺解 2:8b>

'뵈ᄋᆞᆸ다!'의 어간말 모음 'ㆍ'는 후행하는 'ㅂ'의 영향으로 'ㅗ'로 바뀌게 된다. '엳ᄌᆞᇦ다 > 여:쭙다!, 잡ᄉᆞᇦ다 > 잡숫다!'에서 이와 유사한 음운변화가 있었다. 결국 '뵈ᄋᆞᆸ다!'는 '뵈옵다!'로 재구조화된다.

(66) Ⅰ - 뵈옵다 <譯語類解 補 7a>
Ⅱ - 뵈오와 <孟子栗谷諺解 1:83b>
Ⅲ - 뵈오라 와셔 <改修捷解新語 7:13b>

그런데 '뵈옵다!'의 경우 변화된 어간말 모음 'ㅗ'는 재구조화를 유발하게 된다. (66)의 Ⅲ은 '*뵈오오라'로 기대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뵈오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모음 축약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촉발된 재구조화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까지 파급되는데 이 경우는 반모음 w가 탈락하면서 활용형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 결국 활용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된다.

(67) Ⅰ - 뵈옵다 <한불ᄌᆞ뎐 330>
Ⅱ - 뵈와 <御製警世問答諺解 40a>
Ⅲ - 뵈올 <신약젼서-마 5:8>

이 때의 '뵈옵다!(B)'는 이전 시기의 '뵈옵다!(A)'와 교체의 양상이 다르다. 어간말의 'ㅂ'이 모음 앞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것이다. '뵈옵다!(B)'는 다시 '뵙:다'로 변하는데 이 방언에서 일어난 '회오리바람 > 회:리바람'의 변화를 고려하면 가능한 변화이다.

앞서 ㅂ 불규칙(A)에 속하는 용언들 중 'Xp'에 대해 'Xup'와 같은 공존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덥:다!, 더웁다i) 조사 결과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으로 'Xup'만 나타난 것은 불완전용언이 아니라 이 ㅂ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68) 무더웁다 : 무더웁구, 무더와서, 무더우면

'Xp'형과 비교하여 'Xup'형이 개신형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사실은 현재 이 ㅂ 불규칙(A)에 속하는 많은 용언들이 장래에는 이 B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20】 ㄷ 불규칙(A)

걷:다(步), 겯:다(染)(참조 겨르다≪自≫), 긷:다(汲)≪質≫(참조 길:다i≪自≫), 눋:다(焦)(참조 눌:다!), 듣다(聞), 묻:다(問), 붇:다(콩이 물에~)(참조 불:다), 젇:다(鹽漬)(참조 절:다i), 깨닫다(覺), 다닫다(至)(참조 다다르다), 엿:듣다(竊聽)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99] 자음 앞에서는 'Xㄷ', 모음 앞에서는 'X르'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100] 활용 패러다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9) 모두 동사이다. 형용사는 없다.

100) 이러한 이형태 기술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여 金星奎(1988=1998:299f), 배주채(1989:59), 김경아(1990:79)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金星奎(1988=1998:299f)에서는 'X르'와 'Xㄹㅎ' 두 안을 제시했다.

(69) 걷:지 · 걷:구 있다, 걸어 가는 거구 · 걸어라, 걸으면 · 걸으면섬

이러한 이형태 기술은 공시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통시적인 사실까지 고려하면 몇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구조화의 양상과 관련시켜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공존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4 부류로 나눌 수 있다.

① ㄷ 불규칙(A)

깨닫다, 듣다, 엿:듣다, 걷다, 묻:다

② ㄷ 불규칙(A) ~ 'X르' 어간

다닫다! ~ 다다르다, 겯:다! ~ 겨르다

③ ㄷ 불규칙(A) ~ 'ㄹ' 어간

긷:다! ~ 길:다i, 전:다! ~ 절:다i, 붇:다! ~ 불:다

④ 기타

눋:다! ~ 눌:다![101]

②, ③, ④에 나타나는 공존형들은 기원적으로 ㄷ 불규칙(A)에 속한 용언들이 몇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구조화된 것들이다.

②는 어간의 이형태 'X르'를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들이다. ④는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어간의 이형태 'Xㄹ'과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어미(-꾸, -뜨라, -찌)를 혼합한 패러다임을 보여 준다. 공시적으로는 불규칙용언이

---

101) '눌:다'는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평음인 장애음일 경우 해당 두음을 경음화시키고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항상 자음형만이 나타난다.

눌:꾸, 눌어서, 눌으믄

다.[102] 이것은 화자들이 개별 단어에 따라 형태 분석을 달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③에 속하는 용언들이다. 이들은 모두 'ㄹ'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들이다. '붇:다!'는 현재 서울방언을 사용하는 젊은 화자들에게는 완전히 '불:다'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긷:다!'로부터 재구조화된 '길:다i'는 비록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확인되지 않지만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인 '길:라 간다'를 보면 'ㄹ' 어간임은 의심할 수 없다.

(70) a. ×, 길어 먹다, 길:라 간다
　　b. 살:다, 살어서, 살:라 간다

이 방언의 '절:다'는 표준어로도 '절:다'이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ㄷ 불규칙(A) 어간인 '젇:다!'도 함께 사용된다.[103]

(71) a. 절:다i – ×, 절어서, 절:면
　　b. 젇:다! – 젇:는다 · 젇:게, 절었다, 절으면섬 · 절으니깐

이 방언에서 'ㄹ' 어간이었던 것이 ㄷ 불규칙(A)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경우는 없으므로 기원적으로는 ㄷ 불규칙(A)에 속하는 어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 자료에도 '젇:다!'가 나타난다.

---

102) 이렇게 ㄷ 불규칙용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은 이 방언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배주채(1998:131)에 의하면 전남 고흥방언에서도 '걷다, 묻다, 싣다'는 'ㅀ'이나 'ㄹㆆ' 어간으로, '긷다(汲)'는 '(ㄹ)ㅡ' 어간으로(질르다) 재구조화되었다고 한다.

103) <한글>에도 '젇:다!'가 등재되어 있다.

(72) 酒糟透了 술에 젓다[104] (다라순 둘 덥투지)　<蒙語類解 補 20a>(1768)

(72)의 예는 적어도 18세기 무렵까지 '젇:다!'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절:다'로 재구조화된 예가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데 이 개신형이 표준어로 채택되었다.

(73) 마쵸 저러 ᄒᆞ로 지나 다 절거든　<閨閤叢書 9a>(1869)

결국 ③의 예들은 어간의 이형태 'Xㄹ'을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들이다. 이것은 화자들이 '긷:다!'의 활용형 '길어서, 길으면'을 각각 '길+어서, 길+으면'으로 분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긷:다!~길:다i, 젇:다!~절:다i, 붇:다!~불:다' 등의 어간에 대해서 모음 앞의 이형태가 'X르'라는 기술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형태 기술에 따르자면 공시적으로 '긷:다!'는 자음 앞에서 '긷:', 모음 앞에서 '길으'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는데 재구조화는 '길:-'을 중심으로(길:다i)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기술은 설득력이 없다. '눋:다!~눌: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것들은 공시적 기술과 통시적 사실이 어긋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1】 ㄷ 불규칙(B)[105]

---

104) '젇다'가 아닌 '젓다'로 표기된 것은 당시의 표기 특징 때문이다. 또 이 때의 '젓다'는 {漏}을 의미하는 '젓다'로 생각할 수 없다. 몽골어의 '덥투지'가 '젓다'에 해당하는데 현대 몽골어에서 'debtü-'는 ① 딱딱한 것이 수분을 먹어(うけて) 부드럽게 되다 ②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하다 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위의 예문은 ②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小澤重男(1983) 現代モンゴル語辭典, 東京: 大學書林 참조).

105) 음운론적으로는 'ㄷ 불규칙'에 속하는 용언들이지만 현행 맞춤법에서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ㅅ'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독해의 편의를 위함이다.

긋:다(금을~), 굿:다(燒)(참조 굽:다!), 깃:다(헤진곳을~)(참조 깁다!), 낫:다 (治), 눗:다(臥)(참조 눕다!), 닷:다(닿다),[106] 붓:다(腫), 붓:다(注), 젓:다(混), 짓:다(집, 옷을~), 여:쯧다(問)(참조 여:쭙다!), 잇:다(지붕을~, 繼), 뭇다,[107] 드러눗다(臥), 잡숫다(尊食)

이 용언들은 흔히 'ㅅ 불규칙용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지만 순수히 음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형태 중 어디에도 'ㅅ'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ㅅ 불규칙'과 같은 용어로 부를 수는 없다.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어간 말음을 불규칙 명명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ㄷ 불규칙'으로 분류하되, 앞의 'ㄷ 불규칙(A)'와 구별하기 위해 'ㄷ 불규칙(B)'로 표시한다. 모음 앞에서의 이형태가 'Xㄹ'이 아니라 'X'라는 점이 앞에서 다룬 'ㄷ 불규칙(A)'와 다른 점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의 교체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는 다음과 같다. (i) 일반적으로 자음 앞에서는 'Xㄷ'으로 교체된다(귿:구). (iia) 해라체 현재형 종결어미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X'로 교체된다.

(74) 근:다(←긋:다), 난:다(←낫:다), 단:다(←닷:다), 분:다(←붓:다), 인:다(←잇:다), 전:다(←젓:다), 진:다(←짓:다)

(iib) 그러나 'Xㄴ'으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 때는

106) 중세국어는 '닿다(L!)', 표준어도 '닿:다'이므로 '닷:다!'는 재구조화된 어간이라고 볼 수 있다. 'ㅎ' 어간이 ㄷ 불규칙(B)로 바뀐 예는 이 예 외에는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이 방언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강원방언(인제, 양양)과 전북방언(무주) 등에서 후자의 재구조화가 보고된 바는 있다(낫다!(治) > 낳:다). 이에 대해서는 崔明玉(1993:251) 참조.

107) <한.114>에서 '무어'와 같은 활용형으로 나타난다.

오목헌 게 나무를 … 이 쪼각쪼각이 다 무어

비음화를 통해 'Xㄷ'를 기본형으로 잡을 수 있다.

(75) 긋:는다, 낫:는다, 짓:는다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의 교체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iiia) 일반적으로 'X'로 교체된다.

(76) 궈:서, 겨: 신는다, 나:서, 붜:라, 어:라, 저:야, 드러눠서, 잡숴는데

(iiib) 그러나 표면상 보이지 않는 자음이 있는 것 같은 'XC'로 교체되는 경우도 몇몇 예가 존재한다.108)

(77) 그어라, 어:쭈어서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는 (iv) 'X'로 교체된다.

(78) 그:면, 구:면(←긋:다), 기:믄(←깃:다), 나:면(←낫:다), 이:면(←잇:다), 겨란 전: 냄비

이상의 교체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79) Xㄷ - 자음 어미 앞(i, iib)
X - 어미 'ㄴ다',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앞(iia, iiia, iv)

---

108) '기여, 부어서, 지여라'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이형태를 'XC'가 아니라 'X'로 잡는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특히 1음절 장모음 어간일 경우 모음 어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활용형이 자주 발견된다.

두 이형태 사이의 관계는 기본・도출식으로 기술할 수 없다. 모음 앞에서 'ㄷ'이 탈락하거나 자음 앞에서 'ㄷ'이 삽입되는 음운과정이 이 방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이형태에 직접 해당 어미가 결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iiib)에 나타난 이형태 'XC'는 그 예가 극히 적으므로 이전 시기의 자음의 흔적(trace)으로 해석한다.[109]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이전 시기에 어간 말음 'ㅿ'을 가졌던 것으로 'XC'에서 'C' 부분은 'ㅿ'의 자리인 것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 중 '굿:다(燒)(참조. 굽:다!), 깃:다(헤진곳을~)(참조. 깁다!), 눗:다(臥)(참조. 눕다!)'는 모두 'ㅂ 불규칙(A)'에 속하는 어간을 공존형으로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모두 동사이며[110] '깃:다!'를 제외하면 어간 말모음이 'ㅜ'이다. 이러한 공존형의 존재는 공시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80) {燒}

a. 굳:지 마:라, 궈:서・궈:라・궈: 먹구, 구:면

b. 굽:는다, 구워서, 구:면

(81) {臥}

a. 눋:진 안아, (드러눠서), 누:면

---

109) 언어에 있어서 '흔적(trace)'이란 어간 말음이 소실되어도 한동안은 마치 해당 말음이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邊}을 의미하는 중세국어의 'ᄀᆞᇫ(R)'는 어간 말음 'ㅿ'이 없어져서 모음 어간인 'ᄀᆞ'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나 'ᄀᆞ'가 보여 주는 교체의 양상은 상당 기간 자음 어간의 그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ᄀᆞ이 업서 <小學諺解 3:20b>, ᄀᆞ올 ᄉᆞ양ᄒᆞ며 <小學諺解 5:34b>). 진정한 모음 어간이라면 '기ˣ', 골ˣ'로 나타났을 것이다.

110) 'ㄷ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들은 모두 동사이다. 표준어에서 'ㅂ 불규칙'에 속하는 동사는 '굽다, 깁다, 눕다, 돕다, 줍다' 다섯뿐인데 이 방언에서는 자동사인 '더:럽다'가 추가되고 '줍다!'는 '줏다'이므로 이 목록에서 빠진다.

b. 눕:지 마:라, 누워서, 누우면

이들 사이의 공시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용형들 중 '굳:지, 눋: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해 단순히 '굽:지, 눕:진'에서 'ㅂ'이 후행하는 'ㅈ'에 조음위치 동화를 일으켜서 나타난 형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 [-grave] 자질을 가진 음절말 'ㄷ'이 [+grave] 자질을 가진 'ㅂ, ㄱ'으로 위치동화되는 일은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82) a. 받구 ~ 박구, 밭보다 → 받보다 ~ 밥보다
b. 입드라 ~ 읻드라*, 익지 ~ 읻지*

따라서 '굳:지, 눋:진'의 어간 이형태의 말자음은 'ㅂ'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용언들의 기본형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자음 앞에서는 'Xㄷ', 모음 앞에서는 '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는 것은 이른바 'ㅅ 불규칙'(본고의 'ㄷ 불규칙(B)')에 속하는 용언들의 형태음운론적 패턴이다.

(83) 젓:다(混) : 젇:지 마:라, 저:야, 저:믄

또 이 용언들은 기원적으로 'ㅸ'을 말음으로 가졌던 것들이므로(굽다 R!, 눕다 L!) '굿:다!, 눗:다!'가 신형이며 이들은 각각 '굽:다!, 눕:다!'에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111)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재구조화는 통시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일까? 이른 시기에 이미 이러한 재구조화를 겪어서 표준어로까

111) 이러한 재구조화와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郭忠求(1994b:560) 참조.

지 채택된 '잡숫다!(侍食)'를 예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112]

'잡숫다!'는 기원적으로는 'ㅸ'을 어간 말음으로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17, 8세기의 자료들에서 다음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84) Ⅰ - 잡ᄉᆞᆸ게 ᄒᆞ고 <癸丑日記 권지이 18>(17세기 초반)
Ⅱ - 잡ᄉᆞ와 <御製警世問答諺解 35b>(1761)
Ⅲ - 잡ᄉᆞ오면 <癸丑日記 권지일 40>

자음 어미 앞에서 '잡ᄉᆞᆸ', 모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 '잡ᄉᆞ오'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므로 이 동사의 기본형은 이른바 'ㅂ 불규칙용언'인 '잡ᄉᆞᆸ다!'이다. 또 다른 ㅂ 불규칙용언과 마찬가지로 후기중세국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ㅸ'을 어간말음으로 가지는 '*잡ᄉᆞᇦ다'를 재구할 수 있다.

'잡ᄉᆞᆸ다!'는 1880년에 간행된 ≪한불ᄌᆞ뎐≫에는 '잡숩다'로 나타나는데 어간 모음 'ㆍ'가 'ㅜ'로 변한 것은 '엳ᄌᆞᆸ다'가 '여:쭙다!'로 된 것과 같은 변화이다. 그런데 ≪한불ᄌᆞ뎐≫을 검토해 보면 어간말 모음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활용 패러다임도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원문에는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를 한글 자모로 바꾸어 '잡숩다'의 활용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85) 잡-숩-다, 잡-수-어, 잡-순

이와 같은 활용 패러다임은 일반적인 ㅂ 불규칙용언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잡숩다'가 보통의 ㅂ 불규칙용언이었다면 아래와 같은 활용 패러다임을 가졌을 것이다.

---

1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필재(2000b) 참조.

(86) 잡숩다, 잡수워, 잡수운/잡수온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순전히 어간 모음의 변화 ‘ㆍ > ㅜ’에 기인하는 것이다. 어간말 모음이 ‘ㅜ’로 변한 후 이 동사의 패러다임은 (86)에서 (85)로 바뀌게 되었는데 /-수워/, /-수운, -수온/과 같은 음 배열에서 /-수-/의 모음 ‘ㅜ’ 때문에 후행하는 반모음 w 혹은 모음 ‘ㅜ, ㅗ’는 탈락 또는 축약되기 쉽다. 이러한 탈락 또는 축약의 음운과정을 겪은 후의 활용 패러다임이 바로 (85)이다. 여기까지가 재구조화의 1단계 변화이다.

재구조화의 2단계 변화는 자음 어미 앞에서의 어간 발음의 변화이다. 그것은 자음 어미 중 두음이 ‘ㄱ’인 것에서부터 유발되었을 것이다.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수의적으로 선행자음 ‘ㅂ’은 후행하는 ‘ㄱ’에 위치동화 된다.[113] 다음은 (85)의 활용 패러다임에 이와 같은 위치동화가 일어난 경우를 상정해 필자가 만들어 본 패러다임이다.

(85') / 잡숩따 · 잡숙꾸, 잡수어, 잡순 /

그런데 국어의 격음과 경음은 폐쇄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모음 사이에서 동일조음위치의 ‘평음 + 격음’ 혹은 ‘평음 + 경음’ 연쇄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114] 따라서 (85')의 ‘잡숙꾸’는 ‘잡수꾸’로 화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

---

113) ‘잡숙구’는 필자가 임의로 상정해 본 예이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유형의 예가 ‘여:쫍다!’에 나타난다. 유필재(2000b:242)에서 필자는 ‘여:쫍다!’가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여:쭌’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쭛다!’로 완전히 재구조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후에 ‘-구’ 앞에서 ‘여:쭈꾸 · 여:쭌구’와 같은 활용형을 조사하였다.

114) 이에 대해서는 金周弼(1990) 참조.

(85") / 잡숩따 · 잡숙꾸 · 잡수꾸, 잡수어, 잡순 /

이 상태에서 다시 격음과 경음의 폐쇄지속시간 때문에 '잡수꾸'는 '잡수C꾸'로 분석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C에 해당하는 자음은 'ㅂ, ㄷ, 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화자들이 'ㄷ'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순전히 이 패러다임에서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때문이다. 왜냐하면 화자들은 C를 추측할 때 그 자음에 의해 완성된 패러다임이 공시적인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 중 하나와 일치되기를 기대할 것인바 그것은 이른바 'ㅅ 불규칙용언'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85‴) 잡숩따 · 잡수꾸 · 잡숟꾸, 잡수어, 잡순

이 2단계로서 재구조화는 완성된다.[115] 화자들의 이러한 기본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1895년에 간행된 ≪國漢會語≫에 나타난다.[116]

(87) 잡숫다 尊者食之

아마도 '잡숫다!'는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미 재구조화 형태가 표기된 형태로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굽:다!, 눕:다!'에 비해서 빈도수가 월등히 적은 단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표기를 참조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개신형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

115) 간략하지만 郭忠求(1994b:560-2)에서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郭忠求(1994b)에서는 어간말음이 성문폐쇄음 /ʔ/인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본다.

116) 물론 구형인 '잡숩다!'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전에 표제항으로 등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朝鮮總督府가 펴낸 ≪朝鮮語辭典≫(1920)과 문세영의 ≪朝鮮語辭典≫(1938)을 들 수 있다.

3.4.1.1.2 자음군 어간

자음군 어간은 어간 말음을 ①'ㅂ'계 ②'ㄴ'계 ③'ㄹ'계, 셋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체 양상은 '4.1.2 자음군단순화'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① 'ㅂ'계

이 부류에 속하는 자음군 어간에는 'ㅂㅆ'이 유일하다.

【1】 ㅂㅆ
업ㅆ:다(無), 가:엽ㅆ다(憐), 맥업ㅆ다(無力)

② 'ㄴ'계

'ㄴ'으로 시작되는 자음군 어간에는 'ㄵ, ㄶ'이 있다.

【2】 ㄵ
앉다(座), 얹다(載), 들앉다(들어앉다), 끼얹다(振), 주저앉다(座)

【3】 ㄶ
끊다(切), 많:다(多), 괜찮다(틀려도~), 구찮다(煩), 점:잖다(鎮重), 언짢다(不快)[117]

③ 'ㄹ'계

'ㄹ' 계가 자음군 어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속하는 것은 'ㄼ, ㄻ, ㄾ, ㄺ, ㅀ'이 있다.

---

117) '언짢다'가 직계가족의 사망 따위에 대한 완곡어법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저 집이 언짠은 일이 있어서

【4】 ㄼ

넓다(廣), 떫:다(澁), 얇:다(薄), 엷:다(薄)(참조 엷:으다), 짧다(短)(참조 짤르다), 밟:다!(踏)

【5】 ㄻ

곪:다(膿), 굶:다(飢), 닮:다(似), 삶:다(煮), 옮:다(移), 젊:다(若)

【6】 ㄾ

핥다(접시를~)(참조 핥으다)

【7】 ㄺ

갉다(搔-小), 굵:다(太), 긁다(搔-大), 낡다(古), 늙다(老), 맑다(淸), 묽다(薄), 밝다(明), 붉다(赤), 읽다(讀)

【8】 ㅀ

곯다(배를~), 꿇다(무릎을~), 끓다(沸), 닳다(擦), 뚫다(注)(참조 따르다), 뚫:다(穿), 싫:다(截)(참조 실:다!), 앓다(患), 옳다(正), 잃:다(조리로 쌀을~), 들끓다(騰), 싫다!(厭)

표준어에는 'ㄿ' 어간이 있지만(읊다) 이 방언에서는 'ㅡ' 어간으로 재구화되어(읊으다) 'ㄿ' 어간은 없다. 'ㄾ' 어간의 경우도 '핥다'가 유일예인데 '핥으다'와 공존하고 있으므로 어간 말음으로서의 'ㄾ'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밟:다!'가 불규칙적인 이유는 다른 'ㄼ' 어간들과 교체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ㄼ' 어간에 속하는 다른 용언들은(모두 형용사임) 자음 어미 앞에서는 두 번째 자음인 'ㅂ'이 탈락하는데 '밟:다!'만은 예외적으로 첫 번째 자음인 'ㄹ'이 탈락한다.118)

(88) a. 넓다(廣) : 널따 · 널찌가 안어 · 널씁니다 · 널꾸
b. 밟:다(踏) : 밥:습니다 · 밥:지 마:라 · 밥:는다 · 발:꾸

'싫다!(厭)'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불규칙적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여 불규칙'이라고 하겠다. {載}를 의미하는 '싫:다'와 비교하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싫다'의 이와 같은 불규칙한 형태음운론적 양상은 이미 19세기에부터 나타난다.[119]

(89) a. 싫다(厭) : 싫다, 실여서 · 실여 · 실여허는데, 실이면
b. 싫:다(載) : 싫:구, 실어서, 실으면

【9】 기타 불규칙
눋:다!(焦)(참조. 눈:다!), 실:다!(載)(참조. 싫:다)

이 두 어간은 모두 기원적으로 'ㄷ 불규칙(A)'에 속하던 것들인데 현재는 다음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을 보인다.

(90) 실:꾸 · 실:찌 마라 · 실:른다, 실어라, 실으믄 · 실으니깐

'실:다!'를 예로 교체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어간 말음은 후행하는 어미의 평음인 장애음을 경음화시키고, 'ㄴ'은 유음화시키며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도 탈락하지 않는다.
어간 말음 'ㄹ'이 경음화를 유발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자음 앞에서는 '실:C'라는 이형태를 설정하거나 혹은 '실:'을 경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118) 다만 이 때도 'ㄱ' 앞에서는 다른 'ㄼ' 어간들의 교체 양상과 동일하다(발:꾸).
119) 백두현(1997:27) 참조.

직접 결합시킬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두 방법 모두 가능지만 자음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를 '실:C'로 잡으면 이 때의 'C'는 교체형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과 경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이형태들이 직접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쪽을 택한다.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경우는 '실:믄ˣ'과 같은 활용형을 보이는 경우가 전혀 없으므로 모음 앞에서는 '실'이 아니라 '실으'를 이형태로 잡는다.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나타나는 '실어라'는 이 어간 이형태 '실으'가 어미 '-어라'와 결합한 결과이다(실으 + 어라 → 실어라). 모음 어미 앞에서의 'ㅡ' 탈락은 이 방언에서 일반적인 음운과정이다. 결국 두 이형태 '실:'과 '실으'는 각각 독립적으로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처리한다.[120]

3.4.1.2 말음이 모음인 어간

이 방언의 용언 중 말음이 모음인 어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ㅏ(사다)
② ㅐ(달래다), ㅐ:(매:다)
③ (ㅔ:)[121](떼:다)

---

120) 자음 앞에서의 이형태 '실C'의 C를 성문폐쇄음 'ʔ'으로 보면 단일한 기본형 '실ㆆ다'를 설정할 수 있다(崔明玉 1978=1998b:43-50).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성문폐쇄음은 최소대립쌍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음소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엄태수 1994=1999:126). 둘째, 그러므로 어간말음 'ㄹㆆ'은 순전히 활용상의 형태음운론적 교체 사실만을 통해 추론해 낸 것인데 그렇다면 '듣꾸, 들어서, 들으믄'을 통해 어간말음 'd'를 추론하는 방법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셋째, 어간말 자음 'ㄹㆆ'을 인정하면 여기에 속하는 어간은 두 예밖에 없다. 그것도 체언 어간에는 존재하지 않고 용언 어간에만 존재한다는 편재성이 있게 된다.

121) 용언 어간 중 어간 말음이 'ㅔ:'인 것은 현재 'ㅣ:'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으므

④ ㅗ(보다), ㅗ:(꼬:다)
⑤ ㅜ(추다), ㅜ:(쑤:다)
⑥ ㅣ(기다), ㅣ:(끼:다)
⑦ ㅟ(뛰다), ㅟ:(쥐:다)
⑧ ㅚ(되다), ㅚ:(쇠:다)
⑨ ㅡ(스다)

'ㅓ' 어간은 이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어에서 'ㅓ' 어간으로 되어 있는 '서다(立), 켜다(點火), 펴다(敷)'는 이 방언에서 '스다, 키다, 피다'로 재구조화되었다.[122] '허다'를 'ㅓ' 어간의 예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으나[123] '허다'는 유사한 활용 패러다임을 보이는 'ㅏ' 어간과 형태음운론적 양상이 다르므로 'ㅓ' 어간의 예로 다룰 수 없고 개별적인 불규칙용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a. 따지 마라, 따서, 따면
b. 허지 마라, 해:서, 허면

3.4.1.2.1 'ㅏ' 어간

【1】 ㅏ
가다(去), 까다(孵), 나다(화가~), 따다(摘, 돈을~), 사다(買), 싸다(低價), 싸

로 어간말 모음으로서 'ㅔ:'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괄호로 묶어 표시하였다.

122) Martin, S. E., Lee, Y. H. and Chang, S.-U.(1967)에서는 아예 '스다, 키다, 피다'를 표제항으로 올리고 있다.

123) 충남 강경 방언도 어간말 모음으로 'ㅓ'를 가진 것은 '허다'밖에 없다고 한다(權美永 1998:30). 그러나 權美永(1998)에서는 '허다'를 'ㅓ' 어간에 포함시켜 본고와 '허다'에 대한 기술 방법이 다르다.

다(包), 싸다(오줌을~), 자다(眠), 짜다(鹽), 짜다(絞), 차다(蹴), 차다(冷), 차다(滿), 차다(숨이~), 차다(佩), 타다(乘), 타다(燃), 파다(堀),
감:싸다(庇護), 겁나다(怯), 나가다(出), 나타나다(出現), 놀:라다(驚)(참조. 놀:래다), 떠나다(出發), 만나다(遇), 맛나다(珍味), 모:자라다(未達), 몰려가다(群去), 바라다(願), 벅차다(일이~), 비싸다(高價), 신나다(興), 올라가다(上), 우러나다(滲), 자라다(成長), 자라다(充分)<한.126>, 잽:싸다(敏捷), 중뿔나다(~게 나서다),[124] 지:내가다(過), 찾아가다(訪問)

자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이형태는 'Xㅏ'로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형태 분석이 간단하지 않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Xㅏ'인데 이 때의 'ㅏ'가 어간의 말음인지 혹은 어미의 두음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2) 따지 마라, 따서, 따면

'ㅏ'가 어간의 말음이라면 이형태는 'Xㅏ(따)'이고 어미의 두음이라면 'X(ㄸ)'가 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만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어미 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처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4장 음운과정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수의적으로 어간 말음 'ㅏ'가 장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모두 명령형 어미라는 공통점이 있다.[125]

---

124) 이 어간은 '중뿔나게'라는 부사형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중뿔나구*, 중뿔나서*, 중뿔나믄*).

125) 수의적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교체는 산발적 교체(sporadic alternation)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몇몇 방언에서 명령형 어미의 이와 같은 독특한 교체의 양상이 보고

(3) 가다(去) - 가:래 · 가:래는 거야 · 가:래니까 간거지
　　자다(眠) - 자:라구

'놀:라다'는 '놀:래다'로도 쓰인다. 어간말에 모음 'ㅣ'가 첨가된 것으로 전자가 구형, 후자가 신형이다. '지:내가다' 역시 표준어로는 '지나가다'인데 '지:내가다'의 선행 요소 '지:내-' 역시 같은 유형이다.

3.4.1.2.2 'ㅐ, ㅔ' 어간

【2】 ㅐ

기:대다(寄), 꾸:매다(꿰매다), 끄:내다(引出), 날래다(敏捷), 날쌔다(敏捷), 내:보내다(밖으로~), 놀:래다(使驚), 놀:래다(驚)(참조 놀:라다), 달래다(慰), 뭉개다(潰), 바래다(vi.사진이~, vt.광목을~),[126] 보내다(送), 보채다(아기가~), 보태다(加)(참조 버태다), 뻼내다(뽐내다), 설때다(숯불을 ~서 끄다), 업ㅆ:애다(使無), 으깨다(碎), 으:싯대다(으스대다), 지:내다(지나다), 짜개다(割), 쪼개다(分), 치대다(빨래를~), 타내다(非難), 헤매다(迷)

【3】 ㅐ:

개:다(양회를~), 개:다(晴), 깨:다(割), 깨:다(覺), 내:다(돈:을~), 때:다(焚), 매:다(結), 배:다(孕), 빼:다(拔), 새:다(漏), 재:다(測), 째:다(切開), 캐:다(堀), 패:다(장작을~), 깨:다(깨우다), 때:다(그릇을~, 아침을~), 배:다(習)(참조 배우다), 새:다(새우다), 재:다(使眠)(참조 재우다), 재:다(김을~)≪劣≫(참조 쟁이다≪優≫), 채:다(使滿)(참조 채우다), 태:다(차에~), 태:다(종이를~), 패:다(토란을, 나물을, 모래를, 흙을~), 패:다(使掘)

된 바 있다(영주방언 - 林錫圭 1999:76, 강릉 · 삼척방언 - 金鳳國 2000:12,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국어 - 崔明玉 2000:31).

126) 'vi'는 자동사를, 'vt'는 타동사를 나타낸다.

'ㅐ, ㅐ:' 어간은 'ㅐ' 어간의 경우에는 'Xㅐ', 'ㅐ:' 어간의 경우에는 'Xㅐ:'로만 나타난다.

(4) a. ㄲ·내다 - ㄲ·내다 먹구, ㄲ·냈어 · ㄲ·내가주구, ㄲ·내면
b. 때:다 - 때:지 · 땐:다, 때:라 · 땠:어요 · 때:서 · 땠:는데 · 때: 버려, 때:면

'ㅐ:' 어간은 모두 1음절 어간이고 'ㅐ' 어간은 모두 다음절 어간이다. 이 방언에서 비어두 위치에서는 장음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음절 어간의 경우는 어간말에 장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배:다'는 표준어의 '배우다'에 해당된다. 이 방언에서는 '배:다'와 '배우다'가 모두 사용된다. 이 방언에서 ①2음절 모음 어간이고 ②두 번째 음절이 '우'이며 ③첫 번째 음절의 모음이 전설모음이면 '우'가 탈락하고 보상적 장모음화를 수반하기도 하는데 '배:다'가 바로 그 예인 것이다. 이 때의 '우'는 '배우다'의 '우'처럼 어간의 일부일 수도 있고 '깨:다(깨우다)'에서 보듯이 사동접미사인 경우도 상관없다.127) 이 외에 '때:다(그릇을, 아침을~), 새:다(새우다), 재:다(使眠), 채:다(使滿), 태:다(차에~), 태:다(종이를~)' 등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조화된 어간들의 예이다.

【4】 ㅔ:

데:다(燒)≪劣≫(참조 디:다≪優≫), 떼:다(取)≪劣≫(참조 띠:다≪優≫), 떼:다(돈을 떼이다), 메:다(설거지통을~)(참조 메우다), 메:다(우물을~)(참조 메우다)

'ㅔ:' 어간은 'Xㅔ:'로만 나타난다.

127) 이에 대해서는 'ㅜ' 어간 부분에서 상술함.

(5) 떼:지, 떼: 버리구 · 떼:라, 떼:면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에 특징적인 것은 많은 어간이 'ㅣ:' 어간과 공존하고 있고 후자가 더 우세형이라는 점이다.

(6) 띠:구 있다, 띠어버리지 · 띠여라 · 뗘:서, 떨:래믄

이 방언에서는 어두에서 장음인 중모음이 고모음으로 상승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비원순모음일 경우는 거의 필수적이고 원순모음인 경우는 수의적이다.

(7) a. 질:(제일)
b. 으:른(어른)
c. 푸:승(포승)
d. 뒤:게(되게)

'데:다'와 '떼:다'가 '디:다'와 '띠:다'로 재구조화된 것은 이 고모음화 때문이다.

한편 'ㅔ:' 어간이면서도 모음상승을 보이지 않는 '떼:다(돈을 떼이다), 메:다(설거지통을, 우물을 ~)'는 모두 기원적으로는 'ㅔ:' 어간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아직 완전히 'ㅔ:'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모음화를 겪지 못한 것으로 본다.

결국 'ㅔ:' 어간에 속하는 용언들은 현재 'ㅣ:'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고 용언 어간말 모음으로서 'ㅔ:'의 위치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음체계상으로 보면 'ㅔ'가 위치한 전설비원순 중모음 위치는 빈칸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4.1.2.3 'ㅗ, ㅜ' 어간

'ㅗ, ㅜ' 및 다음으로 언급할 'ㅣ, ㅟ' 어간들은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여러 가지 유형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어간 모음이 반모음화되고 이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하 '반모음화형'이라고 한다. 어간 모음과 어미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삽입되거나 어간 모음과 어미 모음이 그대로 연결되어 모음충돌을 일으키는 유형도 있다. 전자를 '반모음삽입형', 후자를 '모음충돌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모음충돌형'은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이 세 유형 이외에 공시적인 음운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활용형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두 '기타'로 묶는다. 하나의 어간에 대해 이 네 가지 유형의 활용형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 각 유형의 모습을 미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8) 반모음화형 - 뚜ㅕ: /t'wjʌ:/128) (←뛰다)
반모음삽입형 - 뛰여
모음충돌형 - 휘어 바:라
기타 - 뛔: 간다 /t'we:/ (←뛰다)

'뛰다(走)'는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말 모음 'ㅟ'가 반모음화되거나(뚜ㅕ:), 어간말 모음과 어미 모음 'ㅓ' 사이에 반모음 j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뛰여). '뛔:'와 같은 활용형은 공시적인 모음체계 내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산발적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한다. '휘어'는 어간말 모음 'ㅟ'와 어미 모음 'ㅓ'가 모음충돌(hiatus)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이런 예들은 모음충돌형으로 표시한다.

---

128) 음성형으로는 [t'ɥɔ:]로 들린다.

【5】 ㅗ

보다(視), 오다(來), 가저오다(持參), 깔:보다(侮), 네려오다(降), 들오다(入), 딜여다보다(안을~)(참조. 들여다보다, 델여다보다), 얕:보다(輕視), 엿:보다(盜視), 올러오다(上), 지:내오다(通過), 치:다보다(쳐다보다), 후둘러보다(휘둘러보다)

단일어간은 '보다'와 '오다' 둘뿐인데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양자가 서로 다르다. '보다'의 활용형은 반모음화형인데(봐:) '오다'의 그것은 '와'이다. 둘은 장모음화를 수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반모음화가 일어나면서도 장모음화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이 방언의 일반적인 형태음운론적 양상이 아니므로 '오다'의 경우가 불규칙적임을 알 수 있다.

【6】 ㅗ:

고:다(煮), 꼬:다(새끼를~), 모:다(集),[129] 쏘:다(vi.벌이~, vt.활을~), 쪼:다(啄), 호:다(縫)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반모음화형이 일반적이고(뫄:) 모음충돌형이 더러 나타난다(모아). (9)처럼 반모음화형만 나타나고 모음충돌형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9) 꽈:가주구, 쏴:라, 화:서

129) '모:다'는 표준어의 '모으다'에 해당된다. 중세국어의 '고으다(LL)'가 '고:다'로 재구조화된 것처럼 '모으다' 역시 '모:다'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다만 '모:다'의 경우 중세국어형이 '뫼호다(LH)'이므로 어중 자음 'ㅎ'이 탈락된 후에야 '모:다'로 재구조화될 환경이 만들어진다(뫼호- > 모호- > 모으- > 모:-). 이 때문에 표준어에서는 재구조화가 되기 이전 단계의 '모으다'가 채택된 것이다.

【7】 ㅜ

누다(오줌을~)(참조. 누ㅎ:다), 두다(置), 주다(授), 추다(舞), 가꾸다(栽培), 가두다(囲), 감추다(隱)≪質≫(참조. 감치다≪自≫), 거두다(收), 겨누다(向), 겨루다(競), 기우다(게우다)(참조. 기:다), 끼우다(전구를~)(참조. 끼:다), 나추다(使低), 느추다(使遲), 다루다(取扱), 다투다(競), 달구다(vi.인두가~, vt.인두를~), 데우다(溫)(참조. 디:다), 띠우다(使浮)(참조. 띠:다), 멈추다(停止), 메꾸다(埋)(참조. 메우다), 메우다(埋)(참조. 메:다, 메꾸다), 바꾸다(換), 배우다(習)(참조. 배:다), 베루다(벼리다), 비우다(使空), 세우다(使立)≪質≫(참조. 시우다≪自≫, 시:다≪自≫), 싸우다(爭), 씨우다(돈을 쓰게 하다)<천.244>, 씨우다(使冠)(참조. 씨:다), 외우다(暗誦)(참조. 외:다, 위:다), 재우다(使眠)(참조. 재:다), 지우다(消)(참조. 지:다), 채우다(使滿)(참조. 채:다), 피우다(담배를~, 바람을~)(참조. 피:다), 헹구다(그릇을~)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1음절 어간일 경우에는 'Xㅝ:'(춰:), 다음절 어간일 경우에는 'Xㅝ'(다퉈)처럼 나타난다. 후자가 短母音인 것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음은 어두 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이 방언의 음운배열제약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은 결국 동일한 유형에 속하게 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 중 어간이 'XVu-'의 구조를 가질 경우 '3.4.1.2.2 ㅐ, ㅔ 어간'의 경우와 같이 'XV:-'와 같은 공존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10) a. 기우다 - 기:다
끼우다 - 끼:다
띠우다 - 띠:다
지우다 - 지:다
피우다 - 피:다
b. 데우다 - 디:다

메우다 - 메:다

세우다~시우다 - 시:다

c. 외우다 - 외:다~위:다

d. 채우다 - 채:다

배우다 - 배:다

그런데 이상의 예들은 V 가 모두 전설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형태론적으로는 대부분 사역형 '-(ㅣ)ㅜ-'형에 속한다. '싸우다'가 'XVu-'와 같은 구조를 가졌으면서도 결코 '싸: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제 1음절의 V 가 후설모음인 'ㅏ'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30] 특별히 '≪質≫, ≪自≫'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XVu-'형은 질문지에 의한 응답형에서만 나타나고 일상의 발화에서는 'XV:-'형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 'XV:-' 어간들은 활용 패러다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을 찾아 볼 수 없는 때가 많은데[131] 이것은 현지 조사에서 오는 자료상의 공백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자음이 없는 'X우-' 어간을 'X:-' 어간으로 재구조화시키는 것은 '우' 탈락과 이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이다. 그런데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는 탈락할 수 있는 '우'가 아닌 반모음 w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음운변화를 적용시킬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신형 'X:-'에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32]

---

130) 그러나 '싸움'은 '쌈:'이 가능한 것 같다.

131) 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예도 있다. '벤:다(枕), 배:서, 배:면'.

132) 그렇다면 '배:다(習)'의 경우는 왜 '배:서'와 같은 활용형이 존재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유추적 평준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X우-	'우' 탈락 & 보상적 장모음화	X:-
I	지운다	진:다	진:다
II	지워서	----	지워서
III	지우믄	지:믄	지:믄

【8】 ㅜ:

꾸:다(夢), 꾸:다(借)(참조. 뀌:다), 쑤:다(죽을~)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반모음화형이 일반적이고(꿔:, 쒀:라) '쑤:다'의 경우 모음충돌형이 조사되었다(쑤어).

3.4.1.2.4 'ㅣ' 어간

모음어간으로는 'ㅣ' 어간이 가장 많다. 이것은 피·사동 접미사를 비롯하여 많은 접미사들이 모음 'ㅣ'로 끝나기 때문이다. 또 'ㅣ' 어간의 경우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형태음운론적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구개음의 경우) 여기에서는 'ㅣ' 어간에 속하는 예들을 선행 자음별로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9】 ㅣ

【9-1】 어간말 음절이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시-'

계:시다(尊在)(참조. 기:시다), 자:시다(尊食), 주무시다(尊寢), 잡수시다(尊食)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과 일부 어미와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문제가 된다.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X세'이며 이 때 'ㅅ'은 흔히 구개음 [ʃ]로 실현된다.

(11) 계:세서, 모:세서, 자:세서, 잡수셨습니까?

그러나 규칙적인 반모음화형도 없지 않다(X셔).

(12) 모:셔야 헌다, 잘 자:셨나?

이 어간들은 모두 어간말의 '시'가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간말 음절이 '시'라 하더라도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시-'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13)에서와 같이 규칙적인 반모음화형으로 나타난다.

(13) 마시지, 마셔
성가시게, 성가셔서

그런데 'X세'와 같은 활용형은 선어말어미 '-시-'가 활용에 참가할 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14) 잡으시다, 잡으세요

따라서 이와 같은 특이한 형태음운론적 양상은 선어말어미 '-시-'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어간들에 나타나는 '시'는 기원적으로는 선어말어미였을지 몰라도 공시적으로는 완전히 어간의 일부로 바뀐 것들이다. '모:-ˣ, 주무-ˣ' 등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음운론적 교체의 양상은 이전 시기의 활용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존칭 '-시-'에 한해 적용되는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 것이기에 공시론적으로는 불규칙으로 처리한다.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는 어미 '-세요'와 결합할 때가 문제가 된다. 이 때는 어간말의 '시'가 탈락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서 어간말 음절이 '시'인 용언과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5) a. 기:시다, 기:세요
b. 적시다, 적시세요

【9-2】 선행 자음이 구개음

① ㅈ

지다(負), 지다(落), 지다(장마가~), 가지다(持)(참조. 갖다i), 갈러지다(被割), 건방지다(아랫사람이~), 건지다(拾), 기울어지다(傾), 까:매지다(黑), 깨:지다(割), 꺼지다(陷), 께:지다(裂), 누그러지다(김이~), 다지다(고기를~), 던지다(投), 도:지다(再發), 되바라지다(~진 아이), 뒤지다(搜), 따지다(勘定), 만지다(觸), 망가지다(壞), 메:다곤지다(메다꽂다), 무너지다(壞), 뭉그러지다(崩), 버스러지다(情이~), 번:지다(散), 부러지다(斷), 부시러지다(碎), 빠:지다(脫), 빨개지다(赤), 삐뚤어지다(曲), 살팍지다(肥), 쏟아지다(落), 쓰러지다(倒), 자빠지다(倒), 조지다(나사를~), 지지다(~져 먹다), 터:지다(裂), 펴:지다(張), 해:지다(해어지다), 헤:지다(헤어지다),

② ㅊ

치다(打), 치다(看做), 치다(대님을~), 감:치다(縫), 감치다(隱)≪自≫(참조. 감추다≪質≫), 거치다(經由), 걸:치다(掛), 고치다(直), 깨치다(覺), 끄치다(止), 끼치다(손해를~), 날치다(跳梁), 넘치다(氾), 노치다(놓치다), 뉘우치다(悔), 다치다(傷), 닥치다(臨迫), 닫치다(閉)(참조. 닫다),133) 도치다(가시가~), 디:치다(데치다), 마치다(終), 마치다(양복을~), 망치다(滅), 메:치다(밥상을~), 무치다(나물~), 뭉치다(結), 미치다(狂), 바치다(獻), 부닥치다(突), 부치다(붙이다), 부치다(發送), 삐치다(怒),134) 사무치다(徹), 설치다(蔓延), 시치다(縫), 안치다(떡을~), 앉히다(使座), 얏이다(使淺), 자빠지다(轉), 쟁:치다(재양치다), 정치다(경치다), 제치다(젖히다), 쫓이다(追)(참조. 쫓다), 치치다(치치다), 팽겨치다(팽개치다), 헤치다(開), 훔치다(拭), 훔치다(盜),135)

③ ㅉ

찌다(蒸), 찌다(살이~), 찌다(搗)(참조. 찧:다), 찌다(쪽~)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X ㅓ'로 나타난다.

(16) 저, 처, 쩌

선행 자음이 구개음이 아닌 경우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X ㅕ:' 인데 이것은 어간 모음 'ㅣ'의 반모음화와 그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에

---

133) '닫치다' 쪽이 '닫다'보다 일상의 발화에서 조금 더 자주 쓰이는 것 같다. <한.85>의 '닫히시구'는 이 '닫치다'를 표기한 것이다.

부엌에 내려가셔서 솥뚜껑 열었다 닫히시구

134) 이 전에는 '성나다'를 주로 썼다고 한다.

135) '훔'의 'ㅜ'는 무성화되고 거의 [ɯ]에 가깝게 들린다. 기본형을 '흠치다'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방언에서 마찰음 아래 'ㅜ > ㅡ'의 변화가 더러 발견되기 때문이다(요술 > 요슬).

의한 교체형이다. 그런데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방언에서는 '구개음 - j'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음운배열제약이 존재하므로 선행 자음이 구개음인 경우는 이 제약에 의해 반모음 j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음절 어간의 경우는 왜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보상적 장모음화에 관한 한 구개음을 선행 자음으로 가지는 1음절 어간(지다, 치다, 찌다)은 공시론적으로는 불규칙용언이 된다.

【9-3】 선행자음이 非구개음

① 양순음

굽히다(屈), 꾸미다(飾), 넓히다(使廣), 누비다(縫), 뎀비다(개가~)(참조. 덤비다), 밟히다(被踏), 붐비다(混雜), 비비다(밥을, 빨래를~), 씹히다(被嚙), 업히다(被負), 여미다(옷깃을~), 오비다(刳-小), 우비다(刳-大. 귀를~), 입히다(使着), 잽히다(使抵當)(참조. 잡히다), 잽히다(被捕), 젭히다(被折)(참조. 접히다), 제미다(薄切), 좁히다(使狹),

② 치조음

시다(酸), 거시다(激), 견디다(耐), 꼬:시다(꼬이다), 다니다(往來)[136]≪劣≫(참조. 댕기다≪優≫), 더디다(遲), 디디다(踏)(참조. 딛다i), 마시다(飮), 버티다(支), 부시다(눈이~), 부시다(濯), 부시다(부수다), 성가시다(煩), 쑤시다(刺), 억시다(硬), 적시다(濡), 지니다(持), 짓니기다(짓이기다), 헛디디다(헛디디다)(참조. 헛딛다i),

③ ㄹ

가리다(遮), 가리다(忌), 갈리다(被挽), 거느리다(率), 거드러거리다(慢), 건:드리다(觸), 걸리다(시간이~), 걸리다(가시가 목에~)(참조. 걸키다), 걸터들이

136) <천.22, 26>에는 '대니다'로 나타난다.

다(마구~), 걸리다(凝), 골리다(약올리다), 굴:리다(轉), 그:리다(畵), 그슬리다(燒), 기달리다(기다리다), 깔리다(被敷), 깨트리다(壞), 꺼:리다(忌), 꺼트리다(消), 꾸리다(짐을~), 꾸부리다(曲), 꿀리다(劣), 꿈지러거리다(꿈지럭거리다), 꿉실거리다(諂), 끌:리다(被引), 끌이다(使沸), 날리다(使飛), 네리다(降)≪優, 自≫(참조 내리다≪劣≫), 노(::)리다(狙), 노닥거리다(노닥거리다), 놀리다(使遊), 놀리다(嘲弄), 누(::)리다(享), 눌:리다(被押), 눌리다(使눋다), 느리다(遲), 늘리다(使增), 대리다(간장을~)(참조 다리다), 다스리다(治), 달리다(使닳다), 대리다(다리미로~), 덥저거리다(덥적거리다), 데리다(率), 도리다(拔), 도사리다(~고 앉다), 돌리다(使回, 配布), 두드리다(叩), 둥식거리다(둥싯거리다), 뒤적거리다(探), 드리다(댕기를~), 들리다(被聞), 들리다(訪問), 들리다(使持), 들이다(장가를~), 디리다(드리다)(참조 드리다), 딸리다(不及), 때리다(毆), 떨어트리다(落), 뚫리다(뚫리다), 말리다(使止), 말리다(使乾), 매:달리다(垂), 몰리다(눈이 한쪽으로~), 몰리다(集中)(참조 몰키다), 물리다(被嚙), 물리다(使嚙), 밀리다(被押), 버리다(棄, 사람을~), 버무리다(和), 벌:리다(다리를~)(참조 벌:기다), 벌:이다(살림살이를~), 복작거리다(混雜), 부라리다(눈을~), 부러뜨리다(折), 부리다(재롱, 기술을~), 불리다(使붇다), 붙들리다(被붙들다), 빌리다(借), 빨리다(使飮), 뿌리다(散), 사리다(몸을~), 살리다(使生), 설리다(使설다), 수그리다(下), 시리다(冷), 쏠리다(傾), 쓰라리다(疼), 씨근거리다(喘), 씰리다(傾), 아물리다(使아물다), 알랑거리다(諂), 알리다(使知), 애끼다(節約), 어리다(幼), 얼:리다(어울리다), 얼리다(使氷), 얼버무리다(紛), 엎드리다(伏), 열리다(實), 열리다(被開), 오그리다(引), 오리다(切), 오무리다(搾), 올리다(使上), 옴츠리다(縮), 우비저거리다(刳), 울리다(使泣), 울리다(鳴), 윽살리다(驅迫), 제리다(痺)(참조 저리다), 제리다(漬)≪自≫(참조 저리다), 조리다(煮), 졸:리다(眠)(참조 졸:립다!), 졸이다('줄이다'-小), 지리다(오줌을~), 질리다(飽), 찔리다(被刺), 찡그리다(顰), 차리다(살림을~), 추리다(選), 터뜨리다(裂), 털리다(被取), 틀리다(誤), 팔리다(被賣), 풀리다(被解), 허청거리다(衰), 헐떠거리다(헐떡거리다), 헐렁거리다(弛), 헐리다(被崩), 헤뜨리다(散), 홀리다(여우가 사람을~), 후청거리다(휘청거리다), 흔들리다(搖), 흘리다(漏),

④ 연구개음

기다(匐), 가리키다(敎), 갈기다(毆), 강기다(使눈을감다), 개키다(疊), 갱기다(被눈을감다), 갱기다(使洗髮), 갱기다(被卷), 결키다(가시가 목에~)(참조 걸리다), 공기다(膿), 구기다(vi.종이가~, vt.종이를~), 궁기다(使飢), 깔기다(쉬를~), 꺾이다(被折), 냉기다(使殘), 네리키다(使下), 넹기다(使越), 녹히다(녹이다), 눅히다(눅이다), 댕기다(往來)≪優≫(참조 다니다≪劣≫), 덮두들기다(감싸듯 어루만지며 두들기다), 돌:공기다(돌곰기다), 동이다(縛), 두들기다(叩), 딜이키다(들이켜다), 땡기다(引)(참조 땅기다), 뚜들기다(叩), 뜨끼다(뜯기다), 맥히다(被遮), 맽기다(使任), 멕히다(被食)(참조 먹히다), 멕이다(使食), 몰키다(集中)(참조 몰리다), 묵히다(使古), 묶이다(被縛), 밝히다(使明), 배기다(耐), 백이다(손에 못이~), 백이다(사진을~), 백히다(被打), 벌:기다(다리를~)(참조 벌:리다), 베끼다(模寫), 벳기다(사과를~, 옷을~), 비:키다(避), 비기다(無勝負), 뺏:기다(被奪), 뽑히다(被拔), 색히다(使熟), 생키다(飮), 성기다(섬기다), 속히다(使欺)(참조 속이다), 숙이다(伏), 시키다(使), 식히다(使冷), 신키다(신기다), 쎅이다(속을~), 업ㅅ:은녀기다(輕蔑), 엉기다(凝), 엉키다(縺), 예기다(看做), 욍기다(使移)≪自≫(참조 옹기다≪質≫), 우기다(우기다), 움직이다(動), 웃기다(使笑), 이기다(勝), 이기다(고기를~), 익히다(使熟), 일으키다(使立), 쟁기다(被閉), 쟁이다(김을~)≪優≫(참조 재:다≪劣≫), 적히다(被記入), 죽이다(殺), 즐기다(好), 지키다(守), 질기다(堅)(참조 찔기다), 쫓기다(被追), 챙기다(取), 켕기다(팽팽하게~), 투:기다(揚)(참조 튀:기다), 틀어백이다(틀어박히다), 풍기다(臭), 흘기다(눈을~)

⑤ 후음

히다(白)

⑥ ø - 선행자음 없음

이다(戴), 고이다(溜)(참조 괴:다), 꼬이다(被새끼를 꼬다)(참조 꿰이다), 꿰이다(被새끼를 꼬다)(참조 꼬이다), 보이다(被見)(참조 비:다), 설레이다(설레

다), 싸이다(쌓이다), 쏘이다(바람을~)(참조. 쐬:다), 쪼이다(照)(참조. 쬐:다)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1음절 어간일 경우에는 'Xㅕ:'(예 - 셔:), 다음절 어간일 경우에는 'Xㅕ'(예 - 우벼)이다.[137] 후자가 短母音인 것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음은 어두 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이 방언의 음운배열제약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은 결국 동일한 유형에 속하게 된다.

이 외에 산발적으로 반모음삽입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두 예가 전부이다.

(17) 시여, 기여 간다

다음 어간들의 활용 패러다임은 이상의 'ㅣ' 어간과 유사하면서도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서 일반적인 'ㅣ' 어간으로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18) a. 키다(기지개를~) : 킨다 · 키지, 켜서, 키면

b. 키다(點火) : 키구 · 키지 · 킨다 · 켜지 마:라, 켜라 · 켜서, 키면 · 키라 그러지 · 킨 데

c. 키다(톱으로 나무를~) : 킨다 · 키는 거구, 켜서, 키면 안된다

d. 피다(敷) : 피지 · 핀다 · 펴지 마:라, 펴라 · 펴서, 피면

우선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언제나 短母音을 가진 '켜, 펴'인 것이다. 둘째로 '-지 마:라' 앞에서 어간 이형태가 '켜, 펴'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일반

137) '이다(戴)'는 1음절 어간이면서도 예외적으로 'Xㅕ'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지 마:라 · 이구 와야지, 여 · 여 날르지 · 여다 먹지 · 여:, 이면

적인 'ㅣ'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과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불규칙적인 양상은 이 동사들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고려하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통시적 설명은 이미 郭忠求(1994b:581f)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된 바 있는데, (a-d)에 해당하는 표준어 어형이 '켜다, 펴다'인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키다, 피다'는 '켜다, 펴다'로부터 재구조화된 형태라는 것이 郭忠求(1994b)에서 제시된 설명의 요지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방언에서는 모음 어간 중 'ㅓ' 어간의 예는 존재하지 않고 표준어에서도 'ㅓ' 어간의 예로 단일어간은 '서다, 켜다, 펴다', 합성어간은 '나서다, 곤두서다, 맞서다, 건:너다' 등이 있을 따름이다.[138] 이처럼 'ㅓ' 어간의 예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자들은 'ㅓ'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을 'ㅣ' 또는 'ㅡ' 어간의 그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ㅣ, ㅡ' 어간은 이 방언의 모음어간 중 가장 많은 예를 가지고 있다.

(19) a. 켜 + 어서 → 켜서 ⇔ 키 + 어서
b. 펴 + 어서 → 펴서 ⇔ 피 + 어서
c. 서 + 어서 → 서서 ⇔ 스 + 어서

어간 '켜-, 펴-, 서-'의 활용형 '켜서, 펴서, 서서'는 어미의 이형태를 '어서'로 분석하면서 어간이 '키, 피, 스'로 재분석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재분석(정확히는 '오분석')을 통해서 '서다, 켜다, 펴다'는 '스다, 키다, 피다'로 재구조화된다.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을 알게 되면 활용형 '켜서, 펴서'가 사실은 '키 + 어서, 피 + 어서'가 아니라 '켜 + 어서, 펴 + 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138)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방언에서는 '서다, 나서다, 건:너다'는 '스다, 나스다, 건:느다'로 재구조화되었다.

된다. '키 + 어서, 피 + 어서'로부터는 장모음화를 수반한 '켜:서$^{\times}$, 펴:서$^{\times}$' 밖에 나오지 않는다. 'ㅓ' 어간의 예가 없기는 하지만 'ㅏ' 어간의 경우를 보면 탈락의 경우는 보상적 장모음화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이 방언에서의 일반적인 형태음운론적 양상이다.139) 그러므로 '켜서, 펴서'는 반모음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탈락을 겪은 활용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켜다, 펴다'는 다른 어미 앞에서는 모두 '키다, 피다'로 재구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마라' 앞에서와 모음 어미 앞에서는 고집스럽게 과거의 활용 형태를 고수하고 있어서 보상적 장모음화를 겪지 않는 셈이다.140) 그렇기 때문에 공시론적으로는 불규칙 활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외에 어간에 따라 산발적으로 보이는 불규칙적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히다'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반모음삽입형으로만 나타나고(히여) 반모음화형으로 되는 일이 없다(혀:$^{\times}$). '싸이다(積)'는 규칙적인 '싸여' 외에 '쌔:'도 가지고 있다(쌔: 있다 · 쌔:갖구). '비:다(被見)'에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으로 '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비: 주니까). '비:다'는 '보이다 > 뵈:다 > 베:다 > 비:다'와 같은 역사적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비: 주니까'는 '*베:다' 시기의 활용형으로 생각된다(베: + 어 주다 → 베: 주다 > 비: 주다).

---

139) 이에 대해서는 李秉根(1978) 참조.

140) 이러한 설명 방법이 현재까지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분석(오분석)안'에 따르면 '켜다, 펴다'의 재구조화는 다름 아닌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활용형에서 일단 어간 이형태를 '키-, 피-'로 분석해 낸 후 이러한 어간형이 자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재분석의 출발점이 된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는 현재까지도 어간 이형태가 '켜, 펴'로 남아 있는 점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10】 ㅣ:[141]

【10-1】 선행자음이 구개음

지:다(使背負)β, 지:다(지우개로~)(참조 지우다), 치:다(방을~), 치:다(차에~)

【10-2】 선행자음이 非구개음

① 양순음

미:다(구덩이를~)β, 미:다(목이~), 미:다(쟁기를 소에게~)β, 미:다(가방을~)β, 비:다(使見, 被見), 비:다(낫으로~, 손을~)αβϒ, 비:다(벼개를~)β, 비:다(집이~)βϒ, 삐:다(발목을~)αβ, 피:다(開花)[142]α, 피:다(바람을~), 피:다(불을~)β, 피:다(담배를~)ϒ(참조 피우다)

② 치조음

디:다(물을~)αβϒ(참조 데우다),[143] 디:다(손을~)βϒ(참조 데:다), 띠:다(離)αβϒ, 띠:다(메주를~)ϒ(참조 띠우다), 띠:다(사이를~)ϒ(참조 띠우다), 띠:다(使

141) 장음인 'ㅣ:' 어간의 경우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세 가지 부류가(반모음화형, 반모음삽입형, 모음충돌형) 모두 나타나는데 이들의 출현을 결정 짓는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세 유형의 활용형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면 조사의 특성상 어떤 활용형 유형은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해석한다. 각 어간 바로 뒤에 어떤 활용형 유형이 조사되었는지 표시해 둔다.
표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약호를 사용한다.

반모음화형 - α
반모음삽입형 - β
모음충돌형 - ϒ
기타 - δ

142) {開花}의 의미를 가진 어간은 대부분의 사전에 短母音인 '피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방언에서는 장모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143) [1] 제보자는 '뎁히다'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남부방언의 차용일 가능성이 높다.

浮)(참조 띠우다), 시:다(强)β, 시:다(머리가~)ϒ, 시:다(數)β, 시:다(使立)ϒ(참조 시우다, 세우다),[144] 씨:다(씌우다)βϒδ(참조 씨우다)

③ 연구개음

기:다(게우다)ϒ(참조 기우다), 끼:다(안개가~)α, 끼:다(전구를~)α(참조 끼우다), 끼:다(반지를~)≪文≫αϒ

④ ∅ - 선행자음 없음

이:다(지붕을~) α

3.4.1.2.5 'ㅟ, ㅚ' 어간

【11】 ㅟ

뛰다(走), 튀다(침이~), 휘다(曲), 바뀌다(被煥)α, 사귀다(交)α, 사위다(불이~)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될 때는 일반적으로 반모음화형이 되고, 반모음삽입형과 모음충돌형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20) a. 뚜ㅕ: 오나라 /t'wjʌ:/, 투ㅕ:서, 후ㅕ:지구, 사우ㅕㅆ다
b. 뛰여
c. 휘어 바:라

이러한 활용형들은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방언의 음운과정(반모음화, 반모음 삽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4장 음

144) '시:다'는 목적어로 '선:, 농사'를 취하기도 한다.

선을 신:다
농사를 시어 가주구

운과정’ 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들 외에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으로 일상의 발화에서는 ‘Xㅞ(:)’와 같은 형태가 자주 발견된다.

(21) 뛔: 들어가주구 /t'we:/
 흑물이 뛔:서
 잘 안 췌저
 사웨 버려 · 사웨서(사위어서)
 사궤 바서(사귀어 봐서)

이러한 어형은 질문지 응답형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일상의 발화에서만 나타난다. 일상의 발화 중에서도 특히 ‘X 아/어 Y’와 같은 복합동사 혹은 동사구 구성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런 종류의 활용형을 (20)의 세 유형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Xㅞ(:)’류의 활용형들은 공시적인 음운과정에 의해 도출할 수 없으며 어간 모음 ‘ㅟ’가 하향이중모음 /uj/였던 시기의 활용형으로 해석한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뛰다’를 예로 살펴보도록 하자.

‘ㅟ’의 單母音化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이중모음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ㅣ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나기 전인 18세기까지는 이중모음이었음에 틀림없다. 18세기까지 문헌 자료에 나타난 ‘뛰다’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으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145] 첫 번째 유형은 ‘쀠여(쒸여)’와 같은 형태

145) 이 두 유형에 속하지 않는 예로 ‘쀠어’가 있는데 다음 예가 전부이다.

우리 그저 예서 쀠어 드러가쟈 <朴通事諺解 中:56a>(1677)
믈에 쀠어 드러 쟛바 ᄌᆞᆷ기다 마쟈 <朴通事諺解 中:56a>

로 대부분의 예가 이 유형에 속한다.

(22) 欲愛 ᄇᆞ리고 乾慧예 <u>ᄠᅱ여</u> 올아도 <楞嚴經諺解 8:15a>
믄득 절로 헤여뎌 두리에 <u>ᄠᅱ여</u> 나거늘 <飜譯小學 9:25a>
ᄒᆞᆫ 번 소ᄅᆡ 디ᄅᆞ고 床에 <u>ᄠᅱ여</u> ᄂᆞ려디니 <朴通事諺解 下:21a>
跳過去 <u>ᄯᅱ여</u> 넘다 <譯語類解 補 25b>

두 번째 유형은 'ᄠᅮ여(ᄯᅮ여)'와 같은 형태로 빈도수로는 첫 번째 유형보다 훨씬 적다.

(23) 超 <u>ᄠᅮ여날</u> 툐 <新增類合 下:5b>
아비 승간이 블 가온대 <u>ᄠᅮ여</u> 드러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5:11b>
潘이 불의 <u>ᄯᅮ여</u> 들어 죽으니라 <女四書 4:26b>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인 'ᄠᅱ여(ᄯᅱ여)'와 두 번째 유형인 'ᄠᅮ여(ᄯᅮ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상신(1998:4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자는 동일한 음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음소적으로는 /t'ujʌ/로 해석된다. 'ᄠᅱ여(ᄯᅱ여)'를 문자 그대로 /t'ujjʌ/로 해석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경우 반모음 j 삽입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t'ujʌ/는 'ᄠᅱ여(ᄯᅱ여)'처럼 표기된 것일까? 그 이유는 하향이중모음의 부음 j의 조음음성학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동일한 반모음 j라 할지라도 상향이중모음의 부음으로 사용된 j와 하향이중모음의 부음으로 사용된 j는 조음음성학적으로 같지 않다. 하향이중모음의 부음 j는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는 양음절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양음절성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 'ᄠᅱ여(ᄯᅱ여)'인 것이다. 이것은 평음에 비해 폐쇄지속시간이 긴 격음과 경음이 모음 사이에 올

때 음운론적으로 해당 격음 또는 경음 앞에 동일 조음위치의 평음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근대국어 시기 문헌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혼철은 이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뛰다'에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뛰여 /t'uj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뛔: /t'we:/'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4) t'ujʌ > t'ue → t'we:
單母音化 半母音化/報償的長母音化

우선 이중모음 jʌ가 e로 單母音化하는 음운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과정은 물론 ʌj가 e로 單母音化한 이후 다시 말해서 19세기 초 이후에 일어난 음운변화이다. 'jʌ > e'의 單母音化는 'ʌj > e'처럼 강력한 음운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예가 많지 않고 변화 환경도 뚜렷이 명기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많이 발견된다. 형태소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jʌ > e' 변화를 겪은 것들로 생각된다.

(25) a. 귀여지 > 귀에지, 귀엿골 > 귀엣고리
b. 쥐여미, 주여미 > 지게미
c. 길경이 > 질경이 > 질겡이
d. 구:경 > 구:겡
e. 공연히 > 고연히 >궨히146)
f. 우연만하다 > 웬만하다

사전에 '헤여지다, 헤엄'의 준말로 처리되어 있는 '헤:지다, 헴:'도 이

146) 표기는 '괜히'로 정착되었다.

변화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26) a. 헤여지다 > 헤에지다 > 헤:지다
b. 헤엄 > 헤염 > 헤엠 > 헴:

어미 '-(으)셔요'가 '-(으)세요'로, '-(으)련'이 '-(으)렌'으로 바뀐 것은 현대국어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시기의 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 변화의 예이다.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다른 모음 어간의 활용형에서도 'jʌ > e'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27) a. (차에) 체:서(치어서)
b. 게: 가구(기어 가고)
c. 뒤집어 쎄:야 허구(씌워야 하고)
d. (눈이) 부세서(부셔서)

이들은 모두 기원적으로 모음 'ㅣ' 혹은 반모음 j로 끝나는 하향이중모음을 어간 말음으로 가졌던 어간들이다.

(28) a. 티이다 > 치:다
b. 긔다 > 기다
c. 싀이다 > 씨:다~씨우다
d. 눈브싀다 > (눈) 부시다

'기다'를 예로 들어 이들 활용형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7)

---

147) 함북 육진방언을 대상으로 한 郭忠求(1994a:146)의 설명도 이와 유사하다.

(29) 긔여 kɯjʌ > kɯe → 게: ke:
單母音化 'ㅡ' 탈락/補償的長母音化

이상에서 살펴 본 예들은 모두 비어두에서 'jʌ > e'의 예들이다. 그 예가 많지 않고 '수염, 뿌:옇다!'처럼 비슷한 환경이면서도 변화를 겪지 않은 반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두에서는 'jʌ > e'의 예가 적지 않다. '메주(< 며주)'처럼 아예 표준어로 채택된 예조차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jʌ > e' 單母音化가 'ㅚ 어간' 부분에서 살펴 볼 'ja > ɛ' 單母音化와 모음체계 안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ㅚ' 어간류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을 논하는 자리에서 다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jʌ가 e로 單母音化하게 되면 'ue'와 같은 모음배열이 생기는데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방언에는 이와 같은 모음배열은 없다. 조사 '-에'의 음소 분석을 /e/로 한다면 명사 'ㅜ' 어간과 조사 '-에'의 결합으로 '후에, 수에' 등의 예를 찾을 수 있겠지만 활용형에서는 'ue'와 같은 모음배열은 없다. 따라서 이같은 음운배열제약을 지키기 위해서 선행모음 u는 w로 반모음화하고 보상적 장모음화가 뒤따른다.

결국 이 활용형은(Xㅞ:) 이전 시기의 활용형이 형태론적 혹은 통사론적 구성 속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2】 ㄲ:

뀌:다(돈을~)(참조 꾸:다),148) 뀌:다(방귀를~), 뀌:다(실을~),149) 뉘:다(오줌

148) 표준어로는 '꾸:다'이다. 그런데 이 '뀌:다'는 복합동사 '뀌어주다'의 형태로 표준어로 채택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뀌:다'가 상당한 세력을 획득한 어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9) 표준어로는 '꿰:다'이다. 이 방언에서도 원래는 '꿰:다'이던 것이 모음상승에 의해 재구조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을~), 뉘:다(使臥), 쉬:다(목이~), 쉬:다(腐), 쉬:다(休), 쥐:다(주먹을~)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양상은 'ㅟ' 어간과 다르지 않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반모음화형 - 꾸ㅕ: 달래는 거야, 누ㅕ:가주구, 주ㅕ:라
반모음삽입형 - 뀌여가주 온다, 뉘여, 쉬여서
모음충돌형 - 쉬어두
기타 - 뀄:서래두 쓰지, 뀄:야, 눼:라, 쮀:라

【13】 ㅚ
되다(化), 고되다(苦), 아뢰다(奏上), 일되다(早熟)

'되다'를 예로 이 어간들의 활용 패러다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1) 되지, 돼:라 · 되였든《文》,150) 되면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Xㅙ(:)'는 언뜻 보기에는 공시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활용형인 반모음화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록 문어형이기는 하지만 '되였든'과 같은 예를 보면 'ㅚ' 어간에 대한 모음 어미는 '-어X'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방언의 모음체계로는 'ö + ʌ → wɛ :'와 같은 음운과정은 상정하기 어렵다.151)

150) '되였든'은 조사자가 'ㅚ' 어간과 결합하는 모음 어미의 이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형 질문을 했을 때('되어'와 '되아' 중 선택하게 함) 제보자가 글로 쓸 때는 이렇게 한다고 제시한 형태이다.
151) '되 + 어 → 돼:'를 공시적인 반모음화의 일종으로 다룬 논의도 있다. 김경아(2000:166f) 참조.

	前舌		後舌	
高舌	i	ü	ɯ	u
中舌	e	ö	ʌ	o
低舌	ɛ		a	

본고에서는 'ㅚ' 어간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Xㅙ(:)'류를 'ㅚ'가 현재와 같은 모음 어미 '-어'가 아닌 모음 어미 '-아'를 취했을 때의 활용형으로 해석한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되다'를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152)

역사적으로 볼 때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되다'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모음 어미 '-아X'를 취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모음 어미 '-어X'를 취하는 형태이다. 이들을 각각 '아'형, '어'형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32) a. 아래 <u>되야</u> 거슯쁘디 아니ᄒᆞ며 <小學諺解 2:33b>
b. 형데 원슈 <u>되여</u> 님금 녹을 먹고 <飜譯小學 9:100b>

앞서 'ㅟ' 어간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되야'와 '도야', '되여'와 '도여'는 음소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도야'는 '아'형에, '도여'는 '어'형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야, 도여'는 그 예가 많지 않다.

문헌 자료에 나타난 '아'형과 '어'형의 변화 양상은 역사적으로 '아'형과 '어'형이 경쟁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아래의 표는 문헌 자료에서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인 '되야(도야)', '되여(도여)'만을 뽑아 그 출현 빈도를 표시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152) 이에 대해 韓榮均(1991)에서 통시적인 설명이 시도된 바 있다.

문헌	'아'형	'어'형	총빈도수
小學諺解(1586)	4	6	10
家禮諺解(1632)	2	6	8
馬經抄集諺解(1682)	3	1	4
伍倫全備諺解(1721)	15	9	24
女四書(1736)	17	4	21
御製內訓(1737)	5	3	8
闡義昭鑑諺解(1756)	16	20	36
種德新編諺解(1758)	14	4	18
十九史略諺解(1772)	9	19	28
三譯總解(1774)	2	5	7
明義錄諺解(1777)	6	10	16
續明義錄諺解(1778)	9	2	11
隣語大方(1790)	2	5	7
敬信錄諺釋(1796)	9	4	13
閨閤叢書(1869)	7	1	8
南宮桂籍書(1876)	2	2	4
三聖訓經(1880)	3	1	4

'아'형과 '어'형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개화기에 이르러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자료에도 '아'형과 '어'형은 모두 나타난다.

문헌	'아'형	'어'형	총빈도수
독립신문(1896-1899)	595	78	673
대한매일신보(1904-1910)	37	113	150

보다 후대에 간행된 '대한매일신보'에는 '어'형이 우세하지만 1911년에 간행된 이해조의 ≪모란병≫에는 오히려 '아'형이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아'형 - 24번, '어'형 - 9번). 그러므로 20세기 초까지도 어느 한 유형의 우세를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넓은 세력을 가지고 있던 '아'형은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본고에서는 '아'형은 '내:'형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되다'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되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3) 되야 toja > toɛ → 돼: twɛ:
單母音化 半母音化/報償的長母音化

우선 이중모음 ja가 ɛ로 單母音化하는 음운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과정은 물론 aj가 ɛ로 單母音化한 이후 즉 19세기 초 이후에 일어난 음운변화이다. 'ja > ɛ'의 單母音化는 'aj > ɛ'처럼 강력한 음운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예가 그리 많지 않고 변화 환경도 확실히 명기하기 어렵다.

형태소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ja > ɛ' 변화를 겪은 것들로 생각된다.

(34) 도야지 > 돼:지
쏘야기 > 쐐:기(楔)
고양이 > *고앵이 > 괭:이
논쇠야기 > (논)뙈기
이야기 > *이애기 > 얘:기
달걀 > 달갤
재양(裁陽)치다 > 쟁:치다
뺨 > 뺌153)
서양철 > 생:철
씨양이질 > 쌩이질

153) 시집와 보니까는 우리집 뺌치게 바쁘데 <한.60>

특히 중세국어형 '쏘야기'에 해당하는 어형이 1895년에 간행된 ≪國漢會語≫에서 '쏘야기, 쐐애기'로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쐐애기'는 실제로는 '쐐:기'처럼 장음으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쏘야기'와 '쐐애기'는 구형과 신형의 관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미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35) -으ㄹ랴우? > -으ㄹ래우?

이상의 예들은 그 수효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고 '바야흐로, 뽀:얗다!'처럼 비슷한 환경이면서도 변화를 겪지 않은 반례도 있다. 그러나 앞서 'ㄲ' 어간 부분에서 가정한 'jʌ > e' 單母音化를 이 'ja > ɛ' 單母音化와 함께 고려하면 이 두 변화가 체계적으로 모음체계와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모음 j의 전설성에 이끌려 후설모음인 ʌ와 a가 각각 해당 전설모음인 e와 ɛ로 전설모음화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j		
i		ɯ
e	←	ʌ
ɛ	←	a

일단 ja가 ɛ로 單母音化하게 되면 oɛ 와 같은 모음 배열이 생기는데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방언에는 이와 같은 모음배열이 없다. 따라서 모음충돌(hiatus)을 회피하면서 음운배열제약을 지키기 위해 선행 모음 o는 w로 반모음화하고 보상적 장모음화가 뒤따른다.

'ㅚ' 어간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이렇게 역사적인 음운변화

에 의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모음 어미로 '아'형을 갖고 있지 않던 어간은 공시적으로 'ㅚ' 어간이라고 하더라도 'ㅙ:X'와 같은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없다. '외:다 ~ 위:다(暗記)'가 한 예가 될 것이다. '외:다'는 '외우다'에서 '우' 탈락과 보상적 장음화에 의해서, '위:다'는 '외:다'에서 고모음화에 의해 재구조화된 어간인데 이들은 결코 '왜:X'와 같은 활용형을 보여 주지 않는다(외여라 ~ 위어요 · 위었어).

'ㅚ + 어 → ㅙ:'와 같은 음운과정은 공시론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154] 'Xㅚ(:)'와 'Xㅙ(:)'는 각각 독립적으로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해 준다. 따라서 자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Xㅚ', 모음 어미 앞에서는 'Xㅙ:'가 해당 어미와 결합하는 것이다.

【14】 ㅚ:

괴:다(溜)(참조. 귀:다, 고이다), 되:다(硬)(참조. 뒤:다), 되:다(斗), 뫼:다(모이다), 쇠:다(나물이~)(참조. 쉬:다), 쐬:다(바람을~)(참조. 쒸:다, 쏘이다), 쬐:다(照)(참조. 쪼이다), 외:다(暗誦)(참조. 위:다, 외우다)[155]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고모음화에 의해 일상의 발화에서는 동일 조음위치의 고모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6) a. 괴:다 - 귀:구 · 귀:지 안아요? · 귀:기는 조아
b. 되:다(硬) - 뒤:다 · 뒤:게
c. 쇠:다(나물이~) - 쉬:기, 쉬:면
쐬:다(바람을~) - 쒼:다, 쒀여

154) 'ㅚ + 아'라면 공시적으로 가능한 음운과정이 적용된다. 'ㅛㅏ: [ɥa:]'로 실현된다. 충청, 전라방언에서 나타난다(되 + 아 → 도ㅑ: [tɥa:]).
155) '외:다'는 {暗記}의 의미뿐 아니라 {暗誦}의 의미도 지닌다
… 사라구 외:구 다니지

d. 쬐:다 - 쮜:구 앉었구

e. 외:다 - 위:지 · 위:구 댕기면서, 위어요 · 위었어

3.4.1.2.6 'ㅡ' 어간

모음 어간 중 'ㅣ' 어간 다음으로 많은 것이 'ㅡ' 어간이다. 원래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이 많은 데다가 기원적으로 자음 어간이었던 것들이 후대에 'ㅡ'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ㅡ' 어간에 속하는 예들을 대체로 선행 자음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5-1】 어간 확대

갚으다(返)(참조. 갚다), 깊으다(深), 깎으다(削)(참조. 깎다), 낚으다(釣), 닦으다(磨), 들볶으다(酷), 뱉:으다(吐)(참조. 뱉:다), 말으다(卷), 묶으다(束), 부릍으다(腫)(참조. 부릍다), 붙으다(附)(참조. 붙다), 섞으다(混)(참조. 섞다), 씻으다(洗)(참조. 씻다), 얕으다(淺)(참조. 얕다), 엷:으다(薄)(참조. 엷:다), 읎으다(쌀을 이남박에 씻다), 읊으다(吟), 줏으다(拾)(참조. 줏:다), 핥으다(접시를~)(참조. 핥다), 훑으다(扱)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기원적으로 자음 어간이었던 것이 어간말음에 모음 'ㅡ'가 첨가되어 'ㅡ'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들이다. 어간말음이 'ㅍ, ㅌ' 등의 격음, 'ㄲ'과 같은 경음, 'ㅅ'이나 'ㄹ'일 경우, 그리고 'ㄼ, ㄿ, ㄾ'과 같은 자음군인 경우에 '으'가 삽입된다.[156)]

156) 어간말 '으' 삽입에 대한 제약과 그 해석에 대해서는 李秉根(1975=1979:83f) 참조.

【15-2】 선행자음이 양순음

가쁘다(숨이~)A,[157] 가냘프다(弱)E; 고프다(배가~), 기쁘다(喜), 나쁘다(惡)E, 바쁘다(忙)E, 서글프다(寂), 슬프다(悲), 아프다(痛)E, 어:슬프다(粗雜), 이:쁘다(美), 헤:프다(씀씀이가~)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자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Xㅜ'와 같은 이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37) 가냘푸다구, 기뿌면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형태 'Xㅜ'가 직접 어미와 결합한다고 기술할 수도 있다.[158] 그러나 본고에서는 양순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를 설정하여 기본형 'Xㅡ'에서 'Xㅜ'가 도출되는 것으로 기술한다.[159]

【15-3】 선행자음이 'ㄹ'

겨르다(가죽을 기름에~)≪自≫(참조. 겯:다!≪質≫), 따르다(注)(참조. 땋다), 치르다(끝전을~), 푸르르다(靑)(참조. 푸르다!)

【15-4】 선행자음이 'ㄹㄹ'

갈르다(割)A, 거실르다(잔돈을~), 걸르다(濾過), 게을르다(怠)(참조. 겔:르다), 골:르다(選)A(참조. 굴:르다), 굴:르다(轉), 그슬르다(그슬다), 글르다(解), 길르다(伸), 까:불르다(키로~)(참조. 까:불다), 날르다(飛)AE, 날르다(運)E, 눌:르

157) 모음 어미에는 두음이 '아'인 것과 '어'인 것 두 이형태가 있다. 해당 어간이 전자를 취하면 A, 후자를 취하면 E로 표시해 두기로 한다. 표시되지 않은 것은 표준어와 그 양상이 같다.

158) 金星奎(1989), 崔明玉(1993=1998a:262f) 참조.

159) 구체적인 내용은 4장의 '4.3.5 원순모음화' 부분 참조.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배주채(1998:103-5)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다(押), 달르다(異)(참조 다르다!), 돌르다(圍-小), 돌르다(配布)A, 둘르다(圍-大), 들르다(訪問), 말르다(몸이~)E,[160] 말르다(乾)A, 말르다(裁), 머물르다(留)(참조 머무르다!, 머물다i), 몰:르다(不知), 문질르다(등을~), 물르다(返品), 물르다(軟a. vi.),[161] 발르다(가시를~),[162] 발르다(塗)E, 벨:르다(벼르다), 부풀르다(膨)(참조 부풀다), 불르다(歌, 呼), 불르다(滿腹), 살르다(燃)E, 서둘르다(急), 어질르다(散), 얼:르다(어우르다), 얼:르다(아이를~), 엎질르다(覆), 올르다(上, 옻이~)(참조 오르다!), 일르다(謂, 고자질하다), 일르다(早), 잘르다(切)(참조 짤르다)AE, 잦출르다(催促)<한.123>, 졸르다(願), 졸르다(締), 주물르다(揉), 질르다(焚), 질르다(叫), 질르다i(捷), 짤르다(短)(참조 짧다), 찔르다(突), 타일르다(諭), 후들르다(휘두르다), 흘르다(流)(참조 흐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용언들은 몇 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표준어의 '르 불규칙용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163] 실제로 '달르다, 다르다!'처럼 양자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가 신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새로운 어간의 생성 역시 역사언어학에서 말하는 유추적 평준화(analogical leveling)에 의한 것이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준어의 '르 불규칙용언'에 해당하는 용언들은 중세국어 당시에는 두 부류로 나뉜다.[164] 첫째는 '다ᄅᆞ다 LL'형으로 다음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을 가진다.

(38) 다ᄅᆞ고, 달아, 다ᄅᆞ니, 달옴

160) {乾}, {裁}를 의미하는 '말르다'와 달리 이 어간은 일반적으로는 '말랐-'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宋喆儀(1995b) 참조.

161) 'a'는 형용사를 나타낸다.

162)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불규칙적이다. '발러'로 나타난다.

163) '날르다, 그슬르다'는 표준어의 'ㄹ' 어간인 '날다, 그슬다'에 해당하는 것이고 '들르다'는 표준어와 동일하다.

164) 이에 대해서는 李基文(1972:159) 참조.

둘째는 '흐르다 LL'형으로 다음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을 가진다.

(39) 흐르고, 흘러, 흐르니, 흘로되

'다ᄅᆞ다'형은 '다ᄅᆞ, 달ㅇ'과 같은 이형태를 '흐르다'형은 '흐르, 흘ㄹ'과 같은 이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다ᄅᆞ다'형에 속하는 용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0) 고ᄅᆞ다(均), 기르다(育), 니ᄅᆞ다(謂), 두르다(圍), ᄆᆞᄅᆞ다(裁), 오ᄅᆞ다(上) 등

'흐르다'형에 속하는 용언들은 다음과 같다.

(41) ᄆᆞᄅᆞ다(乾), 므르다(退), ᄲᆞᄅᆞ다(速), 부르다(呼), 모ᄅᆞ다(不知) 등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활용 패러다임을 가지는 두 부류의 용언들은 근대국어에 들어 '다ᄅᆞ다'형이 '흐르다'형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의 부류로 합쳐지게 되었다.

(42) 쳑ᄆᆡ이 다이저 ᄎᆞᆫ구ᄆᆡ애셔 달라 <諺解胎產集要 8b>(1608)
힝실이 샹녜 사ᄅᆞᆷ과 달라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8:60b>(1617)
이제 사ᄅᆞᆷ의 居喪홈은 古人으로 더브러 달라 <家禮諺解 9:33a>(1632)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활용 패러다임 역시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활용형을 중심으로 활용 패러다임을 규칙적으로 만들려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추적 평준화의 방향은 개신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언어학적인 경향인 것

이다. '다ᄅᆞ다'의 경우는 새로운 교체형 '달라'에서 추출되는 어간 이형태 '달르'를 중심으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변화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1	T2	T3
'다ᄅᆞ다' 형	I	다ᄅᆞ고(LLH)	다르고	달르구
	II	달아(LH)	달라	달라~달러
	III	다ᄅᆞ니(LLH)	다르니	달르니
'흐르다' 형	I	흐르게(LLH)	흐르게	흘르게
	II	흘러(LH)	흘러	흘러
	III	흐르면(LLH)	흐르면	흘르면

특히 '모ᄅᆞ다, 누르다(押)'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만이 상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상성의 반사형인 음장이 모든 활용형으로 파급되었다.

(43) a. 몰:르구 · 잘 몰:르겠는데 · 몰:르는, 몰:라서, 몰:르면 · 몰:르니까
b. 눌:르지, 눌:러두, 눌:르믄

또 '다ᄅᆞ다'형과 '흐르다'형이 유추적 평준화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평준화는 '다ᄅᆞ다'형이 '흐르다'형에 완전히 편입되어 하나의 부류를 이룬 후에 일어난 변화로 생각된다.

【15-5】 선행자음이 그 외의 자음

스다(立), 건:느다(渡)E, 나스다(關與)E, 돋그다(심지를~), 뜨다(浮), 끄다(消), 쓰다(苦), 쓰다(冠), 쓰다(書), 그느다(똥, 오줌을~), 노느다(分), 당그다(漬)E, 되:쓰다(이불을~), 뒈:쓰다(눈을~), 못:쓰다(不當), 부릅뜨다(눈을~), ᄉᆔ으다(疎),[165] 싱그다(植)

165) 'ᄉᆔ으다'에 해당하는 표준어형이 'ᄉᆔ다'이기 때문에 이 어간은 앞의 '【15-1】 어간

(참조 심:다), 울그다(돈을~), 일어스다(立), 장그다(閉)E, 침:당그다(감을~)

이 부류에도 선행 자음이 구개음인 예는 없다.

3.4.1.2.7 기타 불규칙

【16】 르 불규칙
다르다(異)(참조 달르다)A, 머무르다(留)(참조 머물르다, 머물다i), 빠르다(速), 서:투르다(未熟), 약속빠르다(약삭빠르다)E, 오르다(登, 욋이~)(참조 올르다), 흐르다(流)(참조 흘르다)

【17】 러 불규칙
푸르다(靑)(참조 푸르르다)

(44) a. 푸르다 : 푸르구나, 푸르러서, 푸르면 · 푸른 하늘
b. 푸르르다 : 푸르르구, 푸르러서, 푸르르면

【18】 허다

'허다'를 구성요소로 하는 합성어간은 다음과 같다.

확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솎으다'는 기원적으로 '속고다'였으며 'ᄉᆞᆺ고다~속고다 > 속구다 > *속그다 =솎으다'와 같은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비슷한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골오다 > *고루다 > 고르다 > (골르다)
(ᄉᆞᆯ다) > ᄉᆞᆯ오다 > ᄉᆞ로다 > *사루다 > 사르다 > (살르다)
조로다 > *조루다 > 조르다 > (졸르다)
(ᄂᆞᆫ호다) > 논호다 > 논오다 > 노누다 > 노느다
도도다 > 돋우다 > 돋으다 - 돋그다

가(::)뜩허다(滿), 가축허다(몸단장하다), 간습허다(간수하다), 갈쭉(::)허다(濃),166) 강(::)박허다(沒人情), 강강허다(淸明),167) 갤쭉(::)허다(長), 거:년허다(상관하다), 거:북허다(窮屈), 건건(::)허다(물이~), 고소(::)허다(~한 냄새)(참조. 고수(::)허다), 고지식허다(眞實), 골:란허다(힘들다, 딱하다), 괄허다(괄괄하다), 괴상허다(乖常), 구애허다(貴愛), 국직(::)허다(太), 까무스름(::)허다(黑-小), 깨끋허다(淸潔), 깨끔허다(깨끗하고 깔끔하다), 깰쭉깰쭉허다(長-大), 깔쭉깔쭉(::)허다(長-小), 꺼무스름허다(黑-大), 껄찍껄찍허다(껄쭉껄쭉하다), 껑껌허다(暗), 꾸지레(::)허다(汚), 끄느름(::)허다(曇), 나른(::)허다(보드랍다), 나물허다(나무라다), 납작(::)하다(平), 너절(::)허다(汚, 粗), 널찍(::)허다(廣), 넙직허다(넓죽하다), 노글노글허다(柔), 노르스름(::)허다(黃-小), 누르스름(::)허다(黃-大),168) 는질는질허다(는질는질하다), 단(::)단허다(堅), 덥수룩(::)허다(머리가~), 돈허다(强, 약을 ~게 짓다), 둥그스름(::)허다(圓), 드난허다(드난살이 하다), 들랑달락허다(들락날락하다), 들썩(::)허다(騷), 들큰(::)허다(들큼하다), 딱딱허다(固), 똑똑허다(賢),169) 똥(::)똥허다(太), 뜨듣허다(뜨듯하다), 만경허다(술이~), 말쩡허다(無缺), 망허다(亡), 명랑허다(날씨가~), 몯허다(不及), 몽춤허다(몽총하다), 무지허다(無知), 물쑤룩(::)허다(묽숙하다), 뭉뚝(::)허다(鈍), 미지근(::)허다(溫), 반(::)허다(惚), 반들(::)허다(潤), 배틀(::)허다(배틀하다), 번들(::)허다(艶), 번듯번듣허다(正), 번번허다(正), 번화허다(繁華), 부:대허다(富大), 불그스름허다(赤), 불쌍허다(憐), 비딱(::)허다(傾), 비슫(::)허다(似), 빤들(::)허다(潤-小), 빤들빤들허다(潤), 빽빽허다(융통성 없이 고지식하다), 뻰들(::)허다(潤-大), 뾰죽허다(尖), 사:위허다(忌), 상가허다(삽가다), 상근(::)허다(향긋하다), 상냥허다(善), 서글서글허다(寬), 성하다(不損), 순:허다(順), 숭허다(흉

166) '어근 + 허다'의 구조를 가진 어간에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은 주로 어근과 '허다'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섭(1991) 참조.

167) 사전에는 '강강하다'가 '날씨가 쌀쌀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168) 이 때 표현적 장음으로 길어지는 것은 어근말 자음인 'ㅁ'이다.

노르스르ㅁ::헌 게, 누르스르ㅁ::허구

169) '똑똑헌 옷이 하나 없어'처럼 사물에 대해서도 쓰인다. 대략 '쓸만하다'와 같은 뜻이다.

하다), 슴슴(::)허다(싱겁다)(참조 심심(::)허다), 습습허다(活潑), 시:막허다(심악하다),170) 시시허다(시시하다), 시원(::)허다(凉), 시장허다(空腹), 시지근(::)허다(시지근하다), 신통허다(神通), 심심(::)허다(無聊), 씁쓸(::)허다(苦), 씽씽허다(新鮮), 안심허다(安心), 알(::)뜰허다(約), 야:숙허다(野俗), 야들야들허다(柔), 얕음허다(低), 얌전(::)허다(貞), 어:색허다(語塞), 어(::)뜩허다(眩), 어마허다(어마어마하다)<천.15>, 억울허다(抑鬱), 얼큰(::)허다(辛), 역성허다(역성들다), 연:허다(軟), 용천허다(용천지랄), 우묵(::)허다(凹), 우물우물허다(嚼), 위험허다(危險), 으:허다(어하다), 이:상허다(異常), 이허다(利), 일:허다(勴), 자작(::)허다(~게 졸이다), 잘룩허다(잘록하다), 장:허다(壯), 조촐허다(조촐하다), 죄:송허다(未安), 중:요허다(重要), 지금지금허다(방에 모래가~), 지긋지긋하다(厭), 지저분(::)허다(汚), 짐짐허다(찌개가~), 쫄깃쫄긴허다(쫄깃쫄깃하다), 찔럭찔럭허다(물을 조금씩 흘리다), 챙피허다(창피하다), 처량허다(凄凉), 천덩천덩허다(점액성 액체가 뚝뚝 떨어지다), 청청허다(노래를 ~게 한다), 체허다(滯症), 축축(::)허다(濕), 추접허다(汚), 충충(::)허다(충충하다), 친절허다(親切), 캄캄하다(暗黑), 퀴퀴(::)허다(퀴퀴하다), 텁텁허다(김치가~, ~한 사람), 파:허다(罷), 편안허다(便安), 편허다(便利), 푸짐(::)허다(盛大), 피허다(避), 필요허다(必要), 하들하들허다(柔軟), 할경허다(蔑視), 허수(::)허다(허수하다), 허술허다(~한 할어버지), 허전허다(호젓하다), 헐렁헐렁허다(~한 사람), 험:허다(신발, 옷이~), 협수룩(::)허다(~한 마누라), 헤갈허다(술 먹구~), 홀쭉허다(細), 훈훈허다(暑), 흐미허다(희미하다), 흔허다(多), 취허다(醉)

170) 사전에는 이 단어가 '심:악하다'로 올라 있고 한자어인 '甚惡'과 '-하다'의 합성어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작은말이 '사:막하다'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후대의 민간어원에 의한 것이다. '심:악하다'와 '사:막하다'는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스막ᄒᆞ다'와 '*ᄉᆞ막ᄒᆞ다'였을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ㅡ : ㆍ'에 의한 큰말, 작은말의 대립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스막ᄒᆞ다'는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난 'ㅅ, ㅈ, ㅊ'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예: 아ᄎᆞᆷ > 아츰 > 아침)로 '시막ᄒᆞ다'로 바뀌고 '*ᄉᆞ막ᄒᆞ다'는 'ㆍ'가 어두에서 'ㅏ'와 합류되면서 '사막하다'로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 아마도 '사막하다'가 잘 쓰이지 않게 됨에 따라 '시막하다'가 고립되면서 한자어 '甚惡'과 연관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爲}를 의미하는 '허다'의 활용 페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45) 허구, 해:서, 허믄

'하다'도 사용되나 산발적이며 표기에 이끌린 문어적 사용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활용은 '허다'를 포함하는 합성어에 모두 해당된다.

'허다' 합성어 중 '취허다(醉)'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류 안에서도 다시 불규칙적인 존재가 된다.

(46) 술이 쵀:서

【19】 -이다

'-이다'가 선행 어간이나 후행 어미와 결합할 때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47) a. -(이)래는, -(이)래면~(이)라믄, -(이)래애, -(이)라고, -(이)라우
b. -(이)로구려, -(이)로구나
c. -(이)라서[171]
d. -(이)에요

(a)는 간접인용문 구성에서[172] '이다'가 '이래' 혹은 '이라'로 나타나는 것이다. (b)는 {感歎}을 의미하는 어미 '-구려, -구나'가 '-이-' 뒤에서

171) 실제 구어 자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으)니깐~(으)니까'가 쓰인다.

172) 공시적으로는 용언 어미로 기술하는 편이 좋다.

'로구려, 로구나'로 교체됨을 보여 준다. 어미 '-어/아서'와 '-어/아요'는 '-이-' 뒤에서 '라서, 에요'로 나타난다.

이제까지 이 방언의 용언 어간 말음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용언 어간 말음들이 이루는 체계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ㅂ	ㄷㅅ	ㅈ	ㄱ		ㅄ
	ㅆ		ㄲ		
ㅍ	ㅌ	(ㅊ)		ㅎ	
ㅁ	ㄴ				ㄵ, ㄶ
	ㄹ				ㄼ, ㄻ, (ㄾ), ㄺ, ㅀ

불규칙 ㅎ(A), ㅎ(B), ㅎ(C), ㅂ(A), ㅂ(B), ㄷ(A), ㄷ(B)

<용언 어간말 자음체계>

ㅣ ㅣ:	ㅟ ㅟ:	ㅡ	ㅜ ㅜ:
↑ (ㅔ:)	ㅚ ㅚ:		ㅗ ㅗ:
ㅐ ㅐ:		ㅏ	

불규칙 르 (러)

<용언 어간말 모음체계>

3.4.2 용언 어미

3.4.2.1 두음이 자음인 어미

자음 어미 중 두음이 공명음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네1, -네2, -느라구, -는, -는다/ㄴ다/다,
-느냐/(으)냐?,173) -는데/(으)ㄴ데, -는지/(으)ㄴ지, -냐/(으)ㄴ가?, -는구나/구나/로구나, -는군(뇨)/군(뇨)

'-느냐/(으)냐?, -는데/(으)ㄴ데, -는지/(으)ㄴ지, -냐/(으)ㄴ가?'는 어간이 동사이면 전자가, 형용사와 '-이다'이면 후자로 교체된다. 구체적인 교체의 양상을 '-냐/(으)ㄴ가?'를 통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a. 비가 오냐?
b. 홍 그게 어디 쉬운가? <천.306>
모기장이나 그렇게 흔한가? <한.101>
탈렌튼가?

두음이 장애음인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 -든, -든지, -두룩, -드니, -드라, -드라구, -드래두, -든데, -드래, -데,
-드키, -다가~다,
-습니다/ㅂ니다, -습니까/ㅂ니까?, -다우/는다우/ㄴ다우/라우, -대/래,
-지만, -조, -자, -지,
-겠-, -구, -길래, -게, -게?, -게나, -구서(참조. -구서럼),174) -거나,

173) 이 이형태들은 젊은 세대에서는 '-냐'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거든~거둥~거덩, -기, -기로~기루서니

'-드키'는 표준어의 '-듯이'에 해당한다. '-드키'는 흔히 동남방언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방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료 자체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여러 예가 발견된다.

(2) a. 우리네 갈비탕 먹드키 먹어요
b. 담:드키(入) /담:뜨키/
c. 녹이 슬드키 그렇게 돼요
d. 빨래 말리드키 해서요
복숭아 씨 싸드키 ([4] 제보자)
옛날에는 흰떡 허드키 떡을 해서 <한.54>

문법 범주는 다르지만 개화기의 신소설 자료에서도 이 형태가 보이므로 자료로서의 신뢰성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3) 평양집 말 흔 마듸만 시원ᄒᆞ게 들으면 춤이라도 곳 출 듯히 셩화를 ᄒᆞᄂᆞᆫ듸
<빈상설 33>(1908)[175]

'-다우/는다우/ㄴ다우/라우'의 교체 양상도 대단히 복잡하다. 우선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다우'로, '-이다' 뒤에서는 '라우'로 교체된다.

---

174) '-구서럼'은 [1], [2], [3] 제보자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에서 나타나며 [1] 제보자의 二男(1937년생) 역시 사용하고 있다.

그리구 눈을 꽉 감구서럼 내가 혈압이 올라서 <한.150>

175) 참고로 ≪빈상설≫의 작가 '이해조'의 고향은 경기도 포천이다. 그러므로 중부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의 영향은 고려하기 어렵다.

(4) a. 잘 있다우 <천.481>

b. 이게 한 자 사십 전짜리 교직이라우 <천.16>

'-는다우/ㄴ다우'는 '-는다/ㄴ다'와 마찬가지로 동사 어간 뒤에서 선행 어간의 말음에 따라 교체된다.

(5) 헤 헤 인젠 안 논다우 <천.487>

'래'는 '대'의 이형태인데 선행 어간이 '-이다'인 경우에 '래'와 결합한다.

(6) a. 안 무섭대

들기름은 사:람헌테 이:허대

b. 이게 메밀국수래?

3.4.2.2 두음이 모음인 어미

모음 어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었/았-, -어서/아서, -어다(가)/아다(가), -어야/아야~어얘, -어야지/아야지~어얘지~어이지, -어요/아요~에요

【2】 -어/아/야, -어라/아라/나라

이들의 교체 양상은 모두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어/아'는 '-이다' 뒤에서는 '야'로 교체된다.

(7) a. 국간장이 짠 간장<u>이야</u>

b. 이렇게 버:젹 부:자가 된 거야

또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는 선행 어간이 '오다'인 경우는 이형태 '나라'를 취한다.

(8) 내가 병이 다 낫:거든 놀:라 오나라 (cf. 먹어라, 놀아라)

나머지 이형태들은 기본적으로는 어간말 모음에 따라 '아'와 '어' 그리고 'Ø'로 교체된다. 우선 용언 어간의 말모음이 '오'일 때는 전적으로 '아'계 어미를 취한다.

(9) a. 좁아서, 곧아, 솟아난다, 꽂아서, 쫓아서, 속았다, 볶아라, 조:아서, 쏠아
b. 봐:

어간의 말모음이 '아'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계 어미를 취한다.

(10) 졸:잡어두, 갚어야지, 참어라, 받어서, 안어(抱), 맞어서, 작:어서, 깎었다, 깨달었다, 앉어서, 맑어서, 짧어서

그런데 어간 말음이 'ㄴ, ㅁ'일 경우에는 산발적으로(11a), 어간 말음이 'ㅎ, ㄹ'일 경우에는 대부분 '아'계 어미를 취한다(11b).[176] 어간 말음

176) 예가 충분하지 않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단독으로 종결어미로 쓰일 때는 '어'를 취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달아요(甘) - 달어(計量)
빨아 준다구(洗濯) - 빨어(젓을~)
알아서 - 알어?
달아서(擦) - 달어

이 이상의 것이 아닌 경우에도 더러 '아'계 어미를 취하는 경우도 보인다(11c).

(11) a. 안아 줘:라, 감아서

b. 내:보내질 않아, 점잖아서, 갈아요(換), 빠:저 달아나니까, 달아요(甘)

c. 찾아가는 게, 작:아서, 밝아서

어간의 말모음이 그 외의 모음인 경우는 모두 '어'계 어미를 취한다.

(12) a. 신어서(履), 겨: 간다

b. 뺏:어라

c. 뚜ㅕ: /t'wjʌ:/ 가니깐

d. 늦었다, 써서

e. 넘어

f. 쑤어요, 깨물어서

어간말 모음이 'ㅡ'인 어간의 교체 양상은 이상의 조건을 따르면서도 1음절 어간과 다음절 어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우선 1음절 어간의 경우는 일반적인 교체의 양상을 따라 '어'계 어미를 취한다.

(13) 떠, 서서(스다), 써서

그러나 다음절 어간의 경우는 'ㅡ' 앞의 음절의 모음, 다시 말해서 어간말에서 두 번째 모음에 따라 이형태가 결정된다. 이 모음이 'ㅗ'이면 전적으로 '아'계 어미를, 'ㅏ'이면 수의적으로 '아'계와 '어'계 어미를, 그 외의 모음이면 '어'계 어미를 취한다.

(14) a. 노나(노느다), 독가(돋그다), 몰:라서
b. 갈라서, 말랐다(乾)
b'. 나서서(나스다), 낚어(낚으다), 따러(따르다), 장거(장그다)
c. 싱거(싱그다), 겔:러서(겔:르다), 건:너서(건느다), 눌:러

선행 어간이 모음 'ㅔ, ㅐ, ㅏ' 어간일 때는 'ø'로 교체된다.

(15) a. 메:서, 떼: 버리구
b. 깼:다, 캐:서, 끄:내가주구
c. 까서, 놀:랐다, 싸서(包)

이상은 어간말 모음에 따른 '아, 어' 교체의 양상이다. 어간말 모음이 '오'인 경우, '아'인 경우 그리고 그 외의 모음인 경우에 따라 이형태의 교체를 보인다.

그런데 어간이 'ㅂ 불규칙(A)'에 속할 경우에는 교체를 결정 짓는 어간말 모음의 부류가 달라진다. 우선 이 부류의 어간들은 어간말 모음이 고모음이 아니면 '아'계 어미를 취한다.

(16) a. 매와서
b. 더와서, 드:러와, 헐거와서
c. 고:마와요
d. 도와서, 고와서, 외로와서

그러나 어간에 따라 '어'계 어미를 취하는 경우도 가끔 발견된다.

(17) 아름다워서, 가려워(~ 가려와서), 괴로워서, 무서워서(~ 무서와서), 징그러워서

어간말 모음이 'ㅣ, ㅟ, ㅡ, ㅜ' 등의 고모음이면 '어'계 어미를 취한다. (補註3)

(18) a. 미워서, 그리워
b. 쉬워서, 아쉬워서
c. 우:스워
d. 추워서, 어두워서, 누워서

이상의 예들은 모두 교체의 조건을 음운론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다음의 예들에 있어 교체의 조건은 어휘적인 것으로 보인다.

{高}에 해당하는 이 방언은 '넢다'인데 이에 대당되는 중세국어형이 '높다(H)'이므로 '높다 > 넢다'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177) 어간 모음이 'ㅓ'로 바뀐 것은 후행 자음 'ㅍ'에 의한 비원순모음화일 가능성이 높다. '넢다'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넢아'인데 이것은 이상의 일반적인 교체 양상과는 다르다. 어간말 모음이 '어'인 경우 모음 어미는 '어'계 어미인 것이다. '골:르다'와 공존형인 '굴:르다'가 '아'계 어미를 취하는 것도(굴:라) 비슷한 예라 하겠다.

'배우다, 싸우다'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으로 '배워야, 싸워서'와 함께 '배와요 · 배왔우? · 배왔다구 · 배왔으니까, 싸와야지'가 나타난다. 전자는 질문지 응답형으로, 후자는 일상의 발화형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교체 조건에 따르면 '배워야, 싸워서'가 올바른 형태이다.

'아'계 어미와 결합한 '배와요, 싸와야지' 등은 이 방언의 이전 시기의 활용형이 화석형으로 남은 것이다. '배우다, 싸우다'는 중세국어에서 각

---

177) 일반적으로 비원순모음화를 겪는 어간은 후속 자음이 [-grave] 자질을 가진 경우이지만 순음인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다. 경기방언에서 이런 예가 보인다(봄 > 뱸). 李秉根(1970=1979:148) 참조.

각 'ᄇᆡ호다(LH), 사호다(LH)'였다.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규칙에 따르면 이 단어들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각각 'ᄇᆡ화, 사화'이다. 그런데 근대국어에 들어서 제2음절 이하에서 일어난 'ㅗ > ㅜ'의 변화에 의해 'ᄇᆡ호다, 사호다'는 각각 '배우다, 싸우다'로 재구조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만은 이전의 활용 형태를 고수하며 변화한 문법의 질서 속에서도 예외로 남아 있는 것이다. 'ㅜ' 어간 중 2음절 어간의 대부분은 이상의 'ㅗ > ㅜ' 변화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예들이다.

(19) 가두다 < 가도다(LH)
다투다 < ᄃᆞ토다(LH)
바꾸다 < ᄇᆞᆺ고다(LH)
외우다 < 외오다(LH)
채우다 < ᄎᆡ오다(LH)

아직까지 이 예들에 대해서는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제2음절의 두음이 'ㅎ'인 경우만 이전의 활용형을 고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허다, 겉다'의 경우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으로 '해:, 겉애'가 나타난다. '겉다'의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허다'의 그것과 유사한 것은 이 어간이 기원적으로 '허다'와 관련이 있었던 사실에 기인한다(ᄀᆞᆮᄒᆞ다, ᄀᆞᇀ다).

이상과 같은 교체의 양상을 볼 때 두 이형태 '아X'와 '어X'는 기본·도출식으로 기술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환경을 음운론적으로 범주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럴 수 있다하더라도 어휘조건을 가진 예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이형태들이 직접 해당 어간

과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3.4.2.3 두음이 매개모음인 어미

두음이 매개모음 '一'인 어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으ㄹ, -으ㄴ

-으믄≪自≫~으먼≪自≫~으면≪質≫, -으면섬(참조. -으믄~으면, -으면서~으면서럼), -으ㅁ세, -으마,

-으나 — -으나, -으니까(참조. -으니깐~으니까는), -으니,

-으ㄹ테니깐, -으ㄹ텐데,

-으ㄹ려구(참조. -으ㄹ랴구), -으려니~으ㄹ래니, -으라~으ㄹ라1,[178]

-으ㄹ라2, -으ㄹ라구, -으ㄹ라우?~으ㄹ랴우?~으ㄹ래우?, -으ㄹ래다,

-으ㄹ래믄(~-으ㄹ래면~으ㄹ래며는), -으ㄹ른지, -으랴 — -으랴, -으래,

-으래니, -으래니까, -으렌, -으ㄹ래?,

-으ㅂ시다, -으ㅂ디다, -으ㅂ디까?, -으ㄹ쎄≪文≫, -으ㄹ쏘냐≪文≫[179]

-으시-, -으십시오, -으세요, -으세,

-으께(~으ㄹ께), -으까,

---

178) '-으라'와 '-으ㄹ라'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유변이라고 하기 어렵다. '-으ㄹ라'는 대체로 어간이 2음절 이상이고 'CVCV-'와 같은 구조를 가진 어간에서 자주 발견된다. 아래 예에서 '출라*', 업ㅆ:앨라*'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 댕길라 와 보니까
가질라 왔어
b. 춤 추라 댕기구
돈: 업ㅆ:애라 일력거들 타구 가지

179) '-으ㄹ쎄, -으ㄹ쏘냐'는 모두 ⓘ제보자가 지은 시 속에서 나온다.

【2】 -으니?
　　-으우(?)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언 어미인 매개모음 어미 외에 체언 어미(조사) 가운데에도 '으'를 두음으로 하는 일련의 어미들이 존재한다. 체언 어미를 다루는 곳에서 이러한 어미들의 교체도 같은 구조를 가진 용언 어미들과 함께 다루기로 하였으므로 체언 어미도 이곳에서 모아서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체언 어미의 경우 그 교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a. 일본 이름으루 해서
　　b. 벼슬루
　　c. 철싸루

(21) 노인으루선

(22) a. 선생은
　　b. 얼굴은
　　c. 남자는
　　d. 기곈 비 맞으믄 못: 써

(23) a. 밥을
　　b. 연필을
　　c. 차를 타구 와서
　　d. 편:질

이상의 예를 보면 체언 어미 중 '으'를 두음으로 가진 것은 교체의 측면에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으X/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진 것이다. '-으루, -으루서'가 여기에 속한다. 선행하는 체언의 어간 말음이 'ㄹ'을 제외한 자음일 때는 '으X'를, 'ㄹ'과 모음일 때는 'X'를 이형태로 가진다. 둘째 부류에 속하는 것은 이형태의 양상이 좀 더 복잡하다. '-은/는, -을/를'은 각각 자음어간 뒤와 모음어간 뒤에 나타난다. 또 '-는, -를'은 자유변이형으로 '-ㄴ, -ㄹ'을 가진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발화에서는 주로 '-ㄴ, -ㄹ'을 쓴다.

한편 다음과 같은 교체형들은 어휘적 제약을 가진 것이다. '이걸루다'는 '이거 +ㄹ루 + 다'로 분석된다. 이형태 'ㄹ루'는 선행 체언 '거' 뒤에서 나타나고 '으ㄹ루ˣ' 같은 이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저걸루, 싼 걸루, 다른 걸루).180)

용언 어미 중 '으'를 두음으로 가진 것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체언 어미와 마찬가지로 '으X/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진 것이다. '-으랴, -으면섬, -으믄' 등 대부분의 매개모음 어미가 여기에 속한다. 선행하는 체언의 어간 말음이 자음일 때는 '으X'를, 모음일 때는 'X'를 이형태로 가진다. 어간 말음이 'ㄹ'일 때는 '으X'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X'를 이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24) a. 늙으니깐, 비지 먹으라 가
b. 눌:르니까는, 춤 추라 가
c. 떠들으니까, 얼으면
c'. 머:니깐, 깔면

둘째 부류에 속하는 것은 교체의 조건이 첫째 부류와 다른 것이다. '-으니?'와 '-으우(?)'가 여기에 속한다. 우선 '-으니?'의 경우를 살펴보

180) 李秉根(1981=1988:49)에서는 경기방언에서 이러한 특이한 이형태들이 주로 대명사 어간 뒤에서 나타난다고 기술되어 있다('뭐로~뭘로' 등).

도록 하자. 의문형 종결어미인 '-으니?'의 교체 양상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동사의 경우는 선행 어간의 말음이 자음군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형태 '니'만을 취한다. 어간 말음이 자음군인 경우는 '으니?'를 취한다.

(25) a. 소리가 나니?, 나가니?, 인제 오니?

a'. 왜 안 먹니?(②제보자), 낳:니?, 찧니?, 걷:니?, 낫:니?, 붓:니(注)?, 우:니?

b. 많:이 눟구 삶으니?, 굶으니?, 밟으니?

형용사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동사의 경우와 같다.

(26) a. 크니?

a'. 낳:니?, 찧니?, 더:럽니?

b. 굵:으니?, 맑으니?, 밝으니?, 넓으니?, 얇으니?, 짧으니?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간 말음이 자음군인 경우 이외에도 '으니?'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7) a. 조으니?

b. 누러니?, 시퍼러니?, 추우니?, 매우니?, 무거우니?, 더우니?, 얄미니?

다음으로 '-으우(?)'의 교체 양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으우'는 억양에 따라 의문법, 평서법 혹은 명령법으로 사용되지만 의문법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이 어미를 사용할 수 있는 화자는 주로 여성이다.[181)]

---

181) ≪천변풍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방언의 영향 아래 있는 이른바 현대의 '중앙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김명운 1996:78).

청자 역시 한정되어 있다.

'-으우'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간 말음에 관계없이 '우'를 취한다.

(28) a. 먹우?, 전화 받우 <천.99>, 책에 똑같우?, 재밌우?[182)]

b. 비싸우?, 언: 땅이 잘 파지우?, 바느질만 허우?, 그걸 들여다 보우?, 장국 한 그릇 끄려 주우 <천.222>

어간 말음이 'ㄹ'일 때도 '우'이지만 이 때 어간의 'ㄹ'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지 않는다. 'ㄹ'이 탈락된 어간 이형태는 주로 '알:다, 말:다'에 한정되어 있다.

(29) a. 빨우 <천.10>, 드물우 <천.11>, 살:우~사:우, 알:우? <천.100도>, 힘들우?

b. 아우? <천.9, 12, 190, 309, 397>, 마우 <천.114, 192, 424, 428>

이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된 이형태가 나타난다는 점, 유동적 장음을 가진 어간이 단모음 어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기원적으로 이 어미가 자음을 두음으로 가졌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어간 말음이 자음군일 때 두 가지 이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30) a. 결혼허지 않우?, 업ㅆ:우?, 삶:우?[183)]

---

182) '재밌우?'는 /재미쑤/로 들린다. 이 때의 'ㅆ'을 어미의 두음으로 분석하여 '우'의 이형태로 '수'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김명운 1996:76 등). 그러나 李丞宰(1985:15)에서 지적된 것처럼 'ㅆ'은 선행하는 형태의 말음으로 형태 분석해야 한다.

183) '삶:우?'의 경우는 어미가 '우'인지 '으우'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으우'가 결합되

b. 앉으우, 읽으우?~읽우?

'-이다, 아니다'에 결합할 때는 '유'로 교체된다.

(31) 책을 맨들 꺼유?
짓:는 거 아니유?

결국 용언 어미로서 매개모음 어미는 '-으니?, -으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고 일단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구어 자료로서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문어로서 둘째 부류에 속하는 예로 '-으되'가 더 있다. '-으되'는 '으되/되'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는데 '으되'는 'ㅆ' 뒤에서, '되'는 그 외의 경우에 나타난다.[184)]

(32) a. 그대는 아름답되 디르사처럼 아름다우니
<이윤기 역(1993) 기적의 시간, 열린책들>
b. 그것은 가늘되 여리지 않았으며 멎어 있으되 결코 멈춰 있지 않았다
<강병석(1993) 거꾸로 흐르는 강 1: 정직한 놈의 원수, 중앙일보사>
c. 우리의 시대를 궁핍한 밤의 시대로 보되
<이동하(1987)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d. 자세한 까닭은 알 수 없으되 메밀묵은 간장이 아닌 소금으로 간하고
<뿌리깊은나무(1992) 겨울음식, 대원사>
d'. 꽃은 떨어졌으되 신선한 녹음의 5월 춘풍이 일렁이고 있었고
<이천재(1993) 희망(하), 대동>
d". 사람을 부른다면 봉변을 면할 수는 있겠으되
<강병석(1993) 거꾸로 흐르는 강 1: 정직한 놈의 원수, 중앙일보사>

어도 '삶: + 으우 → 살:므우 → 살:무우 → 살:무'처럼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84) 이러한 사실은 최현배(1971:168)에서 지적되었다.

(d, d', d")는 각각 용언 어간 '업ㅆ:-', 선어말어미 '-었-, -겠-' 뒤에 '으되'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말음이 'ㅆ'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상의 어미들은 '-은/는, -을/를'을 제외하면 모두 '으X/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185) 이들의 교체 조건을 한데 모아 살펴보면서 두 이형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186)

<table>
<tr><th></th><th>자음 뒤</th><th>'ㅆ' 뒤</th><th>자음군 뒤</th><th>'ㄹ' 뒤</th><th>모음 뒤</th></tr>
<tr><td>-으루, -으루서</td><td colspan="3">으X</td><td colspan="2">X</td></tr>
<tr><td>대부분의 매개모음 어미</td><td colspan="3">으X</td><td>으X~X</td><td>X</td></tr>
<tr><td rowspan="2">-으니?</td><td>동사 : X</td><td rowspan="2">X</td><td rowspan="2">으X</td><td colspan="2" rowspan="2">X</td></tr>
<tr><td>형용사 : X~으X</td></tr>
<tr><td>-으우/유(?)</td><td colspan="2">X</td><td>으X~X</td><td colspan="2">X</td></tr>
<tr><td>-으되</td><td>X</td><td>으X</td><td colspan="3">X</td></tr>
</table>

이 두 이형태를 기본·도출식으로 기술하려면 '으X' 혹은 'X' 중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으X'가 기본형일 경우에는 '모음 탈락', 'X'가 기본형일 경우에는 '모음 삽입'과 같은 음운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모음 삽입'을 상정할 경우는 삽입이 일어나는 환경을 명시하기 어렵다. 탈락의 경우도 위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환경은 포착하기 어렵다. 굳이 모음 탈락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85) '기겐, 편:질' 등의 예를 '기계 + 은 → 기겐, 편:지 + 을 → 편:질'과 같은 도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상정하고 '으X/X'의 이형태 관계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겐, 편:질'은 '기계는, 편:지를'과 자유변이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때의 'ㄴ, ㄹ'은 '은, 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186) '업ㅆ:다'는 자음군에 속하지 않고 어간 말음이 'ㅆ'인 경우에 속한다.

첫째 '으 탈락규칙'의 적용을 체언 어간의 경우와 용언 어간의 경우로 나누고 용언 어미 '-으니?, -으우, -으되'는 예외로 처리한다.

(33) 체언 어간 말음이 모음과 'ㄹ'일 경우에 어미 두음 '으'가 탈락한다. 용언 어간 말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ㄹ'일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어미의 두음 '으'가 탈락한다. (예외 : -으니?, -으우, -으되)

둘째 '으 탈락규칙'은 용언 어미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때도 '-으니?, -으우, -으되'는 예외가 된다.

(34) 용언 어간 말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ㄹ'일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어미의 두음 '으'가 탈락한다. (예외 : -으니?, -으우, -으되)

첫째 방안은 어간 말음 'ㄹ' 아래에서도 '으'가 탈락되지 않는 체언 어미 '-은, -을'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187]

(35) a. 불 + 으로 → 불로
b. 불(火) + 은 → 불은
불 + 을 → 불을

첫째 방안은 또다시 '-은, -을'을 예외로 두어야만 가능한 음운과정이 된다.[188]

187) 이러한 문제는 金完鎭(1972=1998:17)를 비롯한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어 있다.

188) '-은, -을'을 예외로 처리하지 않고 '으 탈락' 규칙을 고수하는 방법도 있다. 金完鎭(1972)에서는 'ㄹ' 뒤에서 탈락하지 않는 '으'와(예: 불은) 탈락하는 '으'가(예: 불로) 형태음소 차원에서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음소목록에 없는 형태음소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취하지 못한다. 李秉根(1981=1998:46-9)은 체언 어미 '-은, -을'에서 '으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음절구조제약과

둘째 방안은 어휘적 예외를 가진다는 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방언에서 'ㄹ' 어간에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모음형과 자음형이 공존한다(살:면 ~ 살으면). 이 현상을 둘째 방안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용언 'ㄹ' 어간 아래에서 '으 탈락'이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으 탈락'뿐 아니라 모음의 장단 교체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短母音化'도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설명을 가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간 '살:-'과 어미 '-으면'이 통합된 후 '으 탈락' 규칙이 적용되면 '살:면'이, '으 탈락' 규칙 없이 '短母音化'만 적용되면 '살으면'이 도출된다.

(36) a. 살: + 으면 → 살:면
'으' 탈락
b. 살: + 으면 → 살:으면 → 살으면
短母音化

그런데 이 短母音化 규칙은 언제나 '으 탈락 규칙'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면ˣ'과 같은 부적격한 도출형을 얻게 된다(姜昶錫 1982:71, 金星奎 1988=1998:310).

(37) 살: + 으면 → 살으면 → 살면ˣ
短母音化 '으' 탈락

연관시켜 설명했다. '불(火) + 은'에서 '으 탈락'이 일어나면 '불ㄴ'이 되고 다시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분ˣ'이 될 것이다. 이것은 체언 패러다임으로서는 특이한 형식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용언 패러다임과 같아지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으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본고에서는 短母音化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다. 매개모음 어미를 기본 · 도출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 '短母音化'라는 음운과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혹시 '短母音化'를 설정해 준다 해도 그다지 깔끔한 기술이 되지는 않는다.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경우와(필수적) 'ㄹ'인 경우를(수의적) 분리해 주어야 하고 보상적 장모음화 등 관련된 다른 음운과정과의 관계도 일일이 설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기본 · 도출식 기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으' 탈락으로 모아질 수 있는 매개모음 어미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매개모음 어미에 대해서 나열식 기술에 머무르기로 하고 '으'가 있는 이형태와 없는 이형태 모두가 직접 어간과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Ⅳ. 음운과정

3장의 주된 내용은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일으키는 네 가지 부류 즉 체언 어간, 체언 어미(조사), 용언 어간 그리고 용언 어미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목록을 제시함에 있어서 분류 기준은 음운론적인 것을 이용하였고 목록을 이루는 개개의 어간·어미 형태소들은 기본형으로 제시하려 하였다. 또 일부 역사적 변화의 과정에서 공시적 형태음운론의 기술 범위를 벗어나게 된 이형태들은 그 자체가 어미 혹은 어간과 직접 결합하는 것으로 보려 하였다.

기본형이 제시되면 기본형과 교체형을 연결시켜 주는 음운과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기본형과 환경에 따라 규칙이 적용되는 음운과정이 형태음운론의 두 가지 축이기 때문이다. 본 장은 이 음운과정에 대한 기술로 이루어진다.

음운과정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음운과정은 음운배열제약이 동기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비음화, 격음화 등을 들 수 있다. 음운배열제약과 관계가 없는 음운과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 음운배열제약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음운론적 동기를 가진 것이나(반모음화 등) 음운론적 동기가 없어서 문법론적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음운과정도 있을 수 있다(용언 비음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음운배열제약이 음운과정의 분류 기준이 되면 당연히 음운배열제약이

참조되어야 하는데 2장에서 살펴 본 음운배열제약 중 음운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2.2.2 비어두 위치'에서의 음운배열제약이다. 공시적 음운과정이 일어나는 부분은 늘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비어두 위치이기 때문이다. '2.2.2 비어두위치'의 하위 분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① -C1C2-, ② -V1V2-, ③ -CV- 혹은 -VC-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해당 환경과 관계가 있는 음운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해당 음운배열제약과 관련된 음운과정을 제시하고 그 후에 음운배열제약과 관계가 없는 음운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하는 순서를 취하도록 한다.

4.1 자음과 자음 사이의 음운과정 : -C1C2-

4.1.1 평음화와 치조폐쇄음화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음절말 위치에 나타나는 자음은 'ㅂ, ㄷ, ㄱ, ㅁ, ㄴ, ㅇ, ㄹ' 일곱뿐이다. 따라서 어간말 자음이 이 외의 자음일 경우에는 음절말 위치에서 7 개의 자음 중 어느 하나로 바뀌게 된다.

우선 어간말 자음이 'ㅍ, ㅌ, ㅋ, ㄲ'일 때에는 음절말 위치에서 동일 조음위치의 평음인 'ㅂ, ㄷ, ㄱ'으로 바뀐다.

(1) a. 앞 + 꺼정 → 압꺼정,[1] 앞에서
b. 곁 + 두 → 견뚜, 곁에
c. 새벽녘 + 버텀 → 새벽녁뻐텀, 새벽녘에

1) 화살표의 왼쪽은 형태음소 표시, 오른쪽은 음소 표시이다. 다만 連音(liasion)만은 독해의 편의를 위해 음소 표시에 반영하지 않았다.

밖 + 두 → 박뚜, 밖은

(2) a. 덮 + 지만 → 덥찌만, 덮어서

b. 뱉: + 지 → 밷:찌, 뱉:으믄

c. 닦 + 지 마:라 → 닥찌 마:라, 닦어 오나라

어간 말음이 'ㅃ, ㄸ'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ㄲ'의 경우를 보면 이들 역시 음절말 위치에 오면 'ㅂ, ㄷ'으로 교체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우연한 공백이므로 '평음화'라는 음운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2)]

다음으로 어간말 자음이 'ㅅ, ㅆ, ㅈ, ㅊ, ㅎ'일 때는 음절말에서 치조 폐쇄음인 'ㄷ'으로 바뀐다.

(3) a. 쥐돗 + 처럼 → 쥐돋처럼, 쥐돗이라구

b. 낮 + 보덤 → 낟뽀덤, 낮이나

머리숯 + 두 → 머리숟뚜, 머리숯이

(4) a. 비웃 + 지 → 비운찌, 비웃어

있 + 구 → 읻꾸, 있어

b. 젖 + 지 → 젇찌, 젖으면

쫓 + 구 → 쫃꾸, 쫓아서

c. 찧: + 는 → (찓:는) → 찐:는

어간 말음이 'ㅎ'일 때는(4c) 음절말 위치에서 'ㄷ'을 확인할 수 없다. 뒤에서 언급할 비음화를 통해 음절말의 'ㄴ'으로부터(찐:는) 'ㄷ'을 추론한다. 어간 말음이 'ㅉ'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도 우연한 공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상의 자음들이 치조폐쇄음인 'ㄷ'으로 대치되

2) 李秉根 · 崔明玉(1997:39f) 참조.

는 '치조폐쇄음화'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교체는 일반적으로 '중화(neutralization)'라는 이름으로 국어음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중화는 '양면(bilateral), 유무(private), 비례(proportional)' 대립(opposition)을 모두 갖추어 '상관(correlation)'을 이루는 음소 사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李丞宰 1990:11). 그러므로 위의 평음화의 예는 이 조건들을 갖추기 때문에 중화로 다룰 수 있지만 치조폐쇄음화의 예는 'ㅅ, ㅆ, ㅈ, ㅊ'과 'ㄷ'이 상관속을 이루지 못하여 중화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음화의 예만을 중화로 처리하고 나머지 예들은 또 달리 기술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화라는 개념의 생명력은 해당 음소들의 체계적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기 때문이다.3)

그러므로 이 현상은 음절구조상의 제약으로 일어나는 순수한 대치(substitution)의 일종으로 기술하는 편이 좋다.4)

4.1.2 자음군단순화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방언에서 가능한 최대의 음절구조는 CVC이다. 그런데 말음으로 자음군을 가진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하거나, 말음으로 'ㄹ'을 가진 어간이 매개모음 어미 '-은, -을'과 결합할 때

---

3) 李丞宰(1990)의 대안은 이 현상을 '내파, 미파, 불파' 등으로 부르자는 것이다(p.11). Kim-Renaud Y. K.(1975b:103-29)의 'syllable final unreleasing'이나 李秉根·崔明玉(1997:65)의 '미파화(불파화)'도 같은 부류이다. 이 현상의 원인이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미파(unreleasing)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상 자체는 음성 차원이 아닌 음운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고려하면 적합한 용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 어간말의 'ㅊ'은 음절말 위치에서 'ㄷ'으로 대치되는데(머리숯 → /머리숟/) 'ㄷ'이 'ㅊ'의 미파음이라는 기술은 음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S. E. Martin(1954)에서는 'reduction', 허 웅(1965:243-7)에서는 '歸着', 배주채(1989:80-2, 1992)에서는 '평폐쇄음화'라고 이름 붙였다.

는 음절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도출 과정에서 모음 사이에 세 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이 방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음절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음절구조상의 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해 자음 중 하나를 탈락시키게 되어 '자음군단순화'가 실현된다.[5] (補註 4)

우선 이 방언에 존재하는 어간말 자음군을 체언 어간과 용언 어간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ㅂ계	ㄴ계		ㄱ계	ㄹ계					
체언	ㅂㅆ(>ㅂ)			ㄱㅆ(>ㄱ)	ㄼ(>ㄹ)	<ㄻ>		ㄹㅆ(>ㄹ)	ㄺ(>ㄱ)	
용언	ㅂㅆ	ㄵ	ㄶ		ㄼ	ㄻ	(ㄾ)		ㄺ	ㅀ

체언의 경우 어간 말음 'ㅂㅆ, ㄱㅆ'은 각각 'ㅂ, ㄱ'으로, 'ㄼ, ㄹㅆ'은 각각 'ㄹ'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다. 'ㄺ'은 이전 시기에 'ㄱ'으로 재구조화된 예들이 있으므로(닥 < 닭 , 흑 < 흙, 칙 < 칡) 현재도 이 재구조화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의 'ㄿ' 어간은(읊다) 이 방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읖으다). 'ㄾ' 어간(핥다) 역시 재구조화 단계에 있으므로(핥으다) 위의 표에서 괄호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체언 어간으로 제시한 'ㄻ' 어간은 조사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준어의 경우를 고려해서 제보자에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삶:) 다른 표준어의 예와 마찬가지로 '< >'로 묶었다.

자음군단순화는 어간 말음이 ①'ㄻ, ㄺ'이 아닌 경우, ②'ㄻ'인 경우, ③'ㄺ'인 경우 셋으로 구분해서 기술할 수 있다. 우선 어간 말음이 'ㄻ, ㄺ'이 아닌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자음군 어간이 이에 속

5) 일부 화자들은 뒤에 자음 어미가 오는 경우에도 'ㄺ, ㄼ'을 모두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1, 2 제보자의 경우). Kim-Renaud, Y. K.(1975b:135)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하는데 이 때의 자음군단순화는 어간말 자음 중 두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5) a. 여덟 + 보덤 → 여덜보덤, 여덟 + 두 → 여덜두, 여덟인데
b. 돐ㅆ + 만 → 돌만, 돐ㅆ + 보다 → 돌보다, 돐ㅆ이야, 돐ㅆ에
c. 갑ㅆ + 두 → 갑뚜, 갑ㅆ을
d. 삭ㅆ + 만 → 상만, 삭ㅆ이지
넉ㅆ + 만 → 넝만, 넉ㅆ을[6]

(6) a. 넓 + 습니다 → 널씁니다, 넓어서
떫: + 지 → 떨:찌, 떫:으면
엷: + 게 → 열:께, 엷:은
짧 + 습니다 → 짤씁니다, 짧으면
얇: + 다 → 얄:따, 얇으니?
b. 핥 + 구 → 할꾸, 핥 + 는다 → 할른다, 핥으면
c. 꿇(무릎을~) + 는다 → 꿀른다, 꿇어서
끓 + 는지 → 끌른지, 끌으면
닳 + 는다 → 달른다, 달으니까
앓 + 는 사람 → 알른 사람, 알어서
뚫: + 는다 → 뚤:른다, 뚫어서
d. <u>업ㅆ</u>: + 드라 → 업:뜨라, 업ㅆ:어서
가:엽ㅆ(憐) + 지 → 가:엽찌, 가:엽ㅆ으면
e. 앉 + 는다 → 안는다, 앉어서

6)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언 어간 중 말음으로 'ㄱㅆ'을 가진 '색ㅆ, 싹ㅆ'이 일상의 발화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기원적으로 'ㄱㅆ'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이 아니라 후대에 'ㅆ'이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예들이 발견된다(넉 ~ 넉ㅅ. 이진호 1997:17 참조). 자음군을 가진 이 어간은 일상의 발화에서만 극히 적은 빈도로 나타나므로 '색도'는 '색 + 도'로 해석하고 자음군단순화의 예로 다루지 않는다.

엾 + 지 마:라 → 언찌 마:라, 엾어 논다

f. 끊 + 는다 → 끈는다, 끈어서[7]

'밟:다'만은 교체의 양상이 불규칙적이다. 일반적으로 'ㄼ' 어간은 자음군단순화 환경에서 두 번째 자음인 'ㅂ'이 탈락되는데 '밟:다'만은 첫 번째 자음인 'ㄹ'이 탈락된다.

(7) 밥:습니다 · 밥:지마:라 · 밥:는다, 밟어서

그러나 어미의 두음이 'ㄱ'일 경우에는 다시 두 번째 자음인 'ㅂ'이 탈락한다.

(8) 발:꾸 · 발:께 · 발:꺼나 · 발:끼두 허구

'밟:다'는 'ㄼ' 어간 중 유일한 동사이고 나머지 어간들은 모두 형용사이므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동사와 형용사에 다르게 적용된다고 기술할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 'ㅂ 불규칙(A)'에 속하는 용언 어간들이 문법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본 바 있지만 이 경우는 동사의 예가 '밟: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밟:다' 어간 자체의 개별적인 불규칙성으로 처리한다.

어간 말음이 'ㄻ'인 경우는 이상의 예들과 달리 첫 번째 자음인 'ㄹ'이 탈락한다.

(9) 삶: + 두 →삼:두, 삶:이란

7) 용언 'ㄶ' 어간 중 동사인 것은 '끊다'뿐이다.

(10) 곪: + 지 마라 → 곰:찌 마라, 곪어서

닮: + 는 → 담:는, 닮은

삶: + 지 마:라 → 삼:찌 마:라, 삶어서

옮: + 는다 → 옴:는다, 옮아서

젊: + 구 → 점:꾸, 젊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어간 말음이 'ㄺ'인 경우에는 어간의 문법 범주에 따라(체언 어간이냐 용언 어간이냐에 따라) 그리고 후행 어미의 두음에 따라 자음군단순화의 양상이 달라진다. 우선 용언의 경우를 살펴보자.

(11) 긁: + 다 → 극:따, 긁: + 게 → 글:께, 긁:은

긁 + 지 마:라 → 극찌 마:라, 긁 + 구 있다 → 글꾸 있다, 긁으믄

맑 + 습니다 → 막씁니다, 맑 + 구 → 말꾸, 맑어서

밝 + 지 → 박찌, 밝 + 구 → 발꾸, 밝아서

읽 + 지 → 익찌, 읽 + 구 → 일꾸, 읽어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자음인 'ㄹ'이 탈락하지만(극:따) 후행 어미의 두음이 'ㄱ'일 경우는 두 번째 자음인 'ㄱ'이 탈락한다(글:께). 이것은 이병근(1989=2000:3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grave] 자질의 충돌에 의한 異化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언의 경우 'ㄺ' 어간의 예는 '까닭, 가닭'과 '겨욹'뿐이다. 예외적인 '겨욹'을 제외하면 용언 어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음인 'ㄹ'이 탈락한다. 그러나 'ㄱ' 앞에서도 'ㄹ'이 탈락하는 점은 용언 어간과는 다르다.

(12) 까닭 + 과 → 까닥과, 까닭에

겨욹 + 과 → 겨울과, 겨욹에

기원적으로 'ㄺ'을 어간 말음으로 가졌던 체언 어간은 모두 'ㄱ'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는데(닭 > 닥, 흙 > 흑, 칡 > 칙) '까닭'의 공시적 교체 양상은 역사적 변화의 모습과 일치한다.

'겨욹'의 교체 양상은 불규칙적인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두 번째 자음인 'ㄱ'이 탈락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것은 '겨욹'이 기원적으로 'ㄺ' 어간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8]

결국 자음군단순화로 어느 자음이 탈락하는가에 대해서 용언 어간과 체언 어간이 다른 경우가(어간 말음이 'ㄺ'인 경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자음군단순화의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1C2 → C1 (C1C2 = ㅂㅆ, ㄴㅈ, ㄴㅎ, ㄱㅆ, ㄼ, ㄾ, ㄹㅆ, ㅀ)
ㄹㅁ → ㅁ
ㄹㄱ → ㄱ (체언 어간)
→ ㄹ (용언 어간, 'ㄱ' 앞에서)
→ ㄱ (용언 어간, 'ㄱ' 이외의 자음 앞에서)

4.1.3 경음화

4.1.3.1 경음화 1

4.1.3.1.1 단자음 어간일 때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두 자음의 연쇄 '-C1C2-'에서 C1이 평음

8) 통시론적으로는 'ㄱ'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첨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간 말음이 'ㄹ'일 때 'ㄱ'이 첨가되는 현상이 국어사에서 더러 발견된다 (입시울 ~ 입시욹. 이진호 1997:35 참조).

인 폐쇄음이면 C2의 위치에는 평음 계열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2장에서 제시한 제약을 다시 가져와 본다.

【1】 C1 = ㅂ, ㄷ, ㄱ ⇒ C2 = ~(ㅂ, ㄷ, ㅅ, ㅈ, ㄱ)
앞자음이 'ㅂ, ㄷ, ㄱ'이면 뒷자음으로 평음인 장애음이 올 수 없다.

체언 어미 중 '경음화 1'의 환경이 되는 어미는 '-보덤~보담~보다, -버텀~부텀, -두, -더러, -서껀'이 있고 용언 어미 중 '경음화 1'의 환경이 되는 어미는 장애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전부이다. 다만 이 어미 중 양순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없다.

'경음화 1'은 음운배열제약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만 주어지면 단어 경계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13) a. 구덥 + 두 → 구덥뚜
앞 + 두 → 압뚜
b. 곁 + 두 → 견뚜
c. 쥐돗 + 두 → 쥐돋뚜
낮 + 보덤 → 낟뽀덤
숯 + 두 → 숟뚜
d. 손꾸락 + 보담 → 손꾸락뽀담
부엌 + 두 → 부억뚜
밖 + 두 → 박뚜

(14) a. 좁 + 조 → 좁쪼
짚 + 든지 → 집뜬지
b. 곧 +지 → 곧찌
부릍 + 지 → 부릍찌

c. 씻 + 다가 → 씬따가
   있 + 다가 → 읻따가
   젖 + 지만 → 전찌만
   쫓 + 구 → 쫃꾸
d. 작: + 지 → 작:찌
   볶 + 다가 → 복따가

(15) 논뚜덩에다 막 떤지구
물건두 그 때는 흔허니까 막 싸다가(사다)
고집 씬:다(세운다)

어간말 자음이 'ㅂ, ㄷ, ㄱ'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ㅂ, ㄷ, ㄱ'으로 평음화나 치조폐쇄음화를 겪은 후에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6) a. 앞 + 두 → (압두) → 압뚜
b. 볶 + 다가 → (복다가) → 복따가

이것은 이 경음화의 동기가 음성적인 데에 있기 때문이다. 김정우(1994:90f)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경음화는 음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현상은 평음화나 치조폐쇄음화의 음성적인 동기인 미파화와 동시에 성문이 폐쇄되고 이로 인해 인두강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후속음이 경음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음화 전에 음성적으로는 미파화, 음운론적으로는 평음화 혹은 치조폐쇄음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설명이 된다.

4.1.3.1.2 자음군 어간일 때

그런데 말음이 자음군인 어간이 경음화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음군 단순화가 함께 관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우선 경음화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자음군 어간의 예부터 검토하도록 하자.

(17) a. 갑ㅆ + 두 → 갑뚜
b. 업ㅆ: + 구 → 업:꾸

(18) 삭ㅆ + 두 → 삭뚜

용언의 경우는 'ㄱㅆ' 어간이 없다. 이 예들은 모두 평음인 폐쇄음 뒤에서 장애음이 경음화되는 음운과정이 적용된 것으로 이 때 나타나는 경음화는 음운론적인 동기가 있는 것들이다.

(19) a. 삶:두 → 삼:두
b. 삶:드라 → 삼:뜨라

(19)는 자음군 중 두 번째 자음이 비음인 경우에 경음화를 보이는 예들이다.[9] 이 경음화는 용언 어간에 한정된다(19b).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경음화는 용언 어간말 비음에 의한 경음화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음화 2'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제 경음화와 관련되어 남은 자음군 어간은 모두 'ㄹ'계이다. 경음화와

9) 이 외에 '앉 + 지 → 안찌'에서 보이는 경음화는 자음군 중 두 번째 자음 'ㅈ'에 의한 것으로 기술한다(후술함).

관계없는 'ㄹㅎ' 어간을 제외하고 경음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a. 여덟 + 두 → 여덜두, 여덟 + 보덤 → 여덜보덤
b. 넓 + 드니 → 널뜨니

(21) 핥 + 구 → 할꾸

(22) 돐ㅆ + 부터 → 돌부터, 돐ㅆ + 보다 → 돌보다[10]

(23) a. 까닭 + 두 → 까닥뚜
b. 맑 + 다 → 막따, 맑 + 구 → 말꾸

이상의 예 중 '널뜨니, 할꾸, 말꾸' 등이 경음화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언에서 어간 말음 'ㄹ'이 경음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24) 말(卷) + 드니 → 말드니
들(擧) + 구 → 들구

'ㄹ'계 자음군 어간에서 보이는 경음화는 우선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음성적으로 이 경음화는 음절말에서 미파된 평음인 폐쇄음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음화의 원인은

---

10) 다만 '돌ㅆ'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예도 조사되었다.

a. 돌뚜 몹 살구 죽구
b. 돌 잡는다

특히 (a)의 '돌뚜'는 '돌ㅆ + 두'로부터 도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만은 체언 어간이면서도 경음화를 보인다.

활용형에 나타나는 'ㄹ'이 아니라 자음군을 이루는 다른 장애음 'ㅂ, ㅌ, 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장애음이 경음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음화 - 자음군단순화'라는 순서로 음운과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25) 맑 + 구 → 맑꾸 → 말꾸
경음화 자음군단순화

자음군단순화가 먼저 적용되면 '말구ˣ'와 같은 잘못된 교체형을 도출하게 된다.

(26) 맑 + 구 → 말구ˣ
자음군단순화

그런데 이러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경음화가 용언 어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11) 체언 어간에는 이러한 경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여덜두). 둘째로 이와 같은 적용 순서가 부자연스럽다는 점이다. '맑 + 구'는 경음화와 자음군단순화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인데 공시론적 설명을 위해 반드시 경음화를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 그런데 경음화는 음운과정 중 대치에 속하는 것이고 자음군단순화는 음절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자음군단순화 쪽이 더 기본적인 음운과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음운과정과 자음군단순화가 함께 관련된 경우에는 늘 자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

(27) 자음군단순화 - 비음화 : 업:쓰 + 느냐구 → (업:느냐구) → 엄:느냐구

11) '까닥뚜'는 'ㄱ'에 의한 경음화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용언 어간'이라는 형태조건은 필요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음화와 관련된 체언 어간은 '여덟, 돐ㅆ'뿐인데 이들은 현재 '여덜, 돌'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자음군단순화 - 유음화 : 끓 + 는지 → (끌는지) → 끌른지

자음군단순화 - 격음화 : 갚ㅆ + 허구 → (갑허구) → 가퍼구

그러므로 이상의 'ㄹ'계 자음군 어간과 관련된 경음화를 기본·도출식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경음화'라는 음운과정을 설정하되 이 음운과정은 ① 반드시 자음군단순화에 선행할 것 ② 용언 어간에만 적용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아 주어야 한다.[12)]

이러한 조건들이 부담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 방법도 있다. 기본·도출식 기술을 유지하되 기본형을 경음화와 관련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ㄹ' 뒤의 경음화는 음운론적 동기가 있는 현상이 아니므로 성문폐쇄음 'ㆆ / ʔ /'을 기본형에 끌어 들여 이 때의 경음화가 'ㄹ'이 아니라 성문폐쇄음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廣}에 해당하는 어간의 기본형은 '넓-'이 아니라 '넓ㆆ-'이 된다.[13)] {八}에 해당하는 어간의 기본형은 '여덟'이므로 양자는 어간말 자음이 달라지게 된다. 어간말 자음이 다르므로 양자가 서로 다른 음운과정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28) a. 넓ㆆ + 드라 → 넓뜨라 → 널뜨라

축약　　자음군단순화

a'. 여덟 + 두 → 여덜두

자음군단순화

b. 넓ㆆ + 어서 → 넓허서 → 널버서

連音　　성문음탈락, 連音

b'. 여덟 + 이야 → 여덜비야

連音

12) 이렇게 되면 '앉 + 지 → 안찌'도 'ㅈ'에 의한 경음화가 된다.

13) 菅野裕臣(1993:25)에서 이러한 기술이 보인다.

이 해석 방법 역시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국어에서 어간 말에 'ㄹㅂㆆ'과 같은 삼중 자음군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공명음이 아닌 자음 'ㅂ' 아래에서 'ㆆ'이 탈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같은 성문음인 'ㅎ'의 경우는 폐쇄음 앞 뒤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ㅂㆆ'과 같은 음운 연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의 두 방법은 모두 기본·도출식 방법인데 나열식으로 기술하면 이 때의 경음화는 공시적인 음운과정일 수 없으므로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즉 '널버서'는 이형태 '넓'에 '어서'가, '널뜨니'는 이형태 '널(혹은 널ㆆ)'에 어미 '뜨니(혹은 드니)'가 결합된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체언 어간은 그대로 기본·도출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때는 용언 어간 중 어간말 자음이 'ㄹ'계 자음군인 어간은 모두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29) a. 널 + 뜨라 → 널뜨라

널ㆆ + 드라 → 널뜨라

축약

a'. 여덟 + 두 → 여덜두

자음군단순화

b. 넓 + 어서 → 널버서

連音

b'. 여덟 + 이야 → 여덜비야

連音

기본형의 어간 말음을 삼중 자음군으로 하는 두 번째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 방언에서 형태소 내부에서의 'ㅂㆆ, ㅌㆆ, ㄱㆆ'

과 같은 연쇄는 불가능하다. 같은 성문음 'ㆆ'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경음인 'ㅃ, ㄲ'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특히 'ㅌㆆ'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 'ㅂ, ㅌ, ㄱ' 아래에서 성문폐쇄음이 탈락하는 음운과정도 가능한 음운과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ㆆ'이 탈락하는 환경은 유성음 사이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방안은 두 가지 부가 조건을 가진 경음화 규칙을 설정하거나 아예 이를 부정하고 어간 말음이 ㄹ계 자음군인 어간은 두 개의 기본형으로 설정하여 각각이 해당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설명 방안 중 두 가지 부가 조건이 붙은 첫 번째 방안을 취하도록 한다. 우선 ㄹ계 자음군 어간에 적용되는 경음화는 예외가 없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 경음화의 환경에서 제외되는 'ㄻ, ㅀ' 어간을 제외하면 이 경음화는 ㄹ계 자음군 어간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때 용언 어간이라는 형태조건이 필요하지만 국어의 다른 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방언에서도 체언 어간과 용언 어간은 교체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뒤에서 살펴 볼 '경음화 2, 반모음화, 원순모음화'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자음군 어간에 적용되는 경음화는 두 가지 조건을 달고 공시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14)]

자음군단순화와 관련된 경음화에 대한 공시론적 기술이 이처럼 복잡한 이유는 이것이 통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1], [2] 제보자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밝두룩, 읽드라)[15)] 비교적 최근까지 이 방언에서는 'ㄹ'이 첫 번째 자음일 경우 모음 사이에서도 세 자음의 연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ㄹ'계 자음군들은 다른 자음군들에 비해 더 후대에(근대에 들어서야) 자음군단순화의 적용

---

14) 체언 어간의 재구조화(여덟 > 여덜, 돐ㅆ > 돌)를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순'이라는 한 가지의 조건만 있으면 된다.

15) 실제 발음임. [palkt'uruk], [ilkt'ɯra].

을 받게 된다.[16] 모음 사이에서 세 자음의 연속이 가능하던 시기에 먼저 폐쇄음 뒤에서 후행하는 평음인 장애음이 경음화되는 변화를 겪고(밝도록 > 밝또록)[17] 다시 근대국어 시기에 자음군단순화를 겪게 되는 것이 (밝또록 > 발또록) 이와 같은 교체가 생기게 된 원인일 것이다.

4.1.3.1.3 어간 말음이 'ㅎ'일 때

어간 말음이 'ㅎ'이고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ㅅ'일 경우에도 경음화가 일어난다.

(30) 좋: + 습니다 → 조:씀니다

(31) 많: + 습니다 → 만:씀니다
싫 + 습니다 → 실씀니다

체언의 경우는 'ㅎ' 어간이 존재하지 않고 또 'ㅅ'으로 시작되는 조사도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 이 현상은 결국 용언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또 이 방언에서 경음화가 문제되는 어간은 '좋:다'와 어간 말음이 자음군 'ㄶ, ㅀ'인 경우뿐이다. '좋:다'를 제외한 다른 'ㅎ' 어간들은 어미 'ㅂ니다'와 결합한다(놓다 - 놉니다). 따라서 이 현상을 음운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 기능부담량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상을 공시적인 음운과정으로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ㅎ'은 'ㄴ' 앞에서처럼 'ㅅ' 앞에서 'ㄷ'으로 치조폐쇄

---

16) 자음군단순화의 통시적 과정에 대해서는 이진호(199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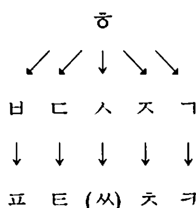
17) 실제 자료에도 이와 같은 예가 나타난 경우가 있다.

널이 쏘 엷고 <朴通事諺解 中:2b>(1677)

음화를 겪는다(배주채 1989, 1992, 金周弼 1990 =1998:219).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ㅎㅅ → ㄷㅅ → ㄷㅆ → (ㅅㅆ) → (ㅆ)'.18)

이 때 왜 다른 장애음 앞에서는 동일한 음운과정이 없느냐('ㅎㅈ → ㄷㅈ' 같은)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음 계열에 격음이 있으면 격음으로, 격음이 없으면 'ㄷ'으로 대치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金周弼 1990=1998:219). 이렇게 하면 'ㅎ'의 교체 양상을 두 가지로만 나타낼 수 있다. ① 격음 계열이 있는 장애음과는 축약되고 ② 그 외 자음(ㅅ, ㄴ) 앞에서는 치조음 'ㄷ'이 된다. 이를 '치조음화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설명 방안은 이런 복잡한 도출 과정을 상정하지 않고 장애음 체계를 고려하여 'ㅎ+ㅅ' 음 연쇄가 축약되어 'ㅆ'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ㅅ'에는 격음 계열이 없으므로 그 대신 경음으로 축약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李丞宰 1980:49f). 이를 '축약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출 과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 때는 어간 말음 'ㅎ'의 교체 양상이 복잡해진다. 즉 ① 격음 계열이 있는 장애음과는 축약된다 ② 격음 계열

18) 許 雄(1965:244, 1985:240)에서 'ㄷㅅ → ㅅㅅ'이, Kim-Renaud, Y. K.(1975b:237-40)에서 'ㄷㅆ → ㅅㅆ'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宋喆儀(1990:3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의 경음을 중자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ㅅㅆ → ㅆ'는 김차균(1981=1983:40)에서 축약으로 설정되었다.

이 없는 'ㅅ'과는 축약되어 경음이 된다 ③그 외 자음(ㄴ) 앞에서는 치조음 'ㄷ'이 된다.

현재로서는 두 방안 중 어느 한 쪽의 절대적 타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장애음 체계를 중시한다면 축약설이 더 타당한 듯하지만 격음 계열이 없는 'ㄴ' 앞에서의 어간 말음 'ㅎ'의 교체 양상을 보면(놓 + 는 → (녿는) → 논는) 치조음화설이 나을 것 같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치조음화설'을 따르기로 한다.

'치조음화설'을 따르게 되면 부수적인 문제로 'ㄷㅆ'과 같은 음운배열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견해가 있다. 배주채(1989:99, 1992)에서는 'ㄷㅆ' 연쇄를 불가능한 음운 연쇄로 본다. 'ㄷㅆ → ㅅㅆ'과 같은 음운과정을 인정하면 'ㄷㅆ' 대신 'ㅅㅆ'과 같은 음운 연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Kim-Renaud, Y. K.(1975b)에서 이러한 기술이 보이고 菅野裕臣 外(1991:988)은 '[ss'] 혹은 [ʃʃ']'와 같은 음성 연쇄를 인정한다.[19]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국어에서 형태소 내부에 'ㄷㅅ' 음 연쇄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오직 복합어 경계에서만 몇몇 예가 보인다(굳세다, 빋스다 등). 이 예들도 현대국어에서 '굳세다, 비싸다'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구쎄다, 비싸다/이다. /구쎄다/는 '굳다'와의 연관성 때문에 표기상으로만 '굳세다'로 나타날 뿐이다. 공시적으로 '빋(價)'과 연관시킬 수 없는 '비싸다 < 빋스다'에서는 'ㄷㅆ' 연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방언에서 형태소 내부에 /ㄷㅆ/ 연쇄는 없는 것같고 형태소 결합에서도 이러한 발음은 관찰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ㄷㅆ/과 같은 음 연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운배열제약과 관련된 사실로 보인다.

---

19) 이 음성형의 음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어간 말음 'ㅎ'과 관련된 교체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배주채(1992=1998:199f)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 교체가 공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어간말 'ㅎ'의 교체 양상은 다음과 같다(安秉禧 1978:19f). ①'ㅂ, ㄷ, ㅈ, ㄱ' 앞에서는 격음화된다(넣 + 고 → 녀코), ②'ㄴ' 앞에서는 'ㄷ'으로 대치된다(넣 + 는 → 넏는). ③'ㅅ' 앞에서는 'ㅅ'(혹은 경음화)으로 대치된다(넣 + 숩고 → 녀쏩고, 빟 + ᄉᆞ오니 → 빗ᄉᆞ오니). 그 후에 ②의 '넏는'은 비음화를 겪고(넌는) ③은 경음으로 굳어지게 된다(녀쏩고). 이 각각의 활용형이 전승되어 공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고에서 상정한 음운과정의 적용 대상이 극히 적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4.1.3.2 경음화 2

용언 어간말 자음이 비음이면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은 경음화 된다. 자음군의 경우도 비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ㄻ) 이 때도 경음화를 겪는다.

(32) a. 감: + 지 → 감:찌, 감: + 구 → 감:꾸~강:꾸, 감아서
넘: + 지 → 넘:찌, 넘어
담: + 지 마:라 → 담:찌 마:라, 담어라
뽐: + 지 마라 → 뽐:찌 마라, 뽐으면
삼: + 지 → 삼:찌, 삼어서
숨: + 지 마라 → 숨:찌 마라, 숨어야
참: + 구 → 참:꾸~창꾸, 참었다
품: + 구 → 품:꾸~풍:꾸, 품으면

b. 신: + 구 → 신:꾸, 신어서
안: + 지 마:라 → 안:찌 마:라, 안어

(33) 굶: + 습니다 → 굼:씁니다, 굶어서
삶: + 지 마:라 → 삼:찌 마:라, 삶어서
옮: + 지 → 옴:찌, 옮으면
젊: + 구 → 점:꾸, 젊었으니까

이 음운과정은 음운배열제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음 뒤에서 평음인 장애음의 결합이 제약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또 비음 자체에 후행 장애음의 경음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음성학적 특성이 있다는 보고도 없다.[20]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어간 말음을 단순한 비음이 아닌 '비음 + ㆆ'로 보는 방법도 있다.[21] 어간 말음을 '비음 + ㆆ'의 자음군으로 보면 후행하는 어미가 경음화되는 원인은 비음이 아닌 성문폐쇄음 'ㆆ'이 된다. 따라서 경음화는 'ㆆ'과 평음인 장애음의 축약에 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음운론적인 설명력을 얻을 수 있다(宋喆儀 1991). 또 치조음위치에서 마찰음과 폐쇄음의 대립이 있는 것처럼(ㅅ - ㄷ) 후음 위치에서도 이러한 조음방법상의 대립을 둘 수 있게 되어(ㅎ - ㆆ) 좀 더 균형 잡힌 자음체계를 이룰 수 있다(宋喆儀 2000:304). '만:쿠 · 만:트니 · 만:치, 만:어, 만:으면'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

20) 반대로 방언에 따라 용언 어간 말음이 비음일 경우에도 경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는 있다. 제주방언과(韓國方言資料集(IX) 濟州道篇 참조) 경상남도 '합천, 울주,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고성, 남해, 통영, 거제' 지역에는(韓國方言資料集(VIII) 慶尙南道篇 참조) 이 경음화가 없다. 郭忠求(1994a:201f)에 의하면 함경북도 육진 지역에도 이러한 경음화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21) 李翊燮(1972:102), 崔明玉(1980:189f), 金星奎(1988=1998:312-4), 宋喆儀(1991=1998: 80-3, 2000:302-5), 權美永(1998:28) 참조. 이 중 李翊燮(1972), 崔明玉(1980)과 權美永(1998)은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에서 'ㄴㅎ'을 어간 말음으로 가진 '많: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하면서 '흔:꾸·흔:뜨니·흔:찌, 흔어, 흔으면'과 같은 패러다임에서는 '흔ㆆ: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기본형 처리에 있어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ㅎ'과 'ㆆ'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ㆆ'은 최소대립쌍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ㆆ'을 음소로 인정한다면 추상적 음소의 설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음체계 자체는 좀 더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어간말 자음체계는 대단히 불균형해진다. 표기상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을 모두 'ㆆ'으로 끝난 자음군으로 설정하면 해당 방언의 용언 어간말 자음체계에는 비음 어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경음화는 '용언 어간말 자음이(형태조건) 비음일 때(음운조건)'라는 조건을 가지고 대단히 생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규칙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무의미어(non-sense word)에 이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알 수 있다. 국어의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방언에도 'ㅇ' 어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다' 같은 가상의 어간을 상정해 보면 'ㅇ' 어간 역시 경음화를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田相範 1976:22f, 배주채 1989:57).

(34) 당따, 당아서, 당으면

이 때의 '당-'은 무의미어이므로 어간 말음이 'ㅇㆆ'과 같은 것일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본고에서는 비음 어간 뒤의 경음화는 형태조건을 가지고(용언 어간일 때만) 적용되는 음운과정으로 처리한다.[22)]

22)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연상'을 이용하여 심리적 실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므로 본고의 전체적인 기술 태도와는 다르다.

4.1.3.3 경음화 3

국어의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방언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경음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음화는 앞서의 다른 경음화들과 달리 실현 조건이 단순하지 않고 이 때문에 해석에도 어려움이 많다. 우선 현상 자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제시하고 그 후에 가능한 해석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경음화는 어미 '-(으)ㄹ'에 후행하는 단어의 두음이 평음인 장애음일 때 해당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후행하는 단어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 경음화의 양상이 달라진다. 우선 후행 단어가 불완전명사이면 거의 예외 없이 경음화된다.

(35) a. 말려 입을 쑤두
　　낮잠 잘 쑤두 업ㅆ구 그러지
　　갈 쑤 있는 사람이라구
　　살: 쑤가 업ㅆ으니까
b. 들을 쭐
　　그렇게 헐 쭈나 아나?
　　어른네니까 뭐 붙들기나 허지 대릴 쭌 몰:르지 않아?
c. 당정 쓸 껏만
　　가리켜 줄 께 있어요?
d. 김치 당글 쩍마당
e. 행길에 갈 쩨[23] 보면 유:난히

23) '적'과 '제'는 의미상으로 유사하지만 그 분포에 차이가 있다. '제'는 항상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만 온다.

박정히 쩍에는

잘 쩨 까는 건 요:라 그르구
울: 쩨는 달래는 거구

'동안'과 같은 명사는 사전에는 완전명사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불완전명사와 같은 용법으로 더 많이 쓰이고 따라서 예외 없이 경음화된다.

(36) 당신이 내 발짜국이 다섯 발짜국 갈 똥안에
(생선이) 무:가 익을 똥안에 다 풀어저 버려

'새:'가 시간적 여유나 겨를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늘 관형사형에 후행하므로 이 때의 '새:'는 불완전명사로 본다. 또 이 때는 그 원형인 '사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전혀 없다.

(37) 밭이 놀: 쌔가 업ㅆ지
갖다 놀: 쌔 업ㅆ이 얼어 붙지 않어? 마당에서
시집이서는 잠 잘 쌔두 읍ㅆ어

그러나 '새:'의 경우는 경음화를 겪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反問'의 형식으로 표현될 경우인데[24] 이 때의 '새'는 앞서와 달리 모두 장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38) 나갈 새:가 있우?
그것두 헐 새:가 있나?
아버지는 보실 새:가 있나

24) '새'는 늘 '-(으)ㄹ 새(가) 없다'와 같이 부정 표현으로만 쓰이는데 '反問'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없다'의 否定 표현인 '있다'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의 장음은 '새' 자체가 기저에서 가지고 있던 어휘적 장음일 수도 있고 표현적 장음일 수도 있다.[25] 어느 쪽이든 장음은 음운론적 구(혹은 기식군)의[26] 첫 음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27] 이 때의 '새:' 앞에는 '휴지(pause)'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관형사형 구성에서 보이는 경음화는 휴지를 가로질러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완전명사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완전명사의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가 이끄는 수식어와 명사인 피수식어가 하나의 음운론적 구 안에 있으면 경음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음절수가 짧고 피수식어의 두음이 'ㄷ, ㅅ'의 치조음인 경우에 경음화가 두드러진다.

(39) 지:가 쌀 살 돈을 거:다 놓구 해가주 다: 홀라당 잃어 버리믄
이틀, 사흘 먹을 똔이란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모자 살 똔이 있어 뭐?

(40) 반:말을 써 볼 싸람이 업ㅆ:어
먹을 싸람이 있으믄 먹구
식구대루 다: 어떻게 벌:어서 살: 쌩각은 안 허구
그런 거 헐 씨간 업ㅆ으니까
대우를 잘 헐 쏜님한테만 신설로가 가는 거야
죽으믄 썩을 쌀인데 애껴 뭘: 허랴 //살//

'ㄷ, ㅅ' 이외의 자음인 경우에도 경음화가 없지는 않지만 매우 드문

25) 표현적 장음이라면 '그럴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26) '음운론적 구'는 기존의 '기식군(breath group)'과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필재(1994, 1998a) 참조.
27) 단어 차원을 넘어서는 단위에서 장모음이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李秉根(1986) 참조.

것이 사실이다.

(41) 내가 갈 낄이 다가왔나 보다 그러믄

결국 이 경음화는 (1) 후행하는 피수식어의 자립성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다르고 (2) 피수식어가 자립성을 가진 완전명사일 경우에는 음운론적 조건([grave] 자질)에 따라 다시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음화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이 경음화는 언제나 어미 '-(으)ㄹ'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다음과 같이 '용언 어미'라는 형태조건을 가진 교체로 해석할 수 있다.

(42)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평음인 장애음은 경음화한다.

경음화의 원인이 어미 '-(으)ㄹ'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문법론적 해석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다. ①'-(으)ㄹ'에 후행하는 단어가 불완전명사일 때는 필수적으로, 완전명사일 때는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②수의적으로 적용될 때도 해당 장애음은 치조음일 가능성이 높다. ③'-(으)ㄹ'에 후행하는 것이 명사가 아닐 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3) 선 볼 그 사람[28] /선 볼 끄 사람/ˣ

특히 ②의 조건은 음운론적인 것인데 형태조건을 가진 교체가 이와

---

28) 조건 ③은 제보자에게 일일이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Choi, E. Y.(1991), Kim, H. Y. (1992)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이 방언에도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

같은 음운론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경음화의 원인을 어미 '-(으)ㄹ' 자체에 두지 않고 어미 '-(으)ㄹ'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해석을 달리하여 경음화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교체에서 나타나는 격음은 흔히 평음과 성문마찰음 'ㅎ'으로 재분석되는데 (노코 ← 놓 + 고)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경음은 평음과 성문폐쇄음의 결합으로 재분석될 수 있다(헐 쑤 ← 헐ㆆ + 수). 결국 표기상 '-(으)ㄹ'의 기본형을 성문폐쇄음을 말음으로 가진 자음군 '-(으)ㄹㆆ'으로 설정하는 것이다.[29] 경음화의 원인을 어미의 말음인 성문폐쇄음(ㆆ)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음운론적 해석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에서 제기된 세 가지 문제점 이외에 음운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음소(성문폐쇄음 'ㆆ')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더 있다.

두 방법 모두 이 경음화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 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 쪽의 타당성을 내세울 만한 확실한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현상에 대한 다른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두 가지 방법 중 문제점이 더 적은 방안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 각 방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만을 본다면 문법론적 해석 방안이 음운론적 해석 방안보다 더 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0] 그렇다면 응당 문제점이 더 적은 문법론적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음소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음소의 설정은 배제하는 원칙을 지켜 왔으므로 기술 전체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도 문법론적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경음화는 어미 '-(으)ㄹ' 뒤에서

---

29) 후기 중세국어 당시 표기법을 정립하던 학자들의 처리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부류에 든다. 당시의 표기로는 이 어미는 '-ᄚ'이다.

30) 이 중 '선 볼 그 사람'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휴지(pause)의 실현과 연관시켜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즉 이와 같은 발화는 일반적으로 /선 볼 # 그 사람/('#'는 휴지)처럼 실현되기 때문에 이 휴지가 경음화의 실현을 막는다는 것이다(유필재 1994:70f, 김성규 1999:834f). 음운 현상은 일반적으로 휴지를 가로질러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어난다는 문법론적 해석 방안을 따르도록 한다.

4.1.4 비음화

비음화 역시 음운배열제약이 반영된 음운과정이다. 형태소 내부에 '-C1C2-'와 같은 자음 연쇄가 존재하고 C2가 비음(ㅁ, ㄴ)이면 C1은 반드시 비음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는데 형태소가 결합할 때도 이 제약이 반영되어 비음화라는 음운과정이 적용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2장에서 제시한 제약을 다시 가져와 본다.

【7】 C2 = ㅁ, ㄴ ⇒ C1 = ㅁ, ㄴ, ㅇ
뒷자음이 비음이면 앞자음은 비음이어야만 한다.

체언 어미 중 비음으로 시작되는 것에는 '-만, -만큼, -마당(~마담~마닥)'이 있다.

(44) a. 떡닙 + 만 → 떡님만
앞 + 만 → 암만
b. 끝 + 만 → 끈만
c. 옷 + 만큼은 → 온만큼은
낮 + 만 → 난만
머리숯 + 만 → 머리순만
d. 손꾸락 + 만큼 → 손꾸랑만큼
부엌 + 만 → 부엉만
밖 + 만 → 방만
e. 까닭 + 만 → 까당만
갑ㅆ + 만 → 감만

삭ㅆ + 만큼 → 상만큼

용언 어미 중 비음을 두음으로 가지는 것은 ①'-네1, -네2, -느라구, -는, -는다/ㄴ다, -(으)니깐, ②'-느냐/(으)냐?, -는데/(으)ㄴ데, -는지/(으)ㄴ지, -냐/(으)ㄴ가?' 그리고 ③'-으니/니?'가 있다. ②에 속하는 어미의 경우는 동사만 비음화의 환경이 되고 ③에 속하는 어미는 자음군을 제외한 자음 어간 뒤에서 비음화의 환경이 된다.

(45) a. 뽑 + 는다 → 뽑는다
갚 + 는다 → 감는다
b. 불받 + 는다 → 불반는다
똑같 + 니? → 똑간니?
c. 긋: + 느라구 → 근:느라구
맛있 + 느냐구 → 맛인느냐구
맞 + 는지 → 만는지
쫓 + 는다 → 쫀는다
d. 삭 + 는데 → 상는데
볶 + 는다 → 봉는다
e. 찧: + 는 → 찐:는
f. 업ㅆ: + 느냐구 → 엄:느냐구
밟: + 는다 → 밤:는다
읽 + 는다 → 잉는다

비음화 역시 경음화 1과 마찬가지로 환경만 주어지면 단어 경계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46) 부뚜막 맨든다구 → 부뚜망 맨든다구

비음화 자체는 음운배열제약을 반영한 음운과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술하기 간단하지만 다른 음운과정이 함께 연관될 경우에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비음화와 평음화, 치조폐쇄음화가 함께 관여될 경우가 있다. '낮 + 만 → 난만'과 같이 어간 말음이 평음인 폐쇄음이 아닐 경우 '낟만'과 같은 형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때 '낮 + 만'과 '난만' 사이에 '낟만'과 같은 가공의 도출 형태를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순수히 도출형만을 중시하여 어간말의 'ㅈ'이 'ㄴ' 앞에서 직접 '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李丞宰 1980:54). 그러나 'ㅈ → ㄴ'을 인정하면 조음방법과 조음위치상의 동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서로 성격이 다른 동화 규칙이므로 이들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宋喆儀 1990:30). 'ㅈ → (ㄷ) → ㄴ'과 같은 가상적인 중간 단계를 설정해야 비음화를 이 방언의 자음 체계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비음화는 [비음성] 자질이 관련된 음운과정(동화)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ㅂ, ㅃ, ㅍ → ㅂ → ㅁ
ㄷ, ㄸ, ㅌ → ㄷ → ㄴ
ㅅ, ㅆ, ↗
ㅈ, ㅉ, ㅊ
ㄱ, ㄲ, ㅋ → ㄱ → ㅇ

[-비음성] → [+비음성] / ______ [+비음성]

다음으로 비음화가 자음군단순화와 관련될 경우가 있는데 '엄:느냐구 ← 업쓰: + 느냐구'의 예를 보면 '자음군단순화 - 비음화'의 순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47) 업ㅆ: + 느냐구 → (업:느냐구) → 엄:느냐구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4.1.5 유음화

국어의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방언에서도 'ㄹㄴ, ㄴㄹ'의 자음 연쇄가 허용되지 않는다. 양 자는 모두 'ㄹㄹ'로만 실현된다. 'ㄹㄴ → ㄹㄹ'을 순행적 유음화, 'ㄴㄹ → ㄹㄹ'은 역행적 유음화라고 부를 수 있다.

순행적 유음화는 2장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제약이 반영된 것이다.

【3】 C1 = ㄹ ⇒ C2 = ~(ㄴ, (ㅎ))

앞자음이 'ㄹ'이면 뒷자음으로 'ㄴ'이 올 수 없다. 'ㅎ'도 잘 오지 않는다.

역행적 유음화 역시 2장에서 제시한 다음의 제약이 반영된 것이다.

【8】 C2 = ㄹ ⇒ C1 = ㄹ

뒷자음이 'ㄹ'이면 앞자음은 'ㄹ'이어야만 한다.

역행적 유음화는 한자어에서만 나타나고 고유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48) 신선로(神仙爐) → 신설로

이러한 유음화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체언 어간 중 'ㄴ' 어간은 있으나 'ㄴ' 어간 뒤에 'ㄹ'을 두음으로 가지는 체언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는 없고(신 + 을, 신 + 으루), 'ㄹ' 어간 역시 존재하지만 'ㄹ' 어간 뒤에 'ㄴ'을 두음으로 가지는 체언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도

없다(지하철 + 이니, 지하철 + 은). 따라서 체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는 유음화가 적용될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용언의 경우 'ㄴ' 어간 뒤에 'ㄹ'을 두음으로 가지는 용언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안 + 으라). 그러나 'ㄹㄴ' 연쇄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있다. 첫째는 'ㄹ' 어간이 'ㄴ'을 두음으로 하는 용언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때는 오히려 'ㄹ'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ㄹ'이 없는 이형태가 직접 'ㄴ'을 두음으로 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유음화의 환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31]

(49) 알:/아:(知) + 는 → 아:는

둘째로 'ㄹ'계 자음군 중 'ㄹ'이 아닌 자음이 탈락할 경우 'ㄴ'을 두음으로 하는 용언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자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서 유음화의 환경이 제공된 후 'ㄴ'이 'ㄹ'로 대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활용에서는 순행적 유음화만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50) a. 핥 + 는다 → 할른다
b. 끓 + 는지 → 끌른지
닳 + 는다 → 달른다
앓 + 는다 → 알른다
뚫: + 는다 → 뚤:른다
잃:(조리로 쌀을~) + 는 거는 → 일:른 거는

31) 3장 'ㄹ' 어간 부분 참조.

단어 경계에서도 순행적 유음화만이 나타난다.

(51) a. 군인 나갈 라이에는
집안 망헐 련만 나왔다 그래
b. 고:반소[32] 갈 릴이 뭐 있어요?
그거 축하헐 릴이구나 그랬어요

(51b)는 'ㄴ 삽입'으로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만들어진 'ㄹㄴ' 연쇄에 다시 유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52) 축하헐 일 → (축하헐 닐) → 축하헐 릴
ㄴ삽입 유음화

4.1.6 격음화

격음화의 환경은 격음 계열을 가진 평음인 자음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는 경우이다. 격음화의 환경은 'ㅎ + ㅂ, ㄷ, ㅈ, ㄱ → ㅍ, ㅌ, ㅊ, ㅋ'처럼 'ㅎ'이 선행하는 경우와 'ㅂ, ㄷ, ㅈ, ㄱ + ㅎ → ㅍ, ㅌ, ㅊ, ㅋ'처럼 'ㅎ'이 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격음화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언의 경우 'ㅎ' 어간은 없고 체언 어미 중 'ㅎ'으로 시작되는 것은 '-허구, -한테(~헌테)'가 있다.[33]

(53) a. 볏집 + 허구 → 볏지펴구

32) '파출소'의 의미. 일본어 'ko:ban(交番)'에서 온 말이다.
33) '-알라(← -할라)'는 조사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 + 허구 → (압허구) → 아퍼구

b. 곁 + 허구 → (겯허구) → 겨터구

이웃 + 한테 → (이욷헌테) → 이우턴테

낮 + 허구 → (낟허구) → 나터구

숯 + 허구 → (숟허구) → 수터구

c. 장작 + 허구 → 장자커구, 자식 + 한테 → 자시칸테

볶: + 허구 → (볶:허구) → 볶:커구

(54) a. 갑ㅆ + 허구 → (갑허구) → 가퍼구

b. 삭ㅆ + 허구 → (삭허구) → 사커구

이 때 '앞 + 허구 → 아퍼구'와 같은 예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격음화의 적용 여부를 확실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경우에도 격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낮 + 허구 → 나터구'와 같은 예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허구' 앞에서 '낮'이 치조폐쇄음화를 먼저 겪은 단계를 인정해 주어야만 설명된다. 그렇지 않다면 '나처구ˣ'와 같은 도출형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격음화' 이전에 음절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평음화, 치조폐쇄음화'를 먼저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자음군 어간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55) 여덟 + 허구 → 여덜허구 → 여덜어구

갑ㅆ + 허구 → (갑허구) → 가퍼구

격음화 이전에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여덜퍼구ˣ, 갑터구ˣ'와 같은 도출형이 나오게 된다. 자음군단순화 역시 음절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음운과정이므로 이와 같은 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용언의 경우는 용언 어미 중 'ㅎ'으로 시작되는 것은 없고 'ㅎ' 어간과 'ㅎ'이 포함된 자음군 어간 'ㄶ, ㅀ'이 있다. 그리고 어미 중 격음화의 환경이 되는 것은 두음이 'ㄷ'(-든지), 'ㅈ'(-지), 'ㄱ'(-구) 세 가지뿐이다. 'ㅂ'을 두음으로 가진 어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56) a. 좋: + 다구 → 조:타구, 조:아서
　　꺼:멓 + 드니 → 꺼:머트니
b. 놓: + 지 → 느:치, 느:면
　　짷:(의형제를~) + 자 → 짜:차, 짜: 올린다
c. 빻: + 구 → 빠:쿠, 빠:서
　　파:랗 + 게 → 파:라케

(57) a. 언짢 + 다 → 언짠타, 언짠은
　　끊 + 지 마:라 → 끈치 마:라, 끈으면
　　괜찮 + 구나 → 괜찬쿠나, 괜찬으면
b. 닳 + 두룩 → 달투룩, 달으니까
　　잃:(조리로 쌀을~) + 지 → 일:치 · 일치 마:라, 일으믄
　　뚫(注) + 구 → 딸쿠

결국 격음화에 있어서 'ㅎ + ㅂ, ㄷ, ㅈ, ㄱ'과 같이 'ㅎ'이 선행하는 경우는 용언의 활용에서, 'ㅂ, ㄷ, ㅈ, ㄱ + ㅎ'과 같이 'ㅎ'이 후행하는 경우는 체언 어간과 조사의 결합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1.7 후부변자음화

'후부변자음화' 역시 2장에서 살펴 본 자음간의 음운배열제약을 반영한 것이다.

[9] C2 = ㄱ, ㄲ, ㅋ ⇒ C1 = ㄱ, ㅇ, ㄹ

뒷자음이 후부변자음인 연구개음이면 앞자음으로 연구개음이 나타난다.

후부변자음인 연구개음 앞에서 조음위치가 다른 자음들이 연구개음으로 동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음운과정은 조음방법이 아닌 조음위치의 변동과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 수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다른 자음간의 음운과정과 다르다.

(58) a. 업 + 구 → 억꾸~업꾸

고깝 + 게 → 고깍께, 고깝따

b. 참: + 구 → 창:꾸~참:꾸

c. 구두 신: + 구 → 구두 싱꾸

4.2 모음과 모음 사이의 음운과정 : -V1V2-

앞서 2장의 '2.2.2.2 -V1V2-'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모음과 모음의 연결은 이 방언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과 모음이 만나게 될 때에는 가능한 한 이러한 모음 연쇄를 피하려는 쪽으로 음운변동을 겪게 된다. 모음과 모음의 충돌 이른바 히아투스(hiatus)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둘 중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탈락). ② 둘 중 하나가 모음이 아닌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대치). ③ 둘 사이에 다른 음운이 끼어 들어간다(삽입). 이 때 '다른 음운'은 흔히는 반모음이다.

모음 탈락이 적용되는 환경과 반모음화(혹은 반모음 삽입)가 적용되는

환경은 배타적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은 적용되는 환경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둘 중 어느 한 가지 음운과정이 적용되고 나면 나머지 음운과정은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 음운과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하나의 음운과정은 그만큼 적용 범위가 좁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로 나타났다. 이 방언에서 반모음화는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j, w, wj 반모음화 셋으로 나눌 수 있다.[34)]그런데 같은 반모음화이면서도 w 반모음화는 그 적용 양상이 j, wj 반모음화와 같지 않다. 즉 w 반모음화가 다른 두 반모음화에 비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더 넓은데 이것은 이 방언에 w 삽입 규칙이 없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모음 탈락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용 환경이 동일한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은 규칙의 적용 영역을 고려하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2.1 모음 탈락

모음 탈락을 겪는 모음은 'ㅡ, ㅓ, ㅏ' 등이다. 순서대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4.2.1.1 'ㅡ' 탈락

어간 말음이 'ㅡ'인 체언 어간은 '그'가 유일한데 '그'의 어간 말음 'ㅡ'가 탈락을 보이는 경우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는 구어가 아니다. 실제 발화에서는 '그이'로 주로 쓰인다.

---

34) 이 방언에서 반모음화의 결과로 반모음 [ɥ](j의 원순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뛰 + 어 → 뚜ㅕ: [t'ɥə:]). 이 때의 [ɥ]를 음소적으로는 반모음 wj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ɥ]가 나타나는 반모음화는 'wj 반모음화'라고 부르기로 한다(후술함).

(1) 그러니까 고종사촌 오라버니지 … 그이가 나를 일곱살서버텀 끌:구 댕기면섬

용언 어간의 경우는 어간 말음이 'ㅡ'인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 모음 어미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한다.

(2) a. 뜨(浮) + 어 → 떠, 뜨기 전에
건:느(渡) + 어서 → 건:너서, 건:느지
스(立) + 어서 → 서서, 스지 마:라
날르(飛) + 어서 → 날러서 · 날라 간다, 날르지
당그(漬) + 어 → 당거 놔 둬:라, 당그지
b. 이:쁘(美) + 어요 → 이:뻐요, 이:쁘게
어:슬프(粗雜) + 어 → 어:슬퍼, 어:슬푸게

(3) a. 깊으 + 어서 → 깊어서, 깊으다 그르구
얕으(淺) + 어서 → 얕어서, 얕으지
줏으(拾) + 어다가 → 줏어다가, 줏으는
낚으(釣) + 어 → 낚어, 낚은다
b. 읊으(吟) + 어서 → 읊어서, 읊으지 마:라
훑으(扱) + 어다 → 훑어다, 훑은다

(3)는 이른바 '어간 확대형'의 예들이다. 기원적으로 자음 어간이었다가 'ㅡ'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들인데 이 경우 'ㅡ' 탈락이 아니라 개신형 'X으-'가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만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신형의 경우 처음에는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지는 경우는 많기 때문이다.35)

35) 3장에서 말음이 'ㅎ'인 일부 어간과 'ㄷ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은 모음 어미 앞

4.2.1.2 어미 모음 'ㅏ, ㅓ' 탈락

모음 어미의 두음 '아/어'는 모음 어간 'ㅏ, ㅐ, ㅔ'와 결합할 때 필수적으로 탈락한다.

(4) 따 + 아서 → 따서, 따지 마라
    바라 + 아서 → 바라서, 바라지

(5) a. 달래 + 어라 → 달래라, 달래지
       매: + 어서 → 매:서, 매:지
    b. 데: + 어서 → 데:서, 덴:다

먼저 어간 말음이 'ㅏ'인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용형만으로는 탈락하는 것이 어간 모음인지 어미 모음인지를 쉽사리 결정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어미 모음 'ㅏ'가 탈락하는 쪽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첫째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 사이의 교체 양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미 모음 탈락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ㅏ' 어간 이외에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이 일어나는 모음 어간에는 'ㅡ, ㅐ, ㅔ' 어간

에서 말자음 'ㅎ, ㄷ'이 없는 이형태가 직접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어간 중 'ㅎ, ㄷ'의 선행 모음이 'ㅡ'인 경우에는 'ㅡ' 탈락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눟:다'와 '긋:다!'가 이에 해당하는 어간이다. 본고에서는 각각 이형태 '느:, 그'가 모음 어미와 직접 결합한다고 기술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이상의 일반적인 'ㅡ' 어간과 다르다. '느: + 어서 → 너서ˣ, 그 + 어라 → 거라ˣ'가 아니라 '느:서, 거:라(~그어라)'처럼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눟:다, 긋:다!'에 대해서는 기본형의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긋:다!'의 경우는 모음 어미 앞에서의 이형태가 '그어'일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만을 지적해 두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이 있다. 활용형을 보면 'ㅡ' 어간일 때는 어간 말모음 'ㅡ'가, 'ㅔ, ㅐ' 어간일 때는 어미 모음 'ㅓ'가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a. 쓰 + 어 → 써
 b. 데: + 어서 → 데:서
 달래 + 어라 → 달래라

그런데 모음 'ㅡ'는 이 방언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ㅡ'는 다른 모음과의 직접 결합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다른 모음과 만나면 대부분의 경우 탈락하고 만다.[36] 게다가 음절구조를 조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음도 바로 'ㅡ'이다.

(7) talent - 탈:렌트
 robot - 노:보트

그러므로 모음-모음 연쇄의 형태음운론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ㅡ' 탈락의 경우보다는 (6b)의 'ㅓ' 탈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어간말 모음이 'ㅔ, ㅐ'인 경우와 체계를 맞추려면 어간말 모음이 'ㅏ'일 경우도 어미 모음이 탈락한다고 하는 편이 좋다.

둘째로 재구조화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어미 모음이 탈락한다고 기술하는 편이 낫다. 모음 어미는 역사적으로 '어X'쪽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경기남부방언의 경우는 거의 완전히 '어X'로 통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남부방언을 포함해서 국어의 어느 방언에서도 '거라ˣ(← 가 + 어라)'

---

36) 이 방언에서 형태소 내부에서 'ㅡ'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나타난 예는 '그악허다, 느이'가 전부가 아닌가 한다.

와 같은 활용형이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어미 모음이 끊임없이 '어'쪽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고 또 어간 모음이 탈락한다면 이러한 활용형도 가능할 법한데도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재구조화가 일어난다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재구조화를 막는 것은 어미 모음이 탈락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다음으로 어간 말음이 'ㅐ, ㅔ'인 경우를 살펴보자. 어간 말음이 'ㅐ, ㅔ'일 때는 활용형에 어미 모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중앙어를 자료로 한 논의에서 흔히 제시되는 '매어, 매여'와 같은 어형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이형태가 '아/어X'가 아닌 'X'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문어이지만 제보자들이 글로 쓰여진 '매어'와 같은 어형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공시론적인 기술을 위해 'ㅐ, ㅔ' 어간 뒤에서 어미의 두음 '아, 어'가 탈락하는 것으로 기술한다.[37]

그런데 말음이 'ㅎ'인 어간 중 일부와 'ㄷ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은 모음 어미 앞에서 말자음 'ㅎ, ㄷ'이 없는 이형태가 직접 어미와 결합하므로 'ㅎ, ㄷ'의 선행 모음이 'ㅏ, ㅓ'이면 모음 탈락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 때도 일반적인 모음 탈락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38]

(8) a. 낳:/나:(産)[39] + 아서 → 나:서, 낳:지
　　땋:/따:(編) + 아서 → 따:서, 땋:는

37) 이에 대해서는 李秉根(1978) 참조.
38) '낳:다(産), 젓:다(混)'의 경우에는 '나아라, 저어라'와 같은 활용형도 나타났다.
39) '낳:'은 자음 어미와 결합하고(낳:지) '나:'는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그리고 어미 '-ㄴ다'와 결합한다(나:서, 나:면, 난:다)(3장 참조). 그러므로 어미 '-어서'와 결합하는 어간의 이형태는 '나:'뿐이지만 독해의 편의를 위해서 자음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이형태도 함께 제시해 주도록 한다. 이하 이러한 부류의 어간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빻:/빠:(㑿) + 아서 → 빠:서, 빻:는

짷:/짜:(상투를~) + 아 → 짜: 올린다, 짷:구

b. 낫:/나:(治) + 아야지 → 나:야지, 낫:지

젓:/저:(混) + 어야 → 저:야, 젓:지

4.2.2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

모음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두 모음 중 하나가 모음이 아닌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이 '다른 음운'이란 바로 반모음인데 '-V1V2-'와 같은 연쇄에서 'V1'이 'ㅣ, ㅜ, ㅗ, ㅟ'이고 'V2'가 'ㅏ, ㅓ' 등인 경우에 'V1'이 반모음 'j, w, wj'로 바뀌는 것을 '반모음화'라고 한다.

이 음운과정은 현재는 활용에서만 나타나고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40] 그러므로 현재 이 방언에서 반모음화는 오직 활

40) 다만 과거에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도 이와 같은 반모음화가 산발적으로 적용된 듯하다. 몇몇 단어에 화석처럼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우선 체언 어간 중 'ㅜ, ㅗ' 어간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할 때 어간 말모음 'ㅜ, ㅗ'가 'w'로 반모음화 한 예는 '백좌 <천.91, 261>, 애채 <한.142>' 같은 것이 있다. '백좌'는 어원적으로 '백주(白晝) + 에'로 분석된다. 어간 말음 'ㅜ'가 모음 'ㅔ' 앞에서 'w'로 반모음화한 것이다(백주 + 에 → 백줴). <천>에서 '백줴'를 '백좌'로 표기한 것은 이 방언에서의 'ㅚ'의 음성 실현 양상과 관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ㅚ'는 선행 자음에 따라 음성 실현이 달라지는바 'ㅈ' 아래에서는 단순모음 [ö]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반모음 'w'가 탈락하면 '백제'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애체'가 바로 반모음화와 반모음 탈락을 모두 겪은 예이다(애초 + 에 → 애췌 → 애체).
j 반모음화의 경우는 확실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 그 존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표준어에 공존형으로 존재하는 '-기 마련이다 ~ -게 마련이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방언에서도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에'의 결합은 흔히 '-게'로 나타난다.

사:람이 <u>보게</u> 개벼운 거 걸애두 무거와요
조으나 나쁘나 저 팔자 타구 <u>나게</u> 있지

용을 대상으로 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 이하에서 용언의 활용에 나타나는 반모음화를 어간 모음이 'ㅗ, ㅜ'일 때, 'ㅣ'일 때 그리고 'ㅟ'일 때 셋으로 나누어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4.2.2.1 w 반모음화

용언의 어간 말음 'ㅗ, ㅜ'는 모음 어미 앞에서 모두 반모음 w로 대치된다. 다음은 'ㅗ' 어간의 반모음화의 예이다.

(9) a. 보 + 아서 → 봐:서, 보지
b. 모: + 아라 → 뫄: 놓지 · 모아라, 모:는데
쏘: + 아라 → 쏴:라, 쏘:지
쪼: + 아 → 쫘:~쪼아
고: + 아 → 과:야 해 · 고아, 곤:다
꼬: + 아 가주구 → 꽈:가주구, 꼬:구
호: + 아서 → 화:서, 호:니까
c. 네려오 + 아요 → 네려와요
들오 + 아가주구 → 들와가주구, 들오는

이상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반모음화는 1음절 장음 어간일 경우에는 수의적이지만(9b) 그 외는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1음절 단음 어간이라고 해도 단일어의 예는 '보다, 오다'뿐인데 '오다'의 경우는 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모음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다른 반모음화의

표면상으로는 말모음 'ㅣ'가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ㅜ, ㅗ'의 경우를 고려하면 'ㅣ' 역시 j 로 반모음화 한 후 다시 탈락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보기 + 에 → *보계 → 보게

예를 보면 반모음화는 일반적으로 보상적 장모음화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다'의 경우를 불규칙적인 것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말음이 'ㅎ'인 어간 중 일부는 모음 앞에서 어간 말음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ㅎ'의 선행 모음이 'ㅗ'이면 w 반모음화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41]

(10) 놓(置) + 아라 → 노아라~놔:라, 놓구

포개놓(疊) + 아라 → 포개노아라~포개놔라, 포개놓지

(11) 좋:(好) + 아서 → 조:아서, 좋:은

예문 (10)는 먼저 '놓 + 아라 → (노하라) → 노아라'의 단계를 거친 후에 'ㅗ-ㅏ' 모음 연결에 w 반모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이 때는 'ㅎ 탈락'이라는 음운과정이 관여되기 때문에 순수한 'ㅗ' 어간의 반모음화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놓다'가 1음절 단음 어간이면서도 반모음화가 필수적인 음운과정이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11)의 '좋:다'는 '조:아서'는 가능하지만 반모음화를 겪은 '좌:서ˣ'는 불가능하다. '좋: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좋:다'의 경우는 용언 어간이면서도 'ㅎ 탈락'에 있어 수의적인 면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점이 반모음화를 막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ㅜ' 어간의 반모음화의 예이다.

(12) a. 두 + 어야 → 둬:야

누 + 어라 → 눠:라, 누든지

주 + 어라 → 줘:라, 주지

41) 'ㄷ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으로 해당 조건을 갖춘 예는 없다.

추 + 었나 → 췄:나, 추지

b. 쑤:(죽을~) + 어라 → 쒀:라~쑤어라, 쑨:다

꾸:(夢) + 어서 → 꿔:서, 꾸:지

c. 데우 + 어라 → 데워라, 데운다

지우 + 어서 → 지워서, 지우지

다투 + 어서 → 다퉈서, 다투지

겨루 + 어서 → 겨뤄서, 겨루는

나추 + 어라 → 나춰라, 나추구

달구 + 어서 → 달궈서, 달구지

가꾸 + 어서 → 가꿔서, 가꾸지

이 반모음화도 'ㅗ' 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음절 장음 어간일 경우에만 수의적이고(12b) 그 외는 필수적이다. 반모음화가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하는 점도 완전히 같다. 결국 'w 반모음화'는 1음절 장음 어간일 때만 수의적이고 나머지 경우는 필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ㄷ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은 모음 어미 앞에서 말자음 'ㄷ'이 없는 이형태가 직접 어미와 결합하므로 'ㄷ'의 선행 모음이 'ㅜ'이면 w 반모음화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42)

(13) a. 여쭙/여:쭈(問) + 어서 → 여:쭤서, 여:쭙구

b. 굽:/구:(燒) + 어라 → 궈:라, 굽:지 마:라

붓:/부:(注) + 어라 → 부어라~붜:라, 붓:지 마:라

c. 잡숫/잡수(尊食) + 었는데 → 잡숴는데, 잡숫는

이 때도 1음절 장음 어간일 경우에는 수의적으로(예: 붓:다!) 다음절 어간

42) 'ㅎ' 어간의 경우 '누ㅎ다'가 있지만 공존형인 '누다'의 패러다임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예: 잡숫다!) w 반모음화를 겪는 경향을 보인다.[43]

4.2.2.2 j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

용언 어간말 모음 'ㅣ'는 모음 어미 앞에서 j로 대치되거나 'ㅣ'와 어미 모음 사이에 반모음 j가 삽입된다. 그리고 'ㅣ'가 j로 반모음화되면 음절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가 수반된다.[44]

(14) 시(酸) + 어서 → 셔:서 · 시여, 시다
기(匐) + 어 → 겨: · 기여

(15) a. 비:(집이~) + 어서 → 비여서 · 비었다, 비:지
삐:(발목을~) + 어서 → 뼈:서 · 삐였다, 삔:다
피:(開花) + 어서 → 펴:서, 피:지
끼:(반지를~) + 어라 → 껴:라~끼어라≪文≫, 낀:다
b. 끼:(전구를~) + 어서 → 껴:서, 낀:다
c. 비:(낫으로~) + 어라 → 벼:라 · 비여서 · 비어서, 비:는
미:(가방을~) + 어서 → 미여서, 미:구
디:(燒) + 어서 → 디여서 · 디었다, 딘:다
띠:(取) + 어서 → 뗘:서 · 띠여라 · 띠어버리지, 띠:구
시:(强) + 어서 → 시여서, 시:게
d. 미:(메우다) + 어 → 미여서, 미:지 마라
디:(물을~) + 어야지 → 뎌:야지 · 디여 와라 · 디어야, 디:지
씨:(씌우다) + 어서 → 씨여서 · 씨었다, 씨:지
기:(게우다) + 어 → 기어

43) '여:쭤서'의 공존형으로 '여:쭈어서'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ㅜ' 어간들과 교체의 양상이 완전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
44) 보상적 장모음화에 대해서는 李秉根(1978) 참조.

(16) 우비(귀를~) + 어라 → 우벼라, 우비지

버티 + 어 → 버텨, 버티지

부시(부수다) + 었다 → 부셨다, 부시지두

윽살리 + 어 → 윽살려, 윽살리구

켕기(팽팽하게~) + 어야 → 켕겨야, 켕기구

신키(신기다) + 어 준다 → 신켜준다, 신키지

쟁이(김을~) + 어가주 → 쟁여가주, 쟁이지

모이 + 어서 → 모여서, 모이면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j 반모음화는 1음절 어간일 때는 수의적으로, 다음절 어간일 때는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절 어간일 때는 당연히 j 삽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을 보여주는 어간들 가운데에서도 이 '반모음화, 반모음 삽입'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우선 말음이 'ㅎ'인 어간은 어간 말음 'ㅎ'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므로 'ㅎ'의 선행 모음이 'ㅣ'이면 j 반모음화 혹은 반모음 삽입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ㄷ 불규칙(B)'나 'ㅂ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의 경우는 모음 어미 앞에서 말자음 'ㄷ, ㅂ'이 없는 이형태가 직접 어미와 결합하므로 'ㄷ, ㅂ'의 선행 모음이 'ㅣ'일 때 j 반모음화 혹은 반모음 삽입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들의 교체 양상 역시 이상의 어간들과 같다. 다만 선행 자음이 구개음일 경우에는 표면상 반모음 j 가 나타나지 않는데(예: 쩌:서, 저:라) 이것은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방언에서 '구개음 - jV' 연결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17) a. 찧:(搗) + 어 → 찌어 놨:어요~쩌:서, 찧:지

b. 깃:/기:(헤진곳을~) + 어 → 겨:~기여 입는다, 깃:는다

짓:/지:(집을~) + 어라 → 저:라~지여서, 짓:는다

잇:/이:(繼) + 어라 → 여:라~이여, 잇:구

c. 구립/구리(방귀냄새가~) + 어 → 구려, 구립지

얄:밉/얄:미(憎) + 어서 → 얄:며서, 얄:밉게

졸:립/졸:리(眠) + 어서 → 졸:려서, 졸:립다구

(17a)는 우선 '찧: + 어 → (찌허) → 찌어'의 단계를 거친다. '찌어'에서는 'ㅣ'와 'ㅓ'과 만나게 되므로 수의적으로 j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이 때 어두 자음이 구개음이기 때문에 j는 표면상 드러나지 않고 탈락하지만 보상적 장음화를 보면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17b)처럼 1음절 어간일 때는 수의적으로, (17c)처럼 다음절 어간일 때는 필수적으로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다음 예들은 교체에서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 양상이 불규칙적인 것으로, 기본·도출식 기술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행 자음이 구개음인 1음절 어간의 경우 표면상 j가 나타나지 않으며 보상적 장모음화가 없다. j의 경우는 앞서 본 음운배열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보상적 장모음화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선행 자음이 ∅ 인 '이-(戴)'의 경우에는 반모음화만을 보이고 j 삽입의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보상적 장모음화도 일반적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45)

45)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들은 'ㅣ' 어간처럼 보이지만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모음화나 반모음 삽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히다'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반모음삽입형으로만 나타나고(히어) 반모음화형으로 되는 일이 없다(혀:).

②'피다(敗), 키다(톱으로 나무를~), 키다(點火), 키다(기지개를~)'는 모음 어미 앞에서 '펴, 켜'를 어간으로 가진다.

③'-시-' 어간확대형('주무시다' 등)은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X세-'로 나타난다.

④'싸이다(積)'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으로, 규칙적인 '싸여' 외에 '쌔:'도 가지고 있다(쌔: 있다 · 쌔:갖구).

⑤'비:다(被見)'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으로 '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8) a. 지다(꽃이~) - 저서, 지지
찌다(살이~) - 쪘었다, 찌는
치다(打) - 처라, 치구
b. 이다(戴) - 여·여 날르지·여다 먹지·여:, 이구

j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은 위에서 살펴 본 w 반모음화의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w 반모음화의 경우는 1음절 장음 어간일 때만 수의적이었다. j 반모음화는 1음절 어간이기만 하면 수의적이다. 바꾸어 말해서 반모음화 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w 반모음화의 경우가 더 넓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모음화인 wj 반모음화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흔히 표준어 자료에서 단어 경계에서 반모음화가 적용된 예로 든 '-지 않다'는 이 방언에서는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46)

(19) a. 가주 가는 사:람이 없ㅆ:지 않아요?
전:장(戰爭)했지 않아요?
큰 벌이지 않아?
b. 녹지 않우?

4.2.2.3 wj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

(20) a. 뛰 + 어 → 뚜ㅕ: /t'wjʌ:/ ~뛰여, 뛴다
튀 + 어서 → 투ㅕ:서, 튄다

(비: 주니까). '비:다'는 '보이다 > 뵈:다 > 베:다 > 비:다'와 같은 역사적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비: 주니까'는 '*베:다' 시기의 활용형으로 생각된다(베: + 어 주다 → 베: 주다 > 비: 주다).

46) 단어 경계에서 일어나는 반모음화에 대해서는 宋喆儀(1995a:280f) 참조.

휘 + 어 → 후ㅕ: · 휘어 바:라, 휘는

b. 쉬:(腐) + 어 → 쉬여 · 쉬어서, 쉬:진

뉘:(使臥) + 어가주구 → 누ㅕ:가주구 · 뉘여, 뉘:지

쥐:(주먹을~) + 어라 → 주ㅕ:라, 쥐:지

뀌:(돈을~) + 어 → 꾸ㅕ: · 뀌여, 뀌:지

c. 사귀 + 었구나 → 사구ㅕㅆ구나, 사귀느냐

바뀌 + 어서 → 바꾸ㅕ서, 바뀌는

할퀴 + 어서 → 할쿠ㅕ서, 할퀴지

사위 + 었다 → 사우ㅕㅆ다, 사위구

이 반모음화는 1음절 어간일 때는 수의적으로, 다음절 어간일 때는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양상이 j 반모음화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j 반모음화와 마찬가지로 다음절 어간일 때는 반모음 삽입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

이제 세 반모음화 규칙의 적용 양상을 모아서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1음절		다음절
	장음	단음	
w 반모음화	수의적	필수적	
j 반모음화	수의적		필수적
wj 반모음화	수의적		필수적

두 부류의 반모음화가 그 적용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음운과정 사이의 경쟁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은 동일한 목적을(모음충돌 회피) 가지고 동일한 환경에서 적용되는 음운과정이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j 삽입은 있지만 w 삽입 같은 음운과정은 없다. 다시 말해서 w 반모음화의 경

우는 해당 음운 환경에서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j, wj 반모음화의 경우는 j 삽입이라는 음운과정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j, wj 반모음화는 w 반모음화에 비해 필수적인 적용 영역이 좁아지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wj 반모음화와 관련하여 음운 분석의 문제가 생긴다. wj 반모음화가 적용된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ㅜㅕ'는 장음일 때는 [ɥə:], 단음일 때는 [ɥʌ] 이다.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ə:]와 [ʌ]는 음장에 따른 상보적 분포를 보이므로 하나의 음소 /ㅓ/의 변이음으로 처리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반모음 [ɥ]를 어떤 음소로 처리할 것인가이다.[47]

가장 간단한 방법은 [ɥ]를 j 의 원순음인 반모음 /ɥ/로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방언의 반모음은 세 개가 된다(w, j, ɥ). 당연히 이중모음 목록도 달라지게 된다. 이 때 반모음 ɥ 는 모음 'ㅓ'와만 결합하고 어간 말음이 'ㄲ'인 용언의 활용형에서만 나타난다는 기술이 불가피하게 된다. 최소대립쌍도 물론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ɥ]는 /wj/로 음소 분석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ɥə:](또는 [ɥʌ])는 /wjʌ/로 분석되는데 이 때도 이 모음 연쇄를 모음체계의 어느 부분에 편입시켜야 할 지는 문제로 남는다. (補註 5)

어간 말음이 'ㄲ'인 용언 어간들의 다음과 같은 활용형들은 표면상으로는 w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활용형이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남아 있는 예들이다(3장 참조).

(21) 잘 안 홰저, 뛔:서, 사웨서, 뛔: 들어가주구, 눼:라, 뷔:서래두 쓰지, 쉐:라

47) 반모음화의 결과로 생기는 이중모음에 대한 음소 분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宋喆儀 (1995a:286f) 참조.

4.3 자음과 모음 사이의 음운과정 : -CV-, -VC-

4.3.1 'ㅎ' 탈락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ㅎ'은 비어두 위치에서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나타난다. 비어두 위치에서 'ㅎ'은 선행 음절의 자음이 비음이나 유음일 경우에 가장 자주 나타나고 모음 사이에서는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음운배열제약을 반영한 음운과정이 'ㅎ 탈락'이다.

체언의 경우 'ㅎ' 어간은 없고 체언 어미 중 'ㅎ'으로 시작되는 것은 '-허구, -한테(~헌테)'가 있다.

(1) a. 돌석이 + *할라 → 돌석이알라 <천.40>
    b. 종이 + 허구 → 종이어구
    c. 시어머니 + 한테 → 시어머니안테

선행 체언이 모음 어간인 경우에는 'ㅎ 탈락'을 잘 관찰할 수 있었지만 다른 공명음 자음 'ㄴ, ㄹ'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 했다(대:통령허구두). 이것은 용언의 경우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예외 없이 'ㅎ'이 탈락하는 사실과 비교된다(않 + 으면 → 안으면).

용언의 경우는 체언과 반대로 용언 어미 중 'ㅎ'으로 시작되는 것은 없고 'ㅎ' 어간과 'ㅎ'이 포함된 자음군 어간 'ㄶ, ㅀ'이 있다. '좋:다'를 제외하면 'ㅎ 탈락'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좋:다'의 경우는 'ㅎ'이 탈락하지 않는 발음도 가능하다(좋:은).

(2) a. 좋: + 아서 → 조:아서, 좋: + 으면 → 조:으면, 좋:은, 좋:다
    찧: + 어 → 찌어 놨:어요 · 쩌:서, 찧:구

놓 + 아라 → 노아라~놔:라, 놓지

b. 괜찮 + 아서 → 괜찬아서, 괜찮 + 으면 → 괜찬으면, 괜찮지

끊 + 어서 → 끈어서, 끊 + 으면 → 끈으면, 끊지 마:라

많: + 어 → 만:어, 많: + 으나 → 만:으나, 많:다

점:잖 + 아서 → 점:잔아서, 점:잖 + 은 → 점:잔은, 점:잖다

c. 앓 + 어서 → 알어서, 앓 + 으믄 → 알으믄, 앓구

꿇 + 어서 → 꿀어서, 꿇 + 으면 → 꿀으면, 꿇구

닳 + 어 → 달어, 닳 + 으니까 → 달으니까, 닳두룩

옳 + 아서 → 올아서, 옳 + 으면 → 올으면, 옳지

읾:(조리로 쌀을~) + 어야 → 일어야, 읾: + 으믄 → 일으믄, 읾:구

'ㅎ 탈락'의 환경은 비어두로 한정되기 때문에 단어 경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a. 펌프가 하나 있다고 해

b. 지끔은 하얀 밀까루두 맛없다구 다 버리지

'낳:다'와 같이 'ㅎ 불규칙(B)'에 속하는 어간 혹은 '까:맣다'와 같이 'ㅎ 불규칙(C)'에 속하는 어간들은 자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어간 말음으로 '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ㅎ 탈락'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ㅎ'이 없는 이형태가 모음과 직접 결합하는 것이다.

4.3.2 w **탈락**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순음이 w계 이중모음과 결합한 예는 '뷁:, 뭐:' 이외에는 없다. 더구나 이것들도 각각 '부엌, 무어'에서 모음충

돌 회피를 통해 생긴 단어들로 원래 양순음 아래 w가 오는 예는 아니다. 양순음의 [순음성] 자질과 w의 [순음성] 자질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데서 오는 제약이 양순음과 반모음 w의 연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이 반영된 것이 양순음 아래에서의 w 탈락이다. 특히 보조 용언으로 사용된 '보다'의 활용형에서 이와 같은 예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w 탈락이 특별히 '보조 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항상 비어두에 위치하는 보조 용언의 음운론적 특징이 w 탈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w 탈락은 비어두 위치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4) a. 휘어 보 + 아라 → 휘어 봐:라 → 휘어 바:라
사귀어 보 + 아서 → 사궤 봐서 → 사궤 바서
b. 불 꺼:지까 바서
조은 사람 아이들 나오까 바
c. 심심허니까 불르는 노랜가 바

4.3.3 구개음화

어간 말음이 치조음일 때 어미의 두음이 'ㅣ'이면 조음위치상의 변동을 일으켜 (경)구개음으로 대치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라고 부른다.

체언 어간 중 'ㄷ, ㄸ' 어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ㅌ' 어간만이 구개음화의 환경이 된다.

(5) 겉 + 이 → 거치, 겉은
끝 + 이 → 끄치, 끝에서
솥 + 이구 → 소치구, 솥으루

바깥 + 이라구 → 바까치라구, 바깥으루

벹 + 이 → 베치, 벹에다가

용언 어간에는 'ㄷ, ㅌ, ㄹㅌ' 어간이 구개음화의 환경이 되지만 용언 어미 중 'ㅣ'나 j 로 시작되는 것이 없으므로 활용에서는 구개음화를 논할 수 없다.[48]

---

48) 다만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 겉 + 이 → 거치

이 때의 '겉-'과 결합하는 접미사 '-이'는 파생 접사와 활용 어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과학원언어문화연구소 1960:469).
'-이'를 파생 접사로만 보기 어려운 것은 이 '-이'가 결합된 '겉이'가 '명사 + (과/와)'와 같은 보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생(과) 겉이
큰 학생 겉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겉이

이 때의 '-이'가 파생접미사라면 '겉이'는 (파생) 부사로 보아야 할텐데 부사가 '학생(과)'와 같은 보어를 요구한다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진정한 활용 어미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다른 활용 어미와 달리 교착할 수 있는 어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가 활용 어미로 기능하는 어간은 '없다' 및 '같다, 다르다, 가깝다, 비슷하다, 동등하다, 근사하다' 등 몇몇 형용사에 한정되어 있다.

나는 돈(이) 없이 생활한다
철수는 나와 달리 돈이 많다

결합할 수 있는 어간이 이처럼 극도로 한정된 활용 어미는 국어에서 그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다.
공시론적으로 '겉이'는 파생어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의 활용 어미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면 활용에서의 구개음화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4.3.4 'ㄴ' 삽입

'ㄴ 삽입'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나 활용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① 접두파생어나 복합어의 구성 요소 사이[49] ② 단어 경계 그리고 ③ 종결어미와 '-요' 사이에서 나타난다.

다음의 예는 접두파생어와 복합어 형성시 나타나는 'ㄴ 삽입'의 예이다.

(6) a. 햇닐, 한녀름, 진닐
    b. 밭닐, 겹니불, 늣뇨강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의 두음이 /i/ 혹은 /j/일 경우에 'ㄴ'이 삽입된다.
단어 경계에서도 'ㄴ 삽입'이 일어나는 음운론적 환경은 동일하다.

(7) a. 못: 닑어, 읽어서
    복(服) 닙은 사람, 입구
    b. 간장똑을 못: 녈어 놔, 열:면

단어 경계에서의 'ㄴ 삽입'이 단어형성시 나타나는 'ㄴ 삽입'과 다른 점은 단어 경계에서의 'ㄴ 삽입'은 그 실현 예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

49) '-용, -양'(산업뇽, 김냥) 등의 한자계 접미사를 제외하면 접미파생어에서 'ㄴ 삽입'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먹이, 절름발이, 애:꾸눈이

(8) a. 다른 집 있는 건 모른다구
b. 얼굴은 얌전하게 생겼는데

이상의 예들은 'ㄴ 삽입'의 음운론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ㄴ 삽입'이 일어나지 않은 예이다.

실제로 일상의 발화에서 'ㄴ 삽입'은 그렇게 빈번히 발견되는 음운현상은 아니다. 단어 경계에서 나타나는 'ㄴ 삽입'에는 구성의 긴밀성과 같은 비음운론적 조건이 첨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요소의 자음이 'ㄹ'일 경우에는 'ㄴ 삽입' 이후에 다시 유음화가 적용된다.

(9) a. 솔립
b. 알략(알약), 시굴 령감님

(10) 그거 축하헐 릴이구나 그랬어요

종결어미와 '-요' 사이에서도 수의적으로 'ㄴ 삽입'이 보인다.[50]

(11) a. 사:람이 많:드군뇨
b. 그룹게 크진 않을걸료?

50) 다음과 같은 예는 통시적인 'ㄴ 삽입'으로 'ㄴ 삽입'이 일어나는 음운론적 환경도 다른 것들이다.

갠천, 신체(屍體), 안직

4.3.5 원순모음화

양순음 'ㅂ, ㅃ, ㅍ'과 모음 'ㅡ'가 연결될 때 양순음의 [순음성] 때문에 평순모음 'ㅡ'가 원순모음 'ㅜ'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원순모음화'라고 한다.[51]

체언 어미 중 원순모음화의 환경이 되는 것은 '-을, -은, -으루, -으루서' 그리고 '남' 뒤에 나타나는 '으'가 있다.

(12) a. 쉬염 + 을 → ?쉬염을
무릅 + 은 → ?무릅을
앞 + 은 → ?앞은
여덟 + 을 → ?여덟을
b. 남으 ~ 남우

'남으~남우'를 제외하면 체언과 조사 결합의 경우 명확하게 원순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관찰하지 못 했기 때문에 물음표(?)로 표시해 두었다. 그러나 '남으'의 경우는 공시적으로 '남'과 '으'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남으' 자체가 하나의 화석형으로 굳어진 것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잘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용언 어미 중 원순모음화의 환경이 되는 것은 매개모음 어미 전부이다. 그리고 'ㅡ' 어간 중 선행 자음이 양순음인 용언 어간(어간확대형 포함)도 문제가 된다.

(13) a. 가냘프 + 다구 → 가냘푸다구

---

51) 이 때 양순음 뒤에 나타나는 모음은 음성적으로 'ㅡ'와 'ㅜ'의 중간 발음 정도로 느껴진다. 이 방언에서는 비어두 위치에서 'ㅡ'와 'ㅜ'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양순음 아래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

고프 + 믄 → 고푸믄, 고프지

서글프 + 다 그러지 → 서글푸다 그러지, 서글프 + ㄴ → 서글푼

슬프 + 면 → 슬푸면, 슬프다

아프 + 면 → 아푸면, 아프지

어:슬프 + 게 → 어:슬푸게

헤:프 + 다구 → 헤:푸다구, 헤:프게

가쁘 + 면 → 가뿌면, 가쁘지

기쁘 + 면 → 기뿌면, 기쁘다

b. 깊으 + 면 → 기푸면, 기프진 않다

(14) 수집 + 으면 → ?수집으면

엎 + 으믄 → 엎우믄

다듬 + 을 → ?다듬을 쩨

(15) 넓 + 으니? → ?넓으니?

닮 + 으면 → ?닮으면

활용의 경우도 기술 자체부터 문제가 된다. 'ㅡ' 뒤에 양순음이 오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ㅜ'에 가깝게 실현된다(고푸믄, 기푸면). 그러나 양순음이 아닌 경우는 'ㅜ'로 실현되기도 하고(서글푸다 그러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헤:프게).

조사된 자료가 보여 주는 양상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①이 방언의 음운사 ②개화기 자료에 나타난 표기 그리고 ③제보자의 철자법에 구애받지 않은 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어형들은 이 방언에 실재하는 것들로 생각된다.[52]

52) 그러므로 자료로 제시된 어형 중 실제로는 더 많은 예들이 원순모음일 가능성도 있다.

첫째로 용언 어간은 의존형태소이므로 늘 활용형으로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 활용형 자체는 근대국어 시기(17세기말경) 일어난 원순모음화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의 표기법들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중세국어 (원순모음화 적용 전)	근대국어 (원순모음화 적용 後)
슬프다	슬푸다
슬퍼	슬퍼
슬프면	슬푸면

둘째로 개화기 자료에 나타난 표기를 보면 이러한 원순모음화는 이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의적이기는 하나 원순모음화를 반영한 표기들이 많이 나타난다.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와 적용된 예를 차례로 제시하도록 한다.

(16) a. ᄇᆡ 고픈 거슬 좀 ᄎᆞᆷ앗더면 <귀의성>(1906)
a'. 슌이가 ᄇᆡ 고푸깃다 어셔 밥 지여 먹여라 <귀의성>
b. 슐을 취ᄒᆞᄆᆡ 슬프고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독립신문 1896.6.27>
b'. 등에 지고 슬푸게 울기ᄂᆞᆫ 다름 아니라 <독립신문 1897.5.15>
c. 여간 압프고 여간 위ᄐᆡᄒᆞᆷ을 무릅시고 <독립신문 1897.2.20>
c'. ᄡᅣᆷ을 쳐도 아푸지 아니할 만ᄒᆞ고 <귀의성>
d. 엇지 깃브지 아니ᄒᆞ리요 <독립신문 1898.5.10>
d'. 진실노 깃부고 다힝ᄒᆞ거니와 <대한매일신보 1908.6.7>

(17) a. 先祖의 怨讐를 갚으려다가 <朝鮮上古文化史 1900>
a'.원수를 다 갑풀 터이니 그 원수 갑흔 후에 <귀의성>
b. 이름이 一時에 높은 이다 <朝鮮武士英雄傳 1919>

b'. 놉푼 언덕에셔 ᄯᅥ러져 쥭ᄂᆞᆫ 것을 보고 <혈의루>(1906)

(18) a. 사ᄅᆞᆷ이 발브면 목이 아니 부러지고 셩ᄒᆞ겟ᄂᆞ냐 <대한매일신보 1908.4.16>

a'. 츈천집의 뒤를 발부러 와셔 이 방문 여러 보고 <귀의성>

b. 얄븐 어름을 발븐듯시 <대한매일신보 1908.1.10>

b'. 가을 하놀에 얄분 구름은 고기비놀갓치 연ᄒᆞ고 <추월색>(1912)

c. 그 즁에 원 절믄 냥반 ᄒᆞ나히 졍자관 쓰고 <은세계>(1908)

c'. 언ᄯᅳᆺ 보면 절문 부인 갓흐나 자세 보면 <치악산>(1908)

마지막으로 현대적 정서법에 익숙하지 않은 제보자들은 자주 원순모음화된 어형을 표기에 반영시킨다.

(19) 이뿌다구

아푸지만 국은 끄려야지

그러므로 활용의 경우에는 형태소 경계에서 수의적으로 원순모음화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3)]

'슬프다, 슬퍼서, 슬푸면'과 같은 활용형에서 추출되는 이형태는 '슬프, 슬ㅍ, 슬푸'이다. 공시적인 음운과정으로서 원순모음화를 확인하였으므로 '슬프'와 '슬ㅍ'의 관계는 'ㅡ' 탈락 규칙으로, 다시 '슬푸'와 '슬프'의

53) 이것은 19세기 국어에서 보이는 원순모음화의 적용 양상과 같은 것이다(李秉根 1976=1979:130 참조).
용언 어간 중 어간말 자음이 'ㅂ, ㅁ'인 예가 발견되지 않는데 'ㅂ, ㅁ' 어간은 대부분 분철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것은 'ㅂ, ㅁ' 어간일 경우에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양순음이 'ㅡ' 모음의 선행 자음으로 직접적으로 연철되어 표기될 때 원순모음화를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장물이나 잡은 듯이 야단을 ᄒᆞᆫ참 ᄒᆞᄂᆞᆫ듸 <모란병>(1911)
두 가지만 품은 것이 안이라 <구마검>(1908)

관계는 원순모음화 규칙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기본형은 '슬프-'로 잡을 수 있다.[54)]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ㅡ' 탈락과는 달리 '원순모음화'는 수의적인 음운과정이다. 표준어의 '-으면'에 해당하는 '-으믄'은 원순모음화되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分}을 의미하는 어간의 활용형은 '노누다, 노나, 노누면'처럼 나타나는데 이것도 선행 모음 'ㅗ'에 의한 원순모음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55)]

4.4 음운과정 사이의 관계

이제까지 기본형과 교체형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음운과정들을 검토해 보았다. 기본형에 하나의 음운과정만이 적용되어 교체형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지만(뜨 + 어 → 떠) 일반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음운과정이 적용되어 교체형이 도출된다.

둘 이상의 음운과정이 적용될 때 두 음운과정 사이의 관계는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해 두 음운과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ㅎ 탈락'과 '반모음화'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놓(置) + 아라'에 적용될 수 있는 음운과정은 'ㅎ 탈락'뿐이다. 'ㅎ 탈락'에 의해 '노아라'가 도출되면 여기에는 다시 'w 반모음화'

---

54) 공시적인 원순모음화 규칙을 부정하면 원순모음화를 겪은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는 각각 독립적으로 어미와 결합한다고 설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명 방법으로는 '슬푸-'와 '슬프-' 혹은 '슬푸-'와 '슬ㅍ-'가 각각 기본형이 된다(金星奎 1989, 崔明玉 1993=1998a:262-4).

55) 김경아(2000:294-9)에서는 이렇게 동화주가 모음 'ㅜ'인 경우는 '원순성동화'라고 하여 원순모음화와 구별한다.

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므로 'w 반모음화'가 비로소 적용된다(노아라→놔:라).

두 음운과정 사이의 관계가 선택적인 경우도 있다.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시(酸) + 어서'에 적용될 수 있는 음운과정은 'j 반모음화'도 있지만 'j 삽입'도 있다.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셔:서'가, 반모음 삽입이 적용되면 '시여서'가 도출된다. 두 음운과정 중 어느 것이든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음운과정이 서로 관계는 있으되 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경음화 1'과 '후부변자음화'가 그 예인데 '업(負) + 구'에는 '경음화 1'도 적용될 수 있고 '후부변자음화'도 적용될 수 있다. 경음화가 먼저 적용되어도 후부변자음화는 적용될 수 있고(업꾸→억꾸), 후부변자음화가 먼저 적용되어도 경음화는 적용될 수 있다(억구→억꾸).

이 방언에서 두 번째 유형인 선택 관계에 있는 음운과정은 '반모음화'와 '반모음 삽입'뿐이다.

(1) 반모음화 ↔ 반모음 삽입

시(酸) + 어서 → 셔:서
↘
시여

뛰(走) + 어 → 뚜ㅓ:
↘
뛰여

음운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음운과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평음화, 치조폐쇄음화 → 경음화 1

결 + 두 → (겯두) → 겯뚜

볶 + 다가 → (복다가) → 복따가

(3) 평음화, 치조폐쇄음화 → 비음화

앞 + 만 → (압만) → 암만

좇: + 는다 → (졷:는다) → 존:는다

(4) 평음화, 치조폐쇄음화 → 격음화

낮 + 허구 → (낟허구) → 나터구

(5) 경음화 1 → 자음군단순화 (용언 어간에만 적용됨)

읽 + 구 → (읽꾸) → 일꾸

(6) 자음군단순화 → 비음화

삯ㅆ + 만큼 → (삭만큼) → 상만큼

읽 + 는다 → (익는다) → 잉는다

(7) 자음군단순화 → 유음화

끓 + 는지 → (끌는지) → 끌른지

(8) 자음군단순화 → 격음화

값ㅆ + 허구 → (갑허구) → 가퍼구

(9) ㄴ삽입 → 유음화

헐 일 → (헐 닐) → 헐 릴

(10) ㅎ 탈락 → w, j 반모음화

놓(置) + 아라 → (노하라) → 노아라 → 놔:라

찧:(搗) + 어 → (찌허) → 찌어 → 쩌:

위의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음운과정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경음화 1'과 '격음화', '모음 탈락'과 '반모음화' 등은 서로 적용되는 환경이 다르므로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생각할 수 없다.

V. 결 론

본고는 서울방언을 대상으로 음운론과 형태음운론에 관련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서울방언'이란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 온 토박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리킨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앙어, 공통어' 등으로 불리고 있는, 현재 서울에서 쓰이는 언어와는 같지 않다. 물론 표준어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개별언어가 여러 개의 방언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당 방언 역시 몇 개의 하위방언들로 이루어진다. 서울은 중부 특히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울방언은 경기방언의 하위방언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중부방언 혹은 경기방언과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기 중부에 해당하는 '고양, 옹진, 시흥, 양평'과는 모음조화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동질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화자들은 모국어에 대해서 음소의 구별만이 가능할 뿐 변이음 사이의 구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변이음 [ʌ]와 [ə:]가 토박이화자들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다. 물론 여기에는 음장도 큰 단서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다른 모음 변이음들과 달리 [ʌ]와 [ə:]는 조음위치 자체도 크게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힌트가 된다. 그러므로 이 지역 토박이 화자들은 '얼:구(凍)'의 'ㅓ:'와 '얼어서'의 'ㅓ'를 구분할 줄 안다.

다른 경기방언과 마찬가지로 서울방언 역시 표준어와 구별되는 방언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음운면에서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인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기방언에서 발견되는 비원순모음화, 'ㅎ, ㄱ' 구개음화, ㅣ모음역행동화 등은 이 방언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원순모음화 때문에 표준어의 '높다, 보리, -보다' 등은 이 방언에서는 '넢다, 버리, -버덤' 등으로 나타나고 'ㅎ' 구개음화 때문에 'ㅎ'과 j 계 이중모음의 결합이 사라진 예도 있다(숭(흉), 상근허다(향긋하다), 성제(형제)). 'ㄱ' 구개음화는 'ㅎ' 구개음화에 비해서도 더 미약했던 듯한데(줄(귤), 조군(轎軍)) 중부방언의 구개음화는 주로 'ㄷ' 구개음화에 한정되므로 이는 남부방언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ㅣ모음역행동화'도 환경만 주어지면 대부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안짬재기, 넹기다(使越), 딜이키다, 모튕이).

이 방언의 용언 어간말 모음체계에는 비원순중모음인 'ㅔ, ㅓ'가 비어 있다. 현재도 어간 말음 'ㅔ:'가 'ㅣ:'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떼:다 ~ 띠: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장음인 중모음이 고모음으로 모음상승을 일으키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 현상은 장음이 나타나는 어두로 한정된다(뭅:시, 을:마나, 뒤:게, 시:배). 모음의 결합은 극도로 제약되어 있어서 표준어의 '-ㅐㅏ-'와 같은 모음연결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뺏:다, 배:지, 맴:) 반모음화가 가능한 환경이면 대부분 반모음화를 통해 모음충돌을 해소한다. 따라서 표준어의 '또아리, 누에, 이엉' 등은 이 방언에서는 '똬:리, 눼:, 영:' 등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형태소 경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두어, 버티어, 바꿔어'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늘 반모음화되어 '둬:, 버텨, 바꾸ㅕ' 등으로만 존재한다.

현재 공시적인 모음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전 시기 모음 'ㆍ'를 가졌던 단어들이 'ㅓ'로 반사된 예가 발견되는데(네리다 < ᄂᆞ리다, 겉다 < ᄀᆞᆮᄒᆞ다, 허다 < ᄒᆞ다, -꺼장 < ᄭᆞ장) 이것은 이 두 모음이 체계 안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서울방언이 경기중부방언과 가장 흡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이들 지역에서 보이는 모음조화의 양상이 같기 때문이다. 어간말 모음이 'ㅗ'일 때는 필수적으로 어미 '아X'를 취하고(좋아) 'ㅏ'일 때는 수의적이다(안아 ~ 안어 抱). 어간말 모음이 두 모음 이외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어미 '어X'를 취한다(신어, 뺏:어라, 늦었다, 넘어). 이른바 'ㅂ 불규칙용언'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간말 모음이 고모음이 아닐 때는 어미 '아X'를 취해서 모음조화에 관한 한 독립적인 부류를 이룬다(매와, 더와서).

이 방언의 체언 어간말 자음체계는 현재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어간 말음이 장애음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데 양순음과 연구개음인 경우에는 각각 'ㅂ, ㄱ'으로, 치조음과 경구개음인 경우에는 'ㅅ'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다. 어간 말음이 자음군인 경우에도 이러한 재구조화의 경향이 보이지만 '부엌, 여덟, 돐ㅆ, 넋ㅆ' 등의 예는 체언 어간 말음에 대해서 이 방언이 아직도 보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어의 이른바 '르 불규칙용언'은 이 방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규칙적인 'ㅡ' 어간 용언이다(걸르다 濾過, 골:르다 選, 발르다 塗). 따라서 '골:르지, 골:라서, 골:르믄'과 같은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이른바 'ㅂ 불규칙용언' 역시 'Xup-'처럼 어간의 모습이 변하고 있고(덥:다! ~더웁다) 원래는 자음 어간이던 것이 'ㅡ'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 예들도 있고(깊으다, 깎으다, 줏으다, 읊으다) 고모음인 'ㅜ' 탈락으로 모음 어간 중 마지막 음절이 '우'인 예는 찾아 보기 힘들다(지우다 ~ 지:다, 메우다 ~ 메:다, 외우다 ~ 외:다, 배우다 ~ 배:다). 그러나 이러한 용언 어간들의 재구조화는 이 방언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부류를 이루지 않고 개별 어간이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양상을 보

이는 경우도 있다. '싫다(厭), 발르다(가시를~), 취허다(醉)'는 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실여, 발려, 쵀:' 등으로 나타난다. 계사 '-이다'의 반말형은 '-이야'로 나타난다.

또 본고에서 'ㅎ 불규칙(A), ㅎ 불규칙(B), ㄷ 불규칙(B)'로 분류한 용언 어간들은 어미 '-는다/ㄴ다, -습니다/ㅂ니다'와 결합할 때 대체로 모음 어간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놓다 置 - 논다, 낳:다 産 - 난:다, 짓:다 作 - 진:다).

표준어의 조사 '-도, -고, -도록'은 언제나 '-두, -구, -두룩'으로만 나타난다. 'ㅗ > ㅜ'의 음운변화를 겪은 것이다. 한편 '-드키, -할라'는 사전에는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표준어의 '-(으)면'은 일상의 발화에서는 '-(으)믄~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싫으믄, 딜이먼). '- (으)니까는~(으)니깐, -(으)우' 등도 이 방언의 특색 있는 어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으)우'는 '-다우, -(으)ㅂ디다, -(으)ㅂ디까?, -(으)ㄹ라우?' 등과 함께 '허우체'를 이루는 주된 어미이다.

서울방언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중 일부는 일본어로부터 수입된 것이다(고:반소(交番), 다대미(다다미), 가이당(階段) 등). 나머지는 대부분 영어로부터 수입된 것인데(껌:, 아빠뜨, 햄:버거 등) '도라꾸 ~ 추럭'처럼 유입된 시기에 따라 발음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슬다(눈이~), 전:다!(鹽漬), {意圖}를 의미하는 '-(으)라'(비지 먹으라가), 어간 '오-' 뒤에서만 나타나는 '-나라'(놀:라 오나라)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방언에는 이전 시기의 고형을 그대로 간직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음운, 문법 부문과 마찬가지로 어휘 역시 다른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데우다, 오라범땍, 성나다' 등은 방언형인 '뎁히다, 올케, 삐치다' 등과 공존하고 있거나 방언형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방언은 표준어 정립과 국어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방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내용은 서울방언 문법의 전체 모습이 아니다. 문법론의 시각에서 정리된 기술문법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방언 역시 여타 방언과 마찬가지로 세대에 따른 변화의 양상이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 역시 시급하다 하겠다. 서울방언 문법의 諸相이 드러나면 표준어 정립과 국어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補註 1)

白斗鉉(1991)에서 서울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자료는 林圭의 ≪日本語學音・語編≫(1912)이다. 그러나 金武林(1991)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林圭는 全北 益山 출생이다. 서울방언 화자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전승(1995)를 보고서 알게 되었다.

(補註 2)

최근에 이현희(2005a, b)에서 현대국어의 '-이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었다. 현대국어 '-이서'는 중세국어 '-이셔'의 후대형이며(둘히셔 > 둘이서), 이 '-이셔'는 계사 어간에 문법형태 '-셔'가 통합된 것이라는 역사적 해석이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의 '둘이서, 셋이서'도 '둘 + 이서, 셋 + 이서'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 '人數'를 의미하는 일부 체언, 다시 말해서 '둘이, 셋이, 넷이, 다섯이, 여럿이, 몇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학생 둘이 학교에 간다'에서 '둘이'는 '둘 + 이'이고 이 때의 '이'는 현대국어의 주격 조사 '-이'로 분석하면 된다.

(補註 3)

ㅂ불규칙용언이 이른바 '모음조화'에 있어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보고가 다른 방언에도 있다. 그리고 그 특이한 양상이 어미 '아X'로의 편향이라는 점 역시 서울방언과 같다. 함북 육진방언(郭忠求 1994a:118f), 강릉방언(李翊燮 1972), 전북 무주방언(소강춘 1989), 강원도와 충북의 접경지역(봉화, 영풍, 문경, 예천)(崔明玉 1992 a=1998b:349)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한다.

(補註 4)

Kim-Renaud Y. K.(1975b:135)의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When the liquid l is followed by a stop or nasal in syllable final position, the l is optionally deleted:
>
> [ɨlp˺t'a] ~ [ɨp˺t'a]
> [ilk˺t'a] ~ [ik˺t'a]
> [kolmt'a] ~ [komt'a]

이호영(1996:144)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있다. 이 역시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한다.

> 겹받침 ㄼ, ㄿ, ㄺ은 화자에 따라 첫소리만 발음되기도 하고, 둘째 소리만 발음되기도 하고, 두 소리 모두 발음되기도 한다.
>
> 밟다 [발따]/[밥따]/[밟따], 읊다 [을따]/[읍따]/[읊따]
> 기슭 [기슬]/[기슥]/[기슭]

우리의 자료는 위의 둘 중 어느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ʧ'alpt'a
palpʧ'i · palpt'ira

ku:lkt'a
palkt'uruk
ilkt'ɯra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음절말에서 자음군이 모두 발음되는 것은 용언의 활용형에 한정된다. 명사의 경우는 이런 예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이 때 어간 말음은 ㄼ(짧다, 밟다), ㄺ(밝다, 읽다, 굵:다)인 경우이고 어미의 두음은 'ㄷ, ㅈ'으로 이른바 [-grave] 자질을 가진 것뿐이다. 이 현상은 서울 토박이 중에서도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만 더러 관찰되고 그 실현 자체도 산발적이다.

(補註 5)

[ɥ]의 음소 분석 문제를 최초로 언급한 논저는 남광우 · 이철수 · 유만근(1984)가 아닌가 한다. 사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술만이 보인다.

ɥiʌ 는 ɥə: 로 실현되기도 한다(viii 쪽)

이것은 예를 들어 '뛰어'가 일상적인 발화에서 '뚜ㅓ:'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宋喆儀(1995a:287)에서는 어간 모음 'ㅟ'의 음소 분석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ㅟ'가 단모음이면 /ɥə/로, 이중모음이면 /wjə/로(원문은 wyə)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둘의 절충안으로 본고와 같이 음성상으로는 [ɥə]이고 음소상으로는 /wjə/로 해석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 회의적인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신지영(2000)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신지영(2000:108)에서 든 예 중 1음절 어간과 다음절 어간 하나씩만 인용해 보도록 하는데 신지영(2000)의 자료에는 장음이 무시되었다.

/뛰 + 어/ → [뚜ㅕ] → [떠]

/사귀 + 어/ → [사구ㅕ] → [사겨]

이 예들은 해당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t'wi + ʌ/ → [t'wjʌ] → [t'jʌ]

축약 w탈락

즉 신지영(2000:108)의 해석에 따르면 어간 모음 'ㅟ'는 이중모음 wi인데 어미 ʌ와 결합하면 축약이 일어나 [wjʌ]와 같은 삼중모음(三重母音 triphthong)을 만들기도 하고 [w]가 탈락하여 [j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영어의 표면 음성형에서 관찰되는 이 치경 파찰음 [ts]나 우리말의 표면음성형에서 관찰되는 삼중모음 [wjʌ]는 영어나 우리말의 음소 체계 안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기저 음소 /t/와 /s/, /wi/와 /ʌ/가 형태소 경계를 두고 연결되면서 생기는 표면 음성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109쪽).

본문에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설명에 따르면 음성표기 [t'wjʌ]는 음운론적으로 /t'wiʌ/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장음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음절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적 장모음화를 상정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혁화(2002b:351)에서 /wjʌ/와 같은 음소 연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즉, 이런 음소 연쇄를 인정할 경우 '자음 + 반모음 + 반모음 +

모음'과 같은 특이한 음절 구조를 국어에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어의 일반적인 음절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신 이혁하(2002b)에서는 음소로서 반모음 /ɥ/를 설정하고 있다.

이혁화(2002b:351)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이 방언에서 '뚜ㅕ:'는 '뗘:'로 실현되기도 한다. 젊은 세대로 가면서 그 실현 빈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 현상은 반모음의 탈락 때문이다. 자음 뒤에서 반모음 탈락은 국어에서 흔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t'wjʌ:/ ~ /t'jʌ:/

그러나 '뚜ㅕ:'를 /t'ɥʌ:/로 분석한다면 '뗘:'와 같은 활용형은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반모음이 탈락한다면 '떠:ˣ'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I. 논저류

姜昶錫(1982) "現代國語의 形態素分析과 音韻現象 -活用, 曲用에서의 '으~∅'를 中心으로", 國語硏究 50(서울대).

_____(1985) "活用과 曲用에서의 形態論과 音韻論", 울산어문논집 2(울산대).

高永根(1978) "主格助詞의 한 種類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高永根(1989)에 "人數表示語와 그 格標識"로 재수록)

_____(1989) 國語形態論硏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權美永(1998) "江景 地域語의 共時音韻論的 硏究",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과학원언어문화연구소(1960) 조선어 문법 1 : 어음론 · 형태론, 평양:과학원출판사.

郭忠求(1984) "體言語幹末 舌端子音의 摩擦音化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91.

_____(1994a)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太學社.

_____(1994b) "系合 內에서의 單一化에 의한 語幹 再構造化", 국어학연구(南川朴甲洙先生華甲紀念論文集), 태학사.

_____(1996) "國語史 硏究와 國語 方言", 李基文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김경아(1990) "활용에 있어서의 기저형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4(서울대).

_____(1999) "형태음운론적 교체와 형태음운부", 형태론 1-2.

_____(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太學社.

김명운(1996) "현대국어 청자대우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연구 137(서울대).

金武林(1991) "林圭, "周時經論" 譯註", 周時經學報 8.

金鳳國(2000) "江陵 · 三陟 地域語의 滑音化", 韓國文化 26(서울대).

金星奎(1988) "非自動的 交替의 共時的 記述", 冠嶽語文硏究 9(서울대). (李秉根 · 宋喆儀 編(1998)에 재수록)

_____(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_____(1999) "잠재적 휴지의 실현", 先淸語文 27(서울대).

김성근(1995) 조선어어음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金完鎭(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 이른바 長母音의 境

選", 東亞文化 11(서울대). (李秉根 · 宋喆儀 編(1998)에 재수록)
_____(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硏究 14-2(서울대). (김완진(1996)에 재수록)
_____(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김정수(1998) "서울토박이말의 홀소리조직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학연구 10(서울시립대).
김정우(1994) "음운현상과 비음운론적 정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金周弼(1990) "國語 閉鎖音의 音聲的 特性과 音韻現象", 姜信沆敎授回甲紀念國語學論文集, 太學社. (李秉根 · 宋喆儀 編(1998)에 재수록)
_____(1994) "17 · 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진우(1988) 言語小典(II), 탑출판사.
김차균(1981) "음절 이론과 국어의 음운 규칙", 논문집 8-1(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차균(1983)에 재수록)
_____(1983) 음운론의 원리, 창학사.
김창섭(1991) "'하다' 형용사에서의 표현적 장음",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回甲紀念論叢), 民音社.
류응호(1956) "조선어 어음론 강의 (2)", 평양:조선어문 4.
박창원(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 國語學 17. (李秉根 · 宋喆儀 編(1998)에 재수록)
배주채(1989) "음절말 자음과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서울대).
_____(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 17(서울大). (李秉根 · 宋喆儀 編(1998)에 재수록)
_____(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周時經學報 11, 탑출판사.
_____(1995) 국어음운론개설, 신구문화사.
_____(1998) 고흥방언 음운론, 太學社.
白斗鉉(1991) "20세기초의 서울방언에 대한 일고찰", 龍淵語文論集 4(慶星大).
_____(1997) "19세기 국어의 音韻史的 고찰-母音論", 韓國文化 20(서울大).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宋喆儀(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 考察 – 訓民正音 創製初期文獻을 中心으로", 國語學 16.
_____(1990) "子音同化",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______(1991) "國語音韻論에 있어서 體言과 用言",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展開(金完鎭先生回甲紀念論叢), 民音社. (李秉根·宋喆儀 編(1998)에 재수록)
______(1993) "준말에 대한 形態·音韻論的 考察", 東洋學 23((檀國大).
______(1995a) "國語의 滑音化와 관련된 몇 問題", 檀國語文論集 創刊號(檀國大).
______(1995b) "'-었-'과 形態論",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______(2000) "形態論과 音韻論", 國語學 35.
宋喆儀·兪弼在(2000) "서울 방언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학 연구 15(서울시립대).
宋玄鎬(1996) "서울 地域語의 助詞",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安秉禧(1978)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硏究, 塔出版社.
엄태수(1994) "국어의 기저형과 음운규칙에 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엄태수(1999)에 재수록)
______(1999) 한국어의 음운규칙 연구, 국학자료원.
유필재(1994) "發話의 音韻論的 分析에 대한 硏究 - 單位 設定을 中心으로", 國語硏究 125(서울大).
______(1998a) "發話 分析의 音韻論的 單位", 李秉根·宋喆儀 編(1998) 音韻 I (國語學講座 4), 太學社.
______(1998b) "形態素構造制約과 形態論的 構成 - '프개(屝)'를 예로, 韓國文化 22(서울大).
______(2000a) "서울방언 용언 자음어간의 형태음운론", 國語學 35.
______(2000b) "'잡숫다'류 동사의 사전 기술", 서울말연구 1(서울말연구회), 박이정.
______(2002) "'뵙다'류 동사의 형태음운론", 韓國文化 29(서울大).
______(2006) "양순음 뒤 'ㅚ > ㅔ, ㅟ > ㅣ' 변화에 대하여", 이병근선생퇴임기념논총, 태학사.
李基文(1961) 國語史槪說, 民衆書林.
______(1972) 國語史槪說(改訂版), 塔出版社.
______(1977) 國語音韻史硏究(再版), 塔出版社.

李秉根(1970)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 9(서울大). (李秉根(1979)에 재수록)
_____(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李秉根(1979)에 재수록)
_____(1976) "19세기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국어국문학 72·3. (李秉根(1979)에 재수록)
_____(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李秉根(1979)에 재수록)
_____(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_____(1981) "流音 脫落의 音韻論과 形態論", 한글 173·174. (李秉根·宋喆儀 編(1998)에 재수록)
_____(1986) "發話에 있어서의 音長", 國語學 15. (李秉根·宋喆儀 編(1998)에 재수록)
_____(1989) "국어사전과 음운론", 애산학보 7. (이병근(2000)에 재수록)
_____(1990a) "音長의 辭典的 記述", 震檀學報 74. (이병근(2000)에 재수록)
_____(1990b) "辭典 및 辭典學",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_____(1991) "한 상숙 노인의 서울말", 밥해 먹으믄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18), 뿌리깊은나무.
_____(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李秉根·박경래(1992) "京畿方言에 대하여", 南北韓의 方言 硏究, 慶雲出版社.
李秉根·崔明玉(1997) 國語音韻論,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李秉根·宋喆儀 編(1998) 音韻 I (國語學講座 4), 太學社.
李秉根·朴昌遠 編(1998) 音韻 II(國語學講座 5), 太學社.
이상신(1998) "VyV 연쇄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상억(2000) "서울 옛말씨 분석 : '생인손' 등의 하층계급어법", 서울말연구1 (서울말연구회), 박이정.
이숭녕(1940) "'·'음고", 진단학보 12. (이숭녕국어학선집(Ⅰ)(1988)에 재수록)
이숭녕국어학선집(Ⅰ)(1988), 민음사.
李丞宰(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硏究 45(서울大).
_____(1985) "京畿地域의 聽者敬語法 語尾에 대하여 : 疑問法을 중심으로", 方言 8.
_____(1990) "子音體系 및 中和",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李翊燮(1972)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的 考察", 震檀學報 34.
이익섭·채 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學硏社.

이진호(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國語研究 147(서울大).
이혁화(2002a)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박이정.
______(2002b) "국어 반모음 'ɥ'의 음성학과 음운론", 어학연구 38-1(서울대).
李炫馥(1971a) "현대 서울말의 모음 음가", 語學研究 7-1(서울大).
______(1971b) "서울말의 모음체계", 語學研究 7-2(서울大).
이현희(2005a) "중세국어의 형태론적 두 현안", 임홍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마당, 태학사.
______(2005b) "현대국어의 화석과 그 역사적 해석", 國語學 45.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林錫圭(1999) "榮州 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國語研究 160(서울대).
田相範(1976) "現代國語에 있어서의 된소리現象", 언어 1-1.
정인호(1997) "ㅂ-불규칙 용언 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0.(李秉根·朴昌遠 編(1998)에 재수록)
崔明玉(1978) "東南方言의 세 音素", 國語學 7. (崔明玉(1998b)에 재수록)
(1980) 慶北 東海岸 方言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______(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出版部.
______(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p-, s-, t- 變則動詞를 中心으로", 國語學 14. (崔明玉(1998a)에 재수록)
______(1988)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li-, lə-, ɛ(jə)-, h- 變則動詞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24-1(서울大). (崔明玉(1998a)에 재수록)
______(1991) "語尾의 再構造化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崔明玉(1998a)에 재수록)
______(1992a) "慶尙北道의 方言地理學 - 副詞形 語尾 '-아X'의 母音調和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73. (崔明玉(1998b)에 재수록)
______(1992b) "北韓의 語音 研究", 語學研究 28-3(서울大). (崔明玉(1998a)에 재수록)
______(1993)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形의 單一化 方向", 省谷論叢 24. (崔明玉(1998a)에 재수록)
______(1998a) 國語音韻論과 資料, 태학사.
______(1998b) 한국어 方言研究의 실제, 태학사.
______(2000) "中國延邊地域의 韓國語 研究", 韓國文化 25(서울대).

최전승(1995) "전라방언의 통시적 연구 성과와 그 전망", 한국어方言史연구, 태학사.
崔鶴根(1963) "서울方言圈의 形成과 서울方言에 對해서", 鄕土서울 第19號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金敏洙・河東鎬・高永根(1979) 歷代韓國文法大系 [1]47, 塔出版社 에 재수록)
_____(1971) 우리말본(세번째고침), 정음문화사.
한영균(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冠岳語文硏究 10(서울大).
_____(1991) "母音體系의 再定立과 現代國語의 非音節化", 震檀學報 71・72 合併號
황대화(1986) 동해안 방언연구,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허 웅(1965) 國語音韻學(改稿新版), 正音社
_____(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_____(1991) 언어학, 샘문화사.

菅野裕臣(1981) 朝鮮語の入門, 東京:白水社
_____(1993) "R・I・아바네소프의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어 음운론", 朝鮮學報 147.
_____(1997) "朝鮮語の語基について", 日本語と外國語との對照研究 IV - 日本語と朝鮮語 下卷, 國立國語研究所.
龜井孝・河野六郎・千野榮一編(1996) 言語學大辭典 第6卷 述語編, 東京:三省堂.
梅田博之(1991) "서울말의 모음 변화에 대하여", 들메 서재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_____(1994) "韓國語の母音", 東京:言語研究 106.
河野六郎(1955) "朝鮮語", 世界言語概說 下卷, 研究社 (河野六郎著作集 1(1979)에 재수록)
河野六郎著作集 1(1979) 平凡社

Bloomfield, L.(1926) "A set of postulates for the science of language", Language 2. (Joos, M.(1957)에 재수록)
___________(1933) Language, Allen and Unwin.
Choi, E.Y.(1991) Postlexical Phonology in Korean, Hanshin Publishing Co.
Coates, R.(1994) "Morphophonemics", R. E. Asher ed.(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5, Pergamon Press.
Davenport, M. and S. J. Hannahs(1998) Introducing Phonetics and Phonology, Arnold.
Harris, Z. S.(1951)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wkins, P.(1984) Introducing Phonology, Hutchinson & Co. Ltd(1992, 1995 Routledge에서 재판).
Hockett, C. F.(1954) "Two Models of Grammatical Description", Word 10. (Joos, M. ed.(1966)에 재수록)
__________(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acMillan Company.
Joos, M. ed.(1966) Readings in Linguistics I (4th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m, Chin-W.(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김진우(1988) 에 재수록)
Kim, H. Y.(1992)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Hanshin Publishing Co.
Kim-Renaud Y. K.(1975a) "On h-deletion in Korean", 國語學 3.
__________(1975b)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
Lee, Ki-Moon(1964)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aische Jahrbücher 35.B.
Lee, Pyonggeun(1970) "Phonological & Morphophonological Studies in a Kyonggi Subdialect", 國語硏究 20(서울大).
Marouzeau, J.(1951) Lexique de la Terminologie Linguistique, Paris: Librairie Orientaliste Paul Geuthner.
Martin, S. E.(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__________(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Charles E. Tuttle Company.
Matthews, P. H.(1973)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mmerstein, A. H.(1977) Modern Phonology, University Park Press.
Trubetzkoy, N. S.(1939) Grundzüge ge der Phonologie(1989, 제7판), Vandenhoeck & Ruprecht(Baltaxe, C. A. M.譯(1969) Principles of Phon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문희 譯(1991) 음운학원론, 民音社).

Ⅱ. 사전류 및 기타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표준>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 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금성>

남광우 · 이철수 · 유만근(1984) 한국어표준발음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조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연세>

이희승 편(1994) 국어대사전(제3판), 民衆書林 <민중>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한글>

菅野裕臣 外(1991) コスモス朝和辭典(第2版), 白水社 <朝和>

小學館 · 金星出版社 編(1993) 朝鮮語辭典, 小學館.

Martin, S. E., Yang Ha Lee, Sung-Un Chang(1967), New Korean-English Dictionary, 민중서림. <韓美>

韓國方言資料集(Ⅰ) 京畿道篇(1995),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方言資料集(Ⅷ) 慶尙南道篇(1993),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方言資料集(Ⅸ) 濟州道篇(1995), 韓國精神文化硏究院

<부록>

Ⅰ. 체언 어미 목록

1. 격조사

-이/가

　　남편**이** 술이나 먹구 들와서 줘:정이나 허구 그러믄 …

　　비**가** 너무 오시며는 비 좀 끄치라구 …

-께서

　　부인**께서** 돌아가셨우? 온 저런 … <천.132>

-에서1/이서

　　조선일보사**에서** (사진을) 백여서 준 거에요

　　시집**이서** 출입을 아주 막아버리구 친정두 몇 년에 한 번 가구

-을/를~ㄹ

　　창:덕궁**을** 갖다 또 창:경원**을** 맨들어 놨어

　　그이가 나**를** 일굽살서버텀 끌:구 댕기면섬 핵교**를** 입학**을** 시켜준 거에요

　　앨: 써서 (농사를) 해 노면 서울싸람들 밥해 먹구 찍찍 쌀**을** 그냥 막 버리구

-에/으~이

　　고쟁이래는 건 여자**에** 옷이야

　　남**으** 말 ~ 남**우** 예편네

　　남**이** 나라 싸람이 와서 주권을 잡아가주구

-보덤~보담~보다

　　여기**보덤**은 가겹지만

　　나**보담** 넓은 존재에다가 편:지 허믄 올림이라구 쓰구

　　아빠뜨 칠층**보다** 더 높은 데다 매달아 놨으니까 남산에

-처럼

남처럼 똥 싸구 그런 게 행복이 아니다 (라구 생각허구)

-허구

대:통령**허구**두 손두 잡어 보구

-으루/루 (+ 다, 다가)

주소 성명을 다 일본이름**으루** 해서

개와가루**루** 닦는 거야

(풍선이) 하늘**루** 다:: 각각 날라 달아나

양회**루다가**

철싸**루다**

-으루서/루서

노:인**으루선**

경찰**루서**는

여자**루서**

-에/이 (+ 다, 다가)

서울**에** 살:길 (칠백년이야)

아이가 한 집**이** 셋:만 있어두

화:루**에다가** 숯불을 펴:서

방칫돌**에다** 다듬어서

-에서2 ~ 서/이서

그냥 바깥**에서**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에 말:만 듣구

미:국**서** 많:이 살다가, 어디**서** 온 손님인진 몰:라두

육이오때 우리집**이서** 우리 방에서 여기서 전:쟁을 했어요

-버텀~부텀 (-서 +)

그거**버텀** 고쳐야 돼

될 썽 부른 나무는 떡닙**부텀** 알아 본다 그러지

쌀서**버텀** 곡식이란 곡식은 다:: 농약으루만 길러내지

-꺼정(~꺼장)

옛:날엔 사:대 오:대꺼정 한 가족이 한 집이서 살었는데

시방꺼장

-알라(← 할라)

약국 심부름하는 애들과 사귀어 본 것도 돌석이알라 셋이나 되지만 <천.40>

-한테(~헌테)

옛:날엔 남편한테 반:말 안 써

우리 시누이두 시집가서 나헌테 무척 물어 봤거든 <한.75>

-더러

운전수더러 이 할머니 댁에꺼정 갖다 모:셔다 드리구 오나라 그러지

-께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이서/서

두 분이서 그냥 가시라구

혼자서 반찬두 잘해 먹구 자기가 전부 음식을 잘해요

2. 접속 조사

-이나/나 1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와

여자나 남자나 머리 기:다랗게 땋구

-허구

종이허구 연필을

3. 보조사

-은/는~ㄴ

어려운 사람에 집은 초가루 (짓:구)

그 때는 여자가 구:여왔어

중핵굔 그때 업:써었어요

-두

자주 델여다 보는 사람두 업써:구

-마당(~마담~마닥)

날마당 해: 버른허면 잘: 헐텐데

요새두 해마담 봉숭알 들여 <한.43>

고걸로 눈마닥 빗어 가면 따요 <한.118>

-만

부:잣집만 쓰지

-만큼

동대문서 여기 온 거만큼

-빽에

묻은 지 사흘빽에 안 됐는데

-이나/나 2

대림질이나 있우?

어른네니까 뭐 붙들기나 허지 대릴 쭌 몰:르지 않아

-커녕 (+ 은)

제:주도커녕 … 남대문 시장을 안 가봤어요

뜯어먹기커녕은 밀천까지 까먹어 버리구 <천.17>

-서껀

점료이서껀 용돌이서껀 세간짐 좀 날라다 줄 수 없겠느냐고 <천.60>

Ⅱ. 용언 어미 목록

1. 선어말어미

-겠-

(미군이) 그 신체(시체)들을 … 갖다 줄 수 있겠느냐구 그래

(시멘트) 저거 다 발르면 땅이 두껍겠다

-었/았-

약은 아침에 먹었구

할머니 왜 여기 와 앉었어요 어뒀으니 가세요

(눈이) 쪼금만 흐리지 않았으믄 똑똑이 보일텐데

-(으)시-

시어머니가 … 그 집에다 막갈리를 쭉쭉 끼얹으시드라 <한.70>

(시어머니가) … 배냇저고리 모도 맨드시구 <한.122>

2. 연결어미

-구

다:: 때려 부시구 공원을 맨들어놨어

-구서(~구서럼)

그러구서 강따리를 짤라놨어요

그리구 눈을 꼭 감구서럼 내가 혈압이 올라서 <한.150>

-거나

병: 고치거나 말거나 난 병:신허구 안 산다구

-기로~기루서니

아:니 돈:에 미쳤기로 멀건 어머니를 왜 미쳤다고 갖다 노:라 그러우

아무렇기루서니 <천.112>

-지

하나 업었지 하나 걸렸지

-는지/(으)ㄴ지

졸업식 허는데 졸업생이 이:래저래 시집을 갔는지 몇 명이 업ㅆ:어지구

그런데 춥지두 않은지 내가 그렇게 마루에가 앉아서 … <천.416>

두살인지 세살인지 먹어서 죽데 <한.27>

-는데/(으)ㄴ데

어:른이 안 듣는데 아이들이 듣겠어요?

그전엔 그렇게 잘르는 사람이 많:은데 시방은 죄다 잘라 버렸으니

남향집인데 부엌이 서쪽이야 <한.24>

-지만

큰 거는 먹을 께 있겠지만

-다가~다

소금을 솔솔:: 뿌렸다가

청소허다 치에 죽은 사람두 있구

-든지

기술이 있든지 학식이 있어야지 어디가 돈:을 벌지 않어?

-두룩

그때부텀 밝두룩 (대림질을) 헌단 말이야

-드키

(비둘기들이 고추씨를) 우리네 갈비탕 먹드키 먹어요

-길래

안 아프길래 가만이 있지 동여 매놓구 허니까

-느라구

그것들 사다가 먹느라구 냄빌 들구 댕기구 이랬지

-드니

(경마장이 옛날에는) 뚝섬에 가 있드니 요마적은 어딨는지 몰:라

-드라구

똥떵어리가 막 있**드라구** 우리 손주녀석이 …

-드래두

이구 와야지 차에 놔: 주**드래두**

-거든~거등(~거덩)

내가 병이 다 낫:**거든** 놀:라 오나라

졸웁을 허**거등** 보내겠다 그러니

그게 사실 미친병이**거덩**

-어서/아서

장:갈 갈텐데 옷:이 업씨**어서** 못 가면

창쌀에 요렇게 만저**봐서** 몬:지만 하나 있으믄 막 때:리구

-어야/아야~어얘

그 땐 내 나이만큼 사는 사람이 다섯명이 있**어야** 그 때 끄:내 보는 거야

홍기를 뽑**아야** 좋은 건데 <한.63>

두: 살이나 세: 살쯤 들: 먹**어얘** 색시가 그래야 좋아

-어야지/아야지~어얘지~어이지

기술이 있든지 학식이 있**어야지** 어디가 돈:을 벌지 않어?

기집애 적에 저고리 지어 노믄 팽 돌**아야지** <한.62>

떡을 해두 절구가 있**어얘지** 허지

가만히 놓구 자**이지** 잘 든다 <한.45>

-어다가/아다가

그걸 한국사람들이 줏**어다가** 돌아

그것들 사**다가** 먹느라구 냄빌 들구 댕기구 이랬지

-(으)믄≪自≫~(으)먼≪自≫~(으)면≪質≫

밥허기 싫**으믄** 나가서 외식허자 그러구 사먹으니

그째는 유월에만 딜이**먼** 고만이었어 <한.45>

부:교장이면 원교장썬생님에 시키는 대루 해야 허는 건데

-(으)면섬(~(으)믄~(으)면, (으)면서~(으)면서럼)

끌:구 댕기면섬

애:길 허믄 밥 먹는 걸 보구

끌:구 댕기면 데이트두 해 보구

밤나 앓아가면서 제절루 빠졌어 <한.168>

맷돌에다 갈어 쌀을 물을 부어 가면서럼 <한.115>

-(으)나 — -(으)나

잘 사나 못: 사나

-(으)니까, -(으)니깐~(으)니까는

이젠 늙으니까 (손가락뼈가) 기어 올라요

임:금님 마:나님에 오라버니니깐 임금님한테 고종황제에 처남이지

그걸 일쩨히 눌:르니까는 그 풍선이 공중에서 …

-(으)ㄹ려구~(으)ㄹ랴구

가난해서 시집 안 갈려구 그러까 바서

반장 시킬랴구 했다가

-(으)라~(으)ㄹ라1

비지 먹으라 가

춤 추라 댕기구

댕길라 와 보니까

-(으)랴 — -(으)랴

스물세식구 그 빨래허랴 옷 해 입히랴

-(으)니

(빼:쓰 기사들은) 오줌이 마려우니 제 시간에 눌 쑤가 있어?

딸을 또 났으니 딸이 삼형제가 됐잖아 <한.125>

-(으)ㄹ테니깐

형들이 뺏:어 먹으믄 내가 한 푼두 못: 먹을테니깐 그랬다 그러드래

-(으)ㄹ텐데

장:갈 **갈텐데** 옷이 업써어 못: 가믄

-(으)려니~(으)ㄹ래니

매붓집에 와서 얻어 먹구 **있으려니** 그저 그럴 밖에 <천.17>

또 **주려니** 허구 가만이 있대

나는 눈만 뜨믄 남으 바느질을 해가주구 생활을 **헐래니** 얼마나 …

-(으)ㄹ라2

회:사에서는 또 더 **먹을라** 그러지

-(으)ㄹ라구

도둑놈 **잡을라구** 섰는 거구

옹길라구

-(으)ㄹ래다

어떤 때 밥 **먹을래다** 또 몰:르구 이빨일 안 끼믄 또 일어나서 찾구

-(으)ㄹ래믄(~(으)ㄹ래면~(으)ㄹ래며는)

불려서 갈어서 **쑬래믄** 힘들지

식구 많:으면 잔치를 **헐래면**

지게에다 많:이 **담을래며는** 그걸 올려 놓구서 그 워다

-(으)ㄹ른지

죄:가 **될른진** 몰:라두

-(으)래니

좁쌀겉은 거 다: 적어 **오래니**

-(으)래니까

일본싸람이 들어와가주구 머리 **깎으래니까** 모두 욕을 허구 안 깎었지

-(으)까

비가 오믄 또 그 갓이 **젖으까** 바

그릇이 **깨:지까** 바서

3. 전성어미

-든

옛:날에 보든 과일은 하나두 업써어

-는

그전엔 그렇게 잘르는 사람이 많:은데

-(으)ㄹ

댕길 때

젊었을 때

-(으)ㄴ

좋은 사람 아이들 나오까 바

키가 큰 사람은

-기

놀:기 좋아허니깐 저이들 노:는 것만 알:지

4. 종결어미

4.1 허십시오체

-습니다/ㅂ니다

제가 내겠습니다(1 제보자→시아버지)

줄(귤)이 답니다!(감탄)(1 제보자→시아버지)

아마 문전을 치나 봅니다(귀돌 어멈→한약방 주인) <천.120>

-습니까/ㅂ니까

가시겠습니까?(1 제보자→시어머니)

어디 다녀 오십니까?(1 제보자→시아버지)

-(으)십시오

앉으십시오(1 제보자 → 시아버지, 시어머니) <서 II>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시지 마**십시오**(1 제보자 → 시아버지)

-(으)ㅂ시다

가**십시다**(사위 → 장모)

4.2 해요체

-(으)세요

누: 집을 찾**으세요**?(1 제보자 → 초면인 할머니)

아씨 … 허**세요**(행랑어멈 → 젊은 새댁)

-는군(뇨)/군(뇨)/로군(뇨)

그 부인되는 이가 아주 반은 미쳤**다는군요** <천.306>

줄이 달**군뇨**! (사위 → 장인)

근화 식당요? 그럼 바루 우미관 옆이**로군요**(시골사람 → 재봉이) <천.451>

-조

(시간이 있으믄) 신문 읽**조**(1 제보자 → 조사자)

-어요/아요~에요

굶어 죽어두 먹기 싫으믄 어뚷게 먹**어요**?(젊은 1 제보자 → 시아버지)

글쎄 괜찮**아요**(한약국집 며느리 → 남편) <천.248>

아까 목욕 갔**에요** (칠성 어멈 → 이쁜이母) <천.37>

4.3 허우체

-다우/ㄴ다우/는다우/라우

잘 있**다우** 그래 노형들두 편안히 계셨오?(손 주사 → 기미꼬) <천.481>

헤, 헤, 인젠 안 **논다우**(점룡이 → 점룡이母) <천.487>

이게 한 자 사십 전짜리 교직이**라우**(이쁜이母 → 점룡이母) <천.16>

-(으)ㅂ디다

기생에두 개 딸을 넌 없겠**읍띠다**(점룡이母 → 이쁜이母) <천.17>

혹딱혹딱 잘 맨들**읍디다** 테레비서 보믄([1] 제보자 → 조사자)

지끔은 병:원으루 전부 **갑디다** 집이서 죽어두([1] 제보자 → 조사자)

-(으)ㅂ디까?

빨래 공짜루 허는 줄 알었**읍띠까**?(김첨지 → 24세 여편네) <천.12>

-(으)우/유

앉으우

아들이 군인을 나가두 … 바느질만 **허우**?(아들친구母 → [1] 제보자)

나가지 **말우**([1] 제보자 → 70대인 조카)

이거는 핵교서 선생님이 적어 오래는 **거유**?([1] 제보자 → 조사자)

-(으)ㄹ라우?~(으)ㄹ랴우?~(으)ㄹ래우?

일:만 하다 **죽을라우**?(동네 할머니 → [1] 제보자)

떡방아 좀 오늘 쩨: **줄랴우**?(젊은 [1] 제보자 → 삯꾼 아주머니)

한 번 들어 **볼래우**?(동네 할머니 → [1] 제보자)

4.4 허게체

-게

이것 좀 **들게**([2] 제보자 → 조사자)

-나?/-(으)ㄴ가

어디 **가나**?(장인 → 새신랑)

모기장이나 그렇게 **흔한가**? <한.101>

홍 그게 어디 **쉬운가**?(손님 → 이발사) <천.306>

요건 화:룬가?

-게나

앉게나

-네1

알았네(2 제보자 → 사위)

-(으)ㅁ세

내가 냄:세(장인 → 사위)

-(으)세

가세(2 제보자), (다같이서) … 부귀공명하세

고마우세(2 제보자)

-(으)ㄹ쎄

줄줄이 보석일쎄

-(으)ㄹ쏘냐

가는 청춘 잡을쏘냐 오는 백발 막을쏘냐

구구팔십 사:는 인생 어느 누가 반길쏘냐

4.5 해체(반말체)

-네2

(서울꺼리가) … 좋아졌네 괴:뢰군이 간: 데 없네

-데

이 집이 오니까 짬자리가 많:이 댕기데(1 제보자 → 조사자)

-대/래

들기름은 사:람헌테 이:허대(1 제보자 → 조사자)

딴 사람이 또 죽어야 나오는 거래(1 제보자 → 조사자)

-드래

자기 남편이 칠남맬 놓구서 과:부가 됐는데 쩔쩔 매:겠드래(1 제보자 → 조사자)

-게?

그럼 아이가 늦었게?(① 제보자) 네, 늦었어요(조사자)

-(으)래

눌:르래(① 제보자 → 조사자)

-(으)ㄹ래?

학생 나 뭐:쫌 물어보께 가르처 줄래?(① 제보자→모르는 고등학생)

-거든~거덩

얼굴은 얌전:허게 생겼는데 맨: 피가 끌어나오거든(① 제보자→조사자)

옛:날에는 병:원두 업ㅆ:구 약국두 업ㅆ거덩(① 제보자→조사자)

-지

산꼭대기를 산마루라 그르는 게지(① 제보자→조사자)

-는데/(으)ㄴ데

(비옷이) 팔 전 꼴두 채 못 된다나 보는데(칠성 어멈→이쁜이母) <천.4>

그:리마는 기:다런데?(① 제보자→조사자)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허든 사람인데(① 제보자→조사자)

-든데

그 눔 심통 나믄 무섭든데(① 제보자→조사자)

-어/아/야

옛날엔 뭐 옷:이나 그렇게 많:어?(① 제보자→조사자)

넌 몰:라? 난 몰라(① 제보자→二男)

할아범 이리 와:(① 제보자의 손윗 동서들→행랑어멈, 행랑아범)

국간장이 짠 간장이야(① 제보자→조사자)

이렇게 버:쩍 부:자가 된거야(① 제보자→조사자)

-어야지~어얘지~어이지

남자두 다: 머릴 따니까 기름을 발러야지(① 제보자→조사자)

난 팔짜대루 쓸어얘지(① 제보자→조사자)

아무튼지 솥으루 하나 뷔이지 <한.97>

4.6 해라체

-드라

물이 맑구 좋:드라

-자

가자([1] 제보자→二男)

-느냐/(으)냐?

은:제 여기꺼정 그걸 들구 오느냐구

얼굴은 고운데 왜 손이 나무 장수 겉으냐구 그러지

이게 무슨 자(字)냐 그러구 물어 보지 <한.40>

-는구나/구나/로구나

사:방에서 모여드는 인굿수는 사:천만이 넘:는구나

줄(귤)이 달구나! ([1] 제보자→二男)

달팽이가 집 속에서 인제 꿰저 나오는 거로구나

-는다/ㄴ다/다

먹는다 그러지

어디 간다 그르구

일본싸람이 고:맙다 그래

뭐어니 뭐어니 해두 호강은 늬가 지일이다 <천.18>

-어라/아라/나라

너는 냉:장고에 사과 갖다 먹어라([1] 제보자→二男)

씨렁씨렁 허구 와라([1] 제보자→二男)

빨리 갔다 오나라([1] 제보자→二男)

-(으)니?

소리가 나니?([1] 제보자→二男)

왜 안 먹니?([2] 제보자)

많:이 놓구 삶으니?

무거우니?

-(으)께(~(으)ㄹ께)

내가 빵: 또 사가주 오께

내 예서 기다리구 있으께(민주사→아들) <천.316>

내가 낼께(1 제보자→二男)

-(으)렌

너이들이 신식을 따러 보렌?(시어머니→며느리)

-(으)마

내가 내:마

<Abstract>

Phonology of Seoul Dialect

Yoo, Pil-J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honological and morphonological aspects of Seoul dialect.

The second chapter presents phonemic inventory, phonological systems and phonotactics of this dialect. There are 19 consonants(p, p', p^h; t , t', t^h; s, s'; ʨ , ʨ', $ʨ^h$; k, k', k^h, m, n, ŋ; r, h). Obstruent 'X' is usually called lenis. ' X' ' means glottalized sounds and 'X^h' means aspirated ones. Vowels can be described into two groups : monophthongs and diphthongs. There are 20 monophthongs(i, e, ɛ, ü, ö, ɯ, ʌ, a, u, o + its corresponding long vowels) and 20 diphthongs(je, jɛ, jʌ, ja, ju, jo ; we, wɛ, wʌ, wa + its corresponding long ones). But not all phonemes can be found any places within syllbles. For example in the syllable final position we can find just seven consonants(p, t, k, m, n, ŋ, r). The class of consonants can be divided into a number of sub-groupings on the basis of their manner of articulation. The first division is obstruent vs. sonorant. The class of obstruents can be further subdivided into stops(p, p', p^h; t , t', t^h; k, k', k^h), fricatives(s, s'; h) and affricatives(ʨ , ʨ', $ʨ^h$) again on the basis of stricture type. The class of sonorant consonants can be subdivided into nasals(m, n, ŋ) and liquid(r). We have five places of articulation for consonants : labial, dental, palatal, velar and glottal. There is three-term classification system for vowels. We talk of vowel height as high, mid and low. Vowels can be classified

horizontally as front and back. The third classification is about the attitude of the lips, which are either round or unround. There are many constraints on the combinations of phomenes. 'lenis stop + lenis, nasal + r, r + n, obstruent + nasal, non-velar + velar, r + lenis dental and palatal(only in Sino-Korean words)' are impossible sequences. 'labial + ɯ, ü, ö' is impossible and the sequences of 'labial + wV' are less natural. All consonants are restricted before 'jV'. Within the morpheme only a few vowel sequences are allowed. ① o – i, (ɯ) ② a – o·, u, ü, i, (ɯ) ③ ɛ – <o>, u ④ ö – (o), a, (u) ⑤ u – a, <ʌ>, ü · i ⑥ ʌ – <a>, u, ü, i, (ɯ) ⑦ e – <a>, u, (ɯ) ⑧ ü – u, <ʌ> ⑨ i – <a>, u, (ɯ) ⑩ ɯ – a, i.

The third chapter presents the phonological forms of stems and endings. It is possible to classify stems and endings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ways in which alternants are attached to each other. We find three kinds of endings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first sound of the endings : endings which begin with consonant, vowel and binding vowel 'ɯ'. To sum up the stem final consonant system is as follows.

<Noun>		<Verb>	
p s (ʨ) k	(rp,rs' > r)	p t s ʨ k	ps'
↑ ↗↖ ↑	(rk > k)	s' k'	
p^h t^h → $ʨ^h$ k^h	(ps' > p)	p^h t^h ($ʨ^h$) h	
(k')	(ks' > k)	m n	nʨ , nh
m n ŋ		r	rp, rm, (rt^h), rk, rh
r			

In the case of noun stem, we can find restructuring especially when stem final consonants are obstruents. '→' shows the direction of changes.

Stem final vowel system is as follows.

i i:	ü ü:	ɯ	u u:
e e:	ö ö:	ʌ	o o:
ɛ ɛ:		a a:	

<Noun>

i i:	ü ü:	ɯ	u u:
↑ (e:)	ö ö:		o o:
ɛ ɛ:		a	

<Verb>

For stem final vowels, restructuring can be found in verb stems in contrast to stem final consonants. Restructuring caused mid-non round vowels to be empty. There are many types of verbs which show irregular morphophonemic patterns : h(A), h(B), h(C), p(A), p(B), t(A), t(B), rɯ, (rʌ).

The fourth chapter discusses phonological processes which derive surface forms from basic form. Phonological processes such as syllable final unreleasing,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obstruents glottalization, nasalization, lateralization, coalescence, velarization are found between consonants. Main phonological processes between vowels are deletion, desyllabification of 'i, ü, u, o' and 'j' insertion. Such phonological processes as 'h' deletion, 'w' deletion, 'n' insertion, palatalization, labialization are also studied. Some phonological processes are motivated by phonotactic rules. These processes can be characterized as being conditioned purely by the phonetic environment so they can be applied between words.

Finally the fifth chapter summarize briefly the topics discussed and presents further direction.

Key words : Seoul dialect, phonological system, stem final consonants and vowels, restructuring, basic form, phonological process

서울방언의 음운론

초판 1쇄 인쇄 • 2006년 12월 11일
초판 1쇄 발행 • 2006년 12월 15일

지은이 • 유 필 재
펴낸이 • 박 성 복
펴낸곳 • 도서출판 月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252-9
등록 • 제6-0364호 / 등록일 • 1998년 5월 4일
대표전화 • (02) 912-5000 / 팩스 • (02) 900-5036
http://www.worin.net

© 유필재, 2006

ISBN 89-8477-343-3 93710

값 16,000원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